

국립국어원 2013-01-06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451-01

국어 진흥 운동의 이론적 기반 연구

연구 책임자: 주경희(세종대학교)

국립국어원 2013-01-06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451-01

국어 진흥 운동의 이론적 기반 연구

연구 책임자: 주경희(세종대학교)

공동 연구원: 김슬옹(한글학회)

이승연(세종대학교)

김일환(고려대학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어 진흥 운동의 이론적 기반 연구’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따라서 연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3년 9월 16일

연구 기관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주경희 (세종대학교)
공동 연구원	김슬옹 (한글학회)
	이승연 (세종대학교)
	김일환 (고려대학교)
보조 연구원	정운규 (세종대학교 박사과정)
	윤성은 (세종대학교 석사과정)

국어 진흥 운동의 이론적 기반 연구

이 사업은 국어 진흥 운동에 이론적 기반이 필요함을 논하고 그 이론이 갖출 속성에 대해 기술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국어 진흥 운동의 실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국어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처해 있다. 공공 기관의 난해한 언어 사용을 비롯하여 방송 언어의 저속화, 욕설이 일상화된 청소년 언어, 외국어 남용 등으로 인해 국어 경시 풍조가 심각하다. 이와 같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어 진흥 운동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기존의 국어 운동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지금까지의 국어 운동이 이론 기반이 결여된 채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론적 기반이 결여된 국어 운동은 ‘언어 사용의 문제 인식’, ‘문제 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문제의 원인 분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방안 제시’와 ‘실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고 일관된 수행을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또한 지금까지의 국어 운동이 주로 ‘언어 사용에서의 문제 제기’와 ‘문제 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등에만 머물러 있었으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학문적,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국어 운동이라기보다 사회적, 정치적 목적을 지닌 운동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것 역시 국어 운동이 이론적 기반 없이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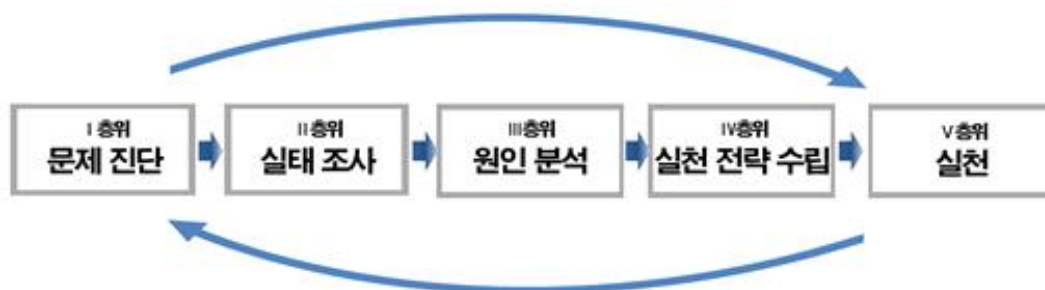
실제로 과거의 국어 운동은 그 필요성과 방법론에 있어 다분히 시대적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국어 운동가들은 앞선 운동가들의 주장을 그대로 이어받거나 개인적인 신념에서 우러난 주장을 하면서 국어 운동에 참여해 왔다. 그 결과 국어 운동가들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설득력 있고 타당하게 설명하거나 포용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국어 운동이 소수의 열렬한 지지와 참여 그리고 또 다른 소수의 강한 반대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쪽에도 설득되지 못한 대다수는 침묵하거나 무관심하게 되었다는 점은 국어 운동 분야에서 성찰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민족’, ‘고유어’, ‘순수 국어’에 집중된 과거의 국어 운동은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한국어에서 일본어의 잔재를 몰아내었으며, 한글 전용으로 표기를 통일했다

는 점에서는 귀중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민족’과 ‘순수 국어’는 국어 진흥 운동을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될 수 없다. 오늘날의 국어 진흥 운동은 ‘소통’을 대원칙으로 하며 ‘담화 상황 사용 제약 조건에 따라 국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어 운동이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실천적 면모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어 사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인식하는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도출해 내는 단계까지 모든 과정이 일관성 있는 이론에 의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질 때 국어 진흥 운동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고, 관련된 다양한 분야, 가령 국어 교육, 언어 정책을 비롯하여 기타 인접 학문(언어학, 철학, 심리학, 사회학 등)과의 융합 속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국어 진흥 운동의 이론 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이러한 이론 모형에 맞춰 ‘육설’과 ‘방송 언어’에 관한 연구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공적 언어’로서 담화 사용 제약 조건이 강한 방송 언어에 대해서는 I층위에서 V층위에 걸쳐 충실히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담화 사용 제약 조건이 상대적으로 약한 육설에 관한 연구는 주로 II층위에 연구가 집중되고, IV층위 이상에 속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이론을 바탕으로 신문 기사 코퍼스를 분석한 결과 국어 운동의 스키마 역시 II~III층위에서 머물러 있음이 파악되었다.

국어 진흥 운동은 언중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디지털 시대로 불리는 현대의 언중은 감성적이며, 흥미로운 일이라야 집중을 한다. 의사표현을 함에 있어서는 언어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 양식을 활용한다는 점도 그들의 특징이다. 따라서 국어 진흥 운동에 디지털 세대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이는 국어학자, 국어 운동가, 정책 담당자들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디지털 콘텐츠 개발 전문가, 스토리텔링 전문가들과 함께 융·복합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가능해질 것이다.

Research on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Language Advancement Campaign

This project discusses the need for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Language Advancement Campaign and describes the attributes needed to equip this idea and based on these concepts, aims to explore the practical direction of the Language Advancement Campaign. Through the issues of public institutions and public broadcasting as well as the use of abusive language by the youth and the general overuse of English, the reality of today's Korean language is that neglect has become severe making the Language Advancement Campaign an urgent ma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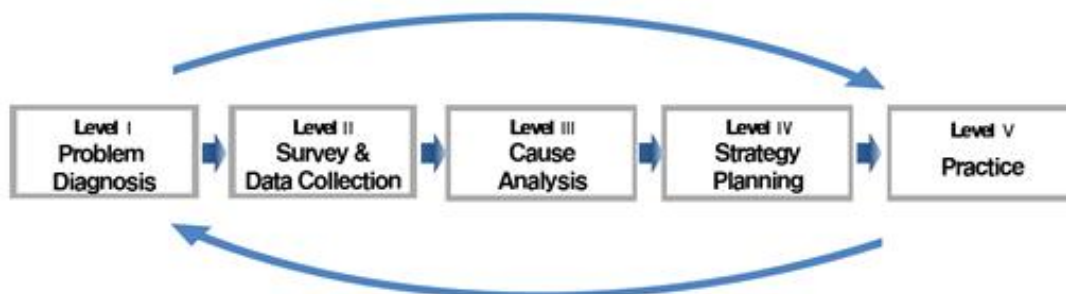
That the existing Korean language campaign has been promoted on the basis of specific theoretical views cannot be seen. The lack of theory-based language movement has led to a continuous stream of campaigns such as 'The Awareness of Language Use Problems', 'Survey on the Situation of Problems', and 'Action Plan for a Resolution' and the lack of consistent performance could be considered the rationale for this.

Due to this, the campaigns up to the present have generally been error correction and situational error analysis and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a concrete and realistic action plan has yet to be created. Before rather than success in practical and academic terms, societal and political objectives that did not have a theoretical approach were instead promoted. In fact, in past language campaigns the necessity and methodology were influenced by the time period while the advocates followed the same arguments as their predecessors or participated in movements profoundly asserted from their own personal beliefs. As a result, language advocates were faced with compelling opposing arguments without the ability to either explain or embrace them. This problem resulted in a small minority of campaign supporters meanwhile another small group of intense opposition was inevitably formed. And in these circumstances, the fact that the majority who was not persuaded by either side was either silent or became indifferent can be said to be one of the areas of the language movement that needs to be reflected upon.

The movements of the past which have focused on ideas such as nationalism, native language, and ‘pure’ Korean in order to improve the nation's pride and steer away from remnants of Japanese have achieved valuable results exclusively in the sense of unified notation. However, the promotion of a ‘national’ and ‘pure’ language can no longer be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campaign. This is because today's language campaign must be devoted to creating seamless communication with the principle of conversation under situational discourse constraints.

In order to gain public involvement and strengthen the practical aspects of the Language Advancement Campaign, all the parts of the process must be deliberately planned to be consistent with theory, from the stage of recognition of issues that arise from language use to the development of detailed and specific action plans. When these conditions are satisfied, the language campaign can succeed and in a variety of related areas such as language education and policy and with convergence with other neighboring disciplines such as linguistics, philosophy, psychology, sociology, etc., new results can be achieved.

The model theory of the language advancement movement is as follows.



The research results from studies examining profanity in broadcasting language with this theoretical model about the language discourse restraints used for strong broadcasting language were performed fully from level I to level V, while comparatively discourse constraints used in the research on light profanity were mainly focused at level II and we were able to find that in this case locating research above level IV was difficult.

In addition, based on this theory the analysis of a corpus of news paper articles showed that the language movement's schema remained in levels II-III.

It is necessary that the Language Advancement Campaign receives widespread support. Specifically, the modern day audience referred to as the digital generation is emotional and

things must be interesting in order to catch their focus. One of the special features of this generation is that in order to express themselves they don't just use language but a variety of information to communicate. Thus, in order to get the digital generation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ampaign, ways to appeal to their interests must be sought. While this will not be possible with solely the efforts of language scholars, advocates, and language planners, with the help of expert storytellers it is possible to solve this complex and challenging problem.

목 차

1.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 목적	3
2. 국어 진흥 운동의 필요성과 접근 전략	5
2.1. 국어 진흥 운동의 필요성	5
2.2. 국어 진흥 운동의 접근 전략	8
3. 국어 진흥 운동의 개념과 범위	10
3.1. 국어 진흥 운동의 개념	10
3.2. 국어 진흥 운동의 범위	12
4. 국내 국어 운동사 검토	17
4.1. 국어 운동의 개념	17
4.2. 국어 운동의 대상	19
4.3. 국어 진흥 운동에 대한 시사점	21
4.4. 국어 운동과 국어 진흥 운동의 구체적 적용 전략: 공공언어 문제	44
5. 국외 자국어 운동 사례 검토	58
5.1. 주요 국가별 자국어 운동 사례	59
5.2. 국어 진흥 운동에 대한 시사점	65
6. 국어 진흥 운동의 이론적 기반과 실천 전략	67
6.1. 국어 진흥 운동 이론의 속성과 방향	68
6.2. 이론 모형 설정	76
6.3. 이론 모형 점검	81
6.4. 실천 방안 모색	98

7. 결론	109
[부록] 대규모 신문 기사에 나타난 국어 운동 관련 자료의 구축과 분석 ..	116
1. 국어 운동 관련 신문 기사의 구축과 유형 분류	116
2. 국어 운동 관련 자료 구축 방법	137
3. 국어 운동 관련 신문 기사의 내용 분석	146
참고 문헌	177
참고 자료	181

<표 목차>

<표 1> 초·중등 국어 관련 수업 시수 현황	2
<표 2> 「국어기본법」의 주요 내용	7
<표 3> ‘국어 운동’ 관련 실무 자료집	31
<표 4> <우리말 도로 찾기> 순화 결과 분석	33
<표 5> 국어 운동사 시대별 요약	41
<표 6> 공공언어의 영역, 유형, 출현 형식	45
<표 7> 공공언어 개선의 경제적 기대 효과	47
<표 8> 공공언어 평가 기준안	48
<표 9> 공공기관 언어 사용 등급	49
<표 10> 욕설에 관한 학술 기사	82
<표 11> 방송 언어에 관한 학술 기사	85
<표 12> 방송 언어의 평가 기준	91

<그림 목차>

<그림 1> 국어 진흥 운동의 이론 모형	77
<그림 2> 국어 진흥 운동의 이론 모형 적용 - 욕설	83
<그림 3> 국어 진흥 운동의 이론 모형 적용 - 방송 언어	90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국립국어원은 2013년도 주력 사업으로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1) 국립국어원은 쉬운 공공언어, 품격 있는 방송 언어, 존중과 배려의 언어문화 조성을 위해 문체부 국어 정책과, 국어 운동 단체, 우리말 사랑 동아리, 공공 기관, 방송사, 청소년 및 일반 국민과 힘을 합쳐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운동을 벌이고자 한다. 아름다운 한국어의 실현은 국민 각자의 의식 개혁과 가정에서의 노력이 바탕이 되어 이루어지므로 개인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각자의 언어 행동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점을 찾아내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실천 항목을 작성하여 이행하는 등의 행동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2013.04.12.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누리집(<http://areumkorean.or.kr>)

위의 내용을 국립국어원의 ‘2013년 사업 계획 발표 자료’를 통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¹⁾, 관공서에 게시되어 있는 ‘도네이션 스킴’, ‘아웃리치 활동’ 등과 같이 난해한 언어들, 욕설과 유행어가 난무하고 있는 방송 언어, “커피 나오셨어요.”, “1000원이십니다.”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업 종사자의 언어, 그리고 욕설과 비속어의 과도한 사용으로 타인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를 찾아볼 수 없는 청소년 언어를 중점적인 개선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 배경에는 오늘날의 국어 경시 풍조의 심각성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영어 사용 권장 분위기가 국어 경시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초중고 영어 시간 늘리기, 입시 및 취업에서 영어 능력 우수자 우대, 영어 특구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영어 중심의 분위기는 오히려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 2009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과 이를 보완한 2011 교육 과정은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줄이고 획일화된 학교 교육을 지양하여 학습 기회를 다양화한다는 명목 아래 과목 수를 줄이고 집중 이수제를 도입하여 개별 학교의 교육 과정 편성 권한에 자율성을 주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오히려 국·영·수 등 입시 위

1) 국민일보(2013년 4월 16일자) “국립국어원 우리말 가꾸기 나선다”, 뉴시스(2013년 4월 16일 자) “국립국어원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무엇을 어떻게?” 등 보도 자료 참고.

주 과목의 비중이 높아지고 소위 비주류 과목의 수업 시수가 줄고 있다. ‘국, 영, 수’ 가운데서도 ‘영, 수’ 위주로 수업 시수가 늘고 있는 것이다. <표 1>과 같이 초등에서 중등으로 올라갈수록 수업 시수가 줄어드는 것도 국어 경시 풍조에 한몫을 한다.

<표 1> 초·중등 국어 관련 수업 시수 현황(김문오 외 2013: 68)

학년 과목	공통 교육 과정									선택 교육 과정			총계 (단위: 시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국어	448		408		408			442			255		1,961
영어		·	136		204			340			255		935
기타 외국어 및 한문		·		·		·		102*			136*		238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에 204시간이 배정됨. 4개 교과 중 2개 교과 이상 개설해야 하므로 제2외국어와 한문이 2분의 1이 개설된다고 가정할 경우 102시간으로 산출됨.)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에 272시간이 배정됨. 배정된 시간상 4개 교과 중 3개 교과 이상 개설해야 할 여건인데, 제2외국어와 한문이 2분의 1이 개설된다고 가정할 경우 136시간으로 산출됨.)		
총계	448		544		612			884			646		3,134
언어 교과 중 국어 비율	100%		75%		67%			50%			39%		63%
연간 총 수업 시간 수	1,680		1,972		2,176			3,366			3,468		
전체 과목 중 국어 비율	27%		21%		19%			13%			7%		

더욱이 지차제마다 영어 마을, 영어 특구에 대한 지나친 투자와 대학가의 한글 표기 논문의 몰락 등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유재원 2010 참조).

공공언어에서조차 외국어, 외래어 선호 분위기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 2010년에 국립국어원이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맘프러너2)’, ‘마이크로크레딧’, ‘바우처’ 등과 같은 어려운 행정 용어를 사용

2) 맘프러너 창업스쿨은 서울시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2008년 9월 맘프러너 창업스쿨 누리집 (<http://edumom.seoul.kr>)을 열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맘프러너’란 ‘엄마(Mom)’와 ‘기업가(Entrepreneur)’의 합성어이다(장후석 외 2010: 38).

함으로 인해 손실되는 비용은 1년에 약 114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다음으로는 시대 변화에 따른 국어 사용 능력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모바일 기기가 발전함에 따라 문자를 통한 소통이 필수 요소이다 보니 단문 위주 문자 생활이 이어지고 이는 작문 능력 부족 등의 국어 사용 능력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현대 국어 문제는 단순한 소통 문제를 넘어 경제 손실, 근본적인 국어 능력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 공감하며 (1)과 같은 사업을 포함한 국어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언어 사용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각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의 대원칙을 담고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될 때 국어 사용의 문제를 아우르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1.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우선 국어 진흥 운동의 필요성을 살피고, 그것을 추진하는 전 과정에 ‘이론’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힐 것이다. 또한 국어 진흥 운동의 바탕이 되는 이론이 지녀야 할 특성을 기술하고, 이론으로부터 실천 방안을 도출해 내는 과정을 하나의 모형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이는 국어 사용의 문제 인식에서부터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까지의 전 과정이 하나의 이론을 기반으로 할 때, 보다 일관되고 현실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판단을 근거로 한다. 그동안의 국어 운동이 이론에 입각한 논리적 주장이 아닌, 당위성을 강조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주장에 바탕을 두었다는 비판을 보더라도 이제는 각 분야에서의 국어 진흥 운동을 이끌어 가고 아우를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운동’은 ‘실천적 행위’를 수반하므로 어떠한 운동의 바탕이 되는 이론은 이로부터 도출될 ‘실천의 내용과 방법’을 함의해야만 한다. 따라서 국어 진흥 운동의 이론적 근거 역시 각종 국어 진흥의 실천적 활동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 국어 운동에 관심이 적었던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고, 그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는 국어 진흥 운동의 이론적 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한다.

- ①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국어 운동(국어 순화 운동, 한글 전용 운동, 우리말로 찾기 운동 등)에 대해 살펴보고, 기존 국어 운동의 실천 방안이나 전략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 ② 국외의 자국어 운동 사례를 조사하고, 이러한 운동의 성패에 작용한 요인들을 검토한 뒤 특히 성공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조건들을 국어 진흥 운동 추진의 선결 과제로 삼는다.
- ③ 문헌 고찰을 통해 국어 진흥 운동의 이론이 마련되어야 함을 밝히고 그 이론 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한 뒤 ‘육설’과 ‘방송 언어’라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적용하여 실천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보이도록 한다.
- ④ 국어 운동에 관한 연구 및 실천이 완성도 면에서 영역 간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밝히고 남은 과제를 제시한다. 즉, 방송 언어에 관한 연구 및 실천과 청소년 언어에 관한 연구 및 실천이 완성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밝히고, 부진한 영역의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한 뒤, 각 영역에서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을 찾아보기로 한다.

2. 국어 진흥 운동의 필요성과 접근 전략

2.1. 국어 진흥 운동의 필요성

국어 진흥 운동의 필요성은 바르지 못한 국어 사용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한글문화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발표된 14개 정부 부처 2,869건의 보도 자료에서 국어기본법을 위반한 사례는 총 12,895건이며, 1건의 보도 자료에서 평균적으로 4.49번 위반했다고 하였다(한글문화연대 2012년 공공언어 보고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는 공공언어 사용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공공언어 분야의 이런 언어 현실을 방치할 경우 매우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 첫째, 공적 영역의 소통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공공언어는 공적 소통의 대표적인 담화 현상이다. 특히 공공 기관에서 국민들이 잘 모르는 용어를 남발할 경우 이는 국민과의 소통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어기본법을 떠나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헌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다.

둘째, 천문학적 경제 손실이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2010) 자료에 의하면, 생소한 정책명을 알기 쉬운 용어로 개선할 경우 첫해에 34억 원, 1년 후 68억 원, 그 후 연 102억 원, 이를 순현재가치법에 따라 계산하면, 5년간 354억 원, 10년간 716억 원, 20년간 1,238억 원, 그리고 무한 지속되는 경우에 총 2,085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였다. 이를 뒤집어 보면 어려운 공공언어를 개선하지 않으면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됨을 의미한다.

곧 공공언어는 국민과 두루 소통하기 위한 언어이며, 모든 정책의 기본 자료이므로 '표기와 표현의 정확성', '공공성', '정보성', '용이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김문오 외 2013: 49). 따라서 공공언어를 개선해야 공공 기관과 국민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적 손실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언어의 경제 문제는 국어 진흥 운동이 필요한 객관적 지표가 된다. 국어 진흥 운동은 국민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하는 문제이므로 총체적인 노력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이론 기반 연구가 절실하다.

우리나라의 어문 정책을 연구하고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국립국어원은 공공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 왔고, 그 결과물을 간행하여 해당 분야에 보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국립국어원의 연구보고서를 비롯한 간행물 총

1,450여 종 가운데 공공언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간행물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³⁾

- (2) 국립국어원(2012)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
- 국립국어원(2012) 방송의 저품격 언어 사용 실태 조사
- 국립국어원(2012)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1
- 국립국어원(2012)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2
- 국립국어원(2011) 한눈에 알아보는 신문언어 바로 쓰기
- 국립국어원(2011) 한눈에 알아보는 오락프로그램 언어 바로 쓰기
- 국립국어원(2011) 한눈에 알아보는 보도 자료 바로 쓰기
- 국립국어원(2011) 한눈에 알아보는 오락 프로그램 언어 바로 쓰기
- 국립국어원(2011) 바르고 쉬운 공공언어: 공공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 과정 교재
- 국립국어원(2011) 보도 자료 쓰기 길잡이
- 국립국어원(2011) 신문과 방송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
- 국립국어원(2010) 알기 쉬운 신문 언어 환경 조성
- 국립국어원(2010) 예문으로 알아보는 보도 자료 바로 쓰기
- 국립국어원(2010) 공공언어 개선의 정책 효과 분석 1
- 국립국어원(2010) 공공언어 개선의 정책 효과 분석 2
- 국립국어원(2010) 한눈에 알아보는 신문 언어 바로 쓰기
- 국립국어원(2010) 계약서, 약관 등의 국어 사용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 국립국어원(2009) 한눈에 알아보는 공문서 바로 쓰기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립국어원에서는 공공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마다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공공언어의 범위가 매우 넓고 해결 과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쉽게 해결되지 않는 공공언어 문제는 국어기본법의 실질적 강화를 필요로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표 2>에서 보듯 국어기본법은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법 제정은 국어 사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이를 지키려는 의식과 노력, 철저한 감시, 그리고 실천 주체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국어 진흥 운동에서 특히 ‘실천’이 중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국립국어원 관련 발간물 목록을 확인한 결과 학술원 어문연구위원회부터 오늘날 국립국어원에 이르기까지(1883~2012년) 간행물은 총 1,450건에 달한다. 이 중 공공언어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2000년도에 ‘이런 말 실수 저런 글 실수 공문서’, ‘언론 외래어 순화 자료집’, ‘방송 언어 오용 실태 조사’, ‘바람직한 통신언어 확립을 위한 기초 연구’ 등의 일련의 간행물이 함께 발간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가장 최근의 연구로 볼 수 있는 2009년 이후의 간행물 목록만 제시한다.

<표 2> 「국어기본법」의 주요 내용(김문오 외 2013: 12-13)

분류	조항	주요 내용
‘국어’와 ‘한글’의 명시적 규정	제3조	국어는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이며 ‘한글’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임을 명시적으로 밝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지역어의 보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함.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위한 국어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함.
	제8조	정부의 국어 발전과 보급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결과 등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2년마다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실태조사	제9조	국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함. 국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고 국민들이 국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어 정책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 의식, 국어 능력, 국어 사용 환경 등에 대한 자료의 수집 및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게 함.
국어책임관	제10조	공공 기관에 국어 진흥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 제도를 두도록 함
어문규범의 영향 평가	제12조	「국어발전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추진과 실적 평가, 국어 환경 개선 시책 추진, 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시행 등 국어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국어심의회	제13조	국어발전기본계획 수립에 관련된 심의 사항이 추가됨.
공문서 작성	제14조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국어 정보화 촉진	제16조	국어 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말판 마련
전문용어의 표준화	제17조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도록 함.
국어의 보급	제19조	재외 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자에게 일정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제19조의2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을 지원, 관리하는 중추 기구인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함. 세종학당재단 사업 추진에 필요할 경우 중앙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21조	국어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마련됨.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제2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균등을 위해 힘써야 함을 명시함.

국어능력의 검정	제23조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해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함.
국어문화원 지정	제24조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각종 상담에 응할 수 있는 국어문화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국어 진흥 운동의 이론적 기반에 대해 이 연구에서 의도하는 것은 ‘문제 진단 - 실태 조사-원인 분석 - 실천 전략 수립-실천’에 이르기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이론이다. 그동안의 국어 운동이 다섯 단계의 활동 중 특정 부분, 가령 ‘실태 조사’나 ‘원인 분석’ 등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각 단계에 맞는 이론을 복합적으로 응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국어 운동이 특정 이론의 영향을 받을 때 결과 도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킨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 다섯 단계를 완전히 수행하고, 또한 그 결과를 순환적으로 활용하는 이론 모형을 개발하고, 각 부분에서 논의되어야 할 내용들을 살펴볼 것이다.

2.2. 국어 진흥 운동의 접근 전략

이 연구에서는 국어 진흥 운동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접근 방식을 취한다.

첫째, 시대적 상황에 맞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우리나라 국어 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국어 운동의 대상이 ‘민족’ 혹은 ‘고유어’, ‘순수 국어’에 집중되어 있었다. 물론 이러한 관점에서의 국어 운동을 통해 우리 민족이 자긍심을 높이고, 한글로 표기를 통일하고, 일본어의 잔재를 청산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국어 사용 문제는 ‘민족어’, ‘고유어’의 사용과 ‘민족성의 회복’에 국한되지 않으며, 세대 간, 계층 간의 ‘원활한 소통’을 추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언중의 폭넓은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국어 진흥 운동의 기반이 되는 이론이 보편적이고 타당하여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국어 진흥 운동의 과정이나 층위에 대한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체계적이라는 말은 ‘문제 진단-실태 조사-원인 분석-실천 전략 수립-실천’에 이르는 일련의 활동들이 상호 관련성을 기반으로 조직적인 구조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어 진흥 운동의 이론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때 이와 관련된 분야 즉 국어 교육을 비롯하여 방송 및 신문 등 언론 매체와 공적 언어 사용에 관한 정책을 다루는 정책론, 그리고 인접 학문(언어학, 철학, 심리학, 사회학 등)에서의 학문적인 인식이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국어 진흥 운동의 이론적 기반을 세우기에 앞서 국어 진흥 운동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기존의 국어 순화 운동은 순우리말과 한자어 사용의 문제, 표기 수단의 문제, 외래어와 고유어 사용의 문제 등 국어 순화와 관련된 운동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성과도 중요하지만 국어 순화 중심의 운동에서는 언어생활의 총체성과 실제 언어 사용에 따른 통합 문식성을 반영하지는 못했다.

넷째, 국어 진흥 운동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우선 기존의 국어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어떠한 성과를 거두어 왔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또한 성과의 이면에 존재하였던 문제점과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앞으로 추진될 국어 진흥 운동의 방향을 바르게 수립할 수 있다.

다섯째, 국어 진흥 운동이 보편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자국어 운동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법률을 통해 자국어 사용을 규제하고 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를 우리의 국어기본법과 비교하여 본다. 또한 영국 및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쉬운 언어 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닌 ‘소통’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여섯째, 앞선 다섯 부분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국어 진흥 운동의 근간을 이루게 될 이론 모형을 개발하고, ‘육설’과 ‘방송 언어’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자료로 하여 모형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또한 국어 운동과 관련한 신문 기사의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모형의 실효성을 검토해 볼 것이다.

일곱째, 오늘날의 국어 진흥 운동은 디지털 시대, 즉 매체가 지배하는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상황에 맞는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도록 한다. 디지털 시대의 언중은 감성적이고, 흥미를 느낄만한 일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는 특징이 있다. 그들의 의사 표현은 국어만을 매체로 하지 않으며, 다양한 정보 양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국어 운동에서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의견에 기초한 구호와 주장이 가능했던 것은 시대적 배경이나 사회적 관심사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다양한 매체의 영향을 받는 현대인들에게는 이제 과거와 같은 외침만으로는 호응을 얻기 어렵다. 국어 진흥 운동은 문제 인식과 진단에서부터 실천에 이르는 전 과정이 타당하고 일관성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언중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해 내야 한다.

3. 국어 진흥 운동의 개념과 범위

3.1. 국어 진흥 운동의 개념

‘국어 진흥 운동’의 개념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에 앞서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의 의미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국어 진흥 운동에서의 ‘국어’는 유일하고 고정된 형태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국어는 ‘표준어’와 같은 균질적인 것이 아니며, 사용역에 따라 다양한 변이형태를 지니는 언어이다. 이러한 의미의 국어에 대해서는 (3), (4)에 잘 설명되어 있다.

(3) ‘국어’란 글자 그대로 한다면 한 나라의 말이라는 뜻이다. 언어는 반드시 국가 단위로 나뉘어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는 나라가 달라지면 언어도 달라지는, 즉 나라마다 그 나라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국어’는 그러한 각 나라 고유의 언어라는 뜻을 가질 법하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국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 말’이라는 한정된 뜻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어가 그 나라 고유의 언어라는 뜻으로 쓰인다면 ‘미국의 국어는 영어이며, 일본의 국어는 일본어다’와 같은 말을 써야 하는데 이럴 때 ‘국어’라는 용어는 생소하게 들린다. ‘국어’라는 용어가 그만큼 한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주로 ‘한국어’라는 뜻으로 ‘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어느 나라의 언어이든 그 나라 고유의 언어라는 뜻으로보다 ‘우리나라의 말’이라는 뜻으로 ‘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국어’는 ‘한국어’라고 바꾸어 불러도 꼭 마찬가지로 뜻을 지닌다. 별 문제가 아닌 듯하지만 ‘국어’가 ‘national language’의 뜻으로서가 아니라 ‘Korean language’의 뜻으로 쓰인다는 점은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우리는 자유롭게 ‘한국인의,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이라는 뜻을 함축한 ‘국어’라는 용어를 써도 좋고, 또 좀 더 ‘전 세계 언어 중 하나’라는 뜻의 객관성을 부여하여 ‘한국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이익섭 2000: 13).

(4) ‘한국어’는 ‘대한민국의 언어’를 뜻한다. ‘한국어’는 분류 준거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시대에 따라 고대어·중세어·근대어·현대어 등으로 나뉘고, 표현 수단에 따라 입말과 글말로 양분된다. 또한 용도에 따라 일상어와 문학어로 구분되고, 표준 여부에 따라 표준어와 비표준어로 나뉘지기도 한다. 그리고 연령 및 세대에 따라 10대어·30대어·50대어 등으로 구분되고, 사회 계층에 따라 상류 계층어·중류 계층어·하류 계층어 등으로 나뉘지기도 하며, 성별에 따라 남성어와 여성어로 양

분되기도 한다. 이 밖에 지역에 따라 서울 방언, 경기도 방언, 충청도 방언, 강원도 방언, 황해도 방언,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제주도 방언, 함경도 방언, 평안도 방언 등으로 나뉘기도 한다. (이석주·이주행 2007: 13-14)

(3), (4)에서의 논의를 정리하면 ‘국어’란 ‘한국어’와 같은 개념으로 ‘한국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그 성질은 동일하고 균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지역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는 이질적인 요소를 지닌 것’이다. 즉 국어는 ‘다양한 변이형태의 집합’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진흥’의 뜻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진흥’이란 ‘떨치어 일어남’ 또는 ‘떨치어 일으킴’(표준국어대사전) 혹은 ‘활발하게 일을 벌여 성하게 하는 것’(연세한국어사전)이라는 뜻으로, 정리하면 ‘활발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국어 진흥 운동’이란 ‘국어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번성하도록 하는 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어가 사용되는 장면을 ‘담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어 진흥 운동이란 ‘국어를 담화 상황에 따른 제약 조건에 맞추어 적절하고 풍부하게 사용하게 만드는 운동’이며, ‘담화 참여자들 사이에 원활한 소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운동’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 즉 국어를 담화 상황에 따라 적절히 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벌이고 있는 ‘아름다운 우리말 가꾸기’ 운동에서 해결 과제로 제시한 (5)의 문제점들과 관련지어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 (5) • **공공 기관의 난해한 언어 사용:** 공공 기관에서 외국어 등 난해한 용어를 사용하여 정책의 의도와 내용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 **방송 언어의 저속화:** 막말, 품격 낮은 언어 표현 등으로 인해 국민 언어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 **상업적 상황에서의 존대 표현 혼란:** 사물을 높이는 잘못된 존대 표현 확산으로 인해 언어 사용이 혼란스러워지고 우리말의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
- **욕설이 일상화된 청소년 언어:** 청소년층에서 욕설과 비속어 사용이 일상화되어 청소년 인성 및 교우 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불건전한 언어 행태가 확산되고 있다.

(2013년 국립국어원 사업 계획 발표 보도 자료 요약)

(5)의 내용은 모두 국어 사용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은 ‘내용적 층위(정보적 층위)’와 ‘관계적 층위’로 나눌 수 있는데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

해서는 두 층위에서의 소통이 모두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5)에 제시된 문제 상황들은 모두 내용, 혹은 관계 층위에서 ‘대화 참여자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가령 ‘공공 기관의 난해한 언어 사용’은 언중이 이러한 표현을 명확히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내용적 층위의 소통 장애이다. ‘존대 표현의 혼란’ 역시 내용과 정보 층위의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욕설이 일상화된 청소년 언어’나 ‘방송 언어의 저속화’는 관계적 층위에서 발생하는 장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국어 진흥 운동이 ‘국어 사용자들 사이의 올바른 소통을 위해 담화 상황에 따른 사용 제약 조건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운동’이라고 규정한 점에서, ‘아름다운 우리말 가꾸기’ 운동과 이 연구는 인식을 같이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국어 진흥 운동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자 한다.

- (6) ‘국어 진흥 운동’은 ‘국어 사용자들이 담화 사용 제약 조건에 맞는 적절한 국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의 내용적 층위와 관계적 층위에서 모두 성공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다.

그렇다면 국어 진흥 운동이 기존의 국어 운동이나 국어 순화 운동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국어 진흥 운동은 그 해결책이나 지향점을 국어 외적인 것이 아닌 국어 사용 조건 내에서 찾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차이로 들 수 있다. 가령 개화기부터 일제 강점기까지의 국어 운동이 ‘민족’, ‘계몽’, ‘애국’ 등의 사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점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국어 운동은 ‘소통’이 우선시되기보다 ‘민족성의 회복’, ‘애국심의 고취’라는 목적을 향해 추진되었다. 이는 국어 운동의 목적이 언어의 본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언어 외적인 부분에 목적을 두었다는 점에서 국어 운동의 참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언어의 기능 중 가장 본질적 기능인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이 국어 운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2. 국어 진흥 운동의 범위

국어 진흥 운동은 공적 상황의 언어에서 절실히 필요하다.⁴⁾ (5)에서 언어 사용의

4) 국어 운동은 흔히 국어 정책, 국어 교육과 함께 추진되므로 이들과 관련하여 용어 정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어 정책’은 ‘국어를 대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제도로 공포한 내용’으로 한정하고, ‘국어 교육’은 ‘국어 정책에 따라서 국어에 대해 각 급 학교에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문제가 발견되는 상황들이 사실상 모두 공적 담화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는 담화 상황에 따른 제약 조건이 느슨한 편이다. 그러나 소통 참여자가 같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상황에서는 더 강한 제약 조건 하에서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국어 사용 문제를 다룬 많은 연구가 공적 상황에서의 국어 사용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⁵⁾

(7) 현재 우리나라는 언어에 관한 한 고삐 풀린 말과 같이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학교 교육에서 언어 사용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사가 표준어와 표준 발음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부자연스러운 언어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하고 있다.

대중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방송과 신문에서도 잘못된 국어 표현을 걸러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특히 방송과 신문이 언어에 끼치는 영향력은 현대 사회에서 결정적이다. 특정인들이나 소수 집단에서 사용하는 유행어나 은어를 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출연자가 전파 매체를 통하여 대중에게 전파하는 상황이고 잘못된 문장도 문자 매체를 통해서 수없이 보게 된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들의 국어 생활에 작용하여 현대 국어는 자연스러운 국어 특성을 잃고 어떤 때는 비문법적인 표현으로, 어떤 때는 비속한 표현으로, 어떤 때는 외국어 같은 표현으로 나타난다.

언어학자들이 언어란 변한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수용하면서도 언어에 표준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까닭은,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목적이 의사소통에 있으므로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표준적인 잣대가 없을 경우 소통에 장애와 혼란을 주게 된다. 지금 국어의 사용 실태를 보면 혼돈과 오용으로 소통에 지장을 줄 지경에 이르렀다. (이석주 1998: 152)

(7)에서 밑줄 그은 ‘교사의 언어 사용 문제’나 ‘방송과 신문에서의 언어 사용 문제’는 모두 ‘공적 상황’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국 우리가 국어 사용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는 부분은 일상적이고 사적인 언어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8), (9), (10)에서도 이러한 생각이 잘 드러난다.

5) 공적인 상황이란 강의, 강연, 학술 논문의 발표, 토론, 뉴스 방송, 전문 서적, 학술 논문, 보고서, 법 조문, 기사문, 공문서 등에서의 언어 사용이다. 회의, 토론, 강의, 그리고 뉴스 방송 등은 입말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 입말은 글말에 가깝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글말과 입말의 구분은 유의미하지 않다. 노대규(1996)에서는 비격식적 입말, 격식적 입말, 비격식적 글말, 그리고 격식적 글말의 네 가지로 분류하지만 격식적 상황에서의 입말은 글말과 거의 차이가 없다. 이런 공적인 상황에서는 공식적인 장소존대와 예절을 갖추어 사용하거나 공식적으로 읽힐 것을 목적으로 기록하는 데에 사용하는 말(노대규 1996: 18-19)이다. 이런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일반적 어휘나 구체적인 표현보다는 전문적인 용어와 추상화된 표현이 많이 사용된다. 노대규(1996)에서는 구체적으로 음운·어휘·통사 층위의 공적 상황에서의 언어 사용 특성에 대해 설명한다.

(8) 현대 국어 표현 양상을 보면 그 변화가 극심하여 국어 표준어, 국어 표준 발음, 그리고 국어의 전형적인 문장 구조에서 벗어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이들의 원인은 일차적으로 바른 국어 사용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국어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분야(신문,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국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언어는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하기 때문에 규범을 정한다 해도 벗어나기 마련이다. 이렇기 때문에 바른 국어를 교육하고 알려져 국어 생활의 혼란을 막고 그래도 규범을 벗어나는 것이 있으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여과하여 새로운 현상으로 인정하거나 규범 속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 현재 상황처럼 둔다면 국어는 규범 안팎으로 제멋대로 들락날락하여 극심한 혼란 속에 휩싸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 지적했듯이 변화한 것 가운데 수용 가능하거나 수용이 불가피한 것은 인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것은 올바르게 사용하게끔 이끌어야 한다. (이석주 1998: 175)

(8)에서 필자는 언어 사용이 규범과 표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현상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이러한 원인을 밑줄 친 부분 즉, ‘교육’과 ‘신문·방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식 부족에서 찾고 있다. 이 역시 공적 상황의 언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이러한 분야에서의 국어 사용이 중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9) 우리 조선 사람은 대체로 필요 이상으로 외국어를 쓰려고 하는 폐풍이 있다. 이것은 결코 칭찬할 것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혹 배타적이란 오해를 받을는지 모르나, 이것은 배타가 아니오 자기를 지키자는 것이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가정에 있어서는 별문제이지마는 적어도 공식에 나서서 쓰는 말 즉 공용어로는 표준어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언어는 시대에 따라서 변천이 심하지마는, 동시대에 있어서도 지방에 따라서 역시 차이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언어가 단일하고 방언의 차가 그다지 심하지는 않으나, 역시 상당한 경정이 있다. 모든 사물이 진보 발전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그 사물의 핵심이 있고, 또 이 중심에 의한 통일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표준어는 우리 국어의 중심이 되는 것이며, 또 이를 통일하자면 불가불 표준어에 의거하지 않을 수 없다. (중략)

표준어를 사용할 경우라도 어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를 가끔 당하게 된다. ... 적재적소라는 말은 언어에도 적용된다. (이희승 1947: 113-118: 강호정 2008에서 재인용)

(9)에서도 이미 국어 사용의 문제를 ‘공적인 상황’에서부터 고쳐 나가야 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10)에서도 국어 사용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공적인 환경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전략) 국어를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풍요롭고 아름다워져야 할 말과 글이 조악함과 비속함, 그리고 천박함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든 인터넷 공간은 ‘외계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엉터리 표기가 일상화됐다. 외국어가 무분별하게 판을 치는 바람에 ‘우리말 파괴의 온상’이라는 탄식이 최진실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악플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증오와 저주를 퍼 나르는 수단으로 전략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 과제물을 작성하면서 인터넷에서 쓰는 부정확하고, 뒤틀리고, 자학적인 용어와 표현들을 그대로 적어내고 있다. 우리말의 장래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영방송은 또 다른 막말의 진원지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MBC의 오락성 토크 프로그램 ‘황금어장’은 프로그램별 평균 100회 이상의 비속어와 반말을 내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KBS와 상업방송인 SBS의 6개 프로그램도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 국민의 전파를 사용하는 영상매체로서 우리말 사랑에 앞장서야 할 지상파방송이 국어 훼손을 주도하고 있는 꼴이다.

언론매체를 통해 시시각각 중계되는 정치인들의 막말 행진은 ‘국회야말로 청소년 유해매체’라는 비아냥 소리가 나올 만큼 공해 수준이다. (후략)

(동아일보 2008.12.24. [사설] 文解率 98.3%보다 말과 글 바르게 쓰기가 중요하다.)

(10)에서는 ‘인터넷상에서의 외계어 사용’, ‘공영방송에서의 일상 언어 사용’, ‘언론매체에 노출된 정치인들의 막말’ 등을 국어 사용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 역시 모두 공적 언어 사용이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문에서처럼 담화 상황, 특히 공적인 상황에서 국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문제 삼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국어 진흥 운동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즉 문제의 인식이 국어 진흥 운동의 1단계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은 해당 영역에서의 국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 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도출해 내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과정이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국어 진흥 운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11) • 국어의 담화 상황별 사용 제약 조건 연구
- 합리적 언어 실태 조사 방법 개발
- 원인 규명을 위한 언어 현상 분석 기준 마련
- 언중의 흥미와 실천 의지를 유발하는 구체적 실천 방안 모색
- 합당한 실천 행위(법규, 심의 규정, 국어 정책, 언어 계획) 결정

- 관련 학문과의 연계 속에서 국어 진흥 운동에 대한 학문적 인식 형성

(11)과 같은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과정마다 ‘담화 분석’, ‘사회 언어학’, ‘언어학’, ‘심리학’, ‘국어학’, ‘교육학’, ‘문화학’, ‘심리 언어학’, ‘언어 철학’ 등 관련 학문을 동원한 이론적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접 학문과의 연계를 통해 국어가 사용되는 사회적 맥락, 잘못된 국어를 사용하는 언중의 심리, 맥락 속에서 텍스트를 분석해 내는 방법, 담화 처리 모형 개발, 소통의 구조와 순환 등을 규명함으로써 국어 진흥 운동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실천 층위에서는 웹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컴퓨터 공학 및 애니메이션 분야와의 연계, 스토리텔링 기법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4. 국내 국어 운동사 검토

국어 진흥 운동은 기존 국어 운동이 이룬 업적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어 운동 역사의 주요 흐름을 살피고 이를 통해 국어 진흥 운동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기존의 국어 운동은 시대마다 또는 국어 운동의 주체마다 관점과 전략이 다양할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도 있어 왔다. 따라서 먼저 국어 운동에 대한 주요 용어와 그 개념, 운동의 범위 등이 각 시기마다 다르게 인식되어 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3장에서 ‘국어’와 ‘진흥’의 개념을 파악해 보았다면 여기서는 ‘운동’의 의미를 규정하고자 한다. ‘운동’이란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조직적인 사회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운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또한 목적을 구체화시킨 목표 역시 구체적이어야 한다.

둘째, 목적이 분명한 만큼 주체가 뚜렷해야 한다. 운동 주체는 대개 집단이나 단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가나 개인이 주체가 될 수도 있지만 단체나 집단이 가지는 힘에 비해 이들 주체는 세력이 약하다.

셋째, 운동을 추진하는 방식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계획 없이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것을 운동이라 하지는 않는다.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뚜렷한 목적 하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 노력하는 것이 필수이다.⁶⁾

넷째, 활동이 지속적이어야 한다. 문제가 쉽게 해결되어 일회적으로 끝나는 운동도 있을 수 있지만 대개 운동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다수의 문제를 대상으로 하여 다수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운동이라 보기 어렵다. 이러한 ‘운동’의 개념을 ‘국어 운동’의 개념 속에서 관련지어 기술하기로 한다.

4.1. 국어 운동의 개념

6) 실제로는 합리적이지 않거나 실수나 시행착오가 일어날지라도 계획만큼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런 계획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 과정을 거쳐야 운동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이 주체가 되는 경우도 1인 시위 같은 운동이 두루 성립하므로 과정만 체계적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운동이 될 수 있다. 국어 운동가 가운데서도 이수열은 개인 운동가이지만 이오덕은 주로 단체를 통한 운동을 폈다.

국어 운동의 핵심 개념은 여러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⁷⁾ 국어 운동을 내용 범위에 따라 좁게 보면 언어 문제를 해결하는 운동이고 넓게 보면 언어 문제 해결이라는 과정을 통해 또 다른 목적 달성을 하는 운동이 될 것이다.⁸⁾ 실제 운동 차원에서는 언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운동을 벌이는 경우는 없으므로 후자 쪽 곧 넓은 의미로 보아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언어 운동’을 이길록(1977: 18)에서는 ‘언어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때, 이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곧 개선해 나가려는 사회적인 실천운동’이라 자리매김하고 있다. 통합 의미로 본다면, 언어 문제는 곧 사회 문제라는 인식 아래 언어 문제와 사회 문제를 통합적으로 보는 운동이라 볼 수 있다.

주체 범위에 따른 개념으로 본다면, 좁은 의미로는 민간 주도의 국어 운동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민간 외 국가 등의 국어 의식화 또는 국어 개혁 운동을 포함하는 국어 운동, 국어 진흥 운동까지를 가리킨다. 넓은 의미와 같이 ‘국어 운동’을 국가가 관여할 경우 ‘국어 정책’과 혼동되기도 한다.⁹⁾ 송철의(2001: 3)에서도 “어문 운동과 어문 정책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마련이다. 어문 운동은 흔히 어문 정책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어문 정책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어문 운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¹⁰⁾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문 운동과 어문 정책을 구

7)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국어 운동을 ‘자기 나라의 말을 존중하여 애용하자는 운동’으로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자기 나라의 말을 사랑하고 지켜 닦아 쓰고 발전시키자는 운동’으로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8) 국어 운동의 구체적인 의미는 ‘국어’에서 비롯되므로 ‘국어’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하다. 시기로 본다면 과거의 국어, 현재의 국어, 지향해야 할 미래의 국어가 있을 것이다. 국어를 총체적으로 보면 문제 있는 국어 현상까지 아우르는 복합적 국어가 있고 표준어와 같이 특정 조건으로 제약한 좁은 의미의 제한된 국어가 있을 수 있다. 똑같은 대상의 국어라 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보느냐 국어 사용 주체 측면에서 보느냐,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

9) 이 문제에 대해 조태린(1997: 4-5)에서는 豊田國夫(1964: 28)의 지적처럼 “언어 문제에 있어서는 그 정책과 운동의 구별이 불명확”한데, 이는 “형식적으로는 공공 기관이 취급하는 것이 정책이라고 얘기되지만, 언어 정책에 있어서 정책주체는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는 대중이고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국가가 언어 정책을 실시하면서 대중적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언어 운동의 형식을 취하기도 하며, 특정 사회 주체가 추진하는 언어 운동이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행정력에 의존하기도 하는 예가 많다. 이처럼 언어 정책과 언어 운동을 구별하는 선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양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써 언어 계획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

10) ‘국어 운동’ 관련 용어로는 어문 운동, 한글 운동, 국어 순화 운동, 국어 진흥 운동 등이 있다. ‘어문 운동’은 ‘언어 운동’과 같은 가장 포괄적인 용어이다. ‘한글 운동’은 국어 운동을 ‘한글’의 정신과 가치를 부각시켜 부르는 용어이다. 국어 운동은 한글뿐만 아니라 한국어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운동으로 문자, 한글 중심의 한글 운동보다는 의미와 내용이 넓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차지하는 ‘한글’의 위상과 상징성 때문에 핵심 내용과 목표는 같은 것으로 본다. 일체 강점기 때는 ‘국어’라는 말을 쓸 수 없었으므로 ‘한글 운동’으로 사용했다. 이런 맥락 때문에 이응호(1977: 44-45)에서는 그 이유를 ‘한글’이란 이름이 단순한 우리글의 이름만이 아니라, ‘겨레와 나라’를 가리키는 뜻이 담겨

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다.

결국 좁은 의미의 국어 운동은 법이나 행정 주체가 아닌 민간 주도의 사회적 운동으로 한정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국어 운동은 국가가 주체로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하되 법이나 제도 이외의 요소가 함께 병행될 때로 한정하기로 한다. 국립국어원의 국어기본법의 정신이나 내용을 실천하는 과정으로 볼 때 ‘국어 진흥 운동’은 넓은 의미의 국어 운동처럼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다시 정리해 보면, 국어 운동은 국어의 문제나 모순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 운동이다. 주로 운동 단체나 동아리가 주도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나 국가 권력에 의한 국어 정책과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다. 단 정부가 제도나 법보다는 국어 의식이나 국민 대상 운동과 병행할 때는 정부 측의 국어 정책도 국어 운동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밖에도 운동 시기에 따라 나누어 본다면, 좁은 의미로는 훈민정음 반포 이후의 국어 문제 해결 운동이고 넓은 의미로 본다면 훈민정음 반포 이전에 이두, 향찰과 같은 문자 체계를 고안하여 국어 표기 문제를 개선하려 한 운동까지 포함할 수 있다.

주체에 따른 국어 운동의 구분은 일반인 국어 운동과 학생 국어 운동으로 나눈다. 이러한 분류는 학생 국어 운동의 역사적 구실과 실제 성과가 크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학생 국어 운동은 독자적인 운동을 전개해 왔으면서도 일반인 운동 단체와 상생 관계를 유지해 왔다.

4.2. 국어 운동의 대상

국어 운동이 필요하다면 그만큼 그 사회의 국어 문제가 많다는 뜻이다.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삶의 문제로부터 운동은 출발한다. 국어 문제를 일반적으로 보면 언어 모순이라고도 한다. 언어 모순을 국어 운동가들은 ‘언어의 기호적 모순’과 ‘언어의 사회적 모순’으로 나누는데 기호적 모순은 글말이 입말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모순과 의미 표현과 의사소통의 기본적 가치 실현에 따른 모순을 말한다. 최현배(1953)에서 설정한 국어 운동의 다섯 가지 목표 가운데 앞의 네 가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민족 운동, 독립 운동을 내어 놓고 못 하던 일제하에 행하여진 ‘한글 운동’이 단순한 ‘어문 운동’이 아니라 ‘민족 독립 운동’이었고 그러한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광복 후에 되살아난 ‘한글 운동’은 일제 때의 ‘한글 운동’과는 달리 국어 국자에 관한 ‘국어’ 운동으로 단순한 뜻으로 돌아가 우리의 “말과 글을 과학화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구태여 ‘한글’이란 말을 버리고, 새로 ‘국어 운동’이라고 이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12)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어 운동의 목표에는, 다섯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깨끗하게 하기, 둘째는 쉽게 하기, 셋째는 바르게 하기, 넷째는 풍부하게 하기, 다섯째는 너르게 번지도록 하기가 곧 그것이다. (최현배 1953: 124)

언어의 사회적 모순은 언어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가에 따른 모순이다. 이렇게 보면 국어 운동 대상은 언어의 기호적 모순에 충실한 언어 중심 대상과 언어의 사회적 모순에 집중하는 언어의 사회성 중심 대상으로 나눌 수 있다.

<언어 중심 대상: 언어의 기호적 모순>

- ㉠ 외래 언어와의 문제: 외래어, 외국어, 한자어, 일본어, 기타
- ㉡ 언어의 구조나 분절 단위에 따른 문제: 발음, 문자, 어휘, 어법, 유행어, 신어, 은어, 금기어, 사투리, 속어, 비어, 존댓말, 표준말
- ㉢ 언어 사용의 문제: 표현, 이해, 입말, 글말, 국한문 혼용체

<언어의 사회성 중심 대상: 언어의 사회적 모순>

- ㉠ 언어의 독점, 특정 언어의 남용, 언어의 단절
- ㉡ 언어 종속화, 언어 계층화, 남북 언어 이질화

언어 중심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어원 중심의 문제로 외래어, 외국어, 한자어, 일본어 등 외래 요소와의 문제이다. 둘째, 언어의 구조나 분절 단위에 따른 문제로는 이른바 어문 규범에 따른 발음, 문자, 어휘, 어법 등의 문제가 있고 그밖에 유행어, 신어, 은어, 금기어, 사투리, 속어, 비어, 존댓말, 표준말 등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셋째, 언어 사용의 문제로는 표현과 이해에 관한 담화 차원의 문제와 입말과 글말의 관계, 국한문 혼용체와 같은 문제 등이 있다.

언어의 사회성 중심 대상에는 첫째, 언어의 독점, 남용, 단절 등 특정 권력이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언어 문제이다. 둘째는 첫째 문제를 정치적 차원에서 특정 문제로 분류한 식민지 언어 모순과 같은 언어 종속화, 계층 간의 사회 모순으로 인한 언어 계층화, 남북 분단 모순으로 인한 남북 언어 이질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다면 ‘국어 진흥 운동’과 ‘국어 운동’은 표면적인 용어 차이로만 본다면 ‘진흥’이라는 용어 차이밖에 없지만 그것이 함의하는 차이는 크다. ‘국어 운동’의 ‘국어’가 대체로 문제 있는 국어를 대상으로 하여 문제없는 국어를 운동의 목표로 삼는 반면

에 ‘국어 진흥 운동’의 국어는 소극적으로 보면 ‘국어 운동’과 같이 문제 있는 국어를 바로잡아 문제없는 국어로 만드는 것이요, 적극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더 나은 국어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어 진흥 운동이 국어 운동보다 더 넓은 의미의 용어이면서도 일부에서는 겹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테면 욕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은 국어 운동이자 국어 진흥 운동이다. 그러나 ‘더 아름다운 국어’를 만들기 위한 운동은 국어 진흥 운동이지만 국어 운동의 대상은 아니며 1980년대 학생 국어 운동권에서 사회 모순 개선을 위한 국어 운동은 국어 진흥 운동이 아니다.

‘국어 순화 운동’은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국어를 순화하기 위한 운동으로 국어를 더욱 아름답고 쉽고 정확하게 다듬는 일종의 말글 다듬기 운동으로 단체나 동아리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이수열, 이오덕)이 주도하기도 한다. 정부도 참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어 운동은 국어를 통한 사회 운동이지만 국어 순화 운동은 국어 그 자체에 초점을 둔 운동이다. 국어 운동의 국어는 일종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이나 수단이나 국어 순화 운동의 ‘국어’는 그 자체가 목표이자 목적이다. 국어 운동의 국어는 목적이 아닌 목표이다.

국어 진흥 운동은 더욱 바람직한 국어를 만들기 위한 운동으로 국어 자체로만 본다면 국어 운동이나 국어 순화 운동보다 범위가 넓다. 국어 운동이나 국어 순화 운동은 문제 있는 국어, 순화의 필요가 있는 국어만을 대상으로 삼지만 국어 진흥 운동은 그런 국어뿐만 아니라, 문제가 없더라도 더 좋고 더 나은 국어를 지향하는 운동도 포함된다. 국어 운동과 국어 순화 운동은 물리적인 언어 개선이 전제이거나 목표이지만 국어 진흥 운동은 국어 의식 개선과 같은 정신적인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국어 운동은 정부나 국가 권력 기관이 아닌 사회,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국어 순화 운동이나 국어 진흥 운동은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주체로 나설 수 있다.

4.3. 국어 진흥 운동에 대한 시사점

국어 운동이 국어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이라 넓게 본다면 신라 시대 설총과 같이 한문 사용으로 인한 언문 불일치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이두나 향찰 표기 정책이나 운동부터 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 고유의 문자와 글말이 생긴 때부터 잡고자 한다. 그렇게 본다면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반포한 뒤 보급하고 운명할 때까지를 국어 운동 태생기로 잡을 수 있다. 그 뒤로 훈민정음을 주류 문자로 선언하는 고종의 국문 칙령이 발표되는 1894년까지는 국어 운동 성장기로

볼 수 있다. 그 뒤로는 항일투쟁으로서의 국어 운동기(1910~1945), 국권 정립 차원의 국어 운동기(1945~1960), 한글전용 중심의 국어 운동기(1960~1970), 다양한 목적으로서의 국어 운동기(1970~현재) 등으로 크게 나누고자 한다.

- ① 국어 운동 태생기(1443~1454)
- ② 국어 운동 성장기(1454~1894)
- ③ 근대적 국어 운동 전개기(1894~1910)
- ④ 항일투쟁으로서의 국어 운동기(1910~1945)
- ⑤ 국권 정립 차원의 국어 운동기(1945~1960)
- ⑥ 한글전용 중심의 국어 운동기(1960~1970)
- ⑦ 다양한 목적으로서의 국어 운동기(1970~현재)

그리고 이 장은 국어 운동사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니므로 자세한 운동사 기술은 최대한 줄이고 국어 진흥 운동과의 연관성이나 시사점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국어 운동 태생기(1443~1450)는 세종의 한글 창제(1443) 때부터 한글 반포(1446)를 거쳐 다양한 보급 운동과 정책을 펴고 운명한 1450년까지를 가리킨다. 사실 한글 창제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도 포함시켜야 하지만 한글 창제가 일종의 비밀 프로젝트라 창제가 세상에 드러난 1443년 12월(음력)부터 잡는 것이다.

이때는 국어 운동의 주체가 세종 개인이었지만 그는 임금이었기에 국어 운동 주체는 그를 돕는 일부 신하들과 함께 집단성을 띤다. 곧 세종과 두 아들인 이향(문종), 이유(세조)와 훈민정음(1446) 해례본 집필에 참여하는 8학사(정인지, 최항,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이개, 강희안, 이선로) 등이 이때 주요 주체들이다.

이때의 세종의 업적은 언어 정책에 가깝지만 국어의 절대 모순(한자, 한문 빌려 쓰기)을 해결했고 한글 창제와 반포, 보급은 거대한 한문 세력에 비해 소수자(마이너리티) 입장에 서므로 국어 운동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 따라서 이 시기 국어 운동으로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의 절대 모순(한자, 한문 빌려 쓰기)을 해결했고 이를 권력자인 임금이 주도하였다는 것이다. 운동의 주체가 임금이 아니었다면 그러한 한글 창제와 보급 자체가 불가능했다.

둘째, 세종의 한글 창제는 문자 혁명이다. 그 당시 한문 중심의 주류 질서로 보면 한글 반포는 개혁도 아니고 혁명 그 자체였던 것이다. 다만 세종은 기존 문자와 교체하는 그런 단선적 혁명을 단행하지 않아서 기존 세력과의 큰 충돌 없이 혁명을 안착시킬 수 있었다.

셋째, 새 문자 창제 목적이나 기능성에 다양성을 부여하여 새 문자의 효용성을 높였다. 훈민정음의 창제 목표는 기본적으로는 하층민과의 소통과 교화에 있었지만 한자음 적기라든가 한자 교육의 보조 수단 등의 다기능성을 부여함으로써 큰 반발이나 갈등이 없는 문자 혁명을 이뤄낼 수 있었다. 임금의 사소한 실수에도 상소가 빗발치던 당시 실정으로 볼 때 최만리 외 6인이 올린 상소는 매우 미미한 반발이었던 셈이다.

넷째는 언어 문제에 관련된 다양한 계층을 배려했다는 점이다. 운동은 갈등의 해결 노력이기도 하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세종은 하층민뿐만 아니라 지배층인 사대부들까지 고려하고 배려하는 운동을 펴 반발을 최소화 하였다.

다섯째, 운동이나 정책의 단계별 전략이 매우 치밀하였다. 1443년까지의 창제 과정, 1443~1446년까지의 반포 준비 과정, 1445~1450년까지의 보급 과정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국어 운동 태생기(1443~1450)의 국어 운동 특징으로 볼 때 역사적 의미는 세 가지로 추려낼 수 있다. 첫째는 우리말글의 절대 모순을 해결하는 길이 열렸다는 점이다. 이때까지의 우리말글의 절대 모순은 당연히 입말과 글말이 전혀 다르다는 데 있었다. 말은 우리말이지만 글은 구조 자체가 아예 다른 중국글(한문)이었다. 이런 절대 모순을 절대 모순이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세종 임금에 의해 해결의 틀이 마련된 것이다. 물론 설총과 같은 일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이두나 향찰과 같은 한자 변용 글말체를 만들기도 했지만 이런 노력은 어디까지나 한자를 이용한 노력이었기에 한계가 있었다. 그나마 이런 노력이 일부로나마 조선 말기까지 이어지면서 한문의 절대 한계를 보완해 주는 구실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보완책이 절대 모순 자체를 해결해주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이두문 자체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체였지만 한자로 되어 있는 이상은 절대 모순 테두리에 갇혀 있었던 셈이다. 세종은 이런 절대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음소 문자를 창안하여 성공하였다. 그렇다고 모든 글말살이가 새 문자 방식으로 바뀐 것은 아니기에 ‘길을 열었다’라고 표현했다. 특히 조선의 사대부들은 이러한 새 글자를 이류 문자로 묶어둠으로써 대다수 지식인들에 의한 한문의 절대 모순, 이두의 모순은 조선 말기까지 이어진 것이다.¹¹⁾

11) 김민수(1978: 18)에서는 이 시기의 국어 운동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창정기의 국어 운동은 문자가 없던 서민에게 새로 문자가 주어지고, 거기에 적합한 맞춤법이 제정된 일이었다. 그리고 정음이 표음문자로서 담당할 수 있는 한자어 및 중국어표기에 활용되고, 종래에 이두와 구결이 맡았던 한문의 훈독과 음독에도 사용되어, 이른바 하층의 언문과 중간하층의 언

두 번째 의의는 글말 정체성과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이두문이 아무리 우리식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우리만의 글말 정신 또는 국어 정신을 이끌어낼 수 없었다. 그러나 훈민정음을 통해 그러한 정신과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이는 국어 진흥 운동의 기반을 마련한 것과 같다. 이두문을 국어 진흥 운동의 결과물로 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운동은 바람직한 명분(가치)과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언문일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근본적인 평등과 소통의 언어생활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언문일치는 일반적으로 근대정신을 표상하거나 근대화의 흐름 속에서 완성되는 소통과 평등 지향의 문체나 글쓰기 양식을 말한다. 우리나라 또한 갑오경장 이후에나 이러한 언문일치가 완성되지만 그 기틀은 훈민정음 창제, 반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이 시기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제도 안고 있다. 첫째, 운동 주체 세력 가운데 세종, 이항(문중), 이유(세조) 등은 적극적인 실천을 한 반면에 사대부들 학자인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 박팽년, 이개, 이선로, 강희안 등이 새로운 문자 생활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핵심 주체인 세종이 월인천강지곡 등을 통해 몸소 실천한 것과 대조된다.

둘째, 같은 운동 세력 내부 갈등으로 인해 운동이 좀 더 효율적으로 전개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세조가 등극하는 과정에서 8학사 가운데 정인지, 최항, 신숙주는 세조를 돕고 성삼문, 박팽년 등은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세조 등에 의해 훈민정음 보급 발전이 이어지지만, 이러한 갈등이 아니었다면 더욱 계승 발전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국어 운동이 국어 진흥 운동에 시사해 주는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추려 낼 수 있다. 첫째는 이 시기의 국어 운동은 철저한 이론 기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세종이 완벽한 28자를 창제해 놓고도 반포하기 위해 3년 가까이 시간을 끈 것도 철저한 이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물이 세계기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훈민정음(1446)>이다. 국어 진흥 운동도 제대로 된 성공을 위해서는 이론 기반 연구에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언어의 모순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치밀하고도 과학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언문 불일치라는 절대적 모순을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철저히 인식하지 않거나 무시했지만 세종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했다. 거기다가 차선의 해결책인 이두 방식이 아니라 아예 근본이 다른 과학적인 소리 문자를

한문이라는 새로운 문체가 형성되었다. 이런 결과는 세종이 뜻한 목적이 달성되었음을 뜻하거나, 정음이 당초부터 한문과 이두에 대치될 국자가 되기 위해서 창제된 것은 아니었다.

통해 해결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어 진흥 운동도 국어의 문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과 그에 따른 사안별, 단계별로 근본적인 해결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전략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최만리 상소와 같은 반대 상소는 한 건에 그치고 있다. 이는 세종이 새 문자와 이해관계가 얽힌 양반 사대부들의 설득에 성공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그들이 필요한 한자음의 적기와 표준화, 하층민 교화 수단으로서의 문자 기능 등과 같은 다기능성을 새 문자에 부여했기 때문이다. 국어 진흥 운동에서도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를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중심 이념이나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국어 운동 성장기(1450~1894)에 대해 살펴보자. 이 시기는 세종 사후부터 갑오경장, 고종의 국문 칙령이 선포되기 전까지를 가리킨다. 이때는 한글 창제자의 국어 운동 정신이 면면히 계승되기는 했지만 그 이상의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아 '성장기'라 한 것이다. 오히려 사대부들은 한글을 철저한 비주류 문자로 묶어 적극적인 발전을 막았다. 그나마 임금들의 지속적인 언해 정책과 왕실 여성들과 사대부 여성들의 적극적 사용 등에 힘입어 한글 보급 운동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특히 최세진 같은 언어학자와 김만중, 정철과 같은 사대부 문학가들도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첫째, 우리말글 절대 모순이 공존하였고, 일부는 심화되었다. 한글 사용의 확대에도 여전히 주류 공식 문자 생활은 한문과 이두였다. 더욱이 18세기 실학자들에게는 이러한 모순은 더욱 심화되었다. 정약용, 박지원과 같은 뛰어난 실학자들은 한글 사용 자체를 거부하였다. 심지어 박제가는 아예 한문만을 공용어로 삼자고 주장할 정도였다. 한문 실력이 주된 평가 도구인 과거 시험에 응시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도 이러한 모순 심화의 증거가 된다.

둘째, 능동적 국어 운동 주체 세력이 턱없이 부족하였다. 최세진, 김만중과 같이 한글 사용을 긍정적으로 보고 실천에 옮긴 지배층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나마 이황, 윤선도 등은 한글을 비주류 문자로 즐겨 썼지만 그 외는 사실상 크게 배척한 셈이다. 신경준, 유희, 최석정 등 빼어난 훈민정음 연구 업적을 남긴 이들도 저술은 모두 한문으로 하였다.¹²⁾

12) 이 시기의 국어 운동에 대해 김민수(1978: 19)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쇠퇴기의 국어 운동은 오랫동안 자연추세로 방치된 가운데 일시적이거나 간접적인 활동에 지나지 않았다. 연산군의 학정은 흔히 보는 것처럼 정음을 증오하거나 대대적으로 박멸한 것은 아니었고, 최세진이 정음의 발전을 가로막은 원흉은 아니었다. 임진왜란 때의 왜어소탕령은 최초의 국어순화 운동으로서 직접적인 국어 운동이었으며, '훈몽자회'나 정음문학은 간접적 국어 운동으로서 기여한

국어 운동 성장기(1450~1894)는 무려 444년으로 매우 긴 기간이라 평가 내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주요 흐름을 통해 역사적 의미나 긍정 효과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자 혁명 정신을 일부 유지하였다. 이 시기의 핵심 주체라 할 수 있는 임금들은 정도 차는 있지만 거의 예외 없이 훈민정음을 통한 언해 사업 등의 기본 정책을 이어갔다. 연산군조차도 한글로 된 책을 불사르라고 하면서도 언해된 책 등은 그런 폭압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왕실 여성들과 일부 사대부에 의해 훈민정음의 기본 정신이 이어졌다.

둘째, 한글(훈민정음)이 비주류 공식 문자로서 명맥을 유지한 점도 한자, 한문의 주류 문자의 힘에 비하면 기적에 가까운 긍정 힘이었다. 비록 공식 분야에서 주류 문자 대접을 받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배척되지도 않아 준공식 문자로서의 역할을 했다.

셋째, 훈민정음 보급의 주체 세력의 노력은 지금으로서는 매우 부족했지만 그나마 그 정도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 비공식 분야의 자생적 발전의 계기가 되는 힘이 되었다. 국가의 가시적이면서도 강제적인 보급 정책은 없었어도 거의 모든 계층에서 자발적 한글 사용이 이루어졌고 그런 흐름 속에서 18세기 이후에는 한글 소설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가 국어 진흥 운동에 시사해 주는 점은 바람직한 국어의 공적 사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시기는 임금들의 언해 정책과 왕실 여성들이 공문서에 한글을 사용한 것이 한글의 명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공공언어 문제 개선에 국가 기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 준다. 공공기관 자체가 국어 기본법을 지키지 않고 영어를 남용하고 쉬운 말 쓰기 운동을 거부한다면 국어 진흥 운동의 가치와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다. 아름다운 한국어의 공적 사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근대적 국어 운동 전개기(1894~1910)에 대해 살펴보자.

이 시기는 고종의 국문 칙령이 발표된 갑오경장(1894) 무렵부터 경술국치가 이루어진 1910년까지를 가리킨다. 국가는 한글을 주류 문자로 선언하였고 주시경 같은 국어학자는 우리말글의 과학화와 과학적 연구를 시도한 시기다. 또한 독립신문의 한글 전용 노력과 주시경의 국문동식회(國文同式會) 조직 등의 노력도 있었다. 인물로 보면 서재필, 주시경, 헐버트, 지식영 등의 활동이 두드러진 시기였다.

고종이 갑오개혁을 통해 한글을 주류 공식 문자(국문)로 선언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고종의 최종 국문 칙령은 1895년 5월 8일에 “第九條, 法律命書은 다 國文으로써 本을 삼고 漢譯을 附히며 或國、漢文을 混用함_<조선왕조실록>”라고

결과가 되었다. 다만 문자음운학은 정음의 가치를 재발견한 점에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선포되었다. ‘국문’이란 말이 처음 쓰인 것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간다. 1년 전인 1894년 7월 8일, 기무처에서 관청이나 개인의 문서에 쓰여 있는 유럽 문자를 국문으로 번역하는 건의안에 나온다. 7월 12일 국가시험 규정안에서는 “一 普通試驗. 國文、漢文、寫字、算術、內國政、外國事情、內情外事、俱發策.라고 하여 ‘국문’을 ‘한문’보다 앞세웠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국문 칙령이 나왔고 더 멀게는 조선 후기의 지속적인 한글 발전이 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895년 5월 8일 국문 칙령 이후 조선왕 조실록은 한문체와 조사와 어미 정도만 한글로 바꾼 국한문체를 일본에 국권을 이양한 1910년 8월 27일까지 지속시킨다. 이것이 국문 칙령의 한계였고 조선의 한계였다. 한글소설의 힘을 반영하지 못하고, 스스로 근대를 열지 못한 안타까운 역사였다. 한자 의존 언어 정책을 용납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기였다.

고종의 국문 칙령 발표는 비주류 공식 문자인 한글을 주류 공식 문자로 선언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국한문 혼용문을 주류 문체가 되게 한 반쪽 선언이었다. 사실 세종은 한글 글씨를 크게 앞세운 <월인천강지곡>을 통해 한글을 주류 문자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그 후손들이 이를 철저히 무시해 오다가 국운이 기울어가는 시점에서 발표했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전 역사를 통해 보면 안타까운 선언인 셈이다.

정부에서는 1907년 7월 8일, 학부 안에 ‘국문연구소’를 개설하여 관련 학자들의 공동 연구에 의한 국어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다. 1907년 9월 16일 첫 회의 이래 1909년 12월 27일까지, 2년 3개월 동안, 23회의 회의를 통해 노력한 끝에 1909년 12월 27일에는 최종 결의 내용을 10개 항목으로 종합·정리하여 <국문연구 의정안>을 공표하였다.

주시경은 우리말 문법의 근대적 체계화의 개척자이기도 하지만 조직적인 국어 운동의 개척자이기도 하다. 운동의 본질은 집단성과 지속성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민간 차원에서 조직과 집단 차원에서 국어 운동을 벌인 것은 주시경이 처음이다. 주시경은 표기법 연구와 개선 운동을 위해 1896년 5월 근무하고 있던 독립신문사 안에 ‘국문동식회’를 조직하였다. 주시경은 서재필을 도와 1896년 협성회라는 민주주의 토론 모임을 만드는 일을 거들고 한글연구를 위하여 “국문동식회”를 조직하였다. 이 모임에서는 국문 동식법(맞춤법)을 연구하고, 국문(한글) 전용을 권장하며 국어 사전을 편찬하고, 국어 문법을 연구하는 일을 하였다.

한글학회 100년사에서는 주시경의 지속적인 업적에 대해 “새로운 국문 철자법을 향한, 주시경 선생의 열성과 노력은 줄기차고 다양하였다. 그야말로 선생의 생활 일정은 조선 말글에 관한 연구와 계몽과 보급으로 꽉 짜여 있었다.”라고 평가하였다.

주시경의 중요한 또 다른 업적은 국어 운동의 기반이 되는 우리말 문법 연구를 체계화시켰다는 점이다. 주시경은 18살 때인 1893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말 연구를 시작해 1898년 스물세 살 때, 배재 학당 보통과에 입학하여, 본격적인 문법 연구에 몰입하였다. 주시경이 세운 문법 체계 핵심은 언어의 속구조를 파악한 것이었다(김석득 2009). 언어의 속구조와 실제 쓰임새 관계는 미국의 유명한 언어학자 촘스키가 1960년대에 발견한 것인데 주시경은 그보다 50여년이나 앞서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말의 원리를 정확하게 연구하여 1898년 12월 31일에 ‘대한국어 문법’의 원고본을 집필하기 시작하여 1908년 ‘국어문전음학’을 출간하고, 일제에게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기 직전인 1910년 4월에 ‘국어 문법’이란 책을 펴냈다.

이밖에 지식영의 <신정국문> 상소도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경성의학교 교장 지식영(1855~1935)은 1905년에 <신정국문(新訂國文)>이란 상소를 올렸다. 지식영의 이러한 노력은 오랫동안 방치해 온 국문 표기의 혼란상을 바로잡으려는 운동 차원에서 매우 소중했지만 개인의 제안을 사회적 합의 없이 국가 법령으로 공포하여 반발이 심해 큰 효력을 보지 못했다.

1896년, 1897년 대한제국 선언 1년 전에 나온 독립신문은 고종 국문 칙령의 한글 주류 문자 선언을 실질적으로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그 취지를 창간 논설로 널리 알려 운동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그렇다면 이 시기 국어 운동의 역사적 의미는 첫째, 근대적 국어 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주시경을 중심으로 매우 깊이 있는 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국어 운동을 전개하여 ‘독립신문’과 같은 최초의 근대적 한글 전용 신문이 나오는 성과를 얻었다.

이러한 점은 두 번째 긍정적 의미로 이어졌다. 곧바로 이어지는 일제강점기라는 민족사의 암흑기에 독립운동 또는 한글 운동을 통한 저항 운동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일제 강점기의 국어 운동을 이끈 조선어학회의 핵심 세력이 거의 주시경의 제자이거나 동지들이었다.

이와 더불어 두 가지 핵심 문제도 안고 있었다. 첫째, 운동의 주체가 특정 개인들과 단체에 집중되었다. 주시경, 지식영 등 몇몇 운동가들과 이와 관련된 모임에 운동이 집중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인물에 의해 운동 전개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국어 운동 세력의 조직화의 한계였다. 일제에 의해 국권 침탈이 이루어지던 시기여서 국어 운동 주체 세력들의 좀 더 능동적인 노력에는 한계가 있었다.¹³⁾

13) 이 시기의 국어 운동에 대해 김민수(1978: 20)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부흥기의 국어 운동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었으나 거의 실현되지 못했다. 큰 소득이 있었다면, 한문에 토를 단 문체이나 종전의 순한문 대신에 확립된 국한문이었다. 그리고 국어 교육을 처

따라서 이 시기의 국어 운동이 국어 진흥 운동에 시사해 주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주시경도 세종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이론 기반을 바탕으로 운동을 전개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시대에 맞는 운동 논리와 방식의 중요성이다. 주시경의 방식은 세종 시대의 성과로 보면 너무도 당연한 대안이요 발전이지만 그 당시 보수 논리로 보면 앞서가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시대에 맞는 좀 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국어 진흥 운동 역시 시대의 보수성에 맞추자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맥락에 따른 효율적인 운동의 전략과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일제 강점기는 항일투쟁으로서의 국어 운동기(1910~1945)로 설정할 수 있다. 이때의 핵심은 한글 보급과 지키기 운동, 우리말 사전 편찬,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 등을 들 수 있다. 곧 일제강점기 때의 국어 운동의 핵심 영역은 조선어 학회 주도로 이루어진 맞춤법 제정, 사전 편찬, 우리말 연구와 한글 교육 등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의 국어 운동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일본어의 지배를 받는 안타까운 역사였으므로 한글 운동 자체가 정치적 의의를 지녔다. 둘째, 조선어학회의 어문 규범 제정은 일제의 간교한 술책을 저지하고 우리말과 글을 독립 정신의 중심에 놓이게 하였다. 일본은 1911년 9월 1일 공포된 ‘제1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일본 동화 정책을 가시화하였고 언문철자법 역시 자신들 편익에 의해 발음 위주의 맞춤법을 제정한 것이다. 조선어학회의 어문 규범 제정은 이러한 일제의 간교한 술책을 저지하고 우리말과 글을 독립 정신의 중심에 놓이게 하였다는 데 있다. 조선어학회는 1930년 12월 13일부터 1933년 10월까지 만 3년 동안 433시간에 125차례 회의를 하여 63쪽에 달하는 한글 맞춤법통일안을 1933년 한글날에 반포하였다.

셋째, 사전은 민족 언어의 보고이자 삶과 문화의 총체이므로 우리식대로 사전을 만드는 것 자체가 독립 운동이었다. 1929년 10월 31일 조선어사전 편찬회가 결성되고 사전 편찬을 발의한 이극로가 위원장에 선임되었다. 이극로는 사전 편찬운동을 위해 좌우익과 관계없이 108명의 발기인을 구성하였다. 1936년 표준말 제정이 마무리되자 사전 편찬 작업에 속도를 가했다. 표준말 제정이 발표된 1936년은 무척 중요한 해였다. 왜냐하면 이로부터 2년 후인 1938년 일제가 조선말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일본말만을 사용하게 하는 일본말(국어) 상용 정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조선어학회 동지들은 일본의 감시망을 피해 뿔뿔 뿜쳐 조선어 사전 원고를 1940년에 완성하였다. 1942년 일제는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켜 조선어학회 핵심 일꾼 모두를 잡아 들였다.

음으로 실시하기 시작함에 따라, 각 급 학교의 국어교과서가 비로소 편찬되고, 교육 과정에 규정된 국어 문법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문법으로서 초기 국어 문법이 성립되었다. 그것은 보편화된 체계가 아니나, 1908-10년에 최광옥, 유길준, 주시경, 김희상 등의 출판물이 수요에 충당되었다.

사전 편찬 작업이 중요한 것은 제작 과정에서 편찬위원뿐 아니라 전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였다는 것이다. 범국민 운동이었던 것이다. 193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어휘 수집 단계에서 50명의 전문위원 외 사투리 수집을 위하여 5천여 명의 중등 학생과 소학교원이 동원되었다. 조선어학회에서는 1940년 3월 7일에 조선총독부 도서관에 조선어사전 출판허가원을 제출하였고 일제로부터 많은 부분의 삭제와 정정을 조건으로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 도서관의 출판 허가를 받았다.¹⁴⁾ 그러나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사전 편찬 작업은 중단되었다.

넷째, 언론 주도 한글 보급 운동을 주축, 조선어학회가 맞춤법 제정과 우리말 연구 등으로 우리말글 교육의 바탕을 제공했다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은 한글 보급 운동에 각종 기사와 실제 교재를 통한 강습회 개최로 큰 기여, 강습회의 강사는 주로 조선어학회 회원들이었으므로 일종의 상생 운동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일본의 철저한 동화 정책을 극복하고 근대적 언어 사용의 기반을 마련한 점 그리고 항일 저항 운동으로서의 성격이 주요 특징이다.

문제점으로는 일제 탄압으로 인해 조선후기 한글발달사를 적극 계승하는 것이 부족하였고 한글 사용은 축소되거나 더디게 발전하였다. 또한 1930년대 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주도한 한글 보급과 교육 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많았지만 일시적이어서, 지속적으로 국어 운동을 전개한 주체는 조선어학회라는 단체의 범위를 넘지 못하였다.¹⁵⁾ 학회, 언론 등 주체 세력 간 결집력이 부족하고 한글과(조선어학회)와 정음과(박승빈)와의 대립 갈등이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국어 운동이 국어 진흥 운동에 시사해 주는 점은 다음과 같다. 이 시기 국어 운동의 핵심 성공 요인은 그 시대에 맞는 근본 대책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곧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한글 맞춤법을 제정하고 사전을 편찬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근본적인 대책과 운동을 전개하지 않고 일본어 동화 정책에 표면적인 저항 운동을 펼쳤다면 운동의 성과는 오히려 적었을 것이다. 따라서 국어 진흥 운동도 근본 대책과 방향을 담은 연구 책자와 다음과 같은 실무 자료집 발간과 보급을 더욱 늘려야 한다.

14) 「朝鮮語學의 金字塔, 朝鮮語辭典出版認可, 면저 「가」字部 七券이 나온다」, <동아일보>, 1940.03. 13.

15) 이 분야의 국어 운동에 대해서 김민수(1978: 22)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정리기의 국어 운동은 일제의 식민지하에서 전개된 일종의 민족운동이었다. 처음에는 필요에 의한 일제의 정리 사업이 있었으나, 본격적인 운동은 민간의 한글과와 정음과가 대립된 가운데 치열해졌다. 특히 정음과는 주동하던 박승빈의 서거로 식어버렸지만, 한글과는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일제의 탄압을 받기까지 줄기차게 전개됐다. 따라서 그 활동과 업적은 우리의 민족운동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성과로 기록되는 동시에, 만인의 뜨거운 추앙을 받으며 계승되었다.

<표 3> ‘국어 운동’ 관련 실무 자료집

책자 이름
예문으로 알아보는 보도 자료 바로 쓰기(2010)
한눈에 알아보는 신문 언어 바로 쓰기(2010, 2011)
한눈에 알아보는 오락 프로그램 언어 바로 쓰기(2011)
한눈에 알아보는 보도자료 바로 쓰기(2011)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2009, 2012)

다음으로는 국권 정립 차원의 국어 운동기(1945~1960)에 대해 살펴보자. 33인이나 구속되었던 조선어학회 사건은 두 명이나 옥사하고 핵심 인사들은 해방 후 풀려났다. 조선어학회는 1948년 이극로가 월북하면서 한글학회로 이름이 바뀌기 전까지 국어 운동의 주체로서 큰 역할을 하였다. 비록 미군정기로서 국권의 실질적 주체는 아니었지만 미군정 당국은 우리말 회복 운동의 주체로 조선어학회 인사들을 중용하여 최현배, 장지영 등이 핵심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조선어학회의 우리말 도로 찾기 운동은 문교부의 국어 정화 정책으로 추진되었고 문교부에 관여한 최현배, 장지영의 역할이 컸던 것이다. 최현배는 <한글>지에 실린 ‘인사하는 말’(<한글> 95. 조선어학회. 1946. 29쪽)에서 “이제 우리 조선 겨레는 제가 가진 온갖 재주와 능력을 마음껏 부리어서, 우리말을 같고 다듬어서, 훌륭한 말을 만들 것이요, 또 나아가야 이 말과 이 글로써, 영원 발달할 조선의 새 문화를 세우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였다. 우리말 다듬기가 조선의 새로운 문화 건설의 핵심 문제임을 설파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피해와 영향은 컸다. 일제는 1940년 이후로는 조선말 교육 자체를 금지하였으므로 일본 동화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것이었다. 해방 공간에서 이루어진 ‘11가지 하지 말자’ 운동 가운데 대부분은 우리 삶 속 깊숙이 스며있는 일본 잔재를 몰아내자는 것이었다.¹⁶⁾ 이용호(1074: 48)에 의하면, “1. 일본말을 하지

16) 일본어 몰아내기 운동은 임진왜란 발발 1년 후인 1593년(선조 26년) 10월 2일 선조 임금에 의해 선언된 된 바 있다. “전교하길, 도성의 백성들이 오래 왜적에게 함몰되어 있었으므로 왜어(일본어)에 물들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각별히 방을 내걸어 엄하게 금지하되 혹시라도 왜어를 하는 자가 있으면 각기 동리 안에서 엄하게 규제하여 원수인 오랑캐들의 말이 항간에 섞이지 않게 하라.(傳曰: “都中小民, 久陷賊中, 不無染習倭語之理. 各別掛榜痛禁. 如或有倭語者, 各里中嚴加科正, 毋使蠻夷讐賊之音, 或雜於閭里之間.”)_온라인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에는 10월 2일자에 “민간에게 왜어를 금하도록 명하였다.(命禁民間倭語.)”라고 간략히 나와 있다.

이 기록의 사건을 최초의 국어순화 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김민수(1978: 19)에서였다.

말자. 1. 일본식 이름을 부르지 말자. 1. 일본 노래를 부르지 말자. 1. 일본 사람 물건을 사지 말자. 1. 일본 인형이나 노리개를 갖지 말자.” 등 다섯 가지나 되었다. 따라서 미군정기인 1946년 정부는 ‘우리말 정화’에 대한 방침을 세우고 우리 사회에서 흔히 쓰는 일본어투 용어를 대신에 쓸 만한 우리말 목록을 만들도록 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나온 것이 문교부의 <우리말 도로 찾기>(1948)이다.

이처럼 우리말 도로 찾기는 민족어의 회복, 언어 주체성 확립, 문화의 독립 등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우리말 도로 찾기>는 이런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장지영과 최현배는 문교부 편수국의 국장과 부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동시에 학회의 이사로서 국어 운동을 주도하였다. 이런 흐름 속에서 조선어학회는 각계의 우리말 도로 찾기 운동을 지도하거나 자문 구실을 하면서 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표적인 경우가 체육 분야 용어였다. 이런 식의 운동은 매우 긍정적인 운동의 양상을 보여준다. 각계 전문가와 국어 전문가가 연합하여 각 분야의 전문성과 대중성을 주체성 차원에서 복원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식의 운동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국어 술어 용어에 대해 조선어학회 회원이었던 서울대 문리대 교수 이승녕은 ‘말소리갈’과 같은 최현배식 문법 용어의 사용은 억지라고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이희승 또한 1947년 11월 출판한 <조선어학논고>에서 “첫째, 신어는 대부분 기성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식적 강작(強作)적 인조어이므로 생존권을 획득할 수 없다. 둘째, 기성어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일개인의 해석으로 강작한 것이어서 대중의 언어 심리의 공명을 얻지 못한다. 셋째, 언어의 생멸소장은 자연의 이법에 의하여 되는 것이요, 결코 인위적으로 좌우하지 못하는 것이다. 넷째, 이미 기성어가 있는데 동일한 뜻을 가진 신어를 만드는 일은 배우는 이로 하여금 이중의 노력을 과하게 한다.(이희승, 「신어 남조 문제」, <조선어학논고>, 을유문화사, 1947.11, 104-105쪽.)”라고 비판하였다.

이런 반발에도 <우리말 도로 찾기>의 운동 성과와 그 요인이 국어 진흥 운동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다. 정재환(2013: 221-224)의 조사 평가에 의하면, 문교부의 <우리말 도로 찾기>에는 순화 대상어 943개의 대체어를 2012년 현재 표준국어대사전 어휘와 비교하여 볼 때 순화된 경우 곧 성공한 경우가 85.7%라는 것이다.

<표 4> <우리말 도로 찾기> 순화 결과 분석(정재환, 2013: 221)

유 형	어휘 수	비율(%)
1. 순화가 된 경우	808	85.7
2. 순화가 되지 않고 순화 대상어와 대체어가 둘 다 쓰이는 경우	13	1.4
3. 순화가 됐지만, 일본어 한자어에서 한자가 살아남아 대체어와 함께 쓰이는 경우	308	32.7
4. 한자만 쓰이는 경우	62	6.6
5. 순화 대상어와 대체어가 둘 다 쓰이지 않는 경우	59	6.2
6. 순화에 실패한 경우	1	0.1

따라서 이런 성과로 보았을 때 이 시기의 역사적 의미이자 교훈은 일제 흔적 없애기에 일부 성공하였고 말다듬기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그와 더불어 언어주체성을 일부나마 회복하였다는 점이다. 일제강점기의 ‘한글 운동’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계승한 이용호(1974)에서는 그러한 역사성을 살려 한글 운동을 단순한 말글운동, 곧 언어 운동이 아니라 민족운동이라고 하였고 이러한 국어 운동이 주체성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비록 사회 갈등 문제와 맞물려 운동 속도가 미흡하고 분단으로 인한 새로운 언어갈등 심화되었지만 이 시기는 국어 운동의 근본적인 필요성과 가치를 보여주었다.

물론 이 시기 국어 운동에서 국어 진흥 운동이 배울 점은 순화에 실패한 어휘와 성공하지 못한 다양한 어휘들의 요인을 분석하여 국어 진흥 운동의 참고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한글 전용 중심 운동기(1960~1969)로 이 시기는 박정희 정권의 한글 전용 정책과 민간의 한글 전용 운동이 맞물려 일정한 성과를 낸 시기이다.

한글 전용은 한글 글씨를 한자보다 크게 하여 펴낸 세종의 <월인천강지곡>에서 그 정신이 비롯되었고 조선시대 내내 한글 전용 가사, 편지, 소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현되어 왔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그러한 역사 발전은 일부 후퇴하기도 했다. 1988년에 와서야 한글 전용 신문인 ‘한겨레신문’이 나올 정도였다. 1896년의 독립신문의 정신은 제대로 계승발전 되지 못하고 90년이 지나서야 다시 그 정신이 구현된 것이다.

1948년 10월 9일 한글 전용법이 공포되었다. 이는 한글학회 100년사에 의하면, 1948년 5월 31일부터 200명의 제헌 의원들이 겨레의 자유와 복리를 영원히 누릴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을 토의하기 시작하면서 조선어학회를 비롯하여, 전국 각처에서

‘헌법은 한글로 써서 공포하라’는 건의서를 내는 운동에 의해 촉진된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협서(脇書)할 수 있다.”와 같은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한문 혼용문이 공용 문서의 주요 양식으로 자리 잡을 정도로 역사는 후퇴하였다. 같은 해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은 한글과 국한문의 두 정본으로 작성하였다. 마치 1894년의 고종의 국문칙령을 50년이 지나서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1960년대의 본격적인 한글 전용 정책과 운동은 가까이는 해방 직후의 조선어학회 노력에 힘입은 것이다. 조선어학회는 1945년 10월 중순 숙명고녀에서 모임을 갖고 장지영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자폐지실행회발기준비회(이하 준비회)’를 설립하였다. 모임에 참가한 준비위원은 30명으로 토론을 거쳐 ‘민족 문화의 기초인 우리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는 삼천만 동포 하나 하나가 눈뜬 봉사가 없게 하자, 우리는 우리말과 우리 글로 새 문화를 건설하자, 우리는 우리말과 우리글이 세계문화를 지도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힘쓰자”라는 강령과 실행 조건을 발표하였다.¹⁷⁾

한글학회는 1956년 한글 전용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한글 전용 운동을 더욱 드높였다. 곧 “한글은 쉽고 가장 편리한 과학스런 글자로서, 세종대왕이 배달겨레의 문화의 독립과 생활의 발전을 위하여, 무한한 고심으로써 지어내어 준 것이어늘, 시대가 너무도 일렀고, 또 국민의 각성이 지극히 늦어서, 오로지 한자·한학에만 심취하고, 한글을 등한히 버리어 돌아보지 아니한 지 400여 년에, 대중의 무식과 가난이 갈수록 더하고, 나라의 쇠퇴와 암흑이 갈수록 심하여, 드디어 국권을 잃고 다른 겨레의 노예가 되어 갖은 고초와 압박을 당하였던 것이다. 한글 전용에 관한 성명서(1956.10.28.)”라고 그 핵심 취지를 밝혔다. 그해 11월 4일 한글학회는 ‘한글 전용 적극 추진 방안’을 담은 건의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내었다. 그 성과로 이승만 대통령 지시로 “공문서는 반드시 한글로 쓴다. 그러나 한글만으로써 알아보기 어려운 말에는 괄호를 치고 한자를 써넣는다.-한글 전용 실천 요강(국무원 사무처, 1957.12.29.)”를 포함한 여섯 항의 실천 요강이 나왔다.

1961년 군사 혁명이 일어나고 1961년 6월 10일의 한글학회 이사회의 결의로 한글 전용에 대한 건의서를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제출하였고, 정부는 12월 초에 이르러서는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여, 1962년 3월부터 신문·잡지, 기타의 모든 간행물에 한글을 전용시키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곧 문교부는 1962년에 한글 전용을 실시할 목적으로 ‘한글 전용 특별 심의회’를 설치하여 일반 용어, 언어 문학,

17) <매일신보>, 1945.10.16. 「한자폐지실행회발기준비회 결성」(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자료대한민국사> 제1권).

법률 제도, 경제 금융, 예술, 과학 기술의 6개 분과 위원회를 두어 한자어로 된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정부는 ‘한글 전용 촉진 7개 사항’을 내각에 지시하고 ‘한글 전용 연구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런 흐름에 힘입어 1965년에는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총무처, 1965.11.28.)이 공포 되었다. 이러한 한글 전용 정책에 대한 반발도 심하여 박정희 대통령은 한글 전용 추진에 관한 지시 사항(박정희 대통령, 1967.11.16.)을 내린다. 첫째, 한글 ‘완전 전용’을 최종 목표로 한다. 둘째, 한글 전용은 ‘즉시 시행’으로 하지 않고 연차적 계획으로 한자를 절감한다. 셋째, ‘한글 전용’은 ‘운동’으로 전개하지, 법적 강제 조치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한글 완전 전용을 명시화했지만 법이 아닌 운동에 맡긴다는 논리로 반발을 피해가려 하였다. 이에 대해 한글학회는 1968년 4월 6일 21개 단체와 공동으로, 한글 전용의 계단적 실시에 대한 성명(1968.04.)을 발표하였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한글 전용 5개년 계획이(국무회의, 1968.05.02.) 발표되었다. 이리하여 이해 박정희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한글 전용 촉진 지시 7개항을 공포하였다.(박정희 대통령, 1968.10.25.)

이 담화문에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지 520년 넘도록 한글을 전용하지 않고 주저하는 것은 비주체적 전근대적 사고방식”이라는 말이 한글 전용의 정신과 가치를 보여주면서도 언어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오히려 한글 전용을 가로막았던 1948년의 한글 전용법의 ‘다만’ 조항이 1981년 5공화국이 출범하면서도 삭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8호인 「국어 기본법」-그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는 조항이 제정되면서 1948년의 한글 전용 악법은 폐기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국어 정책과 국어 운동이 국어 진흥 운동에 시사해 주는 긍정성은 민간의 국어 운동과 국가의 언어 정책의 상생적 공조가 이루어졌을 때 성과가 가장 크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나마 한글 전용이 생활 속에서 뿌리 내린 성과가 그런 노력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 준다. 국어 진흥 운동 역시 국가의 적절한 언어 정책과 민간의 국어 운동 또는 국어 의식 운동이 맞물렸을 때 진정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최근 국립 국어원이 우리말 사랑 동아리와의 연계 운동을 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시기는 다양한 목적으로서의 국어 운동기(1970~현재)이다. 이 시기의 주된 특징으로는 운동 주체 세력의 다변화와 운동 목적이나 영역이 다양화한 점을 들 수 있다.

운동 주체 세력의 다변화의 대표적인 경우로 학생 운동권과 시민 운동 단체의 등

장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에 학생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1967년에 창립된 국어 운동 대학생회 활동이 1970년대 이후에 더욱 활성화 되었다. 1975년에는 국어 운동고등학생 연합회도 창립되었다. 학생 국어 운동은 기존의 성인 중심의 국어 순화 운동을 보완하거나 현장 실천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성인 단체와의 차별성 또는 상생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한글 운동 시민 단체인 한글문화연대는 2000년에 창립되었다. 1999년 12월 17일에 준비위원회를 구성(고상두, 김영명, 김웅진, 박광희, 신형철, 정재환)하여 2000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벌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시민 단체는 기존의 학회 중심 활동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더욱 활기찬 활동을 벌여 왔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도출, 대학생들의 우리말 가꿈이 운동 전개, 한글 옷 펼치기 운동 등이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1980년대의 방송심의위원회와 아나운서 단체의 노력도 주목해야 한다.

다음으로 운동 목적이나 영역의 다양화를 들 수 있다. 한글전용 운동, 국어 순화 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고 민주화 운동, 통일 운동과 연계한 국어 운동, 정보화 국어 운동 등도 일어났으며 최근의 아름다운 한국어 운동까지 아우르고 있다.

먼저 1970년대 이후는 이전의 한글 전용 운동도 지속되었지만 국어 순화 운동, 민주화 운동, 통일 운동과 연계한 국어 운동, 정보화 국어 운동 등 다양한 운동이 전개되었다.

국어 순화 운동은 한글학회를 중심으로 각종 국어 운동 단체들이 끊임없이 벌여온 운동이다. 이 운동은 8·15 광복 직후의 ‘우리말 도로 찾기’를 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순화한다는 것은 결국 대부분 어렵거나 생소한 외래어를 없애거나 줄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지를 바탕으로 한글학회는 국어 순화 운동의 목표를 “고운 말 쓰기, 쉬운 말 쓰기, 바른 말 쓰기”로 제시하였다. 1972년 9월에 창간한 <한글 새소식>을 통하여 그런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1974년에는 한글문화협회를 조직하여 운동을 더욱 널리 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1976년 4월 16일, 박정희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상생활에 외국어가 너무 많이 쓰이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국어 정화 운동을 벌이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1976년 ‘국어 순화 운동 협의회’를 조직하였고 민간단체도 많이 설립되었다. 국어 심의 기구로 ‘국어 심의회’를 만들고 그 안에 ‘국어 순화 분과 위원회’를 신설하고, ‘국어 순화 자료’를 발간하여 <국어 순화 자료>(1977)를 내는 성과를 내었다.

- (13) 드레스 살롱(dress salon) → 양장점
- 닉네임(nick name) → 별명
- 디스카운트(discount) → 예누리, 할인
- 라이벌(rival) → 경쟁자, 적수
- 로비(lobby) → 복도, 휴게실
- 밸런스(balance) → 균형, 조화

한글학회는 국어 순화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 것을 다짐하고, 대중을 직접 상대하는 국어 순화 강연회를 크게 열었다. 이러한 순화 운동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았다. 순화어가 억지 조어라는 것이다. 1992년에 발표한 ‘전산기 용어’의 순화어에 대한 반발이 대표적이다.

- (14) 어셈블러(Assembler) → 짜맞추개
- 소프트웨어(software) → 무른모
- 커서(cursor) → 깜박이, 반디
- 하드웨어(hardware) → 굳은모
- 스페이스바(space bar) → 사이띄우개
- 컴퓨터 프로그램(computer program) → 전산 풀그림

위와 같은 순화어는 대중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거부되었다.

민주화 운동 차원의 국어 운동은 대학생 국어 운동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1980년대 대학생 국어 운동에서 다루왔던 핵심 언어 문제는 다음과 같다.¹⁸⁾

첫째, 언어문화의 얽매임(종속화)이다. 지식인들의 말과 글에서 필요 이상의 외국어를 섞어 쓰는 것을 본다. 이런 현상의 주체인 지식인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때까지 모국어로만 생각을 한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하면서 영어 몰입에 빠져들고 대학교의 상당수의 수업이 원서 읽기라 하여 외국어 중심으로 생각을 전개하거나 훈련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 모국어보다는 외국어가 더 개념이 정확한 듯 느낀다. 물론 근본적으로 아직 학문이 토착화되지 못한 경우가 많고 또한 서구, 일본의 논리를 수용 번역하다 보니 그러한 학문의 용어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말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실정은 부끄러운 학문의 역사에 토대를 둔다. 고려, 조선 시대의 지식인들은 ‘과거’라는 틀 속에서 유교 경전의 해석과 사장술의 갈닥기(연마), 중국 역사의 파악

18) 이 내용은 대학생 국어 운동의 기반 이론 구실을 했던 “옥에티(1979), 국어 운동(불꽃2호), 국어 운동대학생연합회 자료1집.”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에만 열을 올려 알갱이다운 제 생각을 창조하고 추스를 여유를 갖지 못하였다. 우리나라가 과거 제도가 없었던 일본보다 문자 창조가 600년이나 늦었고 그나마 한글을 지식인들이 주류 문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주체 의식을 강조했던 실학자들조차 그들의 사상을 한문으로 나타낸 것은 중국 문화 문자에 얽매임이 어느 정도인가를 느낄 수 있다. 해방 후에도 식민지 구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40년 가까이 식민지 잔재를 뿌리 뽑지 못하고 식민지적 제도와 의식이 많이 남아 있었고 지금도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다.

둘째, 언어 계층화 현상이다. 생활 환경과 문화 환경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해와 비판의 앞선 틀(전제)이 될 수 있는 삶의 형식으로서의 언어 형식이 무너지는 경우이다. 즉 권위 의식과 사용하는 언어의 허구성으로 인하여 계급 차별 의식이 형성되어 한민족의 공동체가 대립 분열화되는 경우이다.

지식의 권위와 권력에 의해 알 권리와 말할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노동법, 노사협약, 헌법, 경찰서의 안내문, 담화문, 신문 사설 등이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그런 경우이다. 공동체 의식이 없이 무책임하게 말을 쏟아놓고 못 읽는 자의 무식으로 몰고 가는 식이다. 누구를 위한 말인지 토착어를 멸시하는 자기학대가 빚어주는 언어 계층 의식은 심각하다. 초등학교에서는 자연스러운 ‘더하기’, ‘빼기’가 중학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고 ‘큰골’, ‘핏줄’이 ‘대뇌’, ‘혈관’ 등으로 바뀌면서 은연중에 뜬구름 같은 의식 세계가 형성되고 따라서 모국어는 낮은 언어로 된다.

문자를 독점하는 자가 바로 귀족이요 인간이라는 봉건 시대의 잔재가 너무 뿌리 깊다. 세계 문화사에서 볼 때 14, 15세기에 문예 부흥을 거치면서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자아 동일성)이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언어 또한 특정 언어(대부분 라틴어, 러시아에서는 프랑스어)가 특정 계급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에서 탈피하여 누구나 모국어로 말할 수 있는 언어의 보편화가 이루어졌다. 그런 15세기에 과학적이고 자연스런 한글이 태어났던 것이다. 이러한 귀중한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지 못하여 인간성의 뒤틀림을 오래도록 유지하고 있다고 국어 운동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제도 교육 속에서 배운 현학적 용어, 자기 과시적 언어, 서구적 문체 등을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어 민족 언어 공동체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언어 문제는 우리의 역사적, 정치·경제적 모순만큼이나 깊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도덕적 가치를 등한시하는 물질주의 위주의 비리와 이를 구조적으로 부채질하는 대중문화의 병폐는 더욱 우리말의 모습을 추하게 만들었다고 보았다.

정보화 시대에 따른 국어 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이다. 컴퓨터 생활이 본격화됨에 따라 코드 문제, 자판 문제 등을 둘러싼 정보 시대 국어 운동이 전개되었다. 컴퓨터의 한국화는 결국 한글(한국어) 특성에 맞는 컴퓨터와 그 환경 개발에 있다. 한국어의 특성은 문자, 음운론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글자 만든 원리의 치밀함이며 둘째는 중국의 이분법적 음운(성모, 운모) 구분과는 달리 삼분법에 의한 초성, 중성, 종성의 구분이다. 셋째는 초성과 종성의 기본 문자를 같게 하여 최소한의 문자로서 최대한의 글자를 생성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한글이 과학적 글자라는 증거도 된다. 이 밖에 형태, 통사적 특징으로 토씨와 씨끝(어미)의 발달과 풀이말(서술어) 중심 구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이 한국어 정보 처리에 문제를 일으켜 코드 문제와 자판 문제 등이 1980년대와 1990년에 크게 부각되었다.

자판은 정보시대 글쓰기와 정보 입력의 핵심 도구이다. 스캐너나 음성 인식이 발달하고 손으로 쓰는 최첨단 컴퓨터까지 개발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자판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자판이 어떻게 설계되었느냐에 따라 정보 생산성의 속도와 양이 결정되고 건강 문제(키보드병 따위)까지 좌우되기 때문이다. 자판은 그 물질성과 습관성의 강고한 결합으로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표준화가 중요했고 이에 따른 글쇠판 운동이 1990년대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벌어졌다.

한글은 모아쓰기로 인하여 음절 문자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음소 문자이다. 곧 초성과 중성, 종성이라는 세 음소 체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음절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글의 이러한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조합형 코드 체계라야 우리말의 다양한 음절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전두환 정권은 한글을 음절 문자화시킨 정보 통신용 완성형 코드(KS C 5601~1987)를 표준으로 삼았다.

완성형 코드는 한글의 기본 조직 원리에 어긋나 한국어를 제대로 표현할 수조차 없었던 것이다. 곧 ‘입곶’의 ‘곶’자나 ‘뿍다’(‘붓다’의 센말)의 ‘뿍’, ‘똥방각하’에서의 ‘똥’ 자등을 쓸 수 없는 표현의 절대 모순에 직면했었다. 지금은 현대 한글 11,172자를 모두 구현하여 1차적인 문제는 해결되었다.

다양한 목적으로서의 국어 운동기(1970-현재)의 효과는 복합적이다. 첫째, 다방면의 국어 운동 성과가 있었다. 기존의 국어순화 운동, 한글전용 운동 외 한글 기계화, 이오덕에 의한 문장 바로쓰기 운동, 디지털 관련 한글 코드 운동 등이 이루어졌다.

둘째, 한글전용이 전면화되었다. 1988년 한글전용 신문이 한겨레신문이 창간되면서 각종 매체는 한글전용체로 정착되었다.

셋째, 국어기본법 제정으로 한글전용법의 한계를 극복했다. 각종 언어 정책이나 국어 진흥 운동이 법령으로 정해짐으로써 그 취지와 사회적 파급력이 좋아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화시대 언어 문제 대처가 미흡(세벌식, 두벌식문제)했다. 네벌식과 두벌식 등 정부 주도의 한글 기계화 정책을 민간 운동을 통해 바로잡는데 한계가 있었다.

둘째, 디지털 시대 언어 문제 대처도 미흡(완성형문제)하였다. 글은 컴퓨터에 가장 잘 어울리는 문자지만 컴퓨터는 영미권에서 창제, 개발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코드 적용 문제가 크게 대두된 것인데 이에 대처가 부족해 많은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셋째, 국어기본법 효용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국어기본법이 법규를 어긴 개인이나 단체에 강제 집행권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러한 법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넷째, 한자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이 부족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한자 교육과 한자 병기를 염두에 둔 법 제정 운동이 몇몇 국회의원과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 시기의 국어 운동이 국어 진흥 운동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운동 동아리, 한글문화 연대와 같은 운동 주체 세력의 다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최근에 국립국어원이 학생 운동과 일반 시민운동을 지원하며 서로 연계하는 사업을 벌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한글날 같은 큰 행사에서 정부 주도 행사보다는 공모전에 의한 다양한 단체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는 자판 문제와 코드 문제와 같이 빠른 시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은 한국이 디지털 강국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인 대응을 했더라면 더욱 합리적인 디지털 한국어 시대를 열었을 것이다.

시기별 또는 각종 국어 운동의 흐름을 통해 우리는 국어 진흥 운동에 국어 운동의 성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암시를 얻을 수 있다. 그간의 국어 운동에 논의와 국어 운동사를 표로 압축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국어 운동사 시대별 요약

시대 구분	운동 주체	운동 내용	역사적 의미	문제점
국어 운동 태생기 (1443-1450)	세종과 일부 집현전 학 사들	1) 문자생활 모순 해결 2) 하층민 중심의 소통 문 제 해결 3) 제도적 한글 보급(관 청, 시험 등)	1) 우리말글 절대 모 순 해결 길 열림 2) 글말정체성과 가 치 의미 생성 3) 언문일치 기반 마 련	1) 운동 주체 세력 적극적 실천 안함(정인지, 신숙 주 외) 2) 운동 내부 세력 갈등(세 조와 사육신 문제 등)
국어 운동 성장기 (1450-1894)	지배층(임금), 사대부 지배층 여성들	1) 지배층의 공적 사용 2) 언해서 보급	1) 문자 혁명 정신 일 부 유지 2) 한글 비주류 공식 문자 명맥 유지 3) 비공식 분야 자생 적 발전	1) 우리말글 절대 모순 공 존, 일부 심화(실학자: 정 약용, 박지원, 박제가) 2) 능동적 주체 세력 부족
근대적 국어 운동 전개기 (1894-1910)	주시경 외 국문동식회	1) 조직을 통한 운동 2) 우리말 문법 과학화 3) 언문일치	1) 근대적 국어 운동 전개 2) 일제강점기 저항 의 기반 마련	1) 운동 주체 특정 개인 집 중 2) 조직화의 한계
항일투쟁으로서 의 국어 운동기 (1910-1945)	조선어강습소 문학생들 조선어학회 회 원 언론인	1) 한글 보급 운동 2) 맞춤법 제정 3) 사전 편찬	1) 일본동화 정책 극 복 2) 근대적 언어 사용 기반 마련 3) 항일 저항 운동	1) 조선후기 한글발달사 적 극 계승 부족 2) 학회, 언론 등 주체 세력 간 결집력 부족 3) 일반인 적극적 참여 부 족
국권 정립 차원의 국어 운동기 (1945 - 1960)	조선어학회 미군정기와 문교부 한글 운동 단체	1) 일본말 잔재 없애기 2) 한자 사용 줄이기 3) 한글전용법 제정	1) 일제 흔적 없애기 일부 성공 2) 말다듬기 기틀 마 련 3) 언어주체성 회복	1) 사회갈등문제와 맞물려 운동 속도 느림 2) 분단으로 인한 새로운 언어갈등 심화
한글전용 중심 운동기 (1960-1969)	한글학회 등 운동 단체 박정희 정권	1) 한글전용: 언론과 교 과서	1) 한글전용 일부 성 과 2) 민간 운동과 국가 정책의 상생적 공 조	1) 세종 정신, 한글 정신 실 현 속도 느림 2) 국한문 혼동, 한자어 용 어 갈등 일부 심화
다양한 목적으로서의 국어 운동기 (1970-현재)	한글학회 등 국어 운동 각종 단체 학생 운동 단체	1) 국어순화 2) 민주화 운동 3) 정보화 운동	1) 다방면의 국어운 동 성과 2) 한글전용 전면화 3) 국어기본법 제정 으로 한글전용법 한계극복	1) 정보화시대 언어 문제 대 처 미흡(세벌식, 두벌식 문제) 2) 디지털 시대 언어 문제 대처 미흡(완성형문제) 3) 국어기본법 효용성 미흡 4)한자 문제 근본 해결 미 흡

이에 대한 각 시기의 국어 운동이 국어 진흥 운동에 시사한 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국어 운동 태생기(1443~1454) -절대적 언어 모순을 해결한 문자 혁명기-

이 시기의 국어 운동은 철저한 이론 기반에 의해 이루어졌고 언어의 모순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치밀하고도 과학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다양한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전략을 수립했다.

② 국어 운동 성장기(1454~1894)

이 시기의 국어 운동은 태생기에 비해 침체되었으나 바람직한 국어의 공식 사용이 꾸준히 이어져 근대적 국어 운동의 바탕을 형성하였다.

③ 근대적 국어 운동 전개기(1894~1910)

이 시기의 국어 운동을 이끈 주시경도 세종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이론 기반을 바탕으로 운동을 전개했으며 시대에 맞는 운동 논리와 방식이 중요하므로 국어 진흥 운동 역시 그 시대의 맥락에 따른 효율적인 운동의 전략과 논리를 개발해야 함을 잘 보여 주었다.

④ 항일투쟁으로서의 국어 운동기(1910~1945)

이 시기의 국어 운동의 핵심 성공 요인은 그 시대에 맞는 근본 대책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어 진흥 운동도 근본 대책과 방향을 담은 연구 책자와 실무 자료집 발간과 보급을 늘려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⑤ 국권 정립 차원의 국어 운동기(1945~1960)

이 시기의 국어 운동은 일제 흔적 없애기에 일부 성공하였고 말다듬기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언어주체성을 일부나마 회복하였다. 또한 말다듬기의 경우 순화에 실패한 어휘와 성공하지 못한 다양한 어휘들의 요인을 분석하여 국어 진흥 운동의 참고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⑥ 한글전용 중심의 국어 운동기(1960~1970)

이 시기의 국어 운동을 통해서는 민간의 국어 운동과 국가의 언어 정책의 상생적 공조가 이루어졌을 때 성과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국어 진흥 운동 역시 국가의 적절한 언어 정책과 민간의 국어 운동 또는 국어의식 운동이 맞물렸을 때 진정한 효과를 낼 수 있다.

⑦ 다양한 목적으로서의 국어 운동기(1970~현재)

이 시기의 국어 운동에서는 학생 운동 동아리, 한글 문화 연대와 같은 운동 주체 세력의 다변화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디지털 변화에 따른 빠른 시대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것이 국어 진흥 운동에서 반면교사로 삼아

야 할 점이다.

이 밖에 전체적으로 국어 운동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이론에 기반한 운동 전개와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세종 임금에 의해 전적으로 진행된 훈민정음 창제와 보급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론적 기반이 운동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거듭 반복되는 한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 기반이 없으면 얼마나 운동이 소모적이고 회귀적인지를 알 수 있다. 한자 관련 각종 연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 문제에 대한 논리적, 근본적 대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보편 논리(소통)와 특수 논리(시대)를 결합하는 맥락적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합리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은 시대나 지역에 관계없이 두루 적용될 수 있는 보편 논리이다. 그러나 어떤 소통이 문제인가. 왜 문제인가에 대한 구체적 인식과 대안은 시대나 지역에 따른 특수 논리이다. 비속어라는 포괄적인 언어 문제는 보편 논리가 필요하지만 요즘 초중고 학생들의 욕설 문제는 지금 시기의 특수 논리에 의한 구체적인 문제가 분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언어 사용 주체의 갈등에 대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어느 시대나 언어 사용 주체의 갈등 문제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넷째, 언어의 도구성과 가치성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어 문제도 그렇고 그런 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또한 언어의 도구성과 가치성이라는 언어의 보편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나 전제로 한다. 이를테면 일제 강점기 때는 한글의 가치성과 독립운동 수단으로서의 도구성 모두 매우 높았던 시기였다. 또한 언어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치성이 달라져 도구성과 가치성은 기본적으로 맞물려 돌아간다. 욕설의 경우 남에게 나쁜 의도로 퍼붓는 경우는 도구성과 가치성 모두 최악의 경우이지만 일상어처럼 쓰고 있는 초등학생 욕설은 그들 또래 집단에서는 은어 구실을 하므로 또래 집단 안에서의 도구성과 가치성은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이런 점에 대한 세밀한 성찰이 이루어질 때 국어 운동도 국어 진흥 운동도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다섯째, 언어의 절대모순(언문일치 위배)에 대한 다면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초등 교과서에서 한자를 병기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발의는 언어의 절대 모순으로의 회귀이다. 언문일치의 보편적 언어 발달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그런 문제의 보수성을 떠나 다면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여섯째, 맥락에 따른 언어 사용의 효율성, 경제성 등에 대한 교육 논리가 필요하다. 언어는 근본적으로 맥락이다. 그래서 중의적인 문장 때문에 천문학적인 소송이

걸리기도 한다. 굳이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잘못된 공공언어로 인한 경제적 낭비는 역시 천문학적이다. 이런 경제성이 아니더라도 잘못된 언어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도 심각하다. 따라서 맥락에 따른 올바른 언어 사용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국어 운동이요 국어 진흥 운동이다.

4.4. 국어 운동과 국어 진흥 운동의 구체적 적용 전략: 공공언어 문제

국어 운동사를 통해 각 시대마다 또는 특별한 상황마다 언어 문제를 개선해온 역사를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국어 운동의 긍정성을 살리면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국어 진흥 운동이라면 요즘 국어 정책과 국어 운동의 핵심 대상인 공공언어 분야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

1) 공공언어 문제의 심각성과 진단

‘공공언어’는 ‘일반 사회의 여러 사람이나 단체에 두루 관계되거나 이용되는 언어’를 말한다. 공공언어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계되는 언어 ‘공공성이 있는 언어’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언어는 공공기관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말글인 법령과 규정, 공고문, 계약서, 민원 서식, 행정 절차 등을 알리는 안내문, 기관이나 부서 안내 표지판 등을 비롯하여 신문과 방송, 교과서, 사전, 교통수단 이용안내, 금융 거래에 쓰는 말글, 부동산 거래와 등록 때 쓰는 언어, 농약 사용법, 병원 처방전이나 약국의 약품 설명서 등이 해당된다. 좀 더 구체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조태린(2010)에서의 다음과 같은 유형 분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 6> 공공언어의 영역, 유형, 출현 형식(조태린, 2010: 383-384)

영역	유형	출현 형식
↑공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업무 활동에 사용하는 언어 [유형 1]	법률, 공문서, 관보, 고시문, 판결문, 명령서, 고지서, 보도자료, 안내문, 게시문, 표지판, 민원 서식, 증명서 등
	각급 학교의 교육 활동에 사용하는 언어 [유형 2]	교과서, 수업, 강의, 시험 문제 등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지식·정보의 대중적 전달에 사용하는 언어[유형 3]	기사/보도, 논설, 칼럼, 지식/교양 등
↓사적	계약, 투자, 판매, 구매, 광고 등 민간 차원의 경제 활동에 사용하는 언어[유형 4]	계약서, 약관, 견적서, 영수증, 상품 설명서, 사용 설명서, 광고 홍보물 등
	학계, 산업계 등 전문 분야의 학술 및 연구·개발·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언어[유형 5]	강연, 발표, 토론, 회의, 논문, 전문서적 등
	방송, 공연 등을 통한 대중적 문화 예술 활동에 사용하는 언어[유형 6]	드라마, 코미디, 예능/오락, 영화, 연극, 음악 등
	인터넷, 휴대전화 등 가상공간의 개인적 표현 활동에 사용하는 언어[유형 7]	개인 누리집, 블로그, 댓글, 트위터 등

좀 더 효율적인 자료 수집과 접근을 위해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및 공통된 자료 유형으로 정부중앙부처, 시/군/구청, 동주민센터, 경찰서, 세무서, 법원, 등기소, 우체국, 자동차면허시험장 등에서 나오는 “담화문, 기관장 인사말, 공고문/고시문, 공지사항, 공문서, 민원서식과 민원 안내문, 규정, 법령/조례, 건물 안내 간판(시설 안내명, 조직명, 안내도), 사업명/사업내용, 정책명/정책내용, 홍보문(현수막, 홍보 포스터, 안내문, 거리 홍보 간판, 보도자료), 안내책자, 계약서, 관보, 명함, 법원의 판결문” 등이 있다. 공공기관이 아닌 국민 밀접 기관들의 주요 자료 유형으로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약관), 병원(처방전), 약국,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안내, 부동산 소개소(계약서), 도서관, 관광명소 (안내문, 입장권), 신문, 방송, 기업(식품이나 약품, 공산품 의 상품정보 표시나 사용설명 글), 택배 신청서” 등이 있다.

이러한 공공언어는 우리 모두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러한 언어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공공의 이익뿐만 개인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셈이다. 공공언어의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이 절실한 때이다.

문제는 이러한 공공언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행정과 정책을 계획하여 알리고 집행하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문

서가 많다. 그러한 문제 언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영어 남용이다. 전문용어 뿐 아니라 일상어조차도 영어 약자, 영단어 그대로를 글로 옮겨 써 놓는 경우가 많다.

“... 임상별 임목축적, 첨단산업 클러스터 형성, 로하스 벨트, 그린 파킹제, 재가 서비스, 행복 나눔 리퀘스트, 대학생 Dream 봉사단, 저층주거지 정비를 통한 어메니티 강화, ...”

둘째, 제대로 뜻을 파악하지 못하는 비문이 많다는 것이다. 대부분 여러 문장으로 쪼개 쓸 것을 하나로 합쳐 만연체 문장을 말한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제7차 교육 과정과 관련하여 학교와 연계한 체험 학습활동을 활성화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인성을 계발하고 창의적인 능력을 향상하며, 교과과정과 관련된 도서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서관 이용을 유도하고자 도서관 견학교실을 운영합니다.”

이 예는 서울의 한 도서관이 견학교실을 안내하는 글로서 낱말들은 전문용어도 거의 없고 어렵지도 않지만 뜻을 알기 어렵다.

셋째는 어려운 용어를 쓰는 경우로, “용도지역 및 주거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와 같은 예가 여기에 해당된다. 지방의 한 구청이 ‘개별주택가격조회’를 설명하면서 쓴 글인데 이 글을 읽어야 할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용어로 인해 소외를 당할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공공언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세 가지 핵심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첫째는 기본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반 국민들과의 소통도 문제이지만 공공언어를 직접 만들어 내는 사람들 또한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쓰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 공공기관끼리 서로 오고가는 문서들, 내부 보고서, 공문, 품의서, 다른 부서의 정책 등 많은 부분에서 저마다의 뜻을 분명히 아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 치열한 경쟁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국가 번영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정치인들은 국가와 국민이 소통이 잘되어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늘 강조하면서 이런 소통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공언어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이루어져 심각한 것이다.

둘째, 이러한 잘못된 공공언어는 소통 대상에 대한 인권을 무시한다는 점이다. 소

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와 인격체가 만나 바람직한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소통이 안 되거나 어려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상대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장후석 외(2010: 84)에서 밝혔듯이, 공공언어 개선은 사회 약자의 배려 차원의 정책으로 대도시보다는 읍면 지역, 젊은 세대보다는 노년층, 고학력보다는 저학력자들에게서 어려운 한자나 영어 용어로 인한 시간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잘못된 공공언어는 행정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장후석 외(2010)의 보고서에 의하면, 어려운 정책용어 때문에 추가로 지불하는 불편 비용은 인터넷이나 사전을 이용하여 어려운 용어를 이해한 경우는 연간 약 68.0억 원의 시간 비용이 들고, 주위 사람에게 문의하여 어려운 용어를 이해한 경우는, 연간 약 31.5억 원의 시간 비용이 들며,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어려운 용어를 이해한 경우는 약 14.8억의 시간 비용이 든다고 한다. 이 세 가지 시간 비용을 모두 합하면, 1년 동안 정부 정책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들이 추가로 지출하는 시간 비용은 연간 약 114.4억 원이나 된다. 역으로 공공언어 문제를 개선할 경우 다음 표와 같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된다.

<표 7> 공공언어 개선의 경제적 기대 효과(장후석 외, 2010: 83)

구분	세부 내용	기대 효과 금액
대민기관 행정서식 용어 개선의 경제적 기대 효과	일반 국민 시간 비용	연간 118.3억 원
	민원 처리 공무원 시간 비용	연간 51.8억 원
	① 소계(시간 비용)	연간 170.1억 원
	② 정책 추진 결과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NPV)	약 3,431.1억 원
정책명에 포함된 정책용어 개선의 경제적 기대 효과	③ 시간 비용	연간 114.4억 원
	④ 정책 추진 결과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NPV)	약 2,085.4억 원
공공언어 개선의 경제적 기대 효과	시간 비용(①+③)	연간 284.5억 원
	정책 추진 결과에 따른 전체 비용 절감 효과(②+④)	총 5,516.5억 원

그렇다면 공공언어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는 평가 기준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국립국어원에서 국가 프로젝트로 설정한 다음과 같은 평가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표 8> 공공언어 평가 기준안(민현식 외 2010: 279)

1. 정확성 (범용 기준)	1.1 표기의 정확성	1.1.1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지켰는가?
		1.1.2 띄어쓰기를 잘하였는가?
		1.1.3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법을 지켰는가?
	1.2 표현의 정확성	1.2.1 어휘를 의미에 맞게 선택하였는가?
		1.2.2 문장을 어법에 맞게 사용하였는가?
		1.2.3 문장을 우리말답게 표현하였는가?
2. 소통성 (가중치 기준)	2.1 공공성	2.1.1 공공언어로서의 품격을 갖추었는가?
		2.1.2 고압적 · 권위적 표현을 삼갔는가?
		2.1.3 차별적 표현을 삼갔는가?
	2.2 정보성	2.2.1 정보의 형식이 적절한가?
		2.2.2 정보의 양이 적절한가?
		2.2.3 정보의 구성이 적절한가?
	2.3 용이성	2.3.1 문장을 적절한 길이로 작성하였는가?
		2.3.2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2.3.3 시각적 편의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비효율적인 공공언어가 양산되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진단한 것을 1~3등급으로 구분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이처럼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내리는 방식은 공공언어의 문제를 파악하는 데 객관성을 부여해 주고 효율적인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표 9> 공공기관 언어 사용 등급

등급	점수	해당 기관
1등급 (7곳)	총점 960점 이상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문화재청, 통계청, 여성가족부
2등급 (26곳)	총점 940점 이상 960점 미만	통일부, 특허청, 행정안전부, 환경부, 법무부, 기상청,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중소기업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대검찰청, 조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 국방부
3등급 (7곳)	총점 940점 미만	법제처, 관세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병무청, 경찰청, 외교통상부

전문 평가 기준이 아니더라도 기본 어문규범에 의해 다음과 같은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어문 규정의 오류

-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것
-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
- 문장 부호가 잘못된 것
- 표준어 규정에 어긋난 것
- 외래어 표기 및 발음이 잘못된 것
- 기타(단순한 교정 오류 및 로마자·한자가 그대로 노출된 것)

○ 어휘 사용의 오류

- 부정확한 단어를 쓴 것
- 한자어·외래어·일본어투 단어를 남용한 것
- 비속어를 쓴 것(방송, 잡지, 신문) /
불필요하게 북한어 특유의 단어와 표현을 그대로 쓴 것
(정부 홈페이지)

○ 문법 및 문장의 오류

- 조사를 잘못 쓴 것
- 어미를 잘못 쓴 것
- 필요한 문장 성분이 없는 것
- 문장 성분 사이의 호응의 잘못된 것
- 수식 구성이 잘못된 것
- 접속 구성이 잘못된 것
- 필요 이상으로 피동·사동을 쓴 것
- 표현 방식이 부자연스러운 것(외국어 투)
- 어순이 잘못된 것
- 기타_국립국어원(2003)

2) 공공언어 문제의 원인 분석

공공언어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 평가를 바탕으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개선 전략이나 정책 수립에 문제 원인 파악이 중요하다.

첫째, 실제 국어 능력이 부족하므로 잘못된 공공 문서를 양산해 낸다. 공무원들은 고등학교만 마쳐도 최소 12년을 국어를 배운 셈이다. 2011 국어과 교육 과정 해설서에 의하면, “국어’ 교과는 국어 활동(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문법),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국어 능력을 기르며, 국어 생활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라고 되어 있다. 더불어 이런 ‘국어’ 교과의 목표는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국어 활동의 맥락을 고려하여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문화를 누리면서 국어의 창의적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라고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히고, 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글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생산하는 법, 더불어 국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어 생활을 능동적으로 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되어 있다.

이런 국어 교육의 목표로 설정되는 국어능력은 단순한 의사소통 능력이 아니라 주체적 국어의식을 바탕으로 창의적 언어 사용까지 가능한 총체적 언어 능력이다. 이러한 언어 능력은 교육 과정 변화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강조해 온 것인데 실제 생활 속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권의 의식이다. 공적 기관 종사자의 언어 사용은 봉사 차원의 공적 수행이다. 국민과 약자에 대한 배려는 기본 의무임에도 권위 의식으로 인해 기본 의무를

망각하는 것이다.

셋째는 엘리트 의식이다. 엘리트 의식은 문서 생산자와 전달자로서 전문 지식을 소통과 나눔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배타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넷째는 관습적 사용 또는 관행이 문제이다. 아무 의식 없이 실수하는 격이다. 영어를 남용하는 것은 공문서를 어렵게 쓰는 관습에 새로운 유행 언어가 끼어든 것이라 볼 수 있다.

3) 공공언어 문제의 개선 방안

공공언어 문제와 원인이 복잡적이므로 다양한 대안 전략이 필요하다.

주체 측면에서 본다면 각 기관별 자체 노력과 국립국어원과 같은 공적 기관의 노력, 한글학회와 같은 민간 학회, 한글문화연대와 전문 시민 단체 등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문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우리말 가꿈이 사업을 한글문화연대와 같은 시민 단체 지원을 통해 시도한 것은 바람직한 공동 노력의 좋은 예이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서울시가 지하철의 슬라이드도어를 ‘안전문’으로 바꾸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국립국어원이 2013년부터 아름다운 우리말 운동의 하나로 우리말글 사랑 동아리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도 매우 고무적인 노력이다.

둘째 전략은 2006년도에 법제처가 만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과 이에 따른 노력을 들 수 있다. 김정수(2009)에서는 다음과 같이 “쉽고, 뚜렷하고, 반듯하고, 자연스러운 법령”의 기준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쉬운 법령]

- 한자 혼용문 - 어려운 어휘와 표현 -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
- 이중 부정문의 검토 - 복잡한 문장의 단순화

[뚜렷한 법령]

- 모호한 표현 - 문법을 어긴 문장 - 해석이 갈리는 표현

[반듯한 법령]

- 규범에 어긋난 표현 - 띄어쓰기를 무시하던 법령 이름
- 사전의 정의를 어긴 표현 - 일본말을 직역한 표현
- 적절하지 못한 용어나 표현 - 지나친 생략으로 문법을 어긴 표현
- 제목 빌려 쓰기 - 가운뎃점(·)의 문제

[자연스러운 법령]

- 일상적이지 않은 표현 - 어색한 본딴말 - 어색한 어순
- 사물 주어의 남용 - 피동 표현의 남용 - 장황한 명사구의 남용
- 조사 ‘의’의 남용 - 군더더기 표현 - 일본말 번역투
- 중복된 표현

법제처는 관련 이틀 바탕으로 2009년 12월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제3판’을 내면서 ‘정비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쉬운 법령]

- 모든 법령문을 한글로 표기한다.
-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 용어, 외국어 등을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한다.
-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로 알기 쉽게 써야 한다.
- 한글로 쓰되 혼동 우려가 있는 것은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쓴다.
- 법령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쉬운 법령문이어야 한다.
- 문장의 간결성과 함축성보다는 입법 의도를 정확하고 충분히 나타내도록 한다.
-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조항과 특정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을 구분한다든지, 실제 규정과 절차 규정을 나눈다든지, 수식과 도표를 적절히 활용한다든지 하는 방법 등으로 조항을 체계적으로 나누고 조항 배열의 순서도 조정해서 알기 쉬운 법령이 되어야 한다.
- 기존 법률 용어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알기 쉽고 친숙하며 일반화된 현대적 용어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말로 선부르게 정비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의도와 다르게 이해할 소지가 있으면 신중하게 충분히 검토 후 바꾼다.
- 법률적으로 중요하고 사용 빈도가 높으면서도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부터 적극적으로 바꿔 나간다.

[뚜렷한 법령]

- 명확하고, 논리에 어긋나지 않으며, 나타내려는 뜻이 한눈에 보이는 표현으로 정비한다.

- 조금이라도 달리 해석해야 할 여지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

[반듯한 법령]

-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의 어문 규정을 충실히 지킨다.
- 법령문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어문 규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예외 기준의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어문 규정 자체의 예외적인 적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항’으로 명확히 한정되어야 한다.
- 국민이 법령문을 국어 교재로까지 여길 수 있도록 이제부터라도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 법률의 문장과 용어를 되도록 쉬운 일상어에 가깝게 바꾸고 다듬어야 한다.

[자연스러운 법령]

- 어색한 문어체나 번역체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친숙하고 매끄러운 문체로 다듬는다.
- 법령의 품격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말로만 지어낸 아름다운 법령문이 많아질수록 높아지고, 국민이 더 친근하게 다가가게 된다.

이와 같은 기준은 장소원(2009)에서와 같이 분야별로 바뀔 수가 있다. 방송 주제에 따라 TV뉴스와 보도, 어린이, 연예/오락, 라디오 등 4가지로 나눈 뒤, 각각 4가지 측면(발음, 어휘/표현/문법, 의미/화용, 자막)에서 분석, 대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주제와 관계없이 발음은 ‘말’에, 나머지는 ‘글’에 포함시켜 둘로 나누어 정리, 소개한다.

[말]

- ‘표준발음법’의 규정대로 발음하여야 한다.
- 외래어는 원칙적으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대로 발음한다.
- 끊어 읽기에 유의해야 한다.
- 장단음을 구별해야 한다.

- 의도적으로 잘못된 발음을 하지 말아야 한다.

[글]

- 우리말 대체 표현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외래어는 가능한 한 순화된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
- 축약어,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부적절한 어휘, 잘못된 어휘, 의미가 모호하거나 중복되는 표현, 상투적 표현, 유행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명사를 무리하게 나열하지 말아야 한다.
- 문장을 지나치게 길게 쓰지 말아야 한다.
- 문장 속 성분들 간의 호응 관계를 잘 지켜야 한다.
- 언어 관계가 성립하지 않거나 화법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한다.
- 번역 투의 문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한 문장 속에 능동과 피동 표현을 섞어서 쓰지 말아야 한다.
- 사실에 바탕을 둔 정보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달해야 한다.
- 구어적 성격을 띠어야 한다.
- 폭력적인 표현과 내용을 자제해야 한다.
- 인간 비하적인 내용을 담지 말아야 한다.
- 경어법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 표준어를 사용하고 외국어와 외래어를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 유행어, 신조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중복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호칭어, 지칭어를 바로 사용해야 한다.
- 수식어와 피수식어 간의 호응 관계에 유의해야 한다.
- 출신자의 외모, 학력, 개성 등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비하해서는 안 된다.
- 지나치게 사적인 호칭어, 지칭표현, 반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지나치게 사적인 대화를 피한다.
- 지역 방언을 지나치게 희화화하지 말아야 한다.
- 청소년이 시청하는 시간대에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자제한다.
- 차별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한글맞춤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출신자의 말이 바르지 않을 경우 바른 표현으로 제시한다.

- 출연자의 발언 내용을 곡해해서는 안 된다.
- 불필요하게 많은 자막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언어 예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 통신언어, 은어, 비속어, 유아어 등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 방청객이나 청취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인제(2009)에서와 같이 분야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정책 관련 교육 언어]

- 어문 규범 미준수(띄어쓰기)
- 외국어 사용하는 언어를 직수입하여 정책 용어로 사용
- 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언어 표현
- ‘-적’, ‘-화’, ‘-성’과 같은 결합어 사용과 지나친 문맥 생략
- 신어의 사용 : 신어 사용에 대해서는 어문 규정 어느 조항에도 없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사용자가 만들어 쓰면 그만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이 정부의 공식 국어 사용의 예가 되어 문제가 된다.
- 외국어 용어의 번역이 우리말에 맞지 않는 언어 표현
- 정부의 정책 자료 언어 사용(정책 용어와 신어 남용 등)
- 문맥과 표현 의도의 괴리
- 불필요한 어투의 고착(예: ~할 수 있을 것이다 등)
- 독자 배려가 없는 텍스트 생산

[교과서 언어]

- 학습자의 학습을 고려하지 않는 국어 사용
- 사전 미등재 단어의 지나친 사용
- 문맥으로도 이미 파악이 어려운 문장 구조
- ‘-적’, ‘-화’, ‘-성’, ‘-것’ 류 단어 과다 사용
- 표기의 오류

피터 로드니(2013)에서와 같이 미시적인 전략도 필요하다. 로드니는 쉬운 영어 캠페인은 간명한 단어와 문장을 사용할 때만 이해력이 증진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쉬운 영어로 글을 쓰는 방법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하면서, 쉬운 영어로 글을 쓴다는 것은 직설적이고 저속한 말을 많이 포함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쉬운 영어(혹은 쉬운 글)를 읽는 사람이 알기 쉽고 유익하고 예의바르다고 인정하는 소통 방식으로 규정하고 쉬운 영어로 글을 쓴다는 것은 애매모호한 말 대신 쉽게 이해될 만한 말을 사용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과정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런 인식으로 설정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 누구를 대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지 알아내기.
 - 일반인을 위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문 용어를 이해하는 동료 전문가에게 줄 문서를 작성하는 것인가?
- 문서의 목적 알아내기.
 - 읽는 사람에게 정보를 줘 그들이 원활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하기 위한 문서인가? 아니면 그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려는 문서인가?
- 문서를 시작할 때 무엇에 관한 문서인지 읽는 사람이 알도록 요약 내용 제공하기
- 내용을 바르게 정리하기
 - 읽는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 내용은 제공하고 관계없는 내용은 지워야 한다.
- 읽는 사람을 문서의 내용에 포함시켜 친근감을 자아내기
 - 예컨대 ‘지원자’나 ‘대학’이라는 말보다는 ‘당신’과 ‘우리’처럼 개인을 가리키는 말을 사용하라.
- 문서 작성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이해관계자)에게 자문을 구하기
- 정보를 논리적 순서에 따라 배치하기
- 문서 양식을 읽기 쉽게 설계하기
- 읽을 사람 일부에게 초안 문서를 시험적으로 읽히기

다음으로는 공공언어 전용 누리집을 만들어 공공언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묻고 답하며 서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장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언어 신고마당’을 두어 공공언어 때문에 입은 손해가 있다면 피해 구제를 신청하고, 운영기관은 해당 기관에게 이를 고치도록 명령하며, 개선되지 않을 때 법적 절차를 밟아 과태료 등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도적 전략도 중요하다. 이를테면 국어책임관 활동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공공언어가 생산돼 바깥으로 공개되기 전에 국어책임관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어책임관 아래에는 해당 공공언어를 실제로 대할 소비자들로 검증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면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스위스 중앙언어서비스부에서 사용 용어의 통일

을 위해 450만 용어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한 것(TERDMAT)과 같이 우리도 국내에서 진행된 여러 기관의 순화 자료들을 모두 모아 현대 감각에 맞게 새로운 순화어나 순화 문장을 제시하는 ‘쉬운 말 찾아 쓰기 사전’을 만든다.

공공언어 쉽게 쓰기 운동을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연합 기구가 필요하다. 공공성이 있는 기관과 민간 기구의 연합을 만들어 실효성 있는 운동을 해 나가야 한다. ‘공공언어 진단 기준’이 마련되면 평가를 통해 ‘쉬운 말 쓰는 곳’으로 인정해 주고, ‘품질 인증표’도 달아 주는 ‘공공언어 인증제도’를 운영하면 훨씬 빠르게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인증을 위한 평가 전략이 중요하다. 이를테면 진단 대상 자료를 문장 단위로 평가하되, 문장 단위 점수를 합산하여 ‘별도 수식’으로 종합점수를 매긴다. 별도 수식은 문서의 분량과 상관없는 표준점수 방식을 적용하고 문장 단위를 평가하는 세부 항목과 점수는 따로 정한다. 문장의 길이에 따라 구성 요소의 개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한 문장 안에 쓰인 같은 유형의 요소들은 평균 점수를 반영한다.

이상은 공공언어 개선을 위해 국어 운동에서의 다양한 운동 전략을 적용해 본 것이다.

5. 국외 자국어 운동 사례 검토

국어 진흥 운동을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범위 안에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외 자국어 운동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국가가 처한 상황이나 문제점이 다르기 때문에 국외의 사례를 무작정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는 있다. 그러나 여러 국가의 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국어 진흥 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과정은 필수적이다. 각 나라의 특수한 언어 환경은 그 나라의 정책 과제와 시민운동의 과제를 불러낸다. 그 가운데 특히 부각되는 것은 ‘언어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차별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세계화 속에서 날로 강해지는 외국어의 영향으로부터 자국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영어권 국가에서 비교적 전자의 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다면 비영어권 국가에서는 후자의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에서는 근대화 과정이 복잡한 탓에 두 가지 문제가 모두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는 자국어 운동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 미국, 독일을 중심으로 자국어 보호와 진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고 이를 평가함으로써 우리의 국어 진흥 운동을 위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사례 검토의 범위를 프랑스, 미국, 독일 세 나라의 사례로 국한시킨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은 이중 언어 사용 정책(벨기에, 캐나다 등), 혹은 다중 언어 사용 정책(중국, 스위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등)을 취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중 언어 정책 및 다중 언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는 배제하였다. 또한 자국어 진흥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자국어 해외 보급 정책에 대한 내용은 그 자체로 매우 방대한 주제이며 이 연구에서 일부분으로 다루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례 조사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로 역사적, 지리적 요건에 의해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이든,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실제로는 다중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이지만 1국가 1언어의 원칙을 지향하는 국가이든 단일 언어 사용을 추구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자국어를 지키고 다듬거나 풍부하게 만들며, 구성원 사이의 소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 혹은 민간 차원에서 자국어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므로 이 연구의 취지에도 부합된다.

5.1. 주요 국가별 자국어 운동 사례

1) 영국

영국의 자국어 운동은 ‘쉬운 영어 운동(Plain English Campaign, PEC)’에서 시작되었다. 쉬운 영어 운동은 1970년대 영국의 많은 국민들이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 금융 기관 및 병원, 기업 등에서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데 관심이 집중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대중을 상대로 제공하는 정보의 대부분이 애매한 단어와 기술 용어를 사용하여 실제로 그 정보를 이용해야 할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관료적이며 심지어는 글자도 매우 작게 인쇄하여 소비자(독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 당시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복지 혜택 양식’에 쓰인 어려운 영어였으며, 이것이 쉬운 영어 운동을 일으키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복지 혜택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 대부분 경제력이 없고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작성해서 정부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작성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고자 크리스 메이어(1938~)를 포함한 모임을 결성하고 언론의 도움을 받아 쉬운 영어 운동을 추진하였다.

영국의 쉬운 영어 운동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그들이 1980년에 ‘쉬운 영어 운동상(Plain English Awards)’을 제정하고 매년 시상해 온 것이다. PEC에서는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쉬운 언어를 사용하려 노력한 기관에 트로피를 주었다. 또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를 제공한 기관에게도 ‘가장 못한 상’을 수여하였다. 이러한 운동이 언론의 큰 관심을 모으면서 쉬운 영어 운동을 더욱 촉진시키고 널리 알릴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쉬운 영어 쓰기 운동에서 주요 전략으로 내세운 것은 소통의 장애로 인해 정부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다. PEC의 조사 활동을 통해 정부의 소통이 불분명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막대하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는 쉬운 영어 쓰기가 단지 소통의 편리뿐 아니라 경제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1990년대에 이르러 쉬운 언어 쓰기 운동의 효과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1995년 ‘의약 관련 정보’와 ‘소비자 계약에 관한 정보’에 대해 유럽 지침이 도입되었으며, 1995년에는 영국 재무부에서 세법을 더욱 분명한 언어로 작성할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1999년에는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 연합의 번역 업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쉬운 언어 쓰기 훈련에 PEC를 초청하는 등 쉬운 영어 쓰기 운

동은 그 저변을 확대해 나갔다. 2000년대에 들어 PEC는 유엔과 MS사와 같은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쉬운 언어 쓰기 훈련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그 영향력을 널리 떨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PEC에서 1979년 이후로 진행해 온 활동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5) PEC의 활동 내용¹⁹⁾

- 대중과 쉬운 영어를 사용하여 소통하도록 기관 설득하기
- 관료적인 언어, 조그만 글씨, 그리고 공식 정보의 난해한 법률 용어들 때문에 당혹스러웠던 사람들의 불만 끌어내기
- 영국과 외국의 조사 작업 기금 모으기
- 쉬운 언어 주제에 대해 영국 의회와 유럽의회 구성원들에게 청원활동하기
- 해마다 쉬운 영어 운동상 운영하기
- 안내 지침, 용어 해설과 훈련 과정 등의 무료 교육 자료 개발하기
- 17개국을 순회하며 쉬운 영어 쓰기 ‘길거리 공연’하기
- 국제 쉬운 언어 행사를 조직하고 재원 마련하기
- 학교를 위한 무료 온라인 훈련 과정 개발하기
- 대중에게 최신의 소식을 전할 무료 정기 잡지 만들기
- 다른 지역의 새로운 쉬운 언어 모임 결성 지원
- 쉬운 언어에 대한 주로 정기적인 보도자료 보내기

2) 미국

미국의 자국어 운동 역시 영국과 마찬가지로 ‘쉬운 언어 운동(plain language movement)’으로 대표된다. 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소비자 보호 운동에서였다.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체결하게 되는 각종 계약문서의 내용과 형식을 계약 당사자인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소비자 보호의 성격을 띤 이 운동은 미국 연방 정부와 각 주 정부로 하여금 ‘쉬운 언어로 쓴 법과 규칙’ 채택하도록 만들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역을 확장시켜 나갔다. 초기의 쉬운 영어 운동은 대표적으로 보험계약서, 주식청약서 등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법률문서와 규칙이나 정부문서, 각종 서식을 쉬운 언어로 쓰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공공 기관의 문서를 쉽게 써야 한다는 취지의 국가 정책은 1972년 닉슨 대통령에

19) 이 부분은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기념 언어정책 국제회의의 ‘쉬운 언어 정책과 자국어 보호 정책의 만남’에서 발표한 Peter Rodney(법률언어 전문가)의 ‘쉬운 영어 캠페인의 경험’에서 인용한 내용이다.

서 시작하여 최근의 오바마 대통령까지 꾸준히 이어져 왔다. 닉슨은 미국의 연방 규칙은 ‘보통 사람의 용어(layman’s terms)’로 쓰여야 한다고 명령했고, 1978년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명령 제12044호와 제12174호를 발령하여, 정부 규제는 비용 면에서 효과적이어야 하고, 또 이를 따라야 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명령은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철회하기는 했으나 철회된 후에도 뜻있는 사람들은 문서를 쉽고 단순하게 작성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이후 1993년에는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명령 제12866호를 발령하였는데 그 내용은 행정기관은 규제 규칙을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닉슨과 카터 대통령의 뜻을 이었다. 또한 클린턴 대통령은 1998년 6월 1일에 대통령 메모랜덤(Presidential Memorandum)을 발령하여 연방정부의 문서는 반드시 쉽게 작성하도록 지시하면서, 1999년 1월 1일부터 연방 규칙에 수록되는 모든 최종 규칙과 규칙 예고안을 쉬운 언어로 쓰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존 규칙에 대해서는 기회와 여력이 있을 때 쉬운 언어로 고쳐 쓰도록 지시했다. 이와 더불어 범정부 기구(NPR, National Partnership for Reinventing Government)에 명령하여 연방정부에서 일하는 방식을 개혁할 수 있도록 정확한 지침을 제공하도록 지시하였다.

최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Plain Writing Act of 2010에 서명함으로써 알기 쉬운 정부 문서의 작성 기조가 마침내 연방 법률로 제도화되게 되었다. 이 법은 연방정부 기관들이 정부 문서나 웹 사이트를 명확하고 간결하며, 잘 짜인 구조로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 법률의 이행과 관련된 실무 그룹인 PLAIN은 그동안 존재했던 많은 지침을 통합, 정리하면서 2011년 3월 Federal Plain Language Guidelines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였다.(류성진 2012: 67-68)

미국 연방정부 중심의 쉬운 언어 사용 운동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지침(Federal Plain Language Guidelines)이 단어의 선택에서부터 문장, 문단 구조에 이르기까지 매우 상세한 지침을 담고 있으며, 대원칙으로는 ‘독자 중심’의 문서 작성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소통’의 원칙이 반영된 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프랑스

프랑스는 법제를 통한 자국어 보호 정책을 비교적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하나로 소위 ‘국가 개입주의 언어 정책’을 펼치고 있다. 프랑스의 언어 정책은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1994년 8월 4일 법률(일명 투봉법)’²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20) La loi du 4 août 1994 relative à l’emploi de la langue française.

으며, 언어 정책은 프랑스언어총국(DGLFLF)이 핵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1975년에 ‘바-로리올 법’이 언어 사용법으로서는 처음으로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으나²¹⁾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바-로리올 법’에 이어 ‘투봉법(Toubon법)’이 1994년에 제정되고 1995년에 전면 시행되었는데 이전에 제정된 법에 비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투봉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몇몇 분야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 위반자에게 경범죄를 적용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투봉법 제2조에서는 “모든 재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명칭, 제공, 소개, 사용법, 보증 기간과 조건 표기 그리고 송장과 영수증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명기하였다. 이러한 법을 제정하게 된 취지는 소비자의 모국어로 작성되지 않은 정보가 보건, 의료 등의 분야에서 소비자에게 큰 손해를 입힐 수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권익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기반한 것이다.

투봉법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 투봉법의 주요 적용 분야(김진수 2008: 127-130)

- **소비자 정보:** 재화, 제품, 용역의 명칭, 소개, 광고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하여 바-로리올 법의 규정을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표찰이나 사용법 등 소비자 관련 정보는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 **노동:** 근로자가 노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알아야 할 규정이 기재된 모든 서류가 프랑스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위반 시에는 노동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 **방송:** 바-로리올 법에서 언어의 보급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방송, 특히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대해 모든 방송과 광고에서 프랑스어 사용 또는 번역을 이미 의무화하였으며, 투봉법에서는 이를 이어나갔다. 여기에 투봉 법은 한 단계 더 나아가 통신의 자유에 관한 법까지 제정했다. 방송에 관한 모든 문제를 방송 위원회에 전담시켰다.
- **공공업무:** 모든 공공업무 담당자들의 프랑스어 사용 의무를 강화하고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게시나 고지에 번역을 첨부할 때 반드시 두 개 이상의 외국어로 번역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

21) 바-로리올법은 프랑스어 어휘 내에 들어오는 외국의 전문 어휘를 막는 것을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삼았다. 이 법에서는 물품 및 서비스의 명칭, 소개, 광고 등에서 프랑스어를 필수적으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고, 프랑스어 대응 용어가 있음에도 외국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바-로리올법은 프랑스 현대 언어 정책의 법적 근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하여 다언어주의를 지향하는 동시에 영어의 독주를 막고 있다.

프랑스어 사용법, 즉 투봉법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배경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첫째, 행정부와 프랑스어협회의 철저한 감시 기능, 둘째, 소비자 즉, 언중의 폭넓은 합의, 마지막으로 기업들의 법 조항 준수가 그것이다. 즉 언중의 이해와 참여, 유관 기관의 협조와 감독, 기업의 조항 준수 등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언어 사용에 관한 법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4) 독일

독일의 언어 운동은 주로 언어 순화의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그 기저를 이루는 의식은 ‘순수한 독일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7세기 초 이래 독일에서는 어학회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라틴어와 프랑스어의 영향으로부터 (표준)독일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19세기 이후 현재까지는 기존의 프랑스어뿐 아니라 영어를 어원으로 하는 외래어도 순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독일어 순화 운동가들은 독일어의 순수성과 근원성을 주장하고, 독일어가 언어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믿고 자랑스럽게 여겼다. 잘 알려져 있듯이 그들에게 ‘언어-민족정신’, ‘언어-국가’는 종종 동일시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에서 일어난 언어 운동의 핵심은 모국어(독일어)를 외래어적인 요소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17~18세기 여러 학회들을 중심으로 추진된 독일의 언어 운동의 과제는 규범화된, 초지역적인 표준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문학어를 확립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운동은 ‘정서법 마련’, ‘사전 편찬 계획 수립’ 등으로 이어졌으며, 외래어를 독일어로 대체함으로써 문학어를 확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일으켰다.

독일의 언어 순화 운동을 주도한 대표적 인물인 아델룽(J. Ch. Adelung, 1732-1806)은 ‘언어가 순수하다’는 것은 ‘외래어적인 요소가 부분적으로도 혼합되어 있지 않은 것’을 뜻할 수도 있지만, ‘순수하다’는 개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인을 ‘언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라 보았다. 즉, ‘옳고 순수한’ 언어 사용은 ‘언어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학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문용어를 쓰거나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일반 대중을 위한 텍스트에서는 이러한 용어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캄페(J. H. Campe, 1746-1818)는 독일어 순화 운동의 핵심인 외래어 문제에 대해 좀 더 본격적으로 접근하였다. 그는 학문어와 일상어의 간격이 심하게 벌어진 것이

민중을 계몽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보고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언어를 기능적으로 파악하고, 사회의 실제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보았다. 따라서 알기 쉬운 독일어로 외래어를 대체함으로써 독일어 어휘를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사소통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특히 정치, 학문과 종교, 군대제도 등에 관한 외래어를 독일어로 옮기는 시도를 하였으며, 「우리말에 들어온 외래어를 설명하고 독일어로 바꾸기 위한 사전」을 편찬하여 외래어를 대체할 수 있는 독일어 어휘를 사전으로 제시하는 실천적 노력을 하였다. 어휘의 대체 사례는 (16)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 Monarchie → Alleinherrschaft

Despotie → Zwingherrnstaat

Anarchie → Gesetzlosigkeit와 Regierungslosigkeit

이러한 그의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은 아니지만 캄페의 독일어 살리기 운동은 독일어 어휘를 풍부하게 하는 데 구체적인 기여를 했으며, 당대와 후대의 언어 순화 운동가들에게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을 받는다.

1870년대 이후에는 법과 제도가 정비되면서 공공기관의 고위 관리와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공식적으로 언어 순화 운동에 힘을 기울여 수많은 외래어가 독일어로 바뀌었으며, 80년대 중반부터는 시민 중심의 외래어 배척 운동이 일어나 불필요한 외래어 요소로부터 독일어를 순화시키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었다.

(18) 독일어로 바뀐 외래어의 예(김태성 2010: 244-245)

• 우편제도와 통신 분야

einschreiben(recommandieren), postlagernd(poste restante), freimachen("frankieren), Briefumschlag(Couvert), Fernsprecher(Telefon)

• 교통(철도) 분야

Fahrschein(Passagierbillet), Rückfahrkarte(Retourbillet), Abteil(Coupe), Bahnsteig(Perron), Fahrgast(Passagier), Stellwerk(Signalhäuschen), Schranke(Barriere)

• 군사용어와 법률용어

Gelände(Terrain), Abteilungen(Detachements), Dienstgrad(Charge), Beförderung(Avancement), Reinschrift(Mundum), Ruhegehalt(Pension), Zustellungsurkunde(Insinuations-Dokument)

1885년에 설립된 ‘일반 독일어 협회’(allgemeiner Deutscher Sprachverin)는 외래어

를 독일어로 대체해 놓은 사전을 여러 차례 발간하고 대중에 보급함으로써 개개인의 언어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²²⁾

독일의 자국어 진흥 운동이 외래어 사용을 배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독일어를 찾아내어 보급함으로써 언중의 언어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외래어 순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고, 그 결과를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공유하거나 자료집으로 발간하고 있지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대중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독일이 자국어에 유입된 외래어를 알기 쉬운 독일어(자국어)로 대체하여 독일어의 어휘와 표현을 살리고 이를 사전으로 편찬하여 널리 보급한 노력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5.2. 국어 진흥 운동에 대한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각 국가에서의 자국어 진흥 운동은 모두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특수성 속에서 발전해 왔다. 한국도 역사적으로, 특히 언어와 관련해서만큼은 순탄치 않은 굴곡의 시기를 보내왔다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중국의 영향권 아래 있었고, 1910~1945년까지 일제강점기에 우리말글을 사용할 수 없는 불행을 겪기도 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한국어의 정체를 지키는 것이 어려워졌다.

한국의 자국어 진흥을 위한 노력은 4장에서 살펴본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15세기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까지도 거슬러 올라간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1984년 갑오개혁 때 고종이 칙령 제1호 ‘공문식’ 제 14조에서 ‘법률, 칙령은 모두 국문을 기본으로 하고 한문으로 번역을 붙이거나 혹은 국한문을 섞어 쓴다.’고 하여 국어(국문)을 장려한 것을 은 국가가 언중의 언어생활에 개입하고 국어를 지키려 한 첫 번째 공식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김세중 2012: 198-200). 고종의 칙령 제1호로부터 약 120년이 지난 뒤에 국어 진흥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포함한 법령인 국어기본법(2005년)이 공포되고 그 시행령이 발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5.1에서 살핀 국외 자국어 진흥 운동의 사례를 통해 일반 대중의 소통을 편리하게 하고 언어 사용을 규정하고 규제하여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는 동시에 사회 구성원이 언어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²²⁾ 그러나 이 협회는 국수주의적 입장에서 외국 언어뿐 아니라 외국적인 것을 모두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으며, 학계와 저명한 문인들로부터는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김태성 2010: 246)

다. 이러한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정리한 다음의 내용을 통해 우리의 국어 진흥 운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대중 중심의 운동

대부분의 자국어 운동은 '독자', 즉 그 언어를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소비 활동을 할 대중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기업 중심, 판매자 중심, 공무원 중심적이라고 비판 받는 한국 사회에서 서둘러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적 노력은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와 문화의 개선과 혁신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② 국가 및 정부의 관여

한 나라 내에서의 언어 정책 수행의 역사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제재 조치 및 처벌 규정을 제대로 갖춘 정책은 대체로 실효를 거두었다. 이는 강제성과 자국어 운동 성공 여부와의 상관관계를 무시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③ 대중·유관 기관·규정 준수 주체의 협력

성공한 자국어 진흥 운동은 언중의 폭넓은 합의와 참여, 행정부 및 유관 기관의 협조와 감독, 서비스 제공자 측의 규정 준수라는 세 가지 요인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 요인들이 국어 진흥 운동 성공의 필수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④ 법 제정 이후 충분한 준비 기간

법 제정 후 이를 집행하고 시행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때 더욱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법률을 만든 후 세부 수행 지침을 세우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²³⁾

⑤ 세부 지침 제공

자국어 진흥 운동은 막연한 구호에 그치지보다는 언어 사용 내지는 문서 작성의 세부 지침, 즉 단어 사용, 문법 사용, 문장 및 문단 쓰기에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때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즉, 지침을 받는 대상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 우리의 국어 진흥 운동에 있어서도 명확한 지침과 세부적 내용 기술은 필수적이다.

23) 2004년 국어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2005년 1월에 공포, 같은 해 7월에 시행령을 발표한 것과 프랑스의 투봉법이 1994년 8월 4일에 제정되고 1995년 9월 7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것을 비교할 만하다.

6. 국어 진흥 운동의 이론적 기반과 실천 전략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국어 진흥 운동의 기반이 되는 이론이 지녀야 할 특성을 기술한 뒤 이론 모형을 제시하도록 한다. 개발된 이론 모형은 구체적인 언어 사용 문제 상황의 두 가지 예, ‘청소년의 욕설 사용’과 ‘신문 및 방송 언어의 문제’를 사례로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았다. 검증 과정에서는 그동안의 ‘청소년 욕설 사용’ 연구, ‘신문 및 방송 언어 문제’에 관한 문헌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2000년대 신문 기사문 가운데 국어 사용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기사문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도 이론을 검증해 보았다.

앞서 여러 차례 논한 바와 같이 국어 진흥 운동은 궁극적으로는 실천을 위한 것이며, 국내외 (자)국어 운동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듯이 실천적 운동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언중의 폭넓은 지지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국어 진흥 운동이 지금보다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타당한 이론을 근거로 하여 설득력을 지녀야만 한다.

(19) 어문 정책이나 어문 운동 역시 기술·설명·예측·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분야의 학문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연구 대상과 효율적인 연구 방법론의 확립이 중시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정책이나 운동 분야의 연구는 다른 분야의 연구와는 달리 연구자의 주관이나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면이 있다. (허재영 2002: 201-202)

(19)는 짧은 글이지만 국어 운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객관적 연구 대상 설정’이나 ‘효율적인 연구 방법론의 확립’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국어 운동에서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고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어느 분야에서나 마찬가지로 이론이 결여된 운동은 일관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드러내 왔다. 국어 운동 분야에서 이론의 부재는 ‘국어 사용의 문제 인식’, ‘국어 사용 실태 조사’, ‘국어 사용 문제의 원인 분석’,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방안 제시’의 각 과정이 체계적 발전을 보이지 못하고 어느 특정 단계에 관심이 집중되다가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해 왔다.

이 연구에서는 국어 진흥 운동을 지지하는 이론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국어 진흥 운동의 기반 이론은 국어 진흥 운동의 전 과정 즉, ‘문제 진단-실태 조사-원인 분석-실천 전략 수립-실천’ 단계에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특정 이론을 따르지 않으며 보편성을 지닌 이론이어야 한다. 이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두루 수용할 수 있는 속성을 지녀야 함을 뜻한다.

셋째, 이러한 이론은 전문가들에 의해 일관성과 타당성 있게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이제 국어 진흥 운동을 뒷받침하는 이론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모형 설정 및 점검을 통해 국어 진흥 운동의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6.1. 국어 진흥 운동 이론의 속성과 방향

1) 국어 진흥 운동에서 이론의 필요성

근대의 국어 순화 운동은 고유어를 가꾸어 나가고 표준어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런데 표준어 사용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국어 운동 스스로가 모순을 갖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표준어 사용을 강조한 입장에서는 시문학에 사용된 외래어나, 문학 작품 속에 쓰인 방언이 나타내는 독특한 효과에 대해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강호정(2008)은 문학 작품 속에서 권력에 대한 은유 혹은 비판, 선망이나 추종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된 외래어나, 과거 지향적이고 전통 보존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방언이나 토속어가 나타내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표준어만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국어 순화 운동가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어 운동이 지나치게 한쪽 방향으로 치우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된 원인은 그들이 어떤 타당한 이론을 근거로 삼아 표준어, 고유어 사용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즉 그들이 추진하는 운동과 관련된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보편적 이론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 그 이유였던 것이다.

또 다른 예를 ‘한자 혼용’과 ‘한글 전용’의 대립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자 혼용’이나 ‘한글 전용’은 끊임없이 찬반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

- (20) 국한문 혼용론자들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도 한글과 한자를 함께 쓸 것을 주장해 왔다. 최근 이들은 한글 전용을 두고 “국가를 망친다.”거나 전용론자들이 “무책임, 무논리, 파렴치”하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혼용을 주장하는 보수언론들은 “좌

과논리”라며 예의 색깔논리를 들이댄다.

이런 감정적이고 극단적인 주장들이 서로를 자극했다. 양측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의 극단적인 주장들을 비판하며 대립했다. 살펴보겠지만 양측의 주장에는 공통되는 부분도 많다. 한글 전용론에도 한자사용 및 한자 교육을 인정하는 부분이 많고 국한문혼용론에도 최대한 한자사용을 줄이자는 사람이 많다.

성균관대 한문교육과 이명학 교수도 논문에서 “양측이 모두 우리말을 잘 사용하자는데 이견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과거 인하대 김문창 교수 등도 “서로의 장·단점을 살펴 제3의 길을 가자”고 하기도 했다.

한문학계는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할 때 “우리글의 70%는 한자로 돼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 원광대 국어과 김대희 교수는 “한자어들은 모두 한글화 돼 사용되고 있으며 의사소통 도구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름다운 교육 신문, 2011. 05. 27. 한자 교육이 경쟁력 2편: 감정적이고 극단적인 주장들)

(20)의 내용을 볼 때 ‘한자 혼용’과 ‘한글 전용’의 문제는 글자 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의 문제로 초점이 옮겨졌다. 이러한 주장들은 감정적이고 극단적으로 전개되어 ‘문자 사용’이라는 문제의 핵심을 놓친다는 우려를 낳는다. 이러한 문제 역시 양측 모두 보편타당한 이론으로부터 나오는 주장과 논리적 반박을 펼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21) • 한글 전용을 하면 교육효과가 높아진다. 그러나 한글 전용 때문에 전문어의 뜻을 몰라 학력 저하 사태가 생겼다는 반론도 많다.
- 중국도 한자 개혁을 해서 간체자를 쓰며, 한자는 자수와 획이 많아 판독하기도 어렵고 평생 배워도 다 모른다. 그러나 생활 한자는 2, 3천자만 배우면 되므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
 - 한자의 기계화는 난점이 많으나 한글 기계화는 쉬워, 경제 및 문화 등의 선진화를 이루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이제는 컴퓨터의 한자 입력도 가능하여 상황이 달라졌다.
 - 한자 문화에 눌렸던 우리 문화를 꽃피우려면 한글 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자 때문에 문화가 위축되고 한글 전용을 하면 문화가 흥한다는 생각은 논리의 비약이다. 한자를 쓰는 일본은 대국이 되었고, 중국도 원자탄을 개발할 정도다.
 - 표의 문자에서 표음 문자로 발달한 문자사의 관점에서 자타가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표음 문자인 한글 사용은 당연하다. 중국의 한자도 표음부와 표의부를 합성한 형성 원리에 의한 한자가 90%나 되므로 표음 문자 요소를 지니며, 가차자는 표음 원리에 의한다. 그러나 한글은 모아쓰기를 해서 방대한 활자가

필요하고 자판도 2벌, 3벌, 4벌식의 문제와 조합형, 완성형 등의 논란이 있다.

(국어 교육학사전 1999)

(20)과 (21)을 종합해 볼 때. 한자사용 주장 혹은 그에 대한 반론 모두 일정한 이론적 근거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론적 근거라는 것은 한자 및 한글 사용 원리에 관한 이론을 뜻하는데, 지금 펼쳐지고 있는 주장을 보면 모두 개인적인 논리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어 운동이 감정적이고 극단적인 주장과 반박의 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편적이고도 타당한 이론, 객관적으로 현상을 바라보고 분석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이론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국어 진흥 운동 기반 이론의 속성

이론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2) • ‘사물의 이치나 지식 따위를 해명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일반화한 명제의 체계’ (표준국어대사전)
- ‘개별적인 사항을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 이치나 지식을 밝힌 체계, 관념적이고 논리적인 지식 ↔ 실천 (한+국어사전)

국어 진흥 운동은 인접 학문의 여러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 이론 역시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된다. 이를 각 분야에서의 언어관을 중심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첫째, 철학적 언어관은 어휘의 의미 사용이나, 어휘에 담긴 개념과 세계와의 관련성을 논하고, 언어에 대한 성찰의 이유와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국어 진흥 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심리학에서의 언어관은 언어 사용이 화·청자의 뜻을 전달하는 과정임을 설명해 주며, 언어 사용 주체의 인지, 지각, 판단 등 언어적 실천의 심리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인류학에서의 언어관은 종족, 문화, 국가, 생활 배경뿐만 아니라 사고 틀 형성까지도 다룬다는 점에서 국어 진흥 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 사회학에서의 언어관은 국어 사용에서 상황에 주어진 사회적인 요인, 즉 친족 관계, 연령, 친소 관계, 교육, 직업, 성별 등에 따라 어떠한 변이형이 사용되는지

를 밝혀 줌으로써 국어 진흥 운동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섯째, 문학에서의 언어관은 인간이 다양한 표현들 가운데 미적 효과가 있는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는 점을 밝혀 도움을 준다.

이러한 언어관에 따른 이론들은 다시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나뉠 것이다. 언어학, 심리학, 언어철학, 비트겐슈타인의 분석철학이론, 지시이론(theory of reference), 촘스키의 변형생성이론, 소쉬르의 이론과 사상, 언어 사상, 18세기 언어 이론과 헤르더의 언어 철학, 콰인의 언어관, 합리주의, 전통의 언어 이론 등 구체적인 이론으로 많은 것들이 있다. 국어 진흥 운동이 관여하는 이론은 각 단계나 층위에 적절하고 응용가능하면서도 동시에 국어 진흥 운동을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6.2.의 <그림1> 참고)

이러한 다양한 이론들은 국어 진흥 운동이 진행되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절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물론 앞서 강조한 대로 특정 학문에서의 이론만을 따라 언어 사용 실태를 분석하거나 원인을 파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어 진흥 운동의 단계나 층위에 적용되는 이론이나 그 범위는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문제 진단 단계의 이론으로는 심리학, 언어학, 사회학 이론이 유용하고 국어 사용 실태 조사에서는 국어학, 심리학, 사회언어학 등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원인 분석 단계에서는 심리학과 사회언어학 등이, 실천 전략 수립 단계에서는 심리학이나 사회학, 국어 정책론, 혹은 교육공학 등에서의 이론이 요구될 것이다.

국어 진흥 운동에 필요한 이론이란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내는 아니라 언어 사용의 현실을 바르게 조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이론들을 복합적으로 혹은 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들을 국어 진흥 운동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 찬반의 의견을 모두 수렴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명료하며, 분명한 이론이어야 한다.
- 국어 진흥 운동의 각 층위에 적용되는 일관성 있는 이론이어야 한다.
-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이론이어야 한다.

이러한 이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어 운동의 근거로 제시해 왔던 몇몇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으로 대신한다. 과거나 현재나 국어 운동의 이론적 근거로 가장 인기 있는 이론은 ‘말과 정신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언어 결정론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절은 (22)와 같은 것이다.

(22) • 슐레겔(Schlegel)은, ‘언어는 인간정신을 그대로 본떠 놓은 것’이라 하였다.

- 라이프니츠(Leibniz)는 ‘언어는 인간정신의 가장 좋은 반영’이라 했다.
- 헤르더(Herder)는 ‘우리들은 이제는 말하는 것을 통해서 사고를 배우니까, 사고는 언어에 있어서, 언어로써,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인데, ...’

사피어(Sapir) 역시 언어가 관념, 감정, 욕망을 전하는 방법임을 인정하면서, ‘가장 세련된 생각(사고)이 무의식적인 언어의 기호표시(symbolism)의 의식적 짝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한 것과, 하만(Hamann)의 ‘말이 없으면 이성도 없고, 따라서 세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등의 주장은 모두 국어 운동의 근거로 제시되어 온 것들이다. (23)과 같은 주장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이론이 국어 운동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23)의 주장들은 이미 ‘보아즈의 문화상대론’과 같은 반론에 의해 비판되었다. 언어 결정론에 대한 다음과 같은 비판 역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4) 국어와 한민족 또는 국어와 만국문화와의 관계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흔히 국어는 우리 민족의 개인의 한 언어이며 우리 문화의 소산인 듯이 막연하게 생각하고 규정하는 경향을 본다. 물론 이것은 틀림없을 사실이겠지만, 국어라 하면 해방 후 소중히 여기는 나머지 비과학적인 쇼비니즘(chauvinisme: 광신적 애국주의)적 태도가 엿보여 정당한 이론을 펼 수 없는 면도 있는 터이다. 더구나 민족하면 때로는 흥분을 느끼고 신경과민으로 서두르는 학문하는 태도를 보며, 본향의 논지에도 그러할 염려도 있지만, 우리는 과학적 정신(L'esprit scientifique)을 끝까지 견지하여야 하며 학문에 있어서는 극도로 냉정해야 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중략)

민족관념을 학적으로 형성하려 시도한 적은 구주의 근세의 사실이지만, 민족과 언어가 본질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불국의 석학 메이예가 ‘민족이란 것은 어느 물적 지점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언어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않느냐는 감정과 의지의 문제이다. 그러나 민족을 구별하는 특성 중 가장 명백한, 가장 유효한 제일특성은 무어니 무어니 해도 언어이다. 언어의 차이가 소멸하는 곳에서 민족 차이도 점점 없어져 가며 또는 민족감정이 결한 곳에 언어의 차이도 없어져 간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복잡다기한 구주의 민족과 언어를 고찰한 데서 나온 말이지만 언어와 민족이란 본질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극단으로 말하면 민족은 존재하여도 언어는 다른 언어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어서 그 호례로는 가까이 청태조가 중국을 통일하여 만주어의 보존에 무한히 노력하였지만 몇 백년도 못 가서 만주어는 거의 소멸되고 말았으며, 동시에 민족으로도 중국에 동화된 셈이다. (남기탁 외

1997: 92-93)

언어를 육성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은 민족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라면 과연 언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나 하면 그것은 언어사회라는 것이다. 언어는 우리의 언어사회의 소유물이란 이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한다.

오늘날 유대인이 민족정신을 견지하고 단결을 꾀하나 언어만은 각거주지의 언어사회의 무거운 지배를 벗어날 수 없어 각국의 유대인의 언어가 다른 이유도 또한 이해될 것이다. (남기탁 외 1997: 97)

(23)과 같은 주장을 국어 운동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였다면 과연 그러한 국어 운동가들은 (24)와 같은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포용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비슷한 문제 제기를 이연숙(1996)에서도 엿볼 수 있다. 언어 결정론을 근대 일본의 국어 운동의 근거로 삼은 것에 대한 평가를 (25)와 같이 내린 이연숙은 일본의 근대 국어 운동은 학문의 '인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제도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면서 (23)에 근거한 국어 운동을 비판하였다.

(25) 언어 순화 운동은 스스로의 언어에서 외래어의 요소를 토착의 요소로 변환하려는 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운동은 한편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화와 민중화, 다른 한편으로는 배외적 내셔널리즘과 국수주의라는 두 개의 극 사이에서 그 성격을 다양하게 바꾸어 버린다. 확실히 리겔은 “독일어로 바꿀 수 있는 외래어”의 배제만을 목표로 했으며, ‘맹목적인 결벽성’이나 ‘완고한 국수주의’를 경계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 운동은 점차 ‘마녀사냥’과도 닮은 ‘외국어 사냥’의 경향을 띠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독일의 이론을 수용한 일본학자 우에다가 유럽으로부터 가지고 돌아온 것은 바로 언어와 내셔널리즘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인식이었다. 학문으로서의 언어학도 실천적인 언어 정책도, ‘국가’라는 공통의 무대 위에서 어느 쪽도 뺄 수 없는 두 주역이어야 했다. (이연숙 1996: 152-153)

이연숙(1996)은 그때 일본의 국어라는 용어 속에 숨긴 사상을 파헤치면서 국어라는 용어 사용에 담긴 언어관을 신랄하게 파헤치고 있다.

(26) 거기에서 우에다가 의지하는 것이 흠볼트를 연상시키는 언어관이다. 흠볼트가 언어는 그것을 쓰는 민족의 <세계상>을 만든다고 설파한 이래, 언어와 민족의 정신적 유기적 결합을 강조하는 것은 독일적 언어관 속에서 하나의 전통이 되었다.

우에다는 “언어를, 그것을 쓰는 사람의 정신 속에 깃든 사상 및 감정이 밖으로 나와서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볼”수 있다고 말하고, 각각의 언어에는 그 민족의 정신생활, 사회생활의 정수가 새겨져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러한 파악은, 언어와 사고의 카테고리를 추상화한 레벨에서만 성립한다는 것이 잊혀져서 실체화되면, 실로 깊은 함정에 빠지고 만다. 우에다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이와 같은 오류에서 태어난 근대 일본의 <국어> 이데올로기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다.

언어는 이것을 쓰는 인민에게 있어서는 흡사 그 혈액이 육체상의 동포를 나타냄과 같이, 정신상의 동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것을 일본 국어에 비유해서 말하면, 일본어는 일본인의 정신적 혈액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국체는 이 정신적 혈액을 주로 하여 유지되며, 일본의 인종은 이러한 가장 강하고 가장 오래도록 보존될 만한 고리 때문에 산란하지 않는다. 고로 대란이 한번 오면, 그 소리가 퍼지는 한은, 사천만 동포는 언제나 귀를 기울이며, 어디든 나아가 어디까지나 돕는다. 죽을 때까지 바친다. 그리하여 일단 경보를 접할 때는 치시마(오키나와-千島列島: 홋카이도의 동단)의 끝도 오키나와의 끝도 일제히 천황 치세의 영원함을 축복 드린다. 만약 이 말을 외국에서 들을 때는, 이것은 실로 일종의 음악이자 일종의 천당의 복음이다.

여기에는 교묘한 바꿔치기가 있다. 언어와 민족의 유기적 결합을 주장하는 언어관은 라틴어로 상징되는 외적 권위가 가하는 규범 언어에 저항하여, 각각의 언어를 민족의 주체적 표현으로 파악하는 경험을 거쳐야만 그 역사적 의의가 인식될 터였다. 그런데 우에다는 언어에서 주체성의 계기를 빼내기 위하여 유기적 언어관을 도입한 것이다. 먼저 언어와 인민 사이의 결합을 “혈액”에 비유함으로써 아무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수동적 자연성을 언어에 부여하고, 그것을 만세일계의 ‘국체’와 동일화시킨다. 그렇게 되자 이미 언어는 인간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떠나서, 어딘가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귀를 기울”여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음악”, “복음”이 된다. 이 “소리”의 주체는 구체적인 개인이 아니라, “천황 치세의 영원함”으로 상징되는 신성불가침의 ‘국체’이다. 따라서 이 “소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부할 수 없는 명령과 복종의 언어이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이 어쨌든 <말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국체’를 스스로의 내면에 깊이 심는 한에 있어서이다. 그것은 결코 외적 강제로 의식되는 일 없이, 스스로의 내면이 길러 내서 스스로에게 과하는 도덕의 언어로 나타는 것으로서 자발적 존중이 싹튼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본인”은 이 “소리”에 저항하는 따위는 생각도 못 한 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바칠” 수 있게 된다. 거기에는 이미 표현하는 주체는 어디에도 없다. 다만, ‘국체’가 바라는 대로 ‘국어’를 오로지 받아들일 뿐이다. (이연숙 1996: 158-160)

(26)은 한쪽 의견만 받아들여서 운동을 추진했을 때 흔히 받을 수 있는 비판 중 하나다. 따라서 특정 입장을 견지하는 이론은 국어 진흥 운동의 이론적 배경으로 제시하기 어렵다.

(27) 이 저작들을 관통하는 호시나의 사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것이다. 국어와 민족과 국가는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뒷받침하며, 영양을 보급하는 생명체이다. 따라서 국어의 표준화 문제는 곧바로 국가 체제의 통일과 연결되며, 민족과 국가의 세력 확대는 곧바로 국가의 확장을 저절로 일으킨다. 국어는 국가에 따르며, 또한 국가는 국어에 따른다. 국가 체제를 견고히 하고 민족정신을 양양하는 것은, 호시나가 거듭해서 말하는 “국어의 미묘한 힘”에 의한 것이다. (이연숙 1996: 309)

근대 일본의 ‘국어 정책’이 폭력적이었다는 것은 ‘국어’의 강대함이 아니라, 그 취약함의 발로였다. 이것은 ‘대일본 제국’의 폭력성이 일본 ‘근대’의 취약함의 발로였던 것과 비례한다. (이연숙 1996: 357)

비교적 길게 인용한 일본의 근대 국어 운동에 대한 이연숙(1996)의 이러한 비판들을 통해 여기에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국어 운동의 이론적 근거는 보편타당한 이론에서 출발해야 하며 반대 의견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어 진흥 운동의 필요성, 문제 제기 등을 설명하고 언중의 실천적 행위를 유도하려면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 이론은 언어 사용 실태나 실천 행위 등에 바로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이론과 실제의 괴리가 없는 이론, 그리고 실천적 운동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기초한 예측 가능한 결과 제시를 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 아래 국어 진흥 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운동의 근거가 되는 이론은 이론 자체가 담고 있는 진실성이 문제가 아니라 운동을 하는 활력소 또는 추진체가 될 수 있는 이론이어야 한다. 국어 진흥도 마찬가지이다. 자료 수집,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자료의 분석과 구별, 자료들 간의 관계 파악 등을 위해서는 각 단계마다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적절한 이론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료에서 나온 언어적 사실들을 언어 층위별로 혹은 다른 기준에 의해 구별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어 자료에서 잘못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류해 내고 그것의 정당성을 찾아내는 이론들이 국어 진흥 운동의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어 진흥 운동의 이론은 국어 운동의 원리적인 가정들을 진술하고 정의해야 한다. 또한 논리적으로 분명한 패러다임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물론 언어

자료의 가치 판단이나 적절성 여부의 결정, 관련 규범의 제정 등도 일관성 있는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어 진흥 운동은 단지 특정 이론이나 특정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라 실천적 활동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형 설정, 국어 사용 실태 조사에 있어서의 가설 설정 및 원리, 개념들에 대해 보다 의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어 진흥 운동은 결국은 실천적 운동이므로 이를 행하기 위한 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전략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계획 혹은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전략은 이미 적용되는 이론에서부터 유도되어야 한다. 대개의 국어 운동에 대한 논저에서 실천 방안이 부족한 것은 이론적 근거의 부족과 무관하지 않다.

국어 진흥 운동이 바로 이루어지려면 언중의 언어 사용 현상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거기에서 문제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면 이러한 문제를 가설을 세우고 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검증하여 실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일련의 대화나 텍스트와 같이 문장 이상의 언어 단위인 담화의 구조나 의미, 소통 과정, 유형 등의 특성을 연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담화, 텍스트 언어학, 화용론 등이 이러한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이때의 화용론에서는 담화 내에서의 음운, 발음, 통사, 어휘 등 전체 영역을 모두 다루는 것이다. 체계로서의 문법보다는 ‘담화’ 층위의 언어 사용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국어 진흥 운동의 기반 이론은 ‘찬반의 의견을 모두 수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론’, ‘국어 진흥 운동의 각 층위에 적용되는 일관성 있는 이론’, ‘실천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이론’, ‘명료하고 단순한 이론’이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6.2. 이론 모형 설정

6.1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어 진흥 운동의 이론 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국어 진흥 운동의 이론 모형



<그림 1>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국어 진흥 운동은 ‘국어 사용에서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러한 문제를 진단’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 단계를 ‘I층위’라고 본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국어 사용의 실상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실태 조사를 위해서는 문제를 진단하는 데 필요한 가설을 설정하고, 실태 조사의 대상이 될 국어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 단계를 ‘II층위’로 보았다. 다음은 국어 사용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국어 사용에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 즉 III층위이다.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어 사용에서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단계를 IV층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언중의 실천 방향이 구체화되는데 이 단계를 V층위라 할 수 있다. 국어 진흥 운동은 I층위에서 V층위까지의 각 단계를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유기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 가장 이상적인 국어 진흥 운동이 이루어진다.

각 층위마다 필요한 이론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이론들은 모두 국어 사용 원리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해야 각 층위마다 상호관련성을 유지할 수 있다. 국어 진흥 운동에서 가장 염두에 두어

야 할 것은 V층위 ‘실천’의 핵심 주제인 언중과 그들의 참여이다.

각 층위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국어 진흥 운동은 국어 사용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문제를 인식하고 진단하는 I층위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근거를 실천 행위까지 유도할 수 있는 이론으로 제시해야 한다. 문제 인식의 근거로 I층위에서는 사회학, 철학이나 사상, 도그마, 교조, 국어나 언어에 관한 모든 생각이나 주장, 말에 관련된 속담, 경구, 기독교, 불교에서의 가르침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부터 실천 층위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이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술하기로 한다.

(28)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은 우리말과 글을 갈고 닦는 일을 ‘집안 청소’에 비유했다.

집안이 지저분하면 식구의 마음도 혼란스러워지듯이 우리말과 글이 엉망이 되면 국민정신이 헤이해지고 나라의 힘도 약해진다고 본 것이다. 이해인의 시 ‘나를 키우는 말’은 좋은 말이 사회를 성숙하게 만든다고 노래한다.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언어파괴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인터넷에서는 우리말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들이 범람하고 있다. 대통령부터 ‘못해먹겠다’ ‘깡판’ 등 막말을 쏟아 내니 젊은이들만 나무랄 일도 아니다. 국어의 위기는 우리말의 오염과 품위 상실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한 설문조사에서 대학 졸업생의 국어 실력에 불만을 토로했다. 신입사원의 쓰기와 말하기 능력이 떨어져 기획서나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 능력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2005.07.06. [횡설수설] 위기의 국어)

(28)에서 I층위에 대한 내용이 잘 나타난다. 이 기사문에서는 ‘인터넷’, ‘대통령’, ‘신입사원’ 등에서 언어 사용 문제를 찾고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인식의 근거로 ‘주시경 선생’의 말씀이나 ‘이해인의 시’를 들고 있다. 이것은 지난 국어 운동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전개 방식이다.

그러나 (28)에서 문제 인식의 근거로 삼은 이론은 실천적 행위를 유도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그러나 적어도 I, II, III, IV, V의 층위가 상호관련성과 순환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28)은 국어 운동을 하자는 주장에 대해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유사한 예를 하나 더 살펴본다.

(29) ‘말은 곧 그 사람이다’란 주장을 하는 철학자들이 있는데,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곧 그 사람의 됬됨이가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고방식, 행동양식, 교육의 정도, 사회

적 배경, 신분, 직업 등이 그가 사용하는 언어에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제 아무리 학력이 높고 재산이 많고 외모가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비속한 말, 욕설 등 순화되어야 할 표현을 사용하면 그 사람 자체를 비속하고 천박하다고 생각하지, 훌륭한 인격자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또한 말할이 스스로도 곱고, 바르고, 정상적인 말을 사용하면, 그 말에 이끌려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사고방식도 건전해질 것이다. 이처럼 말은 말할이 자신의 본질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순화된 말을 사용해야만 한다. (남기탁 외 1997: 한길 ‘국어 순화의 이유와 방법’: 126-127)

(29)에서도 I 층위의 내용이 잘 나타난다. 그런데 밑줄 그은 부분에서는 ‘말은 곧 그 사람이다’라는 철학자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 각 층위 간 상호관련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지나치게 일반적인 말로는 실천 방안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30) 욕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지니고 있다. 욕설은 강력한 부정적인 기능을 지닌 언어표현이다. 무기나 도구로 사람을 훼손할 수 있듯이 욕설은 사람을 심각한 정도로 훼손시킬 수 있다. 욕설이 이렇게 강력한 기능을 지닌 언어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언어학의 영역에서는 별로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바람직하지 못한 언어 형식인 욕설은 문법적인 문장과 적절한 발화에 관한 설명에 몰두하는 언어학의 대상에서 그동안 벗어나 있었다. 언어 규범에 맞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어 교육 현장에서도 욕설에 관한 교육의 기회는 많지 않았다. (장경희 2010: 402)

(30)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국어 운동의 가장 우선적 대상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욕설’이다. 그런데 욕설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즉 이론적 연구가 없다는 점은 ‘욕설’에 관한 한 국어 진흥 운동이 이론에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 국어학 혹은 언어학 등 기반 학문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역으로 <그림 1>에서 보듯 순환적 구조에 의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도 있다. 즉 특정한 영역의 국어 사용에 대하여 국어 진흥 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그와 관련된 다양한 인접 학문에서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제 II 층위에 대해 살펴보자. II 층위는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단계이다. 지금까지의 국어 운동은 이 층위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사용 실태 조사에서는 대상이나 상황 등으로 구체화하여 조사에 착수하기 때문에 I 층위보다 더욱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I 층위에서 IV 층위로 갈수록 일반론에서 각론으로 이행하는 하나의 학문적 패러다임을 갖추고 있다.

<그림 1>에서 하부에서 상부로 갈수록 문제를 인식하고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이론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용 실태 조사나 실천 방안들을 제시하는 데에는 설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실제 언중의 국어 생활 적용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그리고 경험적인 연구에 대한 방향 부여를 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한다.

실태 조사에서는 국어학 중 음운론, 통사론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론적 II층위, 즉 언어 사용 실태 조사에서는 해당되는 국어 사용에 대한 관찰이나 현상, 혹은 활동들이 포함된다.

(31) 청소년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청소년들의 비속어·유행어·은어 사용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사용이 불가한 대상인 윗사람에 대한 욕설도 출현하고 있었고, 학교 수업 시간에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속어, 욕설, 유행어, 은어 등의 언어 사용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은 친구와 대화 시 평균 20어절 당 한 번꼴로 비속어·유행어·은어를 사용하고 있고, 심하게는 거의 모든 문장에 비속어·유행어·은어가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심도 있는 조사가 시행되어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바른말 사용 교육을 강화하거나 언어 사용에 관한 의식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가족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나 청소년을 선도할 의사소통 센터의 설립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 언어의 순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하겠다. (장경희 2010: 401-402)

예문 (31)에서 II→IV층위의 과정이 아주 간단명료하게 기술되어 있다. III층위는 사용 실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II층위가 국어학적인 이론적 배경을 필요로 한다면 III층위는 심리학이나 사회학, 교육학 등의 이론적 배경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II, III층위 모두 ‘언어 사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32) 불량한 욕설 언어는 청소년들의 감정과 심리 정서를 반영한다. 이들의 심리적 상처의 작동이 욕설 언어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그들의 스트레스 상황을 주목해야 하는데, 그것이 주는 억압적 정서와 감정이 공격성의 표출로 나타나고, 그 결과 주변의 평가와 인정이 낮아지고, 그것이 다시 낮은 자존감, 열패감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회로의 중요한 매듭마다 욕설언어 사용이 증폭되는 경향을 보인다. 청소년 시기 특유의 영웅심 발동도 욕설 언어의 작동을 불러 온다.(박인기 2012:

IV층위는 실천 방안 계획 점검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

(33) 오늘날 우리가 치유하고자 하는 ‘욕설언어현상’은 학교와 사회를 강력한 소통의 축으로 하는 일종의 문화적 처방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학교는 이러한 처방을 생성하는 소통의 발신자로서, 그리고 학교 밖 사회 영역은 욕설언어처방의 충실한 수신자 내지는 재발신자로서 역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욕설 언어의 문제는 교육적/사회적/문화적/소통에서 소외된 상태를 벗어남으로써 극복의 단서를 찾을 것이다. 물론 그 처방의 전략들이 다시 왕성한 교육적/사회적/문화적/소통의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박인기 2012: 116)

대개의 논저에서는 IV층위에 대한 것을 찾기 어렵다. V층위 즉 언중의 실천 의지 및 실천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시하는 것들이 많다. 이것은 국어 사용 실태 조사는 국어학, 그리고 실천 방안은 심의나 규범 혹은 국어 교육 등으로 계획된다. 그러나 층위별로 서로 분리되는 양상을 드러내면 바람직한 국어 진흥 운동이 되기 어렵다.

이러한 모형에서 유의할 점은 III, IV, V 층위에서는 언중의 언어 의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언중’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각 층위에서 언중의 언어 의식이 계발되도록 해야 한다. ‘언어 인식’이란 언어에 관한 명시적 지식이며, 언어 사용 과정과 언어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의식적인 지각과 민감성을 의미한다(Scott, 1994; 심영택, 2013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각 층위에서 언중의 심리, 사회, 문화를 고려해야 한다.

6.3. 이론 모형 점검

이 장에서는 6.2장에서 설정한 이론 모형을 ‘욕설’과 ‘방송 언어’ 분야에 대한 연구, 그리고 국어 의식, 국어 운동을 주제로 한 신문 기사 분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이론 모형 점검의 실제 - 욕설

욕설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주제로 진행되었다.²⁴⁾

<표 10> 욕설에 관한 학술 기사

번호	제 목
1	청소년의 욕설 사용에 대한 질적연구
2	청소년의 비속어·욕설·은어·유행어 사용 실태와 언어의식 연구
3	인터넷 댓글에 나타난 '성기' 관련 욕설의 변이형 고찰
4	청소년 욕설 사용 관련 통계
5	청소년의 민주 시민 역량과 언어환경이 욕설행동에 미치는 영향
6	한·독청소년언어에 나타나는 폭력성: 청소년영화에 나타나는 대화를 중심으로
7	초등학교의 국어 생활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8	성과 관련된 영어의 성차별 표현
9	초·중·고학생들의 욕설 사용 실태와 태도에 대한 연구
10	청소년의 욕설 사용과 자아 개념 및 충동성 분석
11	청소년 욕설 문제 실태와 지자체의 역할
12	청소년의 욕설사용의 심리적 기제 및 순화 방안
13	욕설로 대화하는 한국 영화: 한국 청소년관람가 영화에 나타난 폭력적 언어 분석
14	욕설금지에 앞서 청소년 삶의 질 개선해야
15	청소년의 언어 사용 실태와 언어 문화의 질 제고 방안
16	청소년 입말에 나타난 비속어·유행어·은어 사용 실태
17	욕(辱)의 교육인간학적 기능
18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조사
19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제한적 본인 확인 제시행에 따른 게시판 내 글쓰기 행위 및 비방과 욕설의 변화를 중심으로
20	국어 욕설의 본질과 유형
21	학교 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22	한글 자소 정렬을 이용한 온라인 욕설 필터링 시스템
23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학원 폭력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24	댓글에 나타난 욕설의 형태 연구
25	인터넷 게시판 글 제목의 욕설/비속어 사용과 익명성의 관계
26	세익스피어의 음담, 욕설
27	욕설의 특질에 관한 연구
28	독일어에 나타난 욕설의 화행론적 고찰
29	판소리계소설의 욕설, 그 모습과 기능 고찰
30	Do the Right Thing: 욕설의 문제를 통한역설의 진술
31	북한의 역대 한국 대통령 觀과 욕설
32	우리말 辱說 研究
33	辱說에 관한 研究II: 辱說을 使用하는 言衆의 意識 構造

24) 국회전자도서관에서 '욕설'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중에서 '학술기사'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총 86건이 검색되었고, 연구주제와 관련이 없는 50건은 제외하였다.

34	욕설에 관한 연구: 욕설의 특징/1
35	고운말 쓰기 指導方案: 國民學校 中學年을中心으로
36	辱說考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욕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용 실태 조사 즉, II층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전체 36개 중 12개). 앞에 제시한 <그림 1>을 ‘욕설’에 적용시켜 <그림 2>로 제시한다.

<그림 2> 국어 진흥 운동의 이론 모형 적용 - 욕설



<그림 2>는 욕설 사용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후, 원인을 분석을 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언중이 욕설을 하지 않도록 만들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언중이 실천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한다.

I 층위의 문제 진단 단계에서는 욕설이 문제가 되는 이유로 그것이 부정화행이라는 점에서 출발한다.²⁵⁾ II 층위의 실태 조사에서는 욕설을 사용하는 주체(청소년)나

25) 욕설에 대한 관점은 다양하다. 김열규(2003)에서는 민속학적 관점에서 카타르시스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어 진흥 운동의 대상이 된다면 이것은 카타르시스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 제약이나 혹은 담화에서의 욕의 기능 등에 대해 논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부정적이라면 그것을

매체(영화)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Ⅲ층위인 원인 분석 단계에서는 욕설이 논박적 화행이므로 의사소통의 관계적 층위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힌다. 그리고 Ⅳ 층위 실천 전략 수립 단계에서는 욕설 사용의 심리학적 요인을 고려하여 다양한 실천 방안을 국어 교육 분야에 제공한다. 마지막 단계인 Ⅴ 층위에서는 청소년이 욕설을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영화에서 욕설이 사용되지 않도록 된다.

‘욕설’이라는 현상을 고찰할 경우에는 담화 분석, 화행 이론, 문화론, 민속학 등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언어 사용 실태 조사나 욕의 기능과 관련지을 때 이 중에서 담화 분석이나 화행론이 가장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는 학문 영역일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국어학, 심리학, 사회학의 근거 아래 사용 실태 조사가 그리고 이것에 기초하여 사회학 문화학 등의 적용으로 실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국어 진흥 운동의 대상이나 목표에 따라서도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

김갑년(1999), 장경희(2010)에서의 연구가 비교적 층위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자. 이들 논문에서는 욕에 대한 접근을 ‘사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보고 욕설에 관한 행위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I 층위에서는 욕이 상대방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국어 사용이라고 제기한다. 그리고 이때 이것을 화행론적 관점에서 보면, 욕설은 논박적 화행이다. 욕설을 하는 사람은 앞선 상호 행위에 의해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도록 하는 상태가 된다. 이러한 감정적 상태는 한 사람이 굉장한 모욕을 당하면 일어난다(김갑년 1999: 451-452).

Ⅱ 층위에서는 욕설은 ‘나쁘다’, ‘부정적’이라는 표현이 전제가 되고 욕설에 대한 사용 실태 조사 및 분석을 하게 된다. 이때는 주로 국어학의 형태·통사론적인 연구를 하게 된다.

Ⅲ 층위에서는 원인 분석을 하는 것으로 앞의 6.1장에서의 박인기(2012)의 말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층위에서는 학생들에게 그들이 말을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하며 그리고 나서 지시화행 또는 제시화행의 부류의 화행을 논할 수 있다.(김갑년 1999: 463).

김갑년(1999), 장경희(2010)의 논의 등은 I 층위에서 Ⅲ 층위까지 담화 분석에서 출발하여 화행론적 접근을 보여주고, 화행 중에서도 논박적 화행으로 실천 방안을 제시하여 일관성 있게 접근한 예를 보여준다.

Ⅳ 층위에 대한 것은 박인기(2012)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욕설 언어현상

억제하는 실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어 진흥 운동에서 선택해야 할 이론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을 언어문화의 문제로 보고 논의를 시작한다. 이는 욕을 불량언어로 보고 규범으로 통제하려는 것과는 다른 시작이다. 욕설 언어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심리적 처방 사회적 처방, 문화적 처방을 제시한다. 이런 경우 처방 과정에 동원되는 여러 이론들이 언어학적인 접근, 욕의 사용 실태에 따른 이론과 다른 이론적 접근을 요구한다.

즉 욕설을 개선하는 운동 가정 속에서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 운동 속에 있는 이러한 처방들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국어 진흥 운동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언중이 해야 할 일은 V층위에 일어나야 한다. ‘욕’에 관한 논의에서 V층위는 아주 중요하므로 별도로 논의한다.

욕에 대한 연구를 I→V층위까지 살펴보았다. 욕에 관한 논의는 주로 I, II층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천 층위로 제시된 것들도 대개 심의 규정 등에 머물러 있다. 언중 참여 부분은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언중이 자각하여 고치고자 하는 의지를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언중의 관심사에 맞추는 것이다. 정서를 환기하여 오래 기억하게 하려면 스토리텔링 방법을, 그들의 생활과 관련지으려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게임 등을 활용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어 진흥 운동은 융·복합적인 특성을 갖는다.

2) 이론 모형 점검의 실제 - 방송 언어

다음은 ‘방송 언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론 모형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방송 언어에 대한 연구들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²⁶⁾

<표 11> 방송 언어에 관한 학술 기사

번호	제 목
1	방송프로그램의 언어 건전성 평가를 위한 측정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연예·오락 및 드라마를 중심으로
2	방송 언어의 운율 유형
3	사회언어학적 맥락으로 본 방송 언어
4	방송 언어의 공공성 기준에 관한 연구
5	방송심의의 쟁점과 대안: 드라마와 오락프로그램을 중심으로

26) 국회전자도서관에서 ‘방송 언어’를 키워드로 검색하고, 그 중에서 ‘학술기사’만 대상으로 삼았다. 총 186건이 검색되었고, 연구 주제와 관련 없는 연구 35건은 제외했다.

6	한국어의 정상화를 위하여
7	말뭉치를 활용한 국어 높임법 교육 연구
8	남북한 방송 언어의 차이에 대한 기초 분석
9	표준화법과 방송 언어에서의 지칭어·호칭어
10	아름다운 한국어 힘 있는 한국어: 방송사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방송인의 국어 실력
11	예능 프로그램의 호칭어와 지칭어 연구
12	미디어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음성언어고찰: 한국 정치 연설 및 방송 언어의 시대적 변화를 중심으로
13	공손성 규범과 방송 언어의 현실
14	방송 언어 오용의 현주소
15	방송 화법과 방송 글쓰기
16	베이징 올림픽 캐스터와 해설자의 언어 문제
17	방송 언어의 규범과 언어 변화: 발음과 어휘(외래어)를 중심으로
18	한국어의 불평등한 언어 문화에 관한 연구: 방송 언어를 대상으로
19	아나운서와 방송 언어
20	아름다운 한국어 힘있는 한국어: 시청자를 무시하는 듯한 방송 언어들
21	뉴스 텍스트에 나타난 명사형 어휘 연구: 명사화 어미{-기}를 중심으로
22	방송 메시지 전달 속도의 통시적 비교에 관한 연구: 라디오뉴스 전달 속도 분석을 중심으로
23	초등학생의 은어와 비속어에 대한 지도 방안 연구: 편지글을 중심으로
24	방송 언어 어떻게 볼 것인가?
25	청소년 언어와 방송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26	뉴스 자막 언어의 오류 실태 연구
27	신문방송 언어의 실태와 언어 규범
28	소통의 효율성과 방송 언어
29	방송 언어의 외래어사용 실태
30	放送의 病理現상에 關한 綜合 診斷書
31	방송에서의 외래어 사용 실태 분석
32	자막 맞춤법 교정기의 성능 평가와 개선 방안
33	방송 언어 정책의 실제
34	방송 언어 실태 지수
35	텔레비전 방송 보도문의 언어 표현: 기자 리포트를 중심으로
36	언어 규범과 순화면에서 본 신문 언어
37	신문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8	방송 언어 문화에 대한 고찰
39	방송 심의 현황: 방송 언어
40	방송 언어 발화 속도의 사적인 변화: 뉴스 발화를 중심으로
41	방송 프로그램안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소고(小考): 방송 언어를 중심으로

42	방송 언어와 방언
43	한국 텔레비전 방송의 외래어 프로그램 이름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
44	방송 뉴스 인식을 위한 언어 모델 적용
45	방송 보도 문장의 오류 분석
46	자막 오용 실태와 극복 방안
47	오염으로 얼룩진 우리말과 글: 한글, 위기인가?
48	한국 방송 언어의 오용 유형과 개선 방안
49	청소년들의 튀는 언어와 한술 더 뜨는 방송 언어: 청소년의 언어 사용에 영향을 주는 방송 언어의 오용 사례
50	방송 언어의 운율적 자질에 대한 고찰: 음성 분석을 통한 장단대립모음의 상대값 비교를 중심으로
51	라디오 방송과 국어 교육
52	보도 방송 언어의 변천
53	남북한 스포츠 방송 언어 비교
54	방송 언어의 어휘 변천
55	방송인을 위한 방송 언어론
56	방송 언어의 음성 언어 변천
57	방송 언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58	한국 방송 언어 문장 관련 색인
59	방송 언어 표현의 문제점과 과제
60	방송 언어의 특성 연구
61	뉴스를 통해 본 갈등과 분쟁 이야기
62	대구·경북 지역의 방송 언어에 나타난 음운 실태
63	한국어 합성어 ‘ㄴ, ㄹ’의 발음에 대한 고찰: 방송 언어를 중심으로
64	방송 언어의 조건과 현주소
65	남북한 방송 언어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연구
66	스포츠 중계 진행자의 화법 특성
67	비격식 어투 늘어, 은유 사용 자제해야: 방송뉴스 언어와 문장의 변화
68	방송 언어 오용 사례의 연도별 유형에 대한 연구
69	한국과 중국 조선족 방송 언어의 비교 연구
70	남북한 방송 언어의 대조연구: 어휘와 표현을 중심으로
71	방송 언어론
72	방송 광고 언어가 청소년의 언어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등학생의 TV 광고 카피 모방 사용 행태를 중심으로
73	스포츠 중계의 언어 사용 양상: 야구 경기 중계를 중심으로
74	라디오 인기 오락프로그램 진행자의 준언어적 표현의 특성 연구
75	텔레비전 자막에 쓰인 언어에 관한 연구
76	방송 언어는 의미 재생산의 기제
77	북한 언어의 운율 특성 연구: 방송 언어의 억양을 중심으로
78	방송 언어의 가리킴 말에 나타난 ‘힘’과 ‘거리’
79	시청자 입장에서 본방송 언어
80	방송 언어 발음 문제: 97 가을 KBS뉴스를 듣고

81	한국과 중국 연변 조선족 방송 언어의 비교 연구
82	방송 언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83	선거 보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TV뉴스의 방송 언어적 이데올로기 중심으로
84	방송 광고어 분석
85	남북한 보도 방송의 경어법 연구
86	절제된 언어와 신중한 선택: 독일 공영 방송의 보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87	放送 廣告 言語에 관한 研究
88	남북한 방송 언어의 음향·음성 특성에 대한 비교 연구: 모음의 음가를 중심으로
89	방송 언어의 평가 기준 및 문제 언어의 비교 분석
90	방송 언어의 어휘에 대한 언어학적 고찰: 보도 뉴스의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91	放送 言語 小考
92	방송 언어 오·남용 이대로는 안 된다
93	남북한 방송 언어의 운율 특성 비교 연구: 억양을 중심으로
94	한국과 중국 흑룡강성 조선족 방송 언어의 비교연구
95	북한 방송의 실태와 방송 언어
96	우리나라 방송 언어 발음 문제: 언어 규범 몰락한 KBS1TV 사투리 범벅을 중심으로
97	언어규범으로서의 방송 어휘
98	방송출연자의 언어 사용 양상
99	放送 言語와 標準 發音
100	방송 언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101	방송 언어의 문장 연구
102	방송 언어의 특성과 표현
103	방송 언어 정책을 위한 제언Ⅱ: 권위와 극단의 언어
104	방송 언어와 표준 발음
105	보도 용어 표기 통일과 문장 강화: 방송 언어와 신문 문장의 개선을 위하여
106	방송 언어의 어휘 연구
107	방송 언어의 억양에 관한 실험 음성학적 연구
108	문화어의 고저와 장단에 대한 일고찰
109	방송 언어 정책을 위한 제언 I: 외래어
110	갈수록 거칠어지는 방송 언어, 창작의 자유 못지않게 책임도 강조돼야
111	방송 언어에 나타난 음운 현상 실태 연구
112	화자의 태도 표현과 보도 방송 언어의 사용
113	방송 언어가 초등학교 아동의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
114	라디오, 放送의 言語 汚染
115	南北韓 放送 言語의 音聲言語의 特徵
116	방송 언어의 속도에 관한 연구
117	남북한 방송 언어에 관한 비교 연구: 남북한 텔레비전 뉴스를 중심으로
118	방송 언어, 이래선 안 된다: 오염과 혼란의 대표적 전시장
119	광고방송 언어에 관한 조사 연구
120	텔레비전이 어린이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
121	방송 언어와 올바른 국어 발음
122	방송 언어의 오용에 관한 유형별 고찰: 어휘 및 말본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4

123	방송 언어의 오용에 관한 유형별 고찰: 어휘 및 말본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3
124	국어의 어휘와 문법: 방송 언어를 중심으로
125	國語會話의 問題點: 방송 언어를 중심으로
126	國語會話의 問題點: 방송 언어를 중심으로
127	最近 放送人의 言語 實態
128	스포츠 중계방송 언어 표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29	뉴스에 대한 언어적 고찰: 뉴스에 있어서 언어적 번역
130	放送과 言語: 國民의 言語生活과 放送 言語<特輯>
131	放送과 言語: 放送 言語의 言語社會學的 考察<特輯>
132	放送과 言語: 放送言語의 發音<特輯>
133	事例를 통해 본 放送 言語의 問題點 :發音을 中心으로
134	放送 言語의 醇化方案
135	放送과 言語: 外來語의 諸問題<特輯>
136	放送과 言語: 放送媒體와 地方語: 地方語使用과 人物의 類型化<特輯>
137	放送과 言語: 放送에서의 올바른 敬語<特輯>
138	放送 言語의 바람직한 방향
139	고삐 풀린 망아지: 오늘의 방송 언어들
140	방송은 정확한 언어를 傳한다는 사명감에 투철해야
141	放送言語의 問題점과 改善 方案연구
142	방송 언어의 순화와 표준화
143	방송言語의 問題점과 改善 方案연구
144	TV와 어린이 언어 발달 / 放送審議委員會 編: 蔡章錫 譯
145	言語公害와 말의自主性: TV 廣告에 나타난 外國語 메시지의 問題점
146	放送言語의 問題점과 改善 方案
147	發音가이드6, 放送 言語와 方言
148	歷史劇의 考證: 복식·예법·언어를 중심으로
149	放送言語의 現象과 問題점, 言語生活의 啓導 役割과 來日의 報道 放送
150	放送말이 靑少年情緒에 미치는 影響
151	방송에서의 언어 생활의 새로운 방향: 방송 매체와 우리의 언어생활<특집>

이들 논문들은 대개의 논의가 II층위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제목만 보아도 전체 151개 중 41개). 다른 분야보다 비교적 I→V층위에 대한 연구가 고르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국어 진흥 운동의 이론 모형 적용 - 방송 언어



그것은 방송 언어가 공적인 사용에서의 국어 사용이므로 사용 제약 조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인다. 다만 V. 실천 방안이 주로 심의나 법규 등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실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실제 방송 종사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논의를 각 층위별로 살펴보면 I. 층위에서는 방송이 우리의 언어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방송 언어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방송 언어는 공공언어이므로 공적 상황 제약에 맞도록 국어 사용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전문 방송인만이 방송에 참여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들, 즉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사용하는 방송 언어를 구별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개의 방송 언어에 대한 연구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방송 언어’라는 점 때문에 문제 인식이 다른 분야보다 좀 더 규범적이다.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34) • 방송 관계자들은 시청자보다 더 ‘비규범적이고 저급한 언어 사용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박건식 2013: 105)

- 60% 이상의 시청자들은 방송 언어가 우리말을 지키는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신상일 2002: 106)

(34)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일반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방송의 비규범성과 언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 정도가 방송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통해 방송 관계자(제작과 진행에 관여하는 모든 이들)의 언어 의식 재정비가 매우 시급함을 밝히고 있다.

II층위에서는 사용 실태 조사가 이루어진다. 방송 언어라는 점에서 ‘사적 호칭 및 반말의 사용’, ‘타인을 비하시키는 언어의 사용’, ‘어휘적 오용’, ‘띄어쓰기 오용’, ‘외래어 오용’, ‘ㄱ’와 ‘ㄴ’의 혼용, ‘으’와 ‘어’의 혼란, ‘으’와 ‘이’의 혼란,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혼란, 움라우트의 비정상적인 적용, 경음화의 잘못, 연구개음화, 자음 탈락, 자음 첨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의 내용상의 문제로 선정성, 폭력성, 경박성, 지방색 조장 등이 있고, 표현상의 문제로는 자막 표기, 음운, 어휘, 문장으로 하위 구분,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금기어, 부정확한 어휘 사용 등에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사용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방송위원회(2001)에서는 사용 실태 조사를 <표 12>와 같이 방송 언어가 갖는 특성 즉 순정성, 공식성, 공손성, 공정성, 세련성, 일상성 등의 특성에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12> 방송 언어의 평가 기준(방송위원회 2001)

평가 기준	문제 양상
순정성 authentic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양 외래어, 일본어, 외래문법 ▪ 은어, 비어, 속어, 비격식적 표현 - 공식적 담론에 적절하지 못한 것 ▪ 조어, 어려운 약어 - 보통 잘 쓰지 않고 어감도 나쁜 조어나 약어 ▪ 표준말에 어긋난 틀린 표현 - 사전에 없거나 표준말이 아닌 것을 쓰는 경우
공식성 publicness, forma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호칭, 비공식적 명칭 ▪ 극단적 표현, 과장된 표현 ▪ 선정적 표현, 성적 표현
공손성 politeness, proprie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자간 공손성 ▪ 대 관객 공손성 ▪ 보도 대상 체면손상
공정성 impatia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불공정 ▪ 차별 ▪ 권위주의적 언어 ▪ 특정 집단 전용 언어, 관점 옹호
세련성 eloqu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어휘 선택 ▪ 문법에 어긋나는 표현

일상성 usual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운 한자 ▪ 어색한 명사화, 복잡한 명사구
--------------------------------	--

Ⅲ층위에 대한 논의는 찾기 어렵다. 이것은 방송 언어가 갖는 규범적이고 공공적인 특성 때문에 원인 분석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주로 규범적인 내용이 중심을 이루는데 박건식(2013)의 연구는 매우 재미있다.

박건식(2013)에서는 시대별로 크게 ‘해방 이후부터 1962년’까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 그리고 ‘1990년대 이후’로 나누어 각 시기에 해당하는 방송 심의의 관심사와 그 시기의 국어 의식적 배경을 각각 제시하였다. 먼저 해방 이후부터 1962년까지는 일본어 잔재 청산 및 일본식 한자어의 순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및 외국어의 순화 문제, 사투리 문제 등이 방송 심의의 관심사였고 이 시기의 국어 의식적 배경은 국어 회복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196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는 일본어 잔재와 외래 풍조 차단, 외래어 및 외국어의 영향 차단, 민영 방송의 선정성, 코미디 프로그램 언어의 저속성 문제 등과 표준어 문제에 집중하였는데 이 시기는 국어 문화의 발전기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 이후부터는 민영방송과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시청률 경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방송 언어의 사담화, 비속어, 저속한 표현 문제 등이 방송 심의의 주된 관심사였고 이 시기는 국어 문화 도약기로 분류하였다.

박건식(2013)은 시대별 방송 언어에서 문제시되었던 항목과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동시에 잘 보여주며, 지금까지 이루어진 방송 언어 연구의 경향의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듯 방송 언어에 대한 실천 방안들이 운동의 방향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발전해 오고 있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어 운동이란 공식적인 상황에서의 국어 사용 제약이라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국어 운동의 흐름도 바로 이러한 시대의 변화 및 언중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사용 실태를 조사함에도 체계언어학적인 접근이외의 상황 맥락을 고려한 표현들로도 변하고 있다. 이처럼 사용 실태나 문제 진단 등도 다양한 입장에서 논의가 가능한 것이다.

V층위는 실천 방안인데 앞에 제시한 ‘육’과 달리 실천 층위가 주로 방송 관계자에 집중되어 있다.

김대행(2002)에서는 방송 종사자의 의식 강화, 방송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각, 방송 자체의 심의 강화, 감시·규제 기구의 설치를 제안, 방송 언어 인식 개선, 수용자의 각성, 방송 제작 능력 향상, 감시 체제 강화, 규제 기준 제시, 관계자 교육, 언어의 차별화의 부정적 영향 인식, 우리말의 적극적 개발로 전문 용어와 외국어 대

체, 방송 자체의 교정 노력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언어가 갖는 지배력에 대한 인식과 지배 결과에 대한 비판적 성찰, 제작 기술의 향상(보도문 문체 개발, 자막의 도움 없이 제작 의도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 모색), 수용자의 비판적 태도 함양을 그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국어 진흥 운동의 마지막 단계는 이와 같은 제안 등이 실천화 되는 과정을 요구하며 그리고 다시 이러한 실천 과정이 실제 방송 언어에 적용되는 것을 살펴보고 사용 실태 조사를 하는 등으로 순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 방송 언어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이 역시 실태 분석에 집중되어 있지만 ‘욕’에 대한 연구보다는 비교적 I, II, III층위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것은 방송 언어란 공공언어로 일정한 제약 조건으로 설명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이론 모형 점검의 실제 - 신문 기사

이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발행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이상 창간 연대 순) 기사 중 ‘우리말’의 사용 실태, 개선 방안, 국어 의식 등과 관련된 기사를 모두 추출하였다.(추출한 방법과 내용은 [부록] 참고)

4개 신문사 12년 치 기사 중 ‘우리말, 한글’과 관련된 기사는 모두 900여 건이 넘었다. 언론의 관심은 곧 사회적 관심의 반영이고 이러한 양상은 언중의 언어생활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출된 기사를 분류한 결과는 [부록]에 나와 있다.²⁷⁾

[부록]에 제시된 것을 종합하면 국어 운동과 관련된 신문 기사에서 ‘실천’과 관련된 기사 내용은 12회(조선일보 1회, 동아일보 4회, 중앙일보 7회) 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신문 기사에서 국어 의식 및 국어 운동과 관련된 기사의 쓰기 양상을 살핀 결과 일정한 프레임이 발견되었다. 즉 특정인의 말을 인용하여 유사한 주장을 하는 경우

27) 신문 기사의 특성상 ‘욕’, ‘방송 언어’의 연구와는 글의 구조가 다르다. 지금까지 ‘욕’이나 ‘방송 언어’의 연구에서는 그 논문이 주로 관심을 가진 것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그러나 신문 기사의 경우는 짧은 한 편의 기사 내용을 논문처럼 분석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신문 기사를 분석할 때는 본 보고서에서는 근거, 현상, 주장, 실천 방안으로 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분석틀이 다르지만 자료를 활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욕’, ‘방송 언어’, ‘신문 기사’ 등을 분석하는 것은 국어 운동에서 논의의 근거 부족, 실천 방안 제시 부족 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틀을 좀 달리 했지만 본 보고서에서 신문 기사의 내용을 활용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일련의 내용(즉 이론의 부재 및 실천 방안의 부재)은 보여줄 수 있다고 여겨졌고, 실제 결과를 보면 큰 문제가 없었다.

가 매우 많았다. 또한 독자가 기사를 읽고 나서 실천에 옮길 만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글쓰기도 국어 운동의 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국어 운동은 다소 고정된 틀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대개 주제를 상정하면 주제에 맞게 글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욕’을 주제로 설정하면 대개는 청소년의 욕의 사용을 주제로 삼고 욕의 실태 조사를 한다. 그리고 욕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한다. 영화의 욕설 사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것은 주제가 글의 패턴을 혹은 글의 구성 방법을 이끈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일정한 틀에 매인 글은 국어 운동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국어 운동, 국어 순화 등의 주제가 스키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의 글은千篇일률적인 글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²⁸⁾

국어 순화에 대한 여러 글의 형식이 유사한 것도 이에 연유한다고 본다. 이런 글은 언중의 흥미를 끌지 못한다. 그런데 이처럼 프레임에 갇힌 이유가 무엇인가? 이론에 대한 깊은 설명 없이 그리고 이러한 주장과 실천 방안 등이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론과 실천의 괴리가 있는 이론은 국어 진흥 운동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신문 기사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언어란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공적인, 그리고 사회적 실천의 도구(민병곤 2013)’라는 관점을 가진다면 국어 운동을 주장하는 글에서 독자들은 텍스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고 실천적 의지를 갖는다. 그러나 국어 운동의 틀에 갇힌 상투적 생각은 비판적 의식을 갖기 어렵고 독자들로 하여금 비판적 생각을 갖게 하기도 어렵다.

[부록]을 통해서 대개의 국어 운동에 대한 논의는 국어 진흥 운동의 과정이나 단계 충위를 의식하지 않은 채 주장의 단계에 머무르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예를 살펴보자.

(35) 지금은 바로 ‘영어시대’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냉정하게 사태를 보아야 한다. 과연 영어가 ‘알라딘의 등잔’인가? 일본의 영어 제2공용어화 움직임에 대해 프랑스의 철학자 레지스 도브레가 “반드시 후회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미지에 현혹되지 말고 눈을 감고 진실을 보시오”라고 한 말을 음미해 봐야 한다. 여기서 필자는 다음 두 가지 점만 생각해 보고자 한다.

(중략)

학문체계의 중심에는 우리와 우리말이 서 있어야 한다. 괴테의 스승이기도 했으며 뛰어난 외국어 교사였던 열린 민족주의자 헤르더는 학문체계의 중심에는 모국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자성을 이룩할 수 있고 세계

28) Wallace Chafe(2006: 189)에서는 주제가 글의 패턴을 결정한다고 한다.

보편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중략)

시인 에즈라 파운드는 “어떤 한 언어라도 인류 지혜의 전부를 담을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해의 지평선을 넓혀 편견에서 벗어나자면 영어 이외의 외국어도 이해해야 한다. 지금 유럽연합(EU)에서는 ‘모국어 더하기 두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자가 조사한 38개 주요 국가 모두가 복수의 필수 외국어, 다양한 외국어 학습의 기회 제공, 학습개시의 저연령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대개 영어는 초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는 중고교에서 시작하고 있다. 다언어 교육 또한 대세다. 그렇다고 한 개인이 두 외국어를 마스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하자라는 것이다. 다언어주의에 의해서 비로소 우리는 모국어적 세계관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의 정신적 자유의 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

(동아일보 2000.09.05. [기고] 정시호 /영어만으론 학문地平 못 넓힌다)

(35)에서는 논의의 근거로 철학자 레지스 도브레와 헤르더의 말, 그리고 시인 에즈라 파운드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짧은 글일수록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논리의 근거는 지나치게 넓다.

(36) “여성의 몸은 남성의 성적 ‘판타지’에 근거한 여성의 몸이지...” “노 당선자의 새 정치 ‘패러다임’의 하나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진...” “행정개혁 ‘태스크포스’는 국가 기틀을 바꾼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언론에서 쓰이고 있는 외국어 남용의 사례 몇 가지를 적어 본 것이다.

위에서 사용한 영어 표현에 상응하는 적절한 한국어가 없는 것은 아니다. ‘판타지’ 대신에 ‘환상’, ‘패러다임’ 대신에 ‘틀’, 그리고 ‘태스크포스’는 ‘전담반’ 정도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예를 든 외국어 남용의 사례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두뇌’ 대신에 ‘브레인’, ‘분석가’ 대신에 ‘애널리스트’, ‘운동’ 대신에 ‘캠페인’, ‘정서’ 대신에 ‘코드’ 등등 지금은 그야말로 영어의 홍수 시대이다. 길거리의 간판도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도 영어문자가 없는 것을 찾기 힘들 지경이다. 이러다가 정말 우리말과 우리글이 영어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까지 한다.

세계화의 물결과 함께 지배적 언어로 자리 잡은 영어가 갈수록 그 위세를 떨치고 있다. 영어를 공용어로 만들자는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그 위력이 실감이 난다. 우리말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어린이를 위해 영어 교육에 쏟는 금전적 투자는 이미 가계에 큰 부담이 되어버렸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생소한 외국어를 대화나 글에 섞어 쓰는 것이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풍조가 교육을 많이 받은 층에서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이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언어는 문화의 기반이다.

19세기 영국의 시인 존 클레어는 ‘글을 쓰는 잉크 속에 영혼이 숨어 있다’고 했고, 오스트레일리아의 풍유 작가인 칼 크라우스는 ‘언어는 사고의 어머니’라고 불렀다. 이처럼 언어는 인간의 정신적 노력과 문화의 역사를 담고 있는 큰 용기이다. 지식의 높이는 그 사람이 쓰는 용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용어를 통해 표현되는 내용의 품격에 있다. 무분별한 외국어의 남용은 천박한 과시욕 또는 속물근성의 발로로 이제는 버려야 할 유산이다.

오늘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해 반포한 지 557돌이 되는 날이다. 해마다 한글날이 오면 기념식을 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이야기하고 또 민족의 값진 문화유산인 우리말과 글을 좀더 갈고 닦자고 다짐을 하곤 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그것은 다만 상투적인 공염불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그 단적인 예가 1990년 노태우 정부가 생산성을 좀먹는다는 이유로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내쳐버린 것이다.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유네스코도 훈민정음을 세계 기록문화 유산으로 지정하였다. 남들도 인정한 이런 값진 유산을 내팽개쳐버리는 한심한 후손들을 보고 지하에서 세종대왕은 무어라고 할까.

(한겨레신문 2003.10.08. 우울한 한글날)

(36)에서도 논의의 근거로 밑줄 그은 말을 인용한다. 그리고 ‘나라의 말은 정신’과 직결된다는 이런 근거 아래 외래어 사용의 문제를 언급한다. 사실 (36)에서 제시한 외래어는 ‘소통’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외래어 사용의 근거로 유명인의 말을 들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분명하게 적용시킬 만한 이론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1920년대 독일의 언어학자나 언어사상가의 이론이 작금의 언어 운동에 아직도 관여한다는 것은 사회의 변화를 무시한 것이다. 100년 전의 사상은 현재의 국어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극대화시키는 이론적 배경이 되기는 어렵다.

이론이 실천적 운동의 배경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독일 언어 사상가의 이론이 국어의 운동의 형태적, 통사적 자질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기반이론이 그 활동의 근거를 마련할 뿐이며 언어 사용 실태 조사나 실천 방안 등 과정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국어 진흥 운동의 이론적 기반의 방향을 짐작하게 한다.

국어 진흥 운동의 ‘이론적 기반’의 ‘이론’은 이라는 용어는 국어 운동과 관련된 언어학심리학 언어철학, 사회학 등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들 이론이 국어 운동에 실제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 때만 가치가 있다.

이처럼 국어 진흥 운동의 이론적 기반은 실천 과정에서 그리고 실천 과정을 만들기 위한 계획까지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국어 진흥 운동은 넓은 의미에서의 이론과 바로 실천에 투입할 수 있는 이론적 층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부록으로 제시되는 표를 보면, 대개의 신문 기사 내용이 문제 제시와 국어 사용에 대한 실태 조사의 인용이나 관찰 등을 언급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지 혹은 독자들에게 어떤 감동이나 울림을 주어야 할지에 대한 고려는 없는 것 같다. 실천 방안까지 나타난 것은 [부록]에서 보듯 불과 몇 편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신문 기사에 나타난 실천 방안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37) 대중매체에서 욕설이 사용될 경우 경고 조치 같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선 안 된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고도 실효적인 제재가 시급하다. 학교와 가정에서는 아이들과의 대화와 교육을 통해 욕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욕설을 자기들끼리 대화의 재미를 더하는 추임새로 알고 있다. 또래 집단에서 남보다 강하게 보이도록 하는 도구 정도로도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고 부모와 선생님들이 따끔하게 야단쳐야 한다. 지속적으로 교육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다. 청소년들이 대화할 때 서로 높임말을 쓰도록 권장하고 규칙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조선일보 2011.01.11. [시론] 무턱댄 첫 인사 "안녕 똥××, × 나 병신 ××야")

(38) 이것은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생각의 깊이와 폭이 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 민족적 자부심이 대단하기로 유명한 프랑스 국민에게 오래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아온 전국적인 행사는 뜻밖에도 '받아쓰기 경시대회'이다. 우리도 '우리말 받아쓰기' 대회를 열어보는 것은 어떨까. 민족적 긍지는 국어를 사랑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2003.08.12. [수요프리즘] 장소원, '우리말 받아쓰기 대회' 열자)

(39) 그러므로 영한사전에 순우리말을 찾아 수록하는 일은 우리말을 지키고, 그 표현 능력과 영역을 확장하는 길이 된다. 정부는 사전이 곧 나라의 지적(知的) 얼굴이요, 국가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제대로 된 영한사전 편찬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국어는 전 세계 6000여개 언어 중 12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가. 이미 영한사전을 낸 출판사들도 서둘러 개정판을 내고 학계도 힘을 보태야 한다.

(동아일보 2005.01.05. [사설] 순수 우리말 홀대하는 英韓辭典)

(37)에서는 제재방안 및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38)에서는 받아쓰기 경시대회를 (39)에서는 영한사전 개발을 문제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다.

이런 실천 방안은 이 글을 읽은 극히 일부의 계층(교육자, 정책자들)만이 가능한 것이다. 짧은 신문 기사를 읽고 감동을 받아 독자의 입장에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독자가 감동을 받아 스스로의 국어 사용을 점검하는 글을 쓰려면 국어 운동의 틀에 박힌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앞에서 욕설, 방송 언어에 관한 연구와 신문 기사 분석을 통해 이론 모형을 점검해 보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욕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용 실태 조사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국어학 이론으로만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그 중 화용론의 화행이론으로 I→IV층위까지 고르게 적용한 것도 있었다. 대개 청소년 대상의 욕설 사용 실태를 조사하면서도 실천 방안에서 청소년의 생활을 반영한 것은 없었다.

둘째, 방송 언어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I→IV층위까지 고르게 이루어졌다. 이는 사용 제약 조건이 엄격한 방송 언어라는 점에서 I→V층위가 고르게 연구된 것 같다. 다만 실천 층위가 심의 규정, 법규로 제시되었는데 이것의 구체화 작업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셋째, 신문 기사의 내용 분석 결과 국어 운동의 근거로 시인이나 운동가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많았다. 사용 실태 조사를 언급하거나 국어 사용에 드러난 문제 상황에 대한 관찰 사실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어 운동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글이 많아 신선한 느낌을 주지 못한다. 신문 기사의 특성상 ‘욕설’, ‘방송 언어’의 연구와 달리 전문가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정한 프레임 속에서 글이 이루어지는 게 많았다. 그러나 짧은 글이라도 명확한 이론에 따라 긴밀하게 내용 전개가 된다면 충분히 국어 진흥 운동으로서의 실천력을 나타낼 수 있다.

6.4. 실천 방안 모색

국어 진흥 운동은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혹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 언중의 실천 의지를 불러일으켜야 하므로 언중에 대한 이해가 선결 과제라 할 수 있다. 연령, 정서, 의지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언중의 언어생활에 유용해야 국어 진흥 운동은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들의 생활 중에 직접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실천 방안은 무엇보다 언중의 생활과 요구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야 한다. 국어 진흥 운동의 실천 방안을 세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어 진흥 운동의 실천 방안은 국어 정책²⁹⁾이나 언어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³⁰⁾ 8·15 광복 이후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주요 국어 정책을 크게 일반 목적 국어 정책 영역과 특수 목적 국어 정책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일반 목적 국어 정책 영역은 우리말 도로 찾기 정책, 문맹퇴치 정책, 어문 규정 정책, 한글 전용 정책, 국어 순화 정책, 국어과 교육 정책, 국어사전 편찬 정책을 하위 영역으로 둔다. 특수 목적 국어 정책에는 시각 장애인 국어 정책, 청각 장애인 국어 정책, 속기 정책, 한글 기계화 정책, 고전 국역 사업 정책, 국어 계획 기관 정책, 국어 연구 및 국어 운동 지원 정책, 국어 행사 정책을 하위 영역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구체화 작업도 실천 방안에 포함된다고 할 때 실천 방안은 다시 넓어질 수 있다.

- (40) 언중 사이에 가로놓인 언어 문제는 국가가 앞장서서 정책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책적인 해결을 필요로 하는 언어 문제에 대한 개선 활동은 어떠한 불합리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보면 문화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 문제는 말, 글자, 교육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말의 문제는 국어의 순화와 통일 운동이고, 둘째 글자의 문제는 국어를 표기하는 문자에 관한 여러 가지 과제들로 한글 전용 또는 한자 폐지, 한글 풀어쓰기, 정서법에 관한 것들이며, 셋째로 교육의 문제는 국어 교

29) 국어에 관한 국가 정부의 계획 또는 기본 정책. 이것은 정책 결정의 주체를 일반적으로 국가나 공공단체로 보는 점과 국어가 국가를 배경으로 한 국민의 언어라는 점에 유의하여 규정할 정의이다. (국어 교육학사전 1999)

30) 이 용어는 호젠에서 비롯되었는데, 언어 계획은 언어 정책, 언어 운동, 언어 교육보다 상위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피셔먼은 언어 계획을 언어 정책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했다. 벨은 언어 계획이 특히 언어상으로 이질적인 국가에서 주요한 사회적 목표를 성취함에 있어 채택되는 정책들과 관련 있다고 했다. 바르트호프는 바인슈타인의 “언어 계획은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어떤 사회에서 언어의 기능을 변경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장기적, 지속적, 의식적 노력”이라고 한 정의를 소개하고, 언어 계획의 시도를 지위 계획, 즉 언어의 변종이나 언어를 개발하고, 일상적으로 이를 표준화하려는 계획인 실제 계획으로 구분하여 소개했다. 한편 프랑스의 사회 언어학자 가르마디는 언어 계획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소개하고, 언어 계획과는 대조적으로 언어 정책에 대한 정의는 별로 없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대체로 언어 계획안에서 언어 정책이 구체화되는 것을 가장 정당하게 인정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정책의 결정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가나 공공 단체다. 반 다이크가 ‘체계’란 계층적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정책의 상위 개념에는 ‘이상>목적>목표’가, 그 하위 개념에는 ‘계획>단위사업>활동’이 있다고 한 점에 유의하여, ‘언어 계획’은 ‘주체가 누구이든 언어 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하기 위한 계획’으로, ‘언어 정책’은 ‘정부 차원의 언어에 관한 계획 혹은 기본 방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어 계획’은 ‘주체가 누구이든 국어 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하기 위한 계획’으로, ‘국어 정책’은 ‘국어’가 국가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어에 관한 국가 정부의 계획 혹은 기본 방책’으로 정의된다.(국어 교육학사전 1999)

육의 목적을 무엇으로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국어 교육학사전 1999)

앞에서 ‘육’, ‘방송 언어’ 연구 및 ‘신문 기사’를 통해 이론 모델 점검을 하였다. 이를 통하여 실천 영역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천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준어 사용이다. 이것은 표준어만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표준어를 바로 알면 문제되는 국어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음과 같은 예문은 이를 잘 나타낸다.

(41) 표준어에 대한 인식 및 교육은 모든 언어생활을 표준어로 수행해야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안에 따라, 발화 장소 및 장르에 따라 비표준어나 비속어발화가 갖는 의미도 중시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발화의 기저에는 표준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기본을 알고 이탈하는 것과 기본에 대한 이해 없이 이탈하는 것은 이후 교정과정에서, 그리고 언표화의 수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강연임 2011: 23)

(42) 비문법적 문장 양산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국어 문장을 익혀야 한다. 외래어를 잘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어를 온전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강연임 2011: 26)

(43) 국어와 외래어를 혼용하다 보니 국적불명의 어휘를 양산하거나 비문법적인 문장을 만들어내곤 한다. (강연임 2011: 26)

(41)~(43)에서는 표준어 교육, 국어 문법에 맞는 문장 구사 등이 강조된다면 국어 사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법제에 의한 것이다. 가령 통신 언어에서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실천 방법은 통신 실명제 실시, 통신 예절 교육, 대체 언어 개발 보급, 신고와 처벌 제도 활성화,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44) 인터넷 통신 언어의 순화 방안으로 제시한 ‘통신 실명제 실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평균 4.19의 동의정도를 보였으며, 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남자의 경우 평균 4.24, 여자의 경우 평균 4.17로 높게 나타났다. ‘통신 예절 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평균 3.81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남자의 경우 평균 4.00, 여자의 경우 평균 3.70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체 언어 개발 보급’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평균 3.55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남자의 경우 평균

3.74, 여자의 경우 평균 3.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와 처벌 제도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평균 4.57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남자의 경우 평균 4.61, 여자의 경우 평균 4.54로 높게 나타났고,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평균 4.35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남자의 경우 평균 4.43, 여자의 경우 평균 4.31로 높게 나타났다.

(이시훈 2004: 203-204)

이시훈(2004)의 연구에서 응답자들은 신고와 처벌 제도의 활성화,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 통신 실명제 실시 등이 저질 통신 언어를 근절하고 통신 언어를 순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대체 언어 개발과 보급과 같은 새로운 통신 언어의 도입에 대해서는 그 동의 정도가 가장 낮아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 통신 예절 교육에 대해서도 그리 높지 않은 동의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서는 표준어 교육, 법규 등이 필요하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국어 진흥 운동이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국어 교육이 ‘표준어 교육’이었고 국어 기본법을 비롯한 수많은 법규와 심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을 사용하고 외래어를 사용하여 공공문서는 어렵다. 이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문제가 되는 국어 사용을 소통의 관점에서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언중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언중을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과 흥미를 잃지 않고 국어 진흥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욕설

최근 일상생활에서 과도하게 욕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청소년들의 욕설 사용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과거의 청소년 욕설 사용 문제가 주로 중·고등학교의 남학생들에게 국한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성별과 무관하며, 욕설 사용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청소년들은 학교와 가정 심지어는 대중교통, 길거리 등 장소와 상황에 대한 구분 없이 무분별하게 욕설을 사용하고 있어 그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국립국어원(2010)의 청소년 욕설 사용 실태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73.4%가 거의 매일 욕설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2010)에서 청소년의 입말을 조사 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은 친구와의 대화에서 20어절 당 한 번꼴로 비속어·유행어·은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청소년들의 과도한 욕설 사용 문제의 심각성을 뒷받침 해준다.

이렇듯 청소년들은 그들의 언어생활에서 욕설을 빼놓고는 의사소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빈도로 사용하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과거에 비해 청소년들의 욕설 사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 매체의 발달을 꼽고 있다.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여러 매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으며 영화나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TV나 인터넷 등에서 자극적인 소재의 프로그램과 선정적인 콘텐츠가 걸러지지 않은 채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TV나 영화, 인터넷 등에서 사용되는 은어·유행어·비속어가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이는 다시 또래 집단에게 확산되어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다.

그간 이러한 청소년의 과도한 욕설 사용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방송 언어 심의 기준 강화’, ‘바른말 사용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사회·문화적 정책 수립의 차원에서 접근하거나 ‘바른말 학습을 위한 교재 개발’, ‘국어과 교육 과정 개편’, ‘욕설 사용 금지 캠페인’ 등의 교육 정책 수립의 차원(국립국어원, 2011)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현재의 청소년들에게 욕설 사용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거나 언어 사용 개선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데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언어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어 진흥 운동이 21세기의 언중의 흥미와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의 욕설 사용 문제의 개선 방안 또한 그들의 흥미와 감성에 맞춰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언어생활에 매체는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그들의 언어생활 개선 또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질 때 보다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의 흥미와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매체는 대표적으로 ‘게임’이 있다. 현재의 청소년들은 아동기부터 다양한 게임에 노출된 세대로, 일상에서 컴퓨터, 휴대폰,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게임을 접한다. 게임은 궁극적으로 재미를 추구하므로 청소년들에게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와의 접목이 용이하므로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게임이 청소년 언어생활 개선에 매체로서 활용될 때 긍정적인 개선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의 언어생활 개선을 위한 게임 개발은 국어학 분야와 게임 개발 분야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국어학자들은 국어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스토리를 제공하고 게임 개발자들은 RPG, 시뮬레이션, 아케이드 등 다

양한 종류의 게임과 접목하여 청소년 언어생활 개선에 활용될 수 있는 게임을 개발할 수 있다. 다음은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청소년 언어생활 개선을 위한 RPG 게임 개발에 대한 예이다.

고등학생 조명식(18)군은 습관적으로 욕을 입에 달고 다니는 학생이다. 10월 9일 한글날. 갑자기 조명식에게 세종대왕이 나타난다. 세종대왕은 거친 욕설을 자주 사용하는 조명식을 꾸짖고 과거로 돌아가 욕설에 대한 어원과 유래를 공부한 뒤 스스로 반성을 하라며 조명식을 과거로 보낸다. 과거로 이동한 주인공은 거친 욕설이 습관처럼 입에 붙어 버렸기에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욕을 쏟아내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닌다. 그러다가 마을 훈장님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변화하게 된다. 이를 통해 조명식은 비속어에 대한 공부를 하여 욕설의 어원을 알게 되고, 이러한 용어들을 남발한 자신을 부끄럽게 느끼게 되고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조명식은 욕설 사용을 자제하고 바른 언어생활을 하는 고등학생으로 거듭나게 된다.

롤플레이팅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플레이어가 다른 NPC(플레이어 이외의 캐릭터)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로부터 임무를 받아 그 임무들을 수행하는 것이다. 사실, 게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미션의 성취와 그로 인한 쾌감이다. 순조롭게 그냥 이야기가 진행된다면, 그냥 단순히 과거로 간 주인공이 욕설의 어원과 유래에 대해 배우고 사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흥미로운 요소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재미있고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는 욕설의 유래와 어원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임무를 부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훈장님 캐릭터는 주인공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캐릭터로서, 앞으로의 줄거리 진행과 미션 방법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욕설 사용을 자주하는 플레이어를 꾸짖음으로 인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청소년들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효과도 낼 수 있다.

다음은 아케이드 형식의 게임 개발에 대한 예시이다.

플레이의 단순함과 짧은 플레이 시간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승승장구 하던 아케이드/액션 장르의 게임은, 컴퓨터가 발달함에 따라 장점인 단순함이 오히려 발목을 잡히게 되어 복잡하고 호흡이 긴 게임에 유행을 내주게 되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시대가 찾아오면서 예전의 단순함이 주목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스마트폰으로는 복잡한 조작이 힘들고 오랜 시간 동안 게임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순위에서 아케이드 게임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이제는 아케이드 게임이 특유의 단순함과 속도감, 그리고 발달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시청각적 화려함으로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시대다.

아케이드 게임의 기본은 장애물 피하기이다. 사용자의 캐릭터를 이동해 장애물과 부

잊히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장애물을 터치 혹은 클릭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사용자는 장애물과 접촉하면 불이익을 얻어 높은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게 된다.

국어 순화를 위한 게임에서는 욕설, 은어, 외국어를 장애물로 배치하여 효과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한계는 사용자가 필연적으로 장애물(욕설 등)을 회피하기 위해 장애물에만 주목하게 되어, 오히려 장애물이 기억에 오래 남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장애물과 접촉하면 불이익을 주는 것과 더불어 장애물이 아닌 것(우리말)과 접촉하면 이익을 주는 방식의 게임을 생각할 수 있다.

화면의 왼편에는 사용자의 캐릭터인 영웅이 있고, 오른편에는 적인 악마 캐릭터가 있다. 그 가운데로 단어들이 제시된다. 사용자는 그 단어들을 영웅에게 혹은 악마에게 보내게 되는데, 우리말을 획득한 캐릭터는 강해지고, 장애물을 획득한 캐릭터는 약해진다.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말은 영웅 쪽으로, 장애물은 악마 쪽으로 보내야 한다.

이 게임은 아케이드 게임이 가지는 재미에, 게임 주인공의 성장 스토리를 가미하여 RPG적 재미를 동시에 줄 수 있다. 거기에 저 연령층을 대상으로 권선징악적 요소를 차용하여 장애물(욕설 등)은 악한 쪽으로 보내야 한다는, 즉 욕설 등은 나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 언어생활 개선을 위한 게임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청소년 언어생활 개선을 위한 게임 개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게임이 지나치게 교육적인 접근이나 계도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과거의 청소년 언어생활 개선 프로그램들은 교육적인 측면에만 치우쳐 청소년들에게 흥미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그 결과 개선 효과가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게임이라는 매체를 활용하더라도 그 주제가 지나치게 ‘교육’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청소년들은 ‘고루한 것’으로만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게임이 가지는 재미를 잃지 않으면서 언어생활 개선 효과를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자신이 사용하는 욕의 의미와 어원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국어학자들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욕을 사용했을 때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사회언어학자들이 그들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전문가들은 학생을 주인공으로 하는 게임 스토리를 만들어 낼 수 있고, 게임 콘텐츠 개발자들은 이를 매력적인 요소를 갖춘 게임으로 개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이 게임을 쉽게 접하고 자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분야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외래어

신문이나 방송에서 외래어를 순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하자는 주장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예컨대 ‘웰빙’을 ‘참살이’로 ‘네티즌’을 ‘누리꾼’으로 바꾸어 사용하자는 주장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주장 가운데 언중에 의해 수용되어 실제 언어 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도 있으나, 많은 수는 그러한 지위를 얻지 못하고 주장 단계에서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다. 즉, 언중을 설득하여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한, 순화어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우리말로 고착되어 사용하고 있는 외래어들을 구태여 순우리말로 바꾸자는 주장은 오히려 우리의 언어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외래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라면, 이는 반드시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야 하며 이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외래어 사용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떠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그것이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가 무엇인지를 언중에게 보여줌으로써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외래어 사용 문제의 개선 방안은 구체적인 상황 맥락에 따른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외래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워진 사례는 다음과 같다.

어느 신발 매장에 노부부가 방문했다. 점원은 “찾으시는 물건이 있으세요?”하고 물었고, 노부부는 “우리가 평소에 신을 만한 편한 운동화를 찾아요.”하고 답했다. 점원은 “손님, 혹시 ‘러닝화’를 찾고 계세요?”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노부부는 “러닝화요? 그게 뭐죠?”하고 되물었고, 점원은 러닝화에 대한 설명 대신, “그럼 걷기 운동할 때 신는 신발을 찾으세요?”하고 물었다. 노부부는 “당연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때 신는 신발을 찾아요.”하며 매장 내 신발을 둘러 보았다. 점원은 “손님들께서 찾으시는 신발은 여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모두 스니커즈 상품뿐이거든요..”하고 말했다. 노부부는 매장에 있는 신발들을 보며 “그럼 이것들은 다 뭐죠?”하고 물었다. 노부부는 점원이 말하는 ‘러닝화’와 ‘스니커즈’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으며 점원 역시 노부부가 무엇을 구매하려는 거였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결국 노부부는 빈손으로 매장에서 나오고 말았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기업에서는 자신들의 상품의 기능을 강조하거나 다른 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상품 종류를 구분하기 위한 일종의 전문어로서 세분화된 용어이다. 예를 들어, 신발은 그 종류에 따라 워킹화, 러닝화, 스니커즈, 골프화, بوت슈즈, 윙팁 등 다양하게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같은 등산용 신발이라도 트레킹화와 일반 등산

화를 구분한다.

이러한 용어는 생산자들의 상품 분류의 편의를 위해 세분화된 외래어 용어이며, 전혀 구매자를 고려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분화된 외래어 용어가 소비 현장에서 사용되면 연령이 높은 소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젊은 소비자들에게도 어렵게 느껴져 의사소통 실패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소통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외래어의 사용은 소통의 단절을 가져오므로 사용을 자제하거나, 쉬운 우리말로 바꿔 써야 한다. 그러면 외래어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은 쉽지 않다. 일부 젊은 소비자들은 구매 경험을 통해 외래어를 익히고, 그 외래어가 다음 구매에서 좀더 손쉽게 물건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긍정적 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 분야에서 외래어 사용을 무작정 줄이거나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서비스 업종 종사자들에게 소비자 계층에 따라 적절히 응대할 수 있는 언어 사용법을 교육시켜야 한다. 백화점의 경우 직원들에게 고객 응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기본적인지만, 소비자의 계층별 차이를 고려한 언어 사용에 대한 교육까지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기업에서도 직원들에게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의 교육만 실시하고 있다. 기업은 서비스 종사자들의 잘못된 언어 사용으로 인한 소통의 실패가 자신들의 경제적 손익과는 직결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제품과 관련한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이 소비자들과의 소통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 계층별 응대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기업과 소비자, 직원들의 외래어 사용에 대한 인식, 소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과 소비자 간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문제를 개선하여 올바른 언어 사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사회·문화 정책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국립국어원을 비롯한 국민 문화 관련 기관에서는 서비스 현장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비롯하여 필요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를 조사하여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서비스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위의 두 가지 사례, 청소년의 욕설 사용으로 인한 문제와 외래어 사용으로 소비자의 피해 사례를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국어 진흥 운동의 실천 방안을 계획할 때 주의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① 국어 사용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모두 ‘소통의 부재’로 인한 것임을 강조해야 한다.
- ② 소통의 부재는 실제 언중의 실질적 이익과 직접 관련된다는 점 역시 강조되어야 한다. 가령 욕설이나 거친 언어의 무의식적 사용이 학업 성적이나 취업, 대인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소비자가 이해할 수 없는 외래어의 사용은 소비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점 등이 예가 될 것이다.
- ③ 국어 진흥 운동의 실천은 확실적인 법규, 심의 규정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언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그들이 자신을 위해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운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④ 국어 사용에서 문제가 되는 현상이나 대상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청소년의 욕’, ‘백화점에서 상품명으로서의 외래어 사용’과 같은 것이다. 막연히 ‘욕설 사용’, ‘외래어 사용’이라고 추상적으로 범위를 규정할 때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 ⑤ 실행 주체의 관심에 맞는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령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때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를 거둘 것이며, 서비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판매를 촉진시키는 방안으로서 다루어질 때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7. 결 론

구성원 간 소통을 증진시키고 언어를 더욱 건강하고 품위 있게 가꾸는 일은 모든 언어 공동체가 안고 있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지난 날 표준어 중심, 고유어 중심의 국어 순화 운동은 우리의 민족 정신을 높이고 국어의 균질화, 표기의 통일을 실현시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이 변화한 오늘날 국어 진흥 운동은 새로운 목적과 사명을 지니고 전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국어 진흥 운동 추진의 원동력이 될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국어 진흥 운동의 이론적 기반을 세우고 실천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어 진흥 운동에 이론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았다. 일관되고 유기적인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운동의 전 과정을 아우르고 관통할 수 있는 이론이 반드시 필요함을 밝혔다.

둘째, 국내에서 수행된 국어 운동(국어 순화 운동, 한글 전용 운동, 우리말 도로 찾기 운동 등)을 검토한 결과 기존의 국어 운동이 언어 운동, 사회 운동으로서의 복합적인 양상을 띠며 성과를 거두었음을 확인하였다. 역사적·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국어 운동은 언어 운동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사회 운동의 성격도 지닐 수밖에 없었고, 이는 국어 운동이 본질적으로 언어 운동이라는 점을 간과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국어 진흥 운동은 국어가 본질적으로 ‘소통’의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하여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 ‘구성원 간의 소통’을 강조하는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셋째, 국외의 자국어 운동 사례를 조사한 결과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얻고, 국가 혹은 민간단체의 감시 기능이 발달하고, 실천 주체들이 규칙과 규범을 준수할 때 자국어 운동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할 국어 진흥 운동 역시 대중의 지지와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하며, 관련 기관의 협조와 국어 진흥 운동을 실행시킬 주체가 실천에 참여하는 의지를 갖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국어 진흥 운동에는 다양한 기반 학문이 복수의 층위에서 연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무엇보다 국어 진흥 운동의 I 층위 문제 진단에서부터 V 층위 실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는 이론 모형을 마련하였고, 두 영역의 사례를 통해 이론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어 진흥 운동이 언중의 관심을 끌고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였다. 문제가 되는 언어 상황별로 계층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실천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기반 학문 외에도 교육공학, 콘텐츠 개발, 국어 정책론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적 과제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언중을 실천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어 진흥 운동의 이론적 기반 연구

I 보고서 활용 방안

본 연구에서는 ‘국어 진흥 운동’의 목표를 ‘소통(communication)’에 두고 국어 진흥 운동 추진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소통은 과녁에 화살을 맞히는 것과 같은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며, 소통자 사이에서 의미를 주고받는 양방향적인 행위이다. 이러한 의미 교환 행위가 상황에 맞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소통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소통이 일어나는 환경과 소통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에 관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국어 진흥 운동을 시작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어 진흥 운동이 고려해야 할 것은 소통의 참여자인 언중을 존중하고 그들의 눈높이, 흥미와 관심거리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일이다. 소통 환경과 소통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언중의 관심과 눈높이에 대한 이해라는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참여자의 진정한 ‘참여’가 일어나고 국어 진흥 운동이 추진력을 얻게 된다.

지금까지의 국어 운동은 특정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가령 ‘외래어 남용’, ‘청소년의 욕설 사용’, ‘방송 언어의 저속화’ 등이 국어 사용에서 개선되어야 할 분야로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실태를 조사하는 주체도 국어학자, 혹은 국어 운동가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들이 주를 이루었다. 즉 국어 사용의 문제는 언중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풀어 나가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연구자, 소수의 운동가만이 관여해 왔다는 점은 개선이 절실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국어 진흥 운동이 저변을 확대하고 언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어 사용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인 담화 맥락을 고려하여 상황별, 참여자 계층별로 분석되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 없이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령 고령화 사회인 오늘날, 노년층이 경제 활동 및 사회 활동의 주체로 자리를 잡으면서 세대별 언어 차이가

II 정책 제안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이론 모형과 국어 사용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바탕으로 향후 국어 진흥 운동과 관련하여 추진해야 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참여자 중심의 국어 진흥 운동 추진

국어 진흥 운동의 1단계인 문제 진단을 위해서는 언어 사용 상황에 관한 대대적인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때 이러한 관찰과 연구의 접근은 앞서 말한 대로 의사소통에서의 문제를 ‘상황별’, ‘참여자 계층별’로 구체화한 후에 문제 진단에 들어가야 한다.

문제가 되는 언어 사용 상황이 ‘방송 언어’라면 이를 좀더 구체화하여 ‘홈쇼핑 방송에서 시청자나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 일상적이지 않은 억지스러운 억양을 사용하는 것’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언어 현상은 결국 다수의 시청자들의 이해(理解)를 고려하지 않는 방송 관계자들의 인식에서 기인한다. 어려운 전문 용어를 사용하거나 과장된 억양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어학자, 국어 운동가 등 전문가 집단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진단하고 실태 조사를 하였으며, 정작 불편을 겪는 사용자(소비자)의 역할은 매우 미미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국어 진흥 운동에서는 실제 언어 사용자(소비자, 시청자, 독자 등)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문제의 진단과 실태 조사, 실천 전략 수립 등의 과정에 실제 언어 사용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스스로 언어 환경의 문제를 찾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홈쇼핑뿐 아니라 백화점, 주민센터, 잡지 등에서 폭넓게 실시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홈쇼핑에서는 진행자들의 빠른 말투, 사담화된 대화, 어려운 전문 용어의 사용, 과장된 억양 사용 등에 대한 문제를, 백화점

의 경우 판매원들이 대상에 관계없이 전문 용어나 외래어를 사용하는 문제, 상황에 맞지 않는 존대법을 사용하는 문제를 실제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운동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 사용자 계층(혹은 독자나 시청자, 소비자 등)을 상황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2. 상황 중심의 국어 진흥 운동 추진

앞서 제시한 모형의 출발은 상황 중심으로 문제를 전개해 나갈 수 있다. 언론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관공서에서의 국어 사용 문제를 서식별로 살펴볼 수도 있고, 담당 직원의 구어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방송 언어의 사담화, 국회의원들의 품위에 맞지 않는 말, 유치원 교사들의 유아 중심 언어 사용이나 영화 대사에 욕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공적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 등 상황별 언어 사용 문제에 대한 고찰은 다각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가령 방송 언어가 사담화되고 있는 상황은 좀더 구체적으로 방송 출연자간 반말 사용, 부적절한 호칭과 지칭 등을 조사하고 그것이 시청자들이 방송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양한 계층의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해 방송 언어가 지나치게 사담화되고 개인화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조사와 연구를 통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아동기의 언어습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치원 교사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조사하는 일 역시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유치원 교사들의 언어 사용이 유아의 언어, 인지, 인성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3. 일관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국어 진흥 운동 추진

본 연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국어 운동 혹은 국어 문제에 관한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러한 현상이 생긴 원인 중 하나는 국어 사용과 관련된 ‘문제 진단’과 ‘실패

조사’, ‘실천 방안 모색’ 등, I 층위부터 IV 층위까지의 수행이 단일한 연구 팀에 의해 주도되지 못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 모형에 기반을 두고 ‘참여자 중심’, ‘상황 중심’의 국어 진흥 운동을 추진하되 연구, 조사 및 실천 전략의 모색과 실천 유도에 동일한 연구진이 참여해야만 일관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사용 실태 조사를 통한 문제 제기에 그치는 연구 및 운동은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제시된 많은 실천 방안이 주로 법규나 심의 규정 등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영역에서도 성과를 거두어 온 것은 사실이나 정작 참여 주체가 될 언중은 자신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없다고 느끼는 점은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가령 일반 대중 가운데 국어기본법의 존재를 알고 그 취지와 변화된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언중의 참여 동기를 유발할 수 없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운동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민을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새롭게 결정된 법규나 규정을 언중의 각 층위에 맞게 홍보하고 실천 방안을 제시하여 직접 참여하도록 만드는 과제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언중들이 국어 진흥 운동에 동참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개선되어 간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가령 홈쇼핑의 언어가 개선됨으로써 소비자가 소통의 장애를 겪지 않으면서 제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 주민센터의 각종 서식에 드러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꿈으로써 업무 처리가 용이해진다는 점, 유치원 교사들의 언어 교육을 통해 자녀들이 바른 언어를 습득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등을 언중이 인식해야만 참여의 의지를 갖게 될 것이다.

4. 융복합적 과제로 언중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국어 진흥 운동 추진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국어 진흥 운동은 언중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 특히 지금의 20~30대 연령층은 ‘디지털 세대(Digital

Generation)’로, 지금의 청소년 세대는 ‘모티즌(Motizen, mobile+citizen)’으로도 불린다. 디지털 감성에 익숙하고 흥미로운 일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다. 의사표현에 있어서도 음성과 문자를 이용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며,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여론이나 운동의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 역시 그들의 특징이다.

따라서 국어 진흥 운동에 이러한 디지털 세대를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콘텐츠를 개발하여야만 한다. 이는 정책 담당자나 국어학자들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디지털 콘텐츠 개발자들의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어학자와 스토리텔링 전문가들의 참여, 기술적 측면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개발자들의 참여, 제도적 측면에서는 정책 담당자의 참여, 실천적 측면에서는 국어 운동가의 홍보와 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즉,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어 진흥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융복합적 과제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앞서 언급한 노년층이 겪는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 가령 이들이 소비자로서 겪는 문제는 노년층 소비자를 대하는 서비스 업종(의료, 교육, 상담, 상업 및 공공 서비스 등)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접근, 심리적 접근, 언어적 접근, 의학적 접근, 경제적 접근, 정책적 접근 등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앞으로의 국어 진흥 운동은 특정 소수 분야의 연구와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제의 진단부터 실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협업과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력 하에 ‘쉬운 국어’, ‘소통에 도움이 되는 국어’가 가져올 경제적 실익에 대해 연구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다.

[부록] 대규모 신문 기사에 나타난 국어 운동 관련 자료의 구축과 분석

1. 국어 운동 관련 신문기사의 구축과 유형 분류

신문은 하루 단위로 주요 사건과 이슈들을 정기적으로 보도하는 매체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관심사의 변화 양상을 살피는 데 매우 유용한 언어 자원이다. 여기서는 지난 10여 년간 발행된 주요 일간지에 나타난 ‘우리말’과 관련한 기사를 추출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말과 관련하여 어떠한 주제나 사건 등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았으며 또 그 관심의 변화 추이는 어떠한지를 밝히고 이를 국어 진흥 운동이 필요한 구체적인 분야 및 영역으로 설정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1.1. 검토 대상 신문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발행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이상 창간 연대 순) 기사 중 ‘우리말’의 사용 실태, 개선 방안, 국어 의식 등과 관련된 기사를 모두 추출하였다. 추출된 기사들을 대상으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말에 대한 언론의 보도 경향, 기사에 반영된 우리말의 실태 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확인하였다.

4개 신문사 12년치 기사 중 ‘우리말, 한글, 국어 운동 등’과 관련된 기사는 모두 900여 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기사들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최근 10여 년간 우리말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 그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언론의 관심은 곧 사회적 관심의 반영이고 이러한 양상은 언중의 언어생활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신문을 통한 내용 분석은 의미가 있다.

1.2. 국어 관련 보도 주제별 분류

2000년대 주요 일간지의 기사에 나타난 우리말에 대한 보도 기사들을 내용별로 분류한 뒤 시대적인 흐름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우리말, 한글, 국어 운동’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여 추출한 기사문을 검토하여 하위 주제별로 유형화하면 아래와 같다.

- | | |
|---------------------------|------------|
| [1] 방송 언어 | [2] 통신 언어 |
| [3] 욕설, 비속어 | [4] 외래어 순화 |
| [5] 국어 운동 | [6] 해외 사례 |
| [7] 한글 | [8] 한국어 교육 |
| [9] 국어 정책(국어기본법, 영어공용화 등) | [10] 기타 |

하위 주제별 분류를 통해 2000년대 언론에서 ‘우리말’과 관련한 관심사가 주로 무엇이었으며,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개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각 하위 주제별 논의를 차례대로 살펴보겠다.

1) 방송 언어

방송 언어에 대한 비판적 기사는 신문사나 연도와 상관없이 2000년대에 꾸준히 보도되었다. 이는 방송이 언중의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극히 크다는 여러 실증적 연구에서의 결과로 볼 때, 방송 언어를 우리말 사용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여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특히 2000년대 후반에는 자막과 관련한 문제가 관심을 많이 받았다. 다음은 방송 언어를 다룬 기사들을 표제어만 따로 정리한 것이다.

- 사실: 방송 언어, 저질 밑바닥까지 왔다; [조선일보 2000.11.1.]
- FM진행자 언어오용 심각; “증말 갱장이 기여운 청치자...” 라디오 말갈지 않은 말 ‘홍수’; [조선일보 2001.06.14.]
- 방송·신문의 국어오염 심각 [조선일보 2002.04.01.]
- 신문도 방송도 요즘 우리가 미국말을 너무 많이 써 탈이라고 말합니다.[한겨레신문 2002.09.02.]
- ‘우리말 지킴이’ 개그맨 정재환씨 “방송·통신이 먼저 우리말 아름답게” [한겨레신문 2002.10.09.]
- 잡탕말·비속어 홍수...TV 입이 거칠다 [동아일보 2003.03.20.]
- 뉴스언어 문제 많다 [한겨레신문 2003.09.03.]
- 방송 ‘외국어’ [한겨레신문 2003.11.04.]
- 광고 말 : 한 텔레비전 광고를 봤더니,[한겨레신문 2004.07.13.]
- 방송 언어 “오! ㄹ’s 코리아” 이것은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젊은이들의 통신 언어에서 따온 것이 아니다. [한겨레신문 2004.08.31.]
- 국정홍보 광고 발음 엉터리, 긴 발음 16개 중 1개만 맞아 [한겨레신문 2005.02.04.]
- 방송의 잘못된 높임말 사용 고쳐야 [한겨레신문 2006.11.21.]
- 예능프로 ‘자막’ 속 우리말은 상처투성이 [한겨레신문 2007.10.09.]
- 방송 보도 프로그램 제목 81%가 외래어 [한겨레신문 2008.02.13.]
- 방송 언어 뒤죽박죽...국어연구원 “오용 심각” 지적 [동아일보 2000.12.21.]
- 라디오방송 진행자 언어 사용 엉망 [동아일보 2001.06.14.]

- [방송]오락프로 한글오용 조사KBS2 전체지적의 42% [동아일보 2003.06.18.]
- [방송]방송위,TV뉴스 우리말 오용 분석 [동아일보 2003.09.03.]
- [방송]KBS-MBC 토론프로 외국어 남발 많다 [동아일보 2004.04.21.]
- [독자의 편지]권필영/TV홈쇼핑 외국어 너무 많이 써 [동아일보 2005.01.03.]
- [독자의편지]정상현/ TV오락프로 외래어 난무 [동아일보 2005.03.28.]
- [방송]‘컬투’ SBS 옷찾사 코너 복귀 “경고! 엉터리 한글…” [동아일보 2005.11.03.]
- [휴지통]‘개네들’이야? ‘게네들’이야? [동아일보 2006.12.28.]
- [휴지통]‘좋은 우리말’ 방송프로서 욕설 물의 [동아일보 2009.01.22.]
- [독자편지/이우희]방송 영어 용어 쉬운 우리말로 [동아일보 2009.04.06.]
- [사설]청소년 언어 순화에 방송부터 나서라 [동아일보 2009.10.10.]
- “어린이 프로, 폭력적 언어 사용 문제” [동아일보 2009.10.21.]
- “방송 언어, 재미보다 정확한 메시지가 핵심” [동아일보 2010.10.07.]
- [열린마당]방송의 외래어 남발 외국서 보니 부끄러워 [중앙일보 2000.01.17.]
- [열린마당] TV오락물 비속어 남발 [중앙일보 2000.02.10.]
- [열린마당] 방송사 국어 순화 뒷걸음 [중앙일보 2000.05.22.]
- [열린마당] 일상어 두어 문어체 남발 [중앙일보 2000.08.28.]
- [열린 마당] 잠실 농구장 안내방송 영어 남발 [중앙일보 2000.12.25.]
- [열린마당] 부적절한 방송 언어 사용 때 유의 [중앙일보 2001.10.08.]
- TV광고 우리말 왜곡 심해 [중앙일보 2002.12.13.]
- 언론 우리말 표기 잘못 많다 [중앙일보 2003.02.12.]
- 아나운서의 생명은 ‘바른 말’ [중앙일보 2003.06.20.]
- 우리말과 문화 보호 위해 TV 외화 더빙 처리해야 [중앙일보 2003.11.28.]
- TV외화 더빙·자막처리 가려서 했으면 [중앙일보 2003.12.10.]
- 방송 우리말 사용 부정확 [중앙일보 2004.07.21.]
- 방송뉴스, 장·단음 발음 엉망 [중앙일보 2004.10.18.]
- MBC, 연예인 등 대상 ‘우리말 대학’ 개설 [중앙일보 2004.04.13.]
- KBS 아나운서들이 말하는 우리말 잘하는 법 [중앙일보 2009.10.07.]

2) 통신 언어

소위 ‘통신 언어’는 인터넷, 블로그, 메신저, SNS 등과 같은 매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새롭게 등장한 사회언어학적인 현상의 하나이다. 특히 통신 언어 사용은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 그 결과로 이용자 계층이 폐쇄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은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통신 언어가 기존의 은어와 보이는 양상과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하면 통신 언어 자체가 문제시될 만한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통신 언어의 파급 효과가 기존의 은어에 비해 매우 크고, 언중의 언어생활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점, 또한 세대 간 차이로 인해 소통이 단절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통신 언어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통신 언어를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은 대체로 이러한 언어 사용을 문제라고만 간주하고 있다. 즉 통신 언어를 단순히 사회적인 은어의 한 모습이라 인정하기 보다

는 철저히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규범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인터넷·문자 메시지 통신 언어 온통 암호투성이 도대체 뭘 소린지... (그래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ㅋㅋ) [조선일보 2007.05.12.]
- [이사람];우리말 지키기 앞장 구법회 연수중 교장;“우리말 갈수록 ‘잡탕말’로 변해” [조선일보 2007.10.09.]
- ‘인터넷상 우리말 살리기’ 앞장 이성우 유니텔 동호회 연합회장 / ‘파괴된 말 ‘안나세움’ 따라하지 마세요’ [한겨레신문 2001.10.05.]
- 청소년들 망가지는 언어습관 / 한글날 계기 함께 되돌아보자 “안농ㅋㅋ 머하셈? 흠^^ 난 강잇엉~ [한겨레신문 2004.10.11.]
- “허걱, 인터넷언어 어이엄따” / 우리말 순화 ‘5계명’ 발동 [한겨레신문 2005.01.11.]
- 언어 축약·이모티콘 등 대화법 /발랄함 지나치면 되레 꼬여 - -;; [한겨레신문 2005.06.27.]
- 무국적 언어 / 누굴 탓하라 학교만큼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곳도 드물 것이다. 특히 학생과 교사 사이의 세대 차이 [한겨레신문 2006.05.08.]
- ‘단친’·‘생과’ 무슨 뜻인지 아셈? [한겨레신문 2008.02.26.]
- 남친·대박...세대 넘는 ‘10대 통신 언어’ [한겨레신문 2010.10.05.]
- 우리나라 인터넷 “국어 사용 엉망” [동아일보 2000.07.19.]
- ‘잘못된 인터넷 언어’ 생활어 오염 심각 [동아일보 2001.10.30.]
- 알쏭달쏭 사이버언어 2350개...우리말 훼손 심각 [동아일보 2002.01.24.]
- 편버누? 쇠올?...통신 언어 다시보기'展 [동아일보 2002.10.09.]
- [건강한인터넷]“사이버 언어 맑고 곱게” 문인들이 나섰다 [동아일보 2003.05.20.]
- [건강한 인터넷]한글 몰아내는 통신언어 ‘외계어’ [동아일보 2003.10.14.]
- [커버스토리]통신언어-신조어 봇물...세대별 언어벽 실감 [동아일보 2003.11.07.]
- [인터넷]인터넷서 ‘외계어’ 판쳐... 한글과괴 심각 [동아일보 2005.01.11.]
- [열린마당] 사이버 공간서 우리말 제대로 사용하길 [중앙일보 2000.10.09.]
- [KET 국어능력인증시험] 인터넷 언어등 국어파괴 심각 [중앙일보 2001.04.19.]
- 언어과괴 이제 그만 네티즌들 캠페인 [중앙일보 2001.10.06.]
- ‘컴탕이·머시따...’ 통신언어 유행 이유 있다 [중앙일보 2002.01.24.]
- [열린마당] PC통신 등 언어파괴 심각 [중앙일보 2002.01.28.]
- ‘통신 언어’통역 있어야 이해 [중앙일보 2002.02.05.]
- [바른 글 운동]‘羅 ㄸ孝’ 쓰지마! [중앙일보 2003.01.21.]
- <9>덧글/덧글/답글 [중앙일보 2004.07.15.]
- 알쏭달쏭한 e언어 뜻풀이 해결사 [중앙일보 2004.11.26.]
- 인터넷 막글을 탄핵한다 [중앙일보 2004.03.19.]
- 읍ㅎF를_미てつ효_∩▽∩★ 무슨 뜻? [중앙일보 2005.01.11.]
- ‘병개’하면 안 되나요? [중앙일보 2005.07.23.]
- 인터넷 외계어 범람 ... ‘잼있따’가 맞는 줄 알았어요 [중앙일보 2006.12.13.]
- 좋은 인터넷 신조어, 국어대사전에 실려요 [중앙일보 2007.10.11.]
- ‘외계어’만은 추방하자 [중앙일보 2011.10.14.]

3) 욕설, 비속어 사용

언중의 욕설과 비속어, 특히 청소년들의 욕설과 비속어 사용에 대한 비판적인 보

도는 비단 2000년대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는 이미 60년대의 기사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소위 ‘요즘 젊은 세대들은 ...’ 식의 논의들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 [시론] 무턱댄 첫 인사 "안녕 똘××, ×나 병신 ××야" [조선일보 2011.01.11.]
- [사설] 75초에 한 번씩 욕설 내뿜는 우리 아이들 [조선일보 2011.10.03.]
- "아~ 내가 쓴 욕이 이런 뜻... 알고나니 못 말하겠어요"; '욕 없는 교실' 만드는 상원中... 급훈 '세종대왕님 울고 계신다' [조선일보 2011.10.04.]
- 초등생 들락거리며 욕설 친지, 인터넷 안티카페 1000여개;엄마 욕하는 '패륜카페'도 등장" [조선일보 2011.10.05.]
- 평소 쓰는 거친 말로 교실서 역할극.글쓰기 . 언어습관 반성 계기로 [한겨레신문 2001.09.10.]
- 씨바 XX네.졸라 XX하네.뭘 야러'. 넌, 욕 안하고도 대화가 돼? [한겨레신문 2001.09.10.]
- '욕쟁이 할머니도 울고 갈/거시기'한 10대들의 입 [한겨레신문 2010.01.25.]
- "한국 어린이·여성 말 거칠어져...남성 말투는 거꾸로 여성화" [동아일보 2008.10.08.]
- 얼짱·몸짱... 신조어 남발에 쓸쓸 [중앙일보 2004.01.16.]
- <555> 맞장(맞짱) [중앙일보 2005.09.20.]

4) 외래어 순화

기사 중 상당수가 외래어 중심의 국어 순화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외래어 혹은 국어 순화의 문제는 일본말의 잔재를 일소해야 한다는 논의보다는 주로 영어와 관련된 기사가 주된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의 언어생활에 깊숙이 침투한 영어의 영향을 어떻게 제한해야 할 것인지를 순화의 입장에서 주로 다루었다. 물론 영어나 한자어의 영향은 단순한 시대적 반영이므로 이를 '순화'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매우 규범적일 수 있다는 비판적 논의도 종종 나타나기도 한다.

- 리미티드 에디션→특별 한정 상품... 백화점도 외래어 남용 막기 나서 [조선일보 2010.10.09.]
- "동아리·댓글이란 말도 처음엔 어색했다", "언어는 원래 혼탁... 섞이며 표현 늘어나"; '외국어 순화' 국어 정책 토론회... 우리말로 바꿔야... 단어에 창의력 발휘하면 돼 [조선일보 2011.08.25.]
- 지자체 누리집 우리말 오용 심하다 [한겨레신문 2007.02.24.]
- 되돌아본 우리말글 정책 [한겨레신문 2001.10.18.]
- 재미로 하는 우리말 죽이기 [한겨레신문 2001.04.19.]
- 게임업체들 '이젠 바른 한글 씁시다' [한겨레신문 2001.10.12.]
- 일본말 찌끼 [한겨레신문 2003.04.09.]
- 정책프로세스→업무과정개선 등 /청와대 외국어표기 직제 우리말로 바꿔 [한겨레신문 2003.09.26.]
- 뜬·가든 그리고 호프 우리 일상생활에서 외국어를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한겨레신문 2004.02.10.]
- 북극·북장국 광복 뒤 꾸준히 펼쳐 온 말글 순화 운동과 학교 교육 덕분에 지난 반세기 동안 [한겨레신문 2004.08.04.]
- 외래어는 공짜말? [한겨레신문 2004.10.15.]

- 외래어 다듬기 [한겨레신문 2004.11.09.]
- 왜색어 '진김승부' 퇴치를 제창함 [한겨레신문 2005.03.16.]
- 일본말 찌꺼기 바로잡아야 [한겨레신문 2005.08.17.]
- 관등성명...축수업금...기도비닉... / 군대용어는 여전히 '일제시대' [한겨레신문 2005.10.07.]
- '한류우드'는 짝퉁 이름 [한겨레신문 2005.12.20.]
- 랜드마크→ 마루지, 로드맵→ 밑그림, 콘텐츠→ 꾸림정보 / 충북, 행정용어에 우리말 입힌다 [한겨레신문 2009.10.29.]
- 건강보험 일본식 표현 고친다 [한겨레신문 2004.03.25.]
- IT 용어“도대체 무슨 뜻인지...” [동아일보 2000.08.08.]
- [기고]이윤배/외국어 남용 너무하다 [동아일보 2000.10.09.]
- [제554회 한글날]정부 홈페이지 한자 남발 [동아일보 2000.10.09.]
- 글 쓸때 한자말 사용, 유행어 흉내, 상투적표현 삼가세요 [동아일보 2000.11.01.]
- [대전/충남]“예쁜 우리말 상호 사용하세요“ [동아일보 2001.01.30.]
-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꿔쏘시다 [동아일보 2001.03.22.]
- 아름답고 정겨운 우리말을 쓰자 [동아일보 2001.05.08.]
- [전문가의 '서울간판 읽기]“밝고 고운 우리말 간판 보기 힘드네” [동아일보 2001.10.09.]
- 쿠키 제공...불끈중...“쏟아지는 신조어 말 안되는 말 많다” [동아일보 2002.02.14.]
- [클릭클릭]혼조... 과매도... “그들만의 언어“ [동아일보 2002.10.09.]
- 초등교과서에 한자말-잘못된 표현 넘친다 [동아일보 2002.10.21.]
- [증권]외국용어 쉽게 바뀐다 [동아일보 2003.06.27.]
- [사회]청와대비서실는 우리말 해방꾼 [동아일보 2003.09.20.]
- [청와대] 청와대 외국어 사용 자제키로 [동아일보 2003.09.26.]
- [사회]오늘 한글날... '우울한 세종대왕님' [동아일보 2003.10.09.]
- [광고]좋은 우리말이 있는데 왜 외국어 브랜드가 판칠까 [동아일보 2003.10.14.]
- [자동차 이야기]류청회/국적불명 車용어 제대로 쓰자 [동아일보 2003.10.14.]
- [사회]표준 색이름 연말에 바뀐다...녹색→초록, 흰색→하양 [동아일보 2003.10.22.]
- [여론마당]이만영/우리말 색이름 쉽고 정확해요 [동아일보 2003.10.27.]
- [사회]우체국 용어 쉬운말로 바뀐다 [동아일보20040212]
- [문화]우리말로 풀어쓴 民法책 펴낸 경북대 홍사만 교수 [동아일보 2004.02.13.]
- [인물 포커스]우리말 '의학용어 큰사전' 펴낸 지제근 교수 [동아일보 2004.04.26.]
- [횡설수설]오명철/우리말 다듬기 [동아일보 2004.07.21.]
- [문화]모두가 함께 하는 우리말 다듬기... '웰빙' 순화용어 '참살이'로 결정 [동아일보 2004.07.21.]
- [여론마당]민현식/우리말 다듬기운동' 기대 크다 [동아일보 2004.08.02.]
- [발언대]이재식/언어의 물을 지키자 [동아일보 2004.08.23.]
- [휴지통]큰돈 우리말이름 “고추장갑” “뜯이웃” [동아일보 2004.10.06.]
- [방송]방송인 정재환-아나운서 이현경씨 '우리말 다듬기' 대담 [동아일보 2004.10.09.]
- [사회]9일은 558돌 한글날... '순 우리말 이름 세대'의 현주소 [동아일보 2004.10.09.]
- [발언대]최정기/국어 순화 국민운동 펼치자 [동아일보 2004.10.11.]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하이브리드' 순화용어 '어우름'으로 대체 [동아일보 2004.12.15.]
- [사설]순수 우리말 홀대하는 英韓辭典 [동아일보 2005.01.06.]
- [여론마당]최진규/우리말 다듬기 운동 언론이 앞장서야 [동아일보 2005.01.18.]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헝그리 정신' 순화용어 '맨주먹정신' [동아일보 2005.04.06.]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투 잡' 순화용어 '겹벌이'로 결정 [동아일보 2005.04.13.]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브랜드파워' 순화용어 '상표경쟁력' [동아일보 2005.04.20.]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엑스파일' 순화용어 '안개문서' [동아일보 2005.04.27.]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게이트' 순화용어 '의혹사건' [동아일보 2005.05.04.]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메신저' 순화용어 '쪽지창' [동아일보 2005.05.11.]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소호' 순화용어 '무점포사업' [동아일보 2005.05.18.]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오프라인' 순화용어 '현실공간' [동아일보 2005.05.25.]
- [문화칼럼]김영원/문화재 용어 쉽게 바꾸자 [동아일보 2005.05.31.]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옴부즈맨' 순화용어 '민원도우미' [동아일보 2005.06.01.]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터프가이' 순화용어 '쾌남아' [동아일보 2005.06.08.]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블루투스' 순화용어 '쌈지무선망' [동아일보 2005.06.15.]
- [기고]한애란/표준 색이름, 우리말 색감성 고려한 것 [동아일보 2005.06.16.]
- [휴지통]'도대체 무슨 말인지' 난해한 경찰 플래카드 [동아일보 2005.06.18.]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드레싱' 순화용어 '맛깔장' [동아일보 2005.06.22.]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컨트롤타워' 순화용어 '가운머리' [동아일보 2005.06.29.]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블루오션' 순화용어 '대안시장' [동아일보 2005.07.06.]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퀄리티 스타트' '선발퀘투'로 [동아일보 2005.07.13.]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호스피스' 순화용어 '임종봉사자'로 [동아일보 2005.07.27.]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셀프카메라' 순화용어 '자가촬영' [동아일보 2005.08.03.]
- [금융]'모기지론' 우리말 용어 공모 [동아일보 2005.08.09.]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후카시' 순화용어 '폼재기' [동아일보 2005.08.10.]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후룩쿠' 순화용어 '어중치기'로 결정 [동아일보 2005.08.17.]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교례회' 순화용어 '어울모임' [동아일보 2005.08.31.]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스탠더드 넘버' 순화용어 '대중명곡' [동아일보 2005.09.07.]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플래그십 스토어' 순화용어 '체험판매장' [동아일보 2005.09.14.]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선팅' 순화용어 '빛가림' [동아일보 2005.09.28.]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그롭홈' 순화용어 '자활꿈터'로 결정 [동아일보 2005.10.05.]
- [여론마당]구법회/교육청 공문에 영어 써야하나 [동아일보 2005.10.06.]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윈톱' 순화용어 '홀로주연'으로 결정 [동아일보 2005.10.12.]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디펜딩챔피언' 순화용어 '우승지킴이'로 [동아일보 2005.10.19.]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파일럿 프로' 순화용어 '맛보기 프로' [동아일보 2005.10.26.]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스포일러' 순화용어 '영화해살꾼' [동아일보 2005.11.02.]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로그송' 순화용어 '상징노래'로 결정 [동아일보 2005.11.10.]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폴셋트' 순화용어 '다모임' [동아일보 2005.11.17.]
- [우리말 다듬기]'컬트' 순화어 '소수취향'으로 결정 [동아일보 2005.11.24.]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드레스코드' 순화용어 '표준옷차림' [동아일보 2005.12.01.]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DIY' 순화용어 '손수짜기'로 결정 [동아일보 2005.12.08.]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케포츠' 순화어 '활동복' [동아일보20051215]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올 최고의 순화어 '누리꾼' [동아일보 2005.12.30.]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캐리어' 순화용어 '아이업개' [동아일보 2006.01.05.]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스파이웨어' 순화어 '정보빼내기프로그램' [동아일보 2006.01.12.]
- [우리말 다듬기]'다크서클' 순화용어 '눈그늘'로 결정 [동아일보 2006.01.19.]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트리트먼트' 순화어 '머릿결영양제' [동아일보 2006.01.26.]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파트너십' 순화어 '동반관계' [동아일보 2006.02.09.]
- [우리말 다듬기]'마스터클래스' 순화어 '명인강좌'로 결정 [동아일보 2006.02.16.]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매치업' 순화어 '맞대결' [동아일보 2006.02.23.]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팩션' 순화어 '각색실화' [동아일보 2006.03.02.]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퍼블리시티권' 순화어 '초상사용권' [동아일보 2006.03.09.]

- [우리말 다듬기]'클러스터' 순화용어 '산학협력지구' [동아일보 2006.03.16.]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캡처' 순화어 '장면갈무리' [동아일보 2006.03.23.]
- [우리말 다듬기]'뉴타운' 순화어 '새누리촌'으로 결정 [동아일보 2006.03.30.]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타임 서비스' 순화용어 '반짝 할인' [동아일보 2006.04.06.]
- [정치]'매니페스토' 우리말 '참공약 선택하기'로 [동아일보 2006.04.13.]
- [우리말 다듬기]'오픈 하우스' 순화어 '집열기'로 결정 [동아일보 2006.04.13.]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백댄서' 순화용어 '보조춤꾼' [동아일보 2006.04.20.]
- [독자의 편지]'이강규/땅이름' 순 우리말로 바꾸자 [동아일보 2006.04.25.]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치어리더' 순화어 '홍돋움이'로 [동아일보 2006.04.27.]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스카이라운지' 순화어 '하늘쉽터' [동아일보 2006.05.04.]
- [우리말 다듬기]'바우처' 순화어 '복지상품권'으로 결정 [동아일보 2006.05.11.]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프로슈머' 순화어 '참여형소비자' [동아일보 2006.05.18.]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다이렉트 메일' 순화어 '우편광고' [동아일보 2006.05.25.]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메세나' 순화어 '문예후원'으로 결정 [동아일보 2006.06.01.]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스팟광고'를 '반짝광고'로 [동아일보 2006.06.08.]
- [우리말 다듬기]'슈터링' 순화어 '골문어림차기'로 결정 [동아일보 2006.06.15.]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로드무비' 순화어 '여정영화' [동아일보 2006.06.22.]
- [우리말 다듬기]'세트피스' 순화어 '맞춤전술'로 [동아일보 2006.06.29.]
- [우리말 다듬기]'키맨' 순화어 '중추인물'로 결정 [동아일보 2006.07.14.]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언론플레이' 순화어 '여론몰이' [동아일보 2006.07.21.]
- [우리말 다듬기]'...아카이브' 순화어 '자료전산화'로 [동아일보 2006.07.28.]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휘핑' 순화어 '거품크림' [동아일보 2006.08.04.]
- [우리말 다듬기]'UCC'순화어 '순수제작물'로 결정 [동아일보 2006.08.11.]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체리피커' 순화어 '금융암체족' [동아일보 2006.08.18.]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핫팬츠' 순화어 '한뺨바지'로 [동아일보 2006.08.25.]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스킨십' 순화어 '피부교감' [동아일보 2006.09.01.]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슬롯머신' 순화어 '성인오락기' [동아일보 2006.09.13.]
- [우리말 다듬기]'피처링' 순화어 '돋움연주' [동아일보 2006.09.20.]
- [우리말 다듬기]'코드' 순화어 '성향'으로 [동아일보 2006.09.27.]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홀드' 순화어 '중간구원' [동아일보 2006.10.11.]
- [우리말 다듬기]'펜트하우스' 순화어 '하늘채'로 [동아일보 2006.10.18.]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브런치' 순화어 '어울참' [동아일보 2006.10.25.]
- [우리말 다듬기]'원샷' 순화어 '한입털이'로 [동아일보 2006.11.01.]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홈베이킹' 순화어 '순수굽기' [동아일보 2006.11.08.]
- [우리말 다듬기]'퓨레' 순화어 '과립즙'으로 결정 [동아일보 2006.11.15.]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시즌' 순화어 '~번째 이야기'로 [동아일보 2006.11.22.]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VOD' 순화어 '다시보기' [동아일보 2006.12.06.]
- [우리말 다듬기]'SOS' 순화어 '구원요청'으로 [동아일보 2006.12.13.]
- [우리말 다듬기]'오마주' 순화어 '감동되살이'로 [동아일보 2006.12.20.]
- [우리말 다듬기]'치크리트' 순화어 '꽃띠문학'로 결정 [동아일보 2006.12.27.]
- [우리말 다듬기]'트레이드마크' 순화어 '옴삼장' 으로 [동아일보 2007.01.10.]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케이터링'순화어 '맞춤밥상'으로 결정 [동아일보 2007.01.17.]
- [우리말 다듬기]'샘플러' 순화어 '맛보기묵음' [동아일보 2007.01.24.]
- [우리말 다듬기]'프리사이즈' 순화어 '열린치수'로 [동아일보 2007.01.31.]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비트박스' 순화어 '입소리장단' [동아일보 2007.02.07.]

- [우리말 다듬기]그라피티' 순화어 '길거리그림' [동아일보 2007.02.14.]
- [우리말 다듬기]'머스트 헤브' 순화어 '필수품'으로 결정 [동아일보 2007.02.28.]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스태디셀러' 순화어 '늘사랑상품' [동아일보 2007.03.07.]
- [우리말 다듬기]'팁' 순화어 '도움말' [동아일보 2007.03.14.]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블라인드' 순화어 '(정보)가림' [동아일보 2007.03.21.]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웹서핑' 순화어 '누리검색' [동아일보 2007.03.28.]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레퍼런스' 순화어 '고품질' [동아일보 2007.04.04.]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하드보일드' 순화어 '냉혹기법' [동아일보 2007.04.11.]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러브라인' 순화어 '사랑구도' [동아일보 2007.04.18.]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로드킬' 순화어 '찾길동물사고' [동아일보 2007.05.03.]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알과걸' 순화어 '으뜸너' [동아일보 2007.05.09.]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캐릭터' 순화어 '특징물' [동아일보 2007.05.16.]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타임캡슐' 순화어 '기억상자' [동아일보 2007.05.23.]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웬즈프리' 순화어 '맨손통화기' [동아일보 2007.05.30.]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술 메이트' 순화어 '교감지기' [동아일보 2007.06.06.]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조리' 순화어 '가락신' [동아일보 2007.06.13.]
- [우리말 다듬기]'빙고' 순화어 '맞았어!'로 결정 [동아일보 2007.06.27.]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페셔널스타' 순화어 '맵시꾼' [동아일보 2007.07.04.]
- [우리말 다듬기]'뽕킨족' 순화어 '뽕누리꾼' [동아일보 2007.07.11.]
- [우리말 다듬기]'프레젠테이션' 순화어 '시청각 설명' [동아일보 2007.07.25.]
- 상상사 외래어 상호 선호 [동아일보 2007.07.25.]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위터파크' 순화어 '물놀이 공원' [동아일보 2007.08.01.]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팩(pack)' 순화어 '피부가꿈제' [동아일보 2007.08.08.]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뷰파인더' 순화어 '보기창'으로 [동아일보 2007.08.15.]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팬 미팅' 순화어 '다솜모임' [동아일보 2007.08.22.]
- [우리말 다듬기]'드로어즈' 순화어 '맵시속바지'로 [동아일보 2007.08.29.]
- 어려운 세법용어 쉬운말로 바뀐다 [동아일보 2007.09.01.]
- [우리말 다듬기]'플라모델' 순화어 '조립모형' [동아일보 2007.09.05.]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디오라마'순화어 '실사모형' [동아일보 2007.09.12.]
- [우리말 다듬기]'스토리보드' 순화어 '그림줄거리'로 [동아일보 2007.09.19.]
- [우리말 다듬기]'스도쿠' 순화어 '숫자넣기'로 [동아일보 2007.10.03.]
- [우리말 다듬기]'월풀' 순화어 '공깃방울목록'으로 결정 [동아일보 2007.10.10.]
- [우리말 다듬기]'성큰가든' 순화어 '뜨락정원' [동아일보 2007.10.17.]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핸드프린팅' 순화어 '기념손짜기' [동아일보 2007.10.24.]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크레이들' 순화어 '다목적꽃이' [동아일보 2007.11.01.]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영건' 순화어 '기대주'로 결정 [동아일보 2007.11.14.]
- [우리말 다듬기]'크로스백' 순화어 '엇걸이가방' [동아일보 2007.11.21.]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해피엔딩' 순화어 '행복결말' [동아일보 2007.11.28.]
- [우리말 다듬기]'크리에이터' 순화어 '광고창작자'로 [동아일보 2007.12.05.]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리퍼브' 순화어 '손질상품' [동아일보 2007.12.12.]
- [모두가 함께 하는 우리말 다듬기]'아우터' 순화어 '겉차림옷' [동아일보 2007.12.19.]
- [우리말 다듬기]162개 외래어 반듯한 우리말로 탈바꿈 [동아일보 2007.12.26.]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오일볼' 순화어 '기름뭉치' [동아일보 2008.01.09.]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키치' 순화어 '눈길끌기' [동아일보 2008.01.16.]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샹그릴라' 순화어 '꿈의 낙원' [동아일보 2008.01.31.]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아우라’ 순화어 ‘기쁨’ [동아일보 2008.02.06.]
- [우리말 다듬기]‘트렌스 지방’ 순화어 ‘변이지방’으로 결정 [동아일보 2008.02.20.]
- [모두가 함께 하는 우리말 다듬기]‘마블링’ 순화어 ‘결지방’으로 [동아일보 2008.02.27.]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디그’ 순화어 ‘받아막기’ [동아일보 2008.03.06.]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레이싱 걸’순화어 ‘행사빛냄이’ [동아일보 2008.03.12.]
- [우리말 다듬기]‘퍼스나콘’ 순화어 ‘개성표현꼴’로 [동아일보 2008.03.19.]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테스트 베드’ 순화어 ‘가능터’ [동아일보 2008.03.26.]
- [우리말 다듬기]‘에코맘’ 순화어 ‘환경친화주부’로 결정 [동아일보 2008.04.02.]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제로베이스’ 순화어 ‘백지상태’ [동아일보 2008.04.09.]
- [우리말 다듬기]‘다크 투어리즘’ 순화어 ‘역사교훈여행’ [동아일보 2008.04.16.]
- [우리말 다듬기]‘히키코모리’ 순화어 ‘폐쇄은둔족’으로 [동아일보 2008.04.30.]
- [모두가 함께 하는 우리말 다듬기]‘언더패스’ 순화어 ‘아래차로’ [동아일보 2008.05.07.]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아티젠’순화어 ‘감각세대’ [동아일보 2008.05.14.]
- [모두가 함께 하는 우리말 다듬기]‘에티’ 순화어 ‘자기가치개발족’ [동아일보 2008.05.21.]
- [우리말 다듬기]‘에듀테인먼트’ 순화어 ‘놀이학습’으로 [동아일보 2008.05.28.]
- [우리말 다듬기]‘모티켓’ 순화어 ‘통신예절’로 결정 [동아일보 2008.06.04.]
- [우리말 다듬기]‘마우스 포테이토’ 순화어 ‘골방누리꾼’으로 [동아일보 2008.06.11.]
- [우리말 다듬기]‘프리터족’ 순화어 ‘자유벌이족’으로 [동아일보 2008.06.18.]
- [우리말 다듬기]‘샐러던트’순화어 ‘계발형직장인’으로 결정 [동아일보 2008.06.25.]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데카르트 마케팅’ 순화어 ‘예술감각상품’ [동아일보 2008.07.02.]
- [모두가 함께 하는 우리말 다듬기]‘엠니스족’ 순화어 ‘주부남’ [동아일보 2008.07.09.]
- [모두가 함께 하는 우리말 다듬기]‘마일리지’ 순화어 ‘이용실적점수’ [동아일보 2008.07.16.]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커튼콜’ 순화어 ‘부름갈채’ [동아일보 2008.07.23.]
- [모두가 함께 하는 우리말 다듬기]‘싱글맘’ 순화어 ‘홀보듬엄마’ [동아일보 2008.07.30.]
- [우리말 다듬기]‘쇼케이스’순화어 ‘선보임공연’으로 결정 [동아일보 2008.08.06.]
- [우리말 다듬기]‘프라브(PRAV)족’ 순화어 ‘알뜰개성족’으로 [동아일보 2008.08.13.]
- [우리말 다듬기]‘엔딩 크레딧’ 순화어 ‘끝맺음자막’으로 [동아일보 2008.08.20.]
- [우리말 다듬기]‘리메이크’ 순화어 ‘원작재구성’으로 [동아일보 2008.08.27.]
- [충북]충북도, 외래어 행정용어 우리말로 바꾼다 [동아일보 2009.10.30.]
- [열린마당] 국산담배이름 외래어보다 우리말로 [중앙일보 2001.02.12.]
- ‘전화국’ 명칭 사라지고 ‘플라자’로 변경 [중앙일보 2001.12.12.]
- [열린 마당] 응원때 순우리말 구호를 [중앙일보 2002.01.19.]
- 콩글리시 축구 용어 [중앙일보 2002.04.05.]
- 광고 문구·영화 제목 등 우리말 사용 원칙지키자 [중앙일보 2002.06.09.]
- 경찰 일본식 용어 쉬운 말로 바꾼다 [중앙일보 2002.08.16.]
- 알쏭달쏭 금융용어 알기 쉽게 바꾼다 [중앙일보 2002.12.26.]
- 외래어·외국어 구분 사용을 [중앙일보 2003.01.11.]
- 룽포지션 → 매수포지션 증권용어 쉬워진다 [중앙일보 2003.06.27.]
- 무데뽀 [중앙일보 2003.07.02.]
- [오늘 557돌 한글날] 희나리 구이 … 에움길 떡집 … 우리말 상표 확 늘었어 [중앙일보 2003.10.09.]
- <181>영어식 표현의 남용 [중앙일보 2003.11.24.]
- <204>닭도리탕-닭볶음탕 [중앙일보 2003.12.29.]
- 에이즈 [중앙일보 2004.12.01.]
- 일제 잔재 청산하려면 생활 속 일본어부터 없애야 [중앙일보 2005.04.01.]
- 노랑 → 병아리색 초록 → 수박색 [중앙일보 2005.05.18.]

- 표준 색이름은 색채산업의 언어 [중앙일보 2005.06.16.]
- 외래어 좋아하는 관청 [중앙일보 2007.01.22.]
-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한자어 한국인끼리 말할 때도 써야 하나 [중앙일보 2007.05.22.]
- 부부간 '자기야' 대신 '여보' '당신' 불러야 [중앙일보 2007.06.27.]
- 외래어 받침 표기 [중앙일보 2007.07.03.]
- 영어식 회사명 표기 [중앙일보 2007.08.07.]
- GMO 식품 용어부터 통일해야 [중앙일보 2008.10.27.]
- 잃어버린 '언어 주권' 되찾자 [중앙일보 2008.07.30.]
- '불구하고'를 줄여 쓰자 [중앙일보 2009.02.09.]
- 언어가 힘이다 <7> 일본식 한자어 뽕깡→생떼, 축제→잔치, 금주→이번주... 아름다운 우리말이 낫지 않나요 [중앙일보 2009.04.29.]
- 스프링클러(?) [중앙일보 2009.05.01.]
- 언어가 힘이다 <9> 순우리말 '모꼬지에 곰손이·딸보·모도리·해살꾼 ...' 입안에서 살살 녹는 맛있는 순우리말 [중앙일보 2009.05.06.]
- '멘토'는 '인생길잡이'로 [중앙일보 2009.09.08.]
- 언어가 힘이다 <14> 글쓰기가 경쟁력 ④ 처갓집→처가, 너무 과하다→과하다... 중복 피하면 글이 깔끔해지죠 [중앙일보 2009.09.16.]
- 알쏭달쏭 우리말 표기 뭐가 제일 궁금했을까 [중앙일보 2009.10.08.]
- 해들누리·마실·들꽃 ... 상명대 국어문화원이 뽑은 천안의 예쁜 가게 이름들 [중앙일보 2009.10.09.]
- 야우리백화점 순우리말 방송 [중앙일보 2009.10.09.]
- [우리말 바꾸기 '모듬회'가 아니라 '모듬회' [중앙일보 2009.12.21.]
- [우리말 바꾸기 '먼지털이'와 '먼지털이' [중앙일보 2010.04.23.]
- '너무'를 너무 쓰지 맙시다 [중앙일보 2010.05.25.]
- 쉬운 우리말을 쓰자 [중앙일보 2010.08.19.]
- 외국어 사용을 줄이자 [중앙일보 2010.11.30.]
- 다크 투어리즘 [중앙일보 2010.12.01.]
- '울그락불그락' 변하지 마세요 [중앙일보 2011.03.28.]
- 우리말 바꾸기 '간지나다'는 일본어에서 유래 [중앙일보 2011.04.05.]
- 직장 언어 예절 [중앙일보 2011.05.17.]
- '청와대.한국' ... 순 한글 인터넷 주소 나왔다 [중앙일보 2011.06.21.]
- 한강공원 시설물 순우리말로 개명 [중앙일보 2011.07.15.]
- '부비다'는 '비비다'가 바른말 [중앙일보 2011.09.30.]
- 악플·볶음머리도 국어사전 실린다 [중앙일보 2011.10.08.]

5) 국어 운동

한편 순화뿐 아니라 국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운동의 필요성을 비판적으로 제기한 기사도 많이 보도되었다. 특히 우리말 이름 짓기를 상표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용어를 보다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전문용어 순화 운동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하다. 기사에서 전문용어의 문제를 다룬 주요 영역은 의학, 법률, 증권 관련 분야이다. 실제로 이러한 분야는 소비자 혹은 이용자들의 불이익을 막고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볼 때 이러

한 논의는 점점 더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우리는 잘못된 글 바로잡는 문장사”;국어 운동본부, 26명 배출; [조선일보 2000.09.19.]
- 육고를 치루다? 육고를 치르다? “한글 오염현장 우리가 간다”;국어 운동본부·문장사협 ‘길거리 국어 바로잡기’ [조선일보 2002.10.09.]
- “광화문 한글현판 지켜야” 한글학회 등 성명 [조선일보 2005.01.26.]
- [만물상];토박이말로 글쓰기 [조선일보 2005.10.08.]
- [Opinion];세종로를 ‘한글의 거리’로 [조선일보 2006.05.01.]
- [발자취] 타계한 전택부 선생;한글 운동에 평생 바친 ‘영원한 YMCA맨’ [조선일보 2008.10.21.]
- “우리말 이름짓기 운동, 한풀 꺾여 안타까워”;3년째 캠페인 이봉원씨 “억지 조어는 나도 반대” [조선일보 2010.05.18.]
- 나들잇벌.빨개면.한울 / 예빠라! 우리말 상표 [한겨레신문 2000.10.07.]
- 언론개혁운동 강화 경영전략으로 삼길 [한겨레신문 2001.01.01.]
- 한글날 국경일 제정 추진본부장 서정수 명예교수 / ‘휴일날 뺀 건 문화민족의 부끄러움’ [한겨레신문 2001.04.10.]
- 아름다운 우리말 상호 ‘섬마을 밀밭집’ 뽑혀 [한겨레신문 2001.05.23.]
- ‘우리말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교통방송 한글날 특집...책자 무료배포 [한겨레신문 2001.10.09.]
- 회사.상품명 외국말 조장...한글날 국경일 반대 [한겨레신문 2001.10.10.]
- 갈무리, 길(라)잡이,다람쥐/컴퓨터용어 ‘영어범벅’ 새 문화는 새 우리말로... [한겨레신문 2001.10.29.]
- 대구 수성구 우리말 길 이름 115곳에 붙여 [한겨레신문 2002.01.05.]
- 앞-144/전쟁서 온 말 ‘D-000’ 대신 ‘앞으로 000일’처럼 우리말로 [한겨레신문 2002.01.07.]
- 부끄러운 국어 사용능력 [한겨레신문 2002.01.17.]
- 어른들이 가르치는 ‘나쁜 언어’ [한겨레신문 2002.01.28.]
- 참이슬.매운콩라면/파는 물건에 붙인 이름 ‘우리말 쓰기’ 실천이 중요 [한겨레신문 2002.02.25.]
- 남영신씨 나의 한국어 바로 쓰기 노트/조사 등 쓰임새 미묘한 차이 분석 대가 오류도 서슴없이 [한겨레신문 2002.04.06.]
- 우리만의 구호 없을까?파이팅’ 말고 ‘아리아리’로 [한겨레신문 2002.04.20.]
- 금융용어 쉽게 바꾼다 / 금감원 대대적 손질 [한겨레신문 2002.04.29.]
- 올 우리말지킴이에 한글문화연대 [한겨레신문 2002.05.06.]
- 옷밥집 / 한자어 ‘의식주’ 보다 / ‘옷밥집’이 훨씬 쉬워요 [한겨레신문 2002.05.06.]
- 해가리개 / ‘차양’보다 쉬운 네글자는? 해 가리니까 ‘해가리개’죠 [한겨레신문 2002.05.13.]
- 우리언어 같고닭기 지도층 출신수범을 [한겨레신문 2002.05.15.]
- 잡탕말 ‘대흥수’ 물먹은 한글 [한겨레신문 2002.05.15.]
- 거리나무/풀어야 뜻 나오는 ‘가로수’ 우리말로 하면 단박에 “아하!” [한겨레신문 2002.06.17.]
- ‘주스’와 ‘쥬스’ [한겨레신문 2002.06.18.]
- 한자어 고속도로 표지판 아름다운 우리말이 좋아 [한겨레신문 2002.07.01.]
- 우리말 회사이름 ‘영문 창씨개명’ 말라 [한겨레신문 2002.07.02.]
- 맥립중→다래끼, 액와→겨드랑 / “어려운 의학용어 쉬운말로” [한겨레신문 2002.07.27.]
- 국어 운동본부 7명에 스티커 설문 /바른말 잘쓰는 연예인은? [한겨레신문 2002.08.30.]
- 순우리말 상표 ‘찬밥’신세 여전 [한겨레신문 2002.10.09.]
- ‘한글사랑’ 말이 아닌 실천을 [한겨레신문 2002.10.10.]
- 곱빼기 /곱배기→곱빼기로 바꾼 맞춤법 /말글 현실 제대로 담았으면 [한겨레신문 2003.04.21.]
- 기면→졸음, 반흔→흉터 /“ 의약품용어 쉬운 우리말로” [한겨레신문 2002.12.03.]
- 서환·롤오버... “그만 씩시다” [한겨레신문 2002.12.26.]
- ‘맛 표현 어휘’ 보고서 낸 쇼핑호스트 전은경씨 /“맛있는 우리말 얼마나 많다고요” [한겨레신문

2003.02.06.]

- 우리말을 사랑 놓지 못하는 이오덕씨 “먹고 일할 때 하는 말 놔두고 배운 분들은 왜 한자말 쓰는지” [한겨레신문 2003.05.27.]
- 인센티브→성과보수, 딜러→자기매매업자 /증권용어 우리말로 바꾼다 [한겨레신문 2003.06.27.]
- ‘혈세’란 용어 어감 섬뜩해 /말글 순화에 늘 주의하길 [한겨레신문 2003.08.22.]
- 서울 중구 상점이름 외래어 > 한글 2년새 8%포인트 늘어 뒤바껴 [한겨레신문 2003.10.09.]
- “어려운 법률용어 우리말로 바꿉니다” [한겨레신문 2003.10.09.]
- 클러스터·허브·투 포트 시스템… /행정용어 외래어 범벅 [한겨레신문 2003.10.10.]
- 녹색→초록 흰색→하양 [한겨레신문 2003.10.22.]
- ‘호박이 넝쿨째’ 등 식당 3곳 /아름다운 우리말 이름 선정 [한겨레신문 2003.12.30.]
- 의학용어 쉬운 우리말로 바꾼 의협 황건 위원장 [한겨레신문 2006.01.17.]
- 말다듬기 “나이타’가 뭘지 아십니까?” [한겨레신문 2006.11.17.]
- 한국인 언어생활 실태조사 /한자도 자주 안 쓴다 [한겨레신문 2011.12.14.]
- 한국인 언어생활 실태조사 /영어가 경쟁력? 생활현 웹 로그인 때나 쓰거든요! [한겨레신문 2011.12.14.]
- 경찰사용 일본식 용어, 알기쉬운 한글-한자로 [동아일보 2000.02.24.]
- “철학, 이제 우리말로 합시다” 우리사상연구소 첫 학술대회 [동아일보 2000.05.02.]
- 제-개정 법률 40여건 한글로 쓴다 [동아일보 2000.05.22.]
- 정통부, 한글도메인 서비스 내년부터 시행 [동아일보 2000.08.01.]
- 농약상표 우리말표기 권장 [동아일보 2000.08.16.]
- [건강]골다공증→뼈영양증...의학용어 쉬운말로 바뀐다 [동아일보 2000.10.02.]
- [건강/우리말 용어]어려운 의학용어 쉽게 풀어씁니다 [동아일보 2001.01.03.]
- [오늘의이슈]한자어-일본식 표현 여전 / 암호같은 경찰조서 “경찰은 알까” [동아일보 2001.01.08.]
- [증권]‘마바라’믿고 ‘물빵’질러?...알쏭달쏭 증시용어 [동아일보 2001.05.09.]
- 운동경기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꿉시다 [동아일보 2001.09.13.]
- [포토부동산]‘건설용어도 우리말로’ [동아일보 2001.10.10.]
- [이성주기자의 건강세상]구제역→입발굽병 의학용어를 우리말로 [동아일보 2002.05.13.]
- 알쏭달쏭한 의학용어...내년부터 쉽게 바꾼다 [동아일보 2002.07.27.]
- [클릭클릭]혼조... 과매도... “그들만의 언어” [동아일보 2002.10.09.]
- 어려운 금융용어 쉽게 고친다 [동아일보 2002.12.26.]
- [기자의 눈]구자룡/눈에 띄는 ‘우리말 상표’ [동아일보 2002.10.09.]
- [권혜진의 키즈인터넷]‘우리말 배움터’...한글 바르게 쓰기 교육 사이트 [동아일보 2002.10.09.]
- [독자편지]차형수/승용차에 우리말 이름 붙이자 [동아일보 2002.10.22.]
- [문화]일식집 ‘맑은 바닷가의 나루터’ 아름다운 우리말 가게 선정 [동아일보 2003.07.30.]
- [수요프리즘]장소원/‘우리말 받아쓰기 대회’ 열자 [동아일보 2003.08.13.]
- [사회]제557회 한글날, 학술-전시 등 다양한 행사 [동아일보 2003.10.08.]
- [독자의 편지]민병길/‘올바른 한글’ 언론사가 앞장서야 [동아일보 2004.03.23.]
- [인물포커스]우리말 지킴이 ‘한글문화연대’ 김영명교수 [동아일보 2004.06.07.]
- [여론마당]구법회/한글사랑, 평소의 말과 글부터... [동아일보 2004.10.08.]
- [황철수설]홍찬식/위기의 국어 [동아일보 2005.07.06.]
- [책갈피 속의 오늘]1948년 국회 한글 전용법안 마련 [동아일보 2006.09.30.]
- 정순훈 배재대 총장 “이젠 우리말을 산업화할 때” [동아일보 2007.05.19.]
- [문화칼럼]고정일/광복 60년, 홀대받는 우리말 [동아일보 2005.08.16.]
- [사설]文解率 98.3%보다 말과 글 바르게 쓰기가 중요하다 [동아일보 2008.12.24.]
- [기자의 눈/이원주]“전단지에 바른 우리말” 백화점의 한글 운동 [동아일보 2009.03.09.]

- 제일민단 “우리말 사용 늘리자” [동아일보 2009.04.22.]
- 웹툰셀이 뭐야? IT용어 쉽게 바꾼다 [동아일보 2011.06.07.]
- [기초를 다지자] 의료계가 앞장서 우리말용어 써야 [중앙일보 2001.05.04.]
- [기초를 다지자] 88. 의학용어 쉽게 쓸 수 없나 [중앙일보 2001.05.07.]
- 철도용어 순 한글식으로 바뀐다 [중앙일보 2001.08.31.]
- 철도청, 어려운 철도용어 쉽게 바꾸기로 [중앙일보 2001.10.31.]
- [분수대] 조어 후진국 [중앙일보 2001.07.06.]
- 국어가 죽어가고 있는데 [중앙일보2002.08.17.]
- 암호같은 법조문 풀어쓰기 [중앙일보 2003.07.10.]
- 백기완씨가 원하는 우리말 [중앙일보 2003.09.03.]
- 지명·주소 등 로마자 표기 표준화 작업 서둘렀으면 [중앙일보 2003.10.02.]
- 한글의 아름다움 지켜나가려면 [중앙일보 2003.10.09.]
- 한글 오염 탓할 게 아니라 새 낱말 만들어 공급했으면 [중앙일보 2003.10.16.]
- 영어부터 배우는 아이들 예쁜 우리말 익혔으면... [중앙일보 2003.11.24.]
-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 개설 [중앙일보 2004.07.07.]
- 세계화 추세로 밀려나는 우리말 취업시험 반영 등 관심 되살려야 [중앙일보 2004.10.19.]
- 국어와 한국어 [중앙일보 2005.01.05.]
- 휘갈겨 쓴 '암호문' 진료차트 [중앙일보 2005.01.28.]
- 우리말·글 실력 향상 위해 맞춤법 경연대회 열었으면 [중앙일보 2005.07.14.]
- 국어능력 시험 확대해야 [중앙일보 2005.07.27.]
- 법률 용어 '주인들'은 모르는 말 ? [중앙일보 2006.12.26.]
- 한글날을 공휴일로 [중앙일보 2007.11.07.]
- 엉터리 문장에 전문용어 남발 [중앙일보 2008.06.23.]
- 세계 언어 6000여 개 중 90%가 사라질 위기 [중앙일보 2008.11.18.]
- 세종대로 한글문화 중심지로 [중앙일보 2011.01.13.]
- 표준말로 한번 읽고, 사투리로 한번 읽고 [중앙일보 2011.10.08.]
- 세종시의 명칭 혁명 [중앙일보 2011.10.22.]

6) 해외의 사례 보도

한편 해외에서의 언어 정책 및 자국어 사용 운동에 관한 보도도 일부 기사화되었으나 빈도로 볼 때 그다지 많지는 않다.

- 모국어 잘못 사용해 물의 빛은 언론 러 정부, 처벌법안 마련;“언어순화 차원” [조선일보 2002.03.29.]
- 한국어가 설 자리/프랑스·러시아 등 영어막기 꾸준 싱가포르는 자국어 위기 '대조적' [한겨레신문 2002.04.09.]
- 세계 곳곳 '우리말 지키기' 한창 [한겨레신문 2005.03.31.]

7) 한글

기사의 주제를 분석한 결과 모든 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통적인 양상은 10월

9일 한글날을 전후하여 ‘우리말, 한글’에 대한 기사가 매우 빈번하게 보도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한글날’을 통해 우리말, 특히 ‘한글’ 대한 전반적인 사용 양상과 실태에 대한 견해 등을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재조명하였음을 의미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한글 관련 보도 기사 내지는 특집 기사가 주로 한글날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인데, 이는 각 시기별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되는 언론사의 보도 방침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2013년도는 한글날이 법정공휴일로 복원된 해이므로 올해 10월 중 한글과 관련된 기사가 매우 많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독자칼럼] IT와 결합된 한글 경쟁력 높다 [조선일보 2005.10.07.]
- 파리의 패션 ‘한글’을 입다;디자이너 이상봉의 ‘한글패션’ 프랑스로 히트 “한글의 아름다움 세계에 알리고 싶었어요” [조선일보 2006.10.09.]
- [사설] 한글과 한글날 [조선일보 2009.10.08.]
- 세종대왕 한글 창제가 ‘표절’ 누명 쓰고 있다고?; “한글이 파스와 문자 모방” 해외 통설에 국내학계 반론 [조선일보 2009.10.09.]
- “우리 부족에게도 한글날은 축제의 날”; ‘한글 공식문자’ 짜아짜아족 서울광장에서 전통 공연 [조선일보 2010.10.08.]
- ㄱㅇㅇ, 디자인으로 태어나다;한글의 조형적 가능성 찾는 디자이너 유진웅·허창봉·유영준 [조선일보 2011.10.06.]
- 훌륭한 우리의 글자, 한글 모든 것 오롯이 [한겨레신문 2000.10.07.]
- 국립중앙박물관 ‘겨레의 글, 한글’ 특별전 [한겨레신문 2000.10.12.]
- 한글은 고급 수출상품 [한겨레신문 2001.10.09.]
- 급한 건 한자 아닌 한글교육 [한겨레신문 2002.04.12.]
- 만들어낸 외래어 [한겨레신문 2002.09.10.]
- 한국어의 위상 /영어 열풍만큼 우리말에 투자하면 /한글도 세계언어 될 수 있다 [한겨레신문 2002.09.14.]
- 지구촌 이웃들의 몽클한 ‘한글 사랑’ [한겨레신문 2002.10.08.]
- 재유럽동포 언어 /동포 1세대 자성숙 한글교육 적극 [한겨레신문 2002.10.12.]
- 조선·고려말과 중국·러시아 /“한국기업 취업” 한국어 배우기 열풍 [한겨레신문 2002.10.26.]
- 한글 유헤사이트 세계2위 [한겨레신문 2003.04.28.]
- 한글날을 국경일로 [한겨레신문 2003.10.09.]
- 한글 살리기, 정부부터 나서라 [한겨레신문 2005.10.08.]
- 정보화 시대에 더욱 빛나는 한글 [한겨레신문 2006.10.09.]
- 9일 외국인 백일장 68개국 참가...“한글은 한국의 가을처럼 예뻐요” [동아일보 2002.10.09.]
- 비 가리키는 우리말 백여가지 [동아일보 2003.06.30.]
- [독자칼럼]김재상/加 인디언 “한글이 부러워요” [동아일보 2003.08.23.]
- 서양 디자이너들 매료시킨 ㄱㅇㅇ...MBC ‘한글, 달빛 위를 걷다’ [동아일보 2006.10.02.]
- [理知논술/이슈&이슈]한글 수출과 우리말의 국제화 [동아일보 2007.10.15.]
- 어느 기하학자의 한글 창제 [동아일보 2007.10.19.]
- [기고/박명식]우리말 색 이름’ 쉽고 예뻐요 [동아일보 2007.12.20.]
- 우리말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동아일보 2009.02.20.]
- [이지선의 희망바이러스]<2>편견 가득한 우리말 [동아일보 2009.08.03.]
- [사설]수출하는 한글, 나라 안에선 오염이 심해지니 [동아일보 2009.08.07.]
- [과학세상/김재원]외국인도 10분 배우면 읽는 한글 [동아일보 2009.10.08.]

- [Fashion]입고... 걸치고... 보고... 듣고... 패션코드로 살아난 한글 [동아일보 2009.10.09.]
- [문화 칼럼/권재일]우리말과 우리글의 위상 [동아일보 2011.10.08.]
- 한글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중앙일보 2002.10.14.]
-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한글 [중앙일보 2007.10.09.]
- “한글, 국가브랜드 넘어 세계속으로” [중앙일보 2008.08.18.]
- 우리말 세계화 생각할 때다 [중앙일보 2009.07.02.]
- “나랏말씀이 ‘한국’과 달라서 ...” [중앙일보 2009.10.12.]

8) 한국어 교육

2000년대에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그로 인한 다문화 가정의 출현, 또한 한류 열풍 등으로 인해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국내외 수요가 어느 때보다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변화는 국어 문제에 있어서는 비규범적 언어 사용 문제,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기술되는 혼탁한(?) 국어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뿐 아니라 외국인 혹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도 관심을 돌리게 하였다. 다음은 한국어 혹은 한글 교육과 관련한 기사들을 정리한 것이다.

- “훌륭한 한글 놔두고 왜 이상한 외국말 많나요” [조선일보 2009.10.08.]
- 이들 몸엔 ‘한글 사랑’의 피가 흐른다;한글학자 외솔 선생 외증손들, 다문화가정 위해 한국어 교재 펴내 [조선일보 2010.05.05.]
- [기고] 원래 한글은 이렇게 어렵지 않았다 [조선일보 2010.10.08.]
- “한글은 논리적... 배울수록 흥미로워”;한국말 배우는 외국인 4명... “젊은이들 쓰는 표현·신조어는 어려워” [조선일보 2010.10.09.]
- 오늘 한글날...우리말 두 표정, '가나다라' 배우니 한국어 보여요 [한겨레신문 2000.10.09.]
- 한국어교사 연수회 참가한 외국인.동포 교사들 / '한국인은 왜 모국어에 관심이 없죠?' [한겨레신문 2001.07.16.]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민족교육 바탕 한국학프로 병행 [한겨레신문 2002.11.02.]
- “한글 배우며 한국사랑 키워요” [한겨레신문 2005.10.07.]
- “5만명 코시안 아이들 / 우리말이라도 가르쳐야” [한겨레신문 2006.05.03.]
- 이주 외국인 위한 ‘한글교실’ [한겨레신문 2006.09.06.]
- “이주노동자 한글실력도 회사 경쟁력” [한겨레신문 2008.06.13.]
- [기고]구은희/‘우리말 세계화’ 새 교수법 절실 [동아일보 2000.05.06.]
- [대구/경북]“주한미군에 한글과 우리문화를 알립니다“ [동아일보 2003.05.16.]
- [사회]한류 타고 한국어 교원자격증 따기 바람 [동아일보 2006.01.07.]
- [피플 & 피플즈]한국어에 매료된 인하대 석사과정 외국인 유학생들 [동아일보 2006.02.21.]
- [기고/김중섭]세계 9위 한국어, 내실은 몇 위일까 [동아일보 2007.05.31.]
- “찌아찌아족에 한글 우수성 알릴게요” [동아일보 2009.11.05.]
- 우리말 전도 38년 퇴임한 연대어학당 백봉자 교수 [중앙일보 2000.10.09.]
- [기초를 다지자] 70. 우리말 기본어휘 정리 시급 [중앙일보 2001.03.30.]

- [기초를 다지자] 기본어휘 실태 조사부터 [중앙일보 2001.03.30.]
- 한국말 배우기 재미있어요 [중앙일보 2004.06.24.]
- '한류 드라마' 잘못된 발음 많아 교재에 부적합 [중앙일보 2006.04.12.]
- 외국인어 한국어로 “우리 문화는 …” [중앙일보 2009.10.08.]
- 한국어 강사 [중앙일보 2009.10.20.]
- 칫솔을 “치약” … 다문화가정 아동 40% 우리말 서툴러 한국어 교육 사각 지대의 아이들 [중앙일보 2010.03.05.]
- 다문화 가정 자녀에 한국어 교육 시급하다 [중앙일보 2011.07.02.]
- 예산 뒷받침 없는 ‘세계 속 한국어’ 공허하다 [중앙일보 2011.10.08.]

9) 정부 정책: 국어기본법, 영어공용화 등

2005년도에 국어기본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공포되었다는 점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언론에서도 이를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 왔음을 우리는 다음 기사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에 중요하게 거론되었던 ‘영어공용어’ 문제라든가 2000년대 후반의 ‘영어 몰입 교육’과 관련한 논쟁들은 주장의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떠나 우리 사회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을 반증해 준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주제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한겨레신문에서는 영어 몰입교육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기사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 정치학자의 한글사랑 ‘나는 고발한다’ / ‘영어공용어론 한낱 잡꼬대’ [한겨레신문 2000.10.09.]
- “만 6살 이전 영어교육 별 효과없어” 뇌신경과학회 “무리하게 시키면 뇌손상 가능성” 경고 [한겨레신문 2002.05.20.]
- 현실과 문제점 (3) 우리말도 배우기 전 ‘ABCD’ / 지나친 부모 욕심 ‘득보다 실’ [한겨레신문 2002.05.20.]
- 외래어와 외국어: 얼마 전 어떤 사람이 공적인 자리에서 ‘컴퓨터’를 ‘컴퓨터’라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한겨레신문 2002.05.21.]
- 영어 때문에 허둥대는 정부 한심하다 [한겨레신문 2002.07.25.]
- 경제특구 영어 상용화의 위험 / 모든 공문서는 한국어와 한글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한겨레신문 2002.07.27.]
- 영어공용화 안 된다 [한겨레신문 2002.08.12.]
- 우리말 더럽히고 영어 배우라 하는가 [한겨레신문 2002.10.10.]
- 영어열풍에 밀리는 우리말 [한겨레신문 2003.01.06.]
- 영어유치원의 문제점 /영어 가르치다 유아교육 뒷전될라 /자격없는 교사 난립·아이들 정체성 혼란도 문제 [한겨레신문 2004.02.23.]
- ‘영어병’ 이대로 좋은가 [한겨레신문 2004.03.08.]
- “영어에 쏟는 힘 1할만 써도 말글살이 놀랄만치 향상” [한겨레신문 2005.11.23.]
- 영어 조기교육 어린 학생들이 줄줄이 해외 영어연수나 조기유학을 떠나고, [한겨레신문 20060116]

- 몸통을 흔드는 꼬리, 대학 영어강의 [한겨레신문 20070903]
- ‘몰입교육’ 영어가 공용어인 나라서 시행 [한겨레신문 20080126]
- 영어 몰입교육, 학교교육 망친다 [한겨레신문 20080128]
- 영어교육과 비정규직 [한겨레신문 2008.01.29.]
- 영어강의도 사회문제다 [한겨레신문 2010.01.09.]
- 국어기본법: 지난 10월9일 문화관광부 장관은 우리말글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을 세워 이를 펴겠다고 발표했다. [한겨레신문 2002.10.18]
- 우리만의 ‘국어기본법’이 왜 필요하나? [한겨레신문 2005.04.11.]
- 국어기본법 시행 석달 정부서도 ‘왕따’ /공공 기관 행사 이름 영어 만발 [한겨레신문 2005.10.08.]
- 우리말 위기, 몇 해 전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주장이 불거져 논란을 부른 적이 있다. [한겨레신문 2003.10.15.]
- [네티즌의생각]영어 공용화 찬성 63.1% [동아일보 2000.01.14.]
- [시론]김성곤/영어실력이 경쟁력이다 [동아일보 2000.01.25.]
- [횡설수설]김충식/영어를 공용어로? [동아일보 2000.03.02.]
- [여론마당]조진수/‘묻지마 영어투자’ 나라 망친다 [동아일보 2001.04.10.]
- [500자세상]영어 조기교육의 명암 [동아일보 2001.06.27.]
- LA타임스, 광적인 한국의 영어조기교육 꼬집어 [동아일보 2002.04.02.]
- [사설]국어는 외롭다 [동아일보 2002.09.16.]
- [영어 조기교육 폐해 논란] ‘ABCD’ 뿔리면 ‘가나다라’ 막힌다? [동아일보 2002.10.09.]
- [발언대]유병환/영어 많이 쓴다고 일류도시 되나 [동아일보 2004.06.16.]
- [문화칼럼]김하수/언어는 들꽃이 아니다 [동아일보 2005.08.02.]
- [광화문에서]김차수/힘없는 국어기본법 [동아일보 2005.08.26.]
- [여론마당]김창진/修能듣기평가 ‘우리말 발음’ 제대로 [동아일보 2005.11.28.]
- [동아일보를 읽고]김세중/외국인 이름 한글 표기법 따라야 [동아일보 2005.12.12.]
- [최정호 칼럼]한글의 표기능력 확충을 위해 [동아일보 2006.06.29.]
- ‘한글 연구가’ 최성철씨 “이젠 한글표기법 독립운동할 때” [동아일보 2006.10.09.]
- 권재일 국립국어원장 “다문화가정 주부 의사소통 쉽게 우리말 연구” [동아일보 2009.04.14.]
- [세 살 준법 여든까지]“국회법 만들자” 46일간 30차례 본회의 [동아일보 2009.07.16.]
- [기고/권재일]영어 잘하는 나라가 잃어가는 것 [동아일보 2011.01.06.]
- [작가 박상우의 그림 읽기]한글이 없다면 [동아일보 2010.10.09.]
- 우리말, 다듬고… 지키고… 알리고… [동아일보 2011.01.06.]
- [사설]말의 다양성 살리는 표준어 확대 잘했다 [동아일보 2011.09.02.]
- [시론] 영어 공용어화 문제있다 [중앙일보 2000.02.29.]
- [시론] 영어 공용화론의 배경 [중앙일보 2000.03.21.]
- 일본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영어는 무슨 영어 [중앙일보 2006.09.29.]
- 법제처, 제·개정 법률 우리말로 표현 [중앙일보 2000.05.22.]
- ‘세종 계획’ 1차사업 말뭉치 1억 2천만 개 구축 [중앙일보 2001.03.15.]
- 문화부, 제주 영어 공용어화 반대 [중앙일보 2001.05.21.]
- 전주시내 예쁘고 정감있는 ‘우리말 거리’ 사업 [중앙일보 2001.10.08.]
- 국민들 언어능력 향상 위해 국어 발전 기본법 제정해야 [중앙일보 2002.11.15.]
- 이공계 ‘영어 강의’ 바람 준비 부족 시행착오도 [중앙일보 2003.09.25.]
- 국어야 놀자 [중앙일보 2005.04.30.]
- 영어 몰입 교육에 앞서 국어 교육부터 [중앙일보 2008.10.09.]
- 국어 확대하는 교육정책 [중앙일보 2011.01.29.]

10) 기타

이 밖에 인터넷 시대와 함께 말글의 정보화 문제가 관심을 받기도 하였고 영어에 비해 우리말이 교육적인 평가의 영역에서도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적인 기사도 발견된다.

- 수능 점수반영 우리말 ‘찬밥’ / 영어반영 모집단위 34개 많아…인문계도 역전 [한겨레신문 2002.11.16.]
- 남북함께 우리말사진 편찬 추진 [한겨레신문 2004.01.29.]
- 말글 정보화 [한겨레신문 2004.11.16.]
- 국어 국정교과서 오류 투성이 /중1·2용 맞춤법·띄어쓰기등 잘못 1천여 건 드러나 [한겨레신문 2002.09.14.]
- [수요프리즘]장소원/우리말 받아쓰기 대회’ 열자 [동아일보 2003.08.13.]
- [교육]남북한 언어차이 심각 통일 언어교육 필요 [동아일보 2003.09.17.]
- [추천! 이곳!임성민 아나운서/‘인사동 우리말 가게들’ [동아일보 2002.10.09.]
- [국어연구원 50만9076개 어휘분석]우리말 ‘ㅇ’시작 2음절 명사 가장 많다 [동아일보 2003.01.10.]
- <도박이 이름, ‘아름.’한술’ 가장 많아> [동아일보 2003.01.16.]
- [인터넷]미국 전문의 건강상담 우리말로 받는다 [동아일보 2004.06.10.]
- [최정호 칼럼]말은 같은 우리말이지만… [동아일보 2005.08.04.]
- [사법]현직 부장판사 “어려운 판결문 쉽게 풀어 씁시다” [동아일보 2006.03.04.]
- [문화]‘한글날 큰잔치’ 공청회 열려 [동아일보20060320]
- [초대석]우리글 지킴이 이수열 솔애울 국어 순화연구소장 [동아일보 2006.04.01.]
- [독자의 편지]이강규/우리말 보호 공무원이 모범을 [동아일보 2006.06.13.]
- 일년에 한번오는 한글날♪ 랩으로 부활하는 우리말♪ [동아일보 2006.10.09.]
- [독자의 편지]류지연/사물 높이는 존댓말 거부감 [동아일보 2006.11.08.]
- ‘그들만의 법률용어’ 일반인도 알기 쉽게 [동아일보 2007.03.12.]
- [사설]사법부 판결문부터 쉽게 써야 [동아일보 2007.03.12.]
- “한자로 지은 국어 실력 튼튼해요” [동아일보 2007.03.19.]
- “해외교포 위한 남북공유 표준어 필요” [동아일보 2007.08.08.]
- 멋진 이름 ‘눈길’, 가게 손님 ‘발길’…우리말 간판 확산 [동아일보 2007.10.09.]
- 한글 전산화 10년만에 마무리 [동아일보 2007.12.18.]
- 외국어… 합성어… 우리말…“골프장 이름도 유행을 탑니다” [동아일보 2008.01.12.]
- 자영업자 89% “우리말 가게이름이 좋다” [동아일보 2008.10.09.]
- [로비에서]“우리말-글 사기 흐트러져 있다” 한글날이 더 서러운 한글학회 [동아일보 2008.10.10.]
- “쉬는 시간 수다만큼은 우리말이죠 ^^” [동아일보 2009.03.06.]
- 2세대 ‘우리말 큰사전’ 나온다 [동아일보 2009.09.24.]
- SK텔레콤, 우리말 음성문자 프로젝트 3년 구슬땀 [동아일보 2009.10.12.]
- ‘옛 우리말’ 맛보고 ‘새 글꼴’ 써보고 [동아일보 2009.10.07.]
- 한글 子母 ‘반짝’… 첨단 IT ‘번쩍’… 민속공연 ‘황홀’ [동아일보 2010.04.29.]
- 예쁘고 쓸모 많은 한글… 한글날 564돌 맞아 기념행사 [동아일보 2010.10.06.]
- 외솔기념관, 한글 산 교육장으로 [동아일보 2010.10.08.]
- “남북한 언어 너무 달라져 걱정…학문적 교류는 계속 됐으면…” [동아일보 2011.09.10.]
- [대구/경북]영남대서 우리말 달인대회 [동아일보 2011.10.05.]
- [수도권]한글, 신나게 즐겨볼까? [동아일보 2011.10.07.]
- 윤세진 ‘신국어독본’ - 말을 법으로 묶을수 있나 [중앙일보 2000.03.24.]

- [사설] 로마자 표기법 고쳤지만 [중앙일보 2000.07.05.]
- [아카데미 뷰] 학술용어 토박이말로 바꾼 이상섭교수 [중앙일보 2000.07.05.]
- 우리 돌고래에 우리말 이름 새로 명명 [중앙일보 2000.09.07.]
- 북한서 자주 쓰이는 단어 인민·사람·말·당 순서 [중앙일보 2000.11.03.]
- 수화 '방언' 표준화한다 [중앙일보 2001.03.30.]
- [KET 국어능력인증시험] 우리말 능력 첫 등급화 [중앙일보 2001.04.18.]
- 첫 국어능력 인증시험 결과 발표 [중앙일보 2001.07.26.]
- [열린 마당] 남북한 언어차 너무 커져 [중앙일보 2001.08.22.]
- EBS 성인·아동 대상 국어 교육 프로 신설 [중앙일보 2001.08.23.]
- 서울시내 동이름 30% 일제때 지명 사용 [중앙일보 2001.10.09.]
- 버들송이·술깨비등 상표에 고운 우리말 많아 [중앙일보 2001.10.09.]
- 순 한글 이름 점점 사라진다 [중앙일보 2002.01.24.]
- 남북한 전혀 다른 어휘 273개 "통일 후 양쪽 다 인정을" [중앙일보 2002.05.14.]
- '-난(欄)'과 '-란(欄)' [중앙일보 2003.05.28.]
- '여부'의 사용을 줄이자(中) [중앙일보 2003.06.03.]
- '이' '히' 거참 헛갈리네 [중앙일보 2003.06.13.]
- 너무(?) 예쁘다 [중앙일보 2003.06.23.]
- '가지다'를 버리자(1) [중앙일보 2003.07.03.]
- '가지다'를 버리자 (2) [중앙일보 2003.07.04.]
- <112>'비치다'와 '비추다' [중앙일보 2003.08.12.]
- <119>'허섭스레기'와 '허접스럽다' [중앙일보 2003.08.22.]
- <132>'뗏일'과 '머칠' [중앙일보 2003.09.15.]
- '말도 안되는' 남북한 언어 [중앙일보 2003.10.07.]
- <177>더 이상(?) [중앙일보 2003.11.18.]
- '얼짱'국어사전에 실렸다 [중앙일보 2004.02.11.]
- '너무'어휘 부정적 의미 가져 좋다·예쁘다에 붙이면 안 돼 [중앙일보 2004.03.31.]
- 한글·한자 혼용 교육 했으면 [중앙일보 2004.02.18.]
- 우리말 잘 하려면 한자 학습은 필수 [중앙일보 2004.04.21.]
- [수면 위 떠오른 화폐단위 변경 논의] 주요 용어들 [중앙일보 2004.09.17.]
- <50> 복합어와 띄어쓰기(3) [중앙일보 2004.09.10.]
- <83> '~적'을 줄여 쓰자 [중앙일보 2004.11.01.]
- 랩으로 풀어보는 한글의 원리 [중앙일보 2004.10.05.]
- 오늘 한글날: '금세' 일까요 '금새'일까요 당신의 우리말 실력은 [중앙일보 2004.10.09.]
- 독립기념관 외국어 홍보물 오류투성이 [중앙일보 2005.02.25.]
- 파생어의 잘못된 만남 [중앙일보 2005.08.16.]
- 우리들의 수다: 한글날 공휴일화-주 5일 시대 ... 한글날 안 쉬어도 돼 [중앙일보 2005.10.05.]
- 내일은 우리 한글 생일 그냥 지나가면 섭섭하죠 [중앙일보 2005.10.08.]
- 우리말 바꾸기 592. 흡인력 /흡입력 [중앙일보 2005.11.11.]
- 우리말 바꾸기 593. 오거라(?) [중앙일보 2005.11.14.]
- 외국인 머느리들에 '우리말 한수' [중앙일보 2006.04.26.]
- 상장사 셋 중 둘 회사이름에 영어 [중앙일보 2006.10.09.]
- 흑룡강신문 이진산 사장 [중앙일보20061009]
- 한글날이 부끄러운 우리의 언어문화 [중앙일보 2006.10.09.]
- 남과 북 다른 언어를 어떻게 통일할까? [중앙일보 2008.06.04.]
- 남북 언어 [중앙일보 2008.11.10.]
- 장애아 사회체험·농촌 일손 지원 ... 조선족 학교 돕고 우리말 알리기 [중앙일보 2010.11.12.]

- “사할린 우리말방송 끊기면 안 되죠” ...가수 이혜미, 운영비 지원 자선공연 [중앙일보 2011.07.30.]
- “적절한 어휘능력 평가로 우리말의 소중함 일깨운다” [중앙일보 2011.10.21.]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신문에서 국어와 관련한 문제 제기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대략 아홉 가지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국어 운동 관련 자료 구축 방법

디지털 지식 시대에 유용한 정보를 구축하고 가공하여 활용하는 일은 매우 중대한 일이다. 국어 운동에 관한 연구에 활용할 자료의 하나로서 신문 기사 텍스트 원문과 그것을 일정한 기준과 근거에 따라 분석한 자료를 마련한다면 향후 국어 운동 및 국어 사용 문제와 관련된 연구에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00년도부터 2011년까지 발행된 4대 일간지로부터 ‘우리말’, ‘한글’, ‘한국어’, ‘국어’ 등의 검색어로 추출된 900여 건의 기사를 목록화하고[1단계 작업] 이 중 국어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거나 국어 사용의 실태를 밝히고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 기사를 다시 분류해 냈다.[2단계 작업] 마지막으로 국어 운동 관련 기사의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틀을 세우고 이에 따라 기사문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3단계 작업]

1단계 키워드 검색을 통해 관련 자료 추출

▽

2단계 주장과 논지가 드러난 텍스트 선별
(단순 보도성 기사 배제)

▽

3단계 분석 기준 설정 후 기사문 분석

세 단계에 걸친 작업을 통해 얻은 결과는 모두 디지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였다. (마크업, 하이퍼링크 원문 이동 등 현재 작업 중)

2.1. 국어 운동 관련 자료 분석

1) 분석 지침

2단계 작업을 통해 선정된 기사문은 조선일보 4개, 동아일보 48개, 중앙일보 28개,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60개 기사를 포함한다.

국어 운동, 우리말, 언어 사용 문제 등에 관한 신문 기사가 어떠한 논지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사의 내용에서 ‘근거’, ‘현상’, ‘주장’, ‘해결책’의 네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였다. 각 부분으로 판정하는 데 지침으로 삼은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신문 기사 분석 지침

부호	분석 항목	성 격
①	근거	논지를 펼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거나 학자나 성현의 말을 인용하여 근거를 제시한 부분을 말한다.
②	현상	언어 사용의 실태와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③	주장	글쓴이가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을 담고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④	실천 방안	실천 방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한 부분으로 주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포함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분석 기준을 활용하여 기사문을 분석한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기사 원문

잡탕말 ‘대홍수’ 물먹은 한글 한겨레신문 (2002.05.15.)

100년 전 주시경 선생은 “말이 오르면 나라가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가 내린다”며 한글 보급운동을 벌였다. 1세기가 지나는 동안 한글문화는 양적으로 꽤 성장한 반면 외국어 범람으로 우리말글살이가 어지러운 게 현실이다. 우리말글 쓰기 10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말글의 질을 높이고 세계화하는 데 힘을 쏟을 때이다. <한겨레>는 창간 14돌을 맞아 우리말 바로 쓰기 운동을 펴기 위해 특집기획 ‘말이 올라야 나라가 오른다’를 마련한다. 공문서를 비롯한 각 분야의 언어현실을 짚는 첫회에 이어 ‘말이 올라야 나라가 오른다’는 매주 월~금요일치 4면에 연재할 예정이다. 국민의 국어 실력 수준이 낙제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 민현식 교수(서울대·국어학)는 지난해 서울의 초중등생, 대학생, 일반인 869명을 대상으로 국어(맞춤법 등) 실력을 조사한 결과 가장 나은 경우가 대학생 그룹으로 34점(100점 만점)이 나왔으며, 전체 평균치가 30점이었다고 발표했다. 이런 현상은 1990년대 후반 들어 나타난 학력저하, 인터넷 세대의 규범 파괴적 언어생활, 영어학습 열풍이 모국어 경시풍조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터넷·통신 언어 현실=컴퓨터 보급은 글자생활의 기계화를 앞당겼을 뿐만 아니라 글쓰기를 생활화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이는 글쓰기를 가까이하게 하면서도 수준 낮은 글, 어문규범을 무너뜨리는 글들을 양산시켜 계층 간 위화감을 부르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통신 언어를 보면, ‘안녕하세요’는 ‘아령하세요, 안냐때욘, 안냐쌔, 아냐세요, 안농하때욘, 안여하세요, 앙냥하세염, 앙농하세효, 언농하세염’처럼 멋대로 바꾸어 쓰고 있다. 최근 한말글연구학회에서는 <통신 언어 어휘집>에서 통신 언어 낱말 2352개를 내보인 바 있다. 10002(많이), n·앤(애인), G랄하면 SKY간다, ㄱ스ㄱ스(감사감사), 걸구(그리고), 거림(그림), 고쓰리(고3), 궁물(국물), 냉무(내용 없음), 열만(오랜만), 에 뒤셀(에이디에스엘), 여좌(여자) ... 건국대 조오현 교수(국어학)는 통신 언어의 실태를 분석하면

서 “새말 생성, 의미 확장에다 화자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의사 불통에다 왜곡된 통신 언어를 분별없이 쓰다 보면 가뜰이나 부족한 맞춤법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식을 더욱 떨어뜨린다”는 점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꼽았다. 전자우편, 필명, 주소(아이디)도 문제다. 한글 인터넷 주소나 이름을 만들어 쓸 수 있는데도 로마자나 영어 일색이다. 나쁜 사이트나 통신대화(채팅) 등으로 사회문제가 일어나는 일이 잦아지면서 자살 사이트에 오른 유서도 통신 언어로 쓰는 세상이 되었다. 통신 언어는 규제보다는 ‘의식’ 차원에서 다잡아야 할 문제로 보인다. 정부 공문서 등=아직도 상당수 정부 보고서 등에서는 한글, 한자, 영어를 뒤섞어 쓰고 있다. 최근 재정경제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올린 보고서를 보면, 제목이 ‘東北亞 비즈니스 中心國家 實現方案’으로 되어 있으며, 목차는 ‘H/W 확충전략’, ‘S/W 발전전략’ 식이다. 반면, 금융감독원에서는 최근 낯설고 어려운 금융용어들을 쉬운 우리말로 다듬는 작업을 하기로 했다. 외국어나 일본식 말이 많은 까닭이다. 정부 문서에서 한글화가 제일 덜된 분야는 법률 부문이다. 다행히 국회에서는 2000년부터 ‘국회 법률문서 한글화 기준’을 만들어 쓰고 있다. 그러나 법률이름을 붙여 쓰기로 하는 등 규범에 어긋나는 예외가 많은 게 문제로 지적된다. 법제처에서도 최근 법률 한글화 추진위원회를 두어 법률 한글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여기서는 “한자의 한글화를 넘어 법률의 용어·어구 및 문장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해 표현하고, 권위적·비민주적 용어를 지양하며, 축약어·전문용어 사용도 지양한다”고 한글화의 수준을 한층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한글전용법이 나온 지 55년 만에 이뤄지는 일이다. 하지만 제주도국제자유도시, 경제특구 입안 등을 통해 수시로 불거지는 영어 공용론이 큰 걸림돌로 꼽힌다. 신문·출판 언어=언론·출판 분야는 국민의 언어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각별한 경각심으로 말글을 다루어야 한다. 출판 분야의 한글화는 대체로 성공적인 편이나, 신문에서는 아직도 제호·제목·사람이름 등에서 한자를 고집하고 있고, 특히 심각한 것은 로마자나 영어 따위를 무분별하게 쓰는 점이다. 신문의 문패·제호를 살펴보면, △Money/Sports/Metro/Health/iT Chosun.com/petanews닷컴/e컬처/echosun닷컴/weekend/Biz in Korea/NK리포트(조선) △JMoney/Better Life/ON TV/Metro/Go판/joins.com/e-트렌드/e-CEO/IN Art(중앙) △Money & Life/Sports/Metro/Edu-Metro/Viva! Worldcup/Golf & Golfer/Arts/CEO/i-Sports/donga.com/e월드/e비즈&벤처(동아) 식이다. 대중문화 언어=노래를 들어보면 그 사회를 알 수 있다고 한다. 대중문화가 다양하지 못하던 때 하던 말이나 여전히 유효한 말이다. S.E.S/Choose My Life-U, jtL/Enter The Dragon, 핑클/Fine Killing Liberty, H.O.T/We Hate All Kinds Of Violence 가수들의 그룹 이름과 앨범 이름들이다. 가수 이름도 왁스, 리치, 러원, 밀크, 토이, 조앤 등 다양하다. 노랫말도 이름 이상으로 잡탕이다. 대체로 이런 풍조는 관련 기획사에서 조장하는 면이 크고,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도 부추기는 데 큰 구실을 한다. 영화 이름이나 방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해피투게더, 리얼코리아,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주주클럽, 뉴논스톱, 레츠고, 아이언 팜, 2009 로스트 메모리즈, 정글쥬스, 후아유, 오버 더 레인보우 ... 이런 프로그램이나 영화 속에 나오는 말들은 또 어떨까? 비속어, 신조어, 외국어에다 선정적인 말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낱말과 음운변화 현상까지 일으키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방송 언어가 저질로 흐르는 원인으로 지나친 시청률 경쟁, 시청자 의식부재 등을 꼽고 △자체 심의기구 활성화 △방송위원회의 언어분야 심의기능 강화 △시청자 운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기자 iruri74@hani.co.kr

기사문 분석

잡탕말 ‘대홍수’ 물먹은 한글

한겨레신문 (2002.05.15.)

□100년 전 주시경 선생은 “말이 오르면 나라가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가 내린다”며 한글 보급운동을 벌였다. 1세기가 지나는 동안 한글문화는 양적으로 꽤 성장한 반면 외국어 범람으로 우리말글살이가 어지러운 게 현실이다. 우리말글 쓰기 10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말글의 질을 높이고 세계화하는 데 힘을 쏟을 때이다. <한겨레>는 창간 14돌을 맞아 우리말 바로 쓰기 운동을 펴기 위해 특집기획 ‘말이 올라야 나라가 오른다’를 마련한다. 공문서를 비롯한 각 분야의 언어현실을 짚는 첫회에 이어 ‘말이 올라야 나라가 오른다’는 매주 월~금요일치 4면에 연재할 예정이다. 국민의 국어 실력 수준이 낙제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 **□민**

현식 교수(서울대·국어학)는 지난해 서울의 초중등생, 대학생, 일반인 869명을 대상으로 국어(맞춤법 등) 실력을 조사한 결과 가장 나은 경우가 대학생 그룹으로 34점(100점 만점)이 나왔으며, 전체 평균치가 30점이었다고 발표했다. 이런 현상은 1990년대 후반 들어 나타난 학력저하, 인터넷 세대의 규범 파괴적 언어생활, 영어학습 열풍이 모국어 경시풍조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터넷·통신 언어 현실=컴퓨터 보급은 글자생활의 기계화를 앞당겼을 뿐만 아니라 글쓰기를 생활화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이는 글쓰기를 가까이하게 하면서도 수준 낮은 글, 어문규범을 무너뜨리는 글들을 양산시켜 계층 간 위화감을 부르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통신 언어를 보면, ‘안녕하세요’는 ‘아령하세요, 안나때욤, 안나쌤, 아나세요, 안농하때욤, 안여하세요, 앙냥하세요, 앙능하세요, 언능하세요’처럼 멋대로 바꾸어 쓰고 있다. ①최근 한말글연구학회에서는 <통신 언어 어휘집>에서 통신 언어 낱말 2352개를 내보인 바 있다. 10002(많이), n·앤(애인), G랄하면 SKY간다, ㄱ스ㄱ스(감사감사), 걸구(그리고), 거림(그림), 고쓰리(고3), 궁물(국물), 냥무(내용 없음), 얼만(오랜만), 예뒤셀(에이디에스엘), 여좌(여자) ... 건국대 조오현 교수(국어학)는 통신 언어의 실태를 분석하면서 “새말 생성, 의미 확장애다 화자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의사 불통애다 왜곡된 통신 언어를 분별없이 쓰다 보면 가뜩이나 부족한 맞춤법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식을 더욱 떨어뜨린다”는 점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꼽았다. 전자우편, 필명, 주소(아이디)도 문제다. 한글 인터넷 주소나 이름을 만들어 쓸 수 있는데도 로마자나 영어 일색이다. 나쁜 사이트나 통신대화(채팅) 등으로 사회문제가 일어나는 일이 잦아지면서 자살 사이트에 오른 유저도 통신 언어로 쓰는 세상이 되었다. 통신 언어는 규제보다는 ‘의식’ 차원에서 다잡아야 할 문제로 보인다. 정부 공문서 등=아직도 상당수 정부 보고서 등에서는 한글, 한자, 영어를 뒤섞어 쓰고 있다. 최근 재정경제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올린 보고서를 보면, 제목이 ‘東北亞 비즈니스 中心國家 實現方案’으로 되어 있으며, 목차는 ‘H/W 확충전략’, ‘S/W 발전전략’ 식이다. ④반면, 금융감독원에서는 최근 낯설고 어려운 금융용어들을 쉬운 우리말로 다듬는 작업을 하기로 했다. 외국어나 일본식 말이 많은 까닭이다. 정부 문서에서 한글화가 제일 덜된 분야는 법률 부문이다. 다행히 국회에서는 2000년부터 ‘국회 법률문서 한글화 기준’을 만들어 쓰고 있다. 그러나 법률이름을 붙여 쓰기로 하는 등 규범에 어긋나는 예외가 많은 게 문제로 지적된다. ④법제처에서도 최근 법률 한글화 추진위원회를 두어 법률 한글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여기서는 “한자의 한글화를 넘어 법문의 용어·어구 및 문장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해 표현하고, 권위적·비민주적 용어를 지양하며, 축약어·전문용어 사용도 지양한다”고 한글화의 수준을 한층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한글전용법이 나온 지 55년 만에 이뤄지는 일이다. 하지만 제주도국제자유도시, 경제특구 입안 등을 통해 수시로 불거지는 영어 공용론이 큰 걸림돌로 꼽힌다. ③신문·출판 언어=언론·출판분야는 국민의 언어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각별한 경각심으로 말글을 다루어야 한다. 출판 분야의 한글화는 대체로 성공적인 편이나, 신문에서는 아직도 제호·제목·사람이름 등에서 한자를 고집하고 있고, 특히 심각한 것은 로마자나 영어 따위를 무분별하게 쓰는 점이다. ②신문의 문패·제호를 살펴보면, △Money/Sports/Metro/Health/IT Chosun.com/petanews닷컴/e컬처/echosun닷컴/weekend/Biz in Korea/NK리포트(조선) △JMoney/Better Life/ON TV/Metro/Go판/joins.com/e-트렌드/e-CEO/IN Art(중앙) △Money & Life/Sports/Metro/Edu-Metro/Viva! Worldcup/Golf & Golfer/Arts/CEO/i-Sports/donga.com/e월드/e비즈&벤처(동아) 식이다. 대중문화 언어=노래를 들어보면 그 사회를 알 수 있다고 한다. 대중문화가 다양하지 못하던 때 하던 말이나 여전히 유효한 말이다. S.E.S/Choose My Life-U, jtL/Enter The Dragon, 핑클/Fine Killing Liberty, H.O.T/We Hate All Kinds Of Violence 가수들의 그룹 이름과 앨범 이름들이다. 가수 이름도 왁스, 리치, 러원, 밀크, 토이, 조앤 등 다양하다. 노랫말도 이름 이상으로 잡탕이다. 대체로 이런 풍조는 관련 기획사에서 조장하는 면이 크고,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도 부추기는 데 큰 구실을 한다. 영화 이름이나 방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해피투게더, 리얼코리아,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주주클럽, 뉴논스톱, 레츠고, 아이언 팜, 2009 로스트 메모리즈, 정글뉴스, 후아유, 오버 더 레인보우 ... 이런 프로그램이나 영화 속에 나오는 말들은 또 어떨까? 비속어, 신조어, 외국어애다 선정적인 말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낱말과 음운변화 현상까지 일으키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방송 언어가 저질로 흐르는 원인으로 지나친 시청률 경쟁, 시청자 의식부재 등을 꼽고 △사채 심의기구 활성화 △방송위원회의 언어분야 심의기능 강화 △시청자 운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기자 iruri74@hani.co.kr

각 일간지 기사문의 내용 전개 방식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분석 결과

① 근거 제시

①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기사는 기대보다 그 수가 적었다. 이는 국어 사용 문제를 제기할 때 이론적 배경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그만큼 드물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조선일보 총 4개 기사 중에서는 2개가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동아일보는 총 48개 기사 중 5개의 기사, 중앙일보의 경우 총 28개 기사 중 1개 기사에, 한겨레신문의 경우 총 60개 기사 중 10개 기사에 주장의 배경이 제시되어 있었다. 기사에 활용된 근거 부분은 헤르더, 박은식, 주시경, 스티븐 핑커 등 언어와 철학 분야에서 이름난 학자들의 말을 인용하거나 사상을 명시한 경우가 많으며, 그 외에 대체로 권위 있는 기관의 조사 결과, 정부의 법령 발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부분은 주로 주장을 펼치기에 앞서 논의의 배경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각 기사에서 ①로 제시된 내용을 몇 부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① 언어가 사고와 의식을 지배한다고 볼 때 방송 언어 오염은 국민의 생각과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조선일보 2000.11.01.)
- ① 가정과 학교는 언어를 담는 그릇이다. (조선일보 2011.10.03.)
- ① 괴테의 스승이기도 했으며 뛰어난 외국어 교사였던 열린 민족주의자 헤르더는 학문체계의 중심에는 모국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자성을 이룩할 수 있고 세계 보편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동아일보 2000.09.05.)
- ① 언어학자들은 풀어쓰기의 장점을 ‘소리나는 이치와 일치하고, 쓰기와 박기(인쇄)와 읽기가 쉽고, 맞춤법을 매우 간편하게 줄이며, 온 세계 수백종 글자가 풀어쓰기로 된 점’을 든다. (한겨레신문 2003.01.10.)
- ① 19세기 영국의 시인 존 클레어는 ‘글을 쓰는 잉크 속에 영혼이 숨어 있다’고 했고, 오스트레일리아의 풍류 작가인 칼 크라우스는 ‘언어는 사고의 어머니’라고 불렀다. (한겨레신문 2003.10.09.)
- ①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창제할 때, 자주독립을 지키려는 거례정신과 만백성이 글자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민본정신을 밑바닥에 둔 까닭으로 그 뜻이 아름답고 떳떳하였다. (한겨레신문 2005.10.09)
- ① 주시경 선생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나라의 근본을 세워야 하고 나라의 근본을 세우는 일은 자기의 말과 글을 소중히 여겨 씬에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 2005.01.18.)
- ① 광고물에 문자 표시 방법을 규정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는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

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겨레신문 2004.08.19.)

① 김 교수도 이전에 우리말의 표준발음법 제3장 ‘음의 길이’는 전 국민 대다수가 지키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겨레신문 2005.02.18.)

① 지난 16일 대통령이 주재한 민·관 합동 ‘포스트 월드컵 종합대책’ 보고회에서 “올 하반기에 경제특구로 지정될 제주도, 김포, 영종·무의·용유도, 송도, 부산 광양만 배후 등 지역에서 한국어와 함께 영어를 공용어로 인정해 상용화하기로 했다”고 여러 신문이 크게 보도했다.(한겨레신문 2002.07.25.)

② 현황 및 실태

거의 모든 기사문에 ②부분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는 애초에 기사를 쓰게 된 계기가 ②에서 제시한 언어 사용 실태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대 일간지의 총 140개 기사 중 1개의 기사만 제외하고 139개 기사에서 모두 국어 사용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거론하고 있다. ②에 해당하는 내용을 몇 가지 예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② 방송위원회 방송 언어특별위원회가 지난달 방송 3사 라디오의 오후 8시~밤 12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한 결과, 방송 진행자들은 표준발음 규정에 어긋난 발음과 잘못된 어휘, 비속어·은어·유행어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일보 2010.06.14.)

②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절반은 욕설을 습관적으로 하는데 실제 그 욕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경우는 27%에 불과하다고 한다. 뜻도 모른 채 상스러운 욕설을 일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2011.01.11.)

② 한국교총과 EBS가 중학생 2명과 고등학생 2명에게 소형 녹음기를 지참시켜 등교 이후 점심시간까지 4시간 동안 주고받은 대화를 녹음했더니 1명당 평균 75초에 한 번꼴, 1시간에 49회의 욕설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2011.10.03.)

② 우리나라의 27개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우리말이 표준어나 맞춤법 등에서 많은 오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띄어쓰기, 잘못된 외래어 사용,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 어긋나는 것 등 7600여건의 잘못된 사례를 찾아냈다. (동아일보 2000.07.19.)

② 정보통신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들의 상당수가 사용하기에 부적절하거나 우리말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줌 인터넷 업체들이 많이 쓰고 있는 ‘전자적 자원관리’ ‘고객관계관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 ‘충성도’는 네티즌이 사이트에 오래 머물고 자주 찾아오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 이 말은 미국 인터넷 기업들 사이에서 쓰이는 로열티(Loyalty)를 직역해 쓰는 표현이다.

② 박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금도 여전히 ‘속옷’을 ‘런닝구’ ‘운동화 ○컬레’를 ‘활동화 ○족’ ‘세면가방’을 ‘세면주머니’로 표현하는 등 국적불명의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한글날에는 ‘우리말 살리는 거래모임’이 ‘국방일보’를 한자 및 영어 사용이 많다는 이유로 ‘우리말 휘방꾼’으로 선정하기도 했다는 게 박의원의 설명이다. (동아일보 2000.10.20.)

②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비트컴퓨터 조현정 사장은 “리눅스(리눅스) 란(랜·LAN) 등 발음이 다른 경우는 물론 워낙 생소한 용어가 많아 처음엔 북측 관계자의 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정보통신 용어는 남한에 비해 우리말 표현이 많은 게 특징이다. (동아일보 2001. 02.19)

② 최근 서울시는 세계 일류도시를 지향한다며 ‘시내버스 색깔 체계와 영문 표기’, ‘하이 서울(Hi Seoul)

구호', '영어마을 조성', '영어공문서 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아일보 2004.06.16.)

② 표준어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서울말'이다. 그런데 행정수도 이전이 완료되었을 때 여전히 서울말이 표준어나 하는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아예 표준어 존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겨레신문 2003.07.22.)

② 지금 학교에서는 교육용 한자 1800자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이 짜여 있지 않다. 중학교에서는 선택과목으로 밀려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고교 이과에서는 한자를 배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003.10.14.)

대부분 언어 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밝힘으로써 문제점을 확인시키고 있다.

③ 주장

이 부분은 글에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문제점을 바탕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기사가 ②와 더불어 ③을 갖추고 있지만 이 부분이 누락된 기사도 몇몇이 있었다. 즉 문제가 되는 언어 사용 현실에 대한 지적은 있으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제시가 결여된 논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 4개 중 하나, 동아일보 48개 중 7개, 중앙일보는 28개 중 2개, 한겨레는 60개 중 하나의 기사에서 주장이 드러나지 않았다. ③에 해당하는 부분을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③ 방송 언어의 오염도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조선일보 2000.11.01.)

③ 영어는 이제 지구촌에서 살아남고 교류하며 인정받고 경쟁하기 위한 필수 수단이 되었다. 우리말과 우리 문화를 지키면서 세계 문화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동아일보 2000.01.25.)

③ 포털 업체와 게임·영화제작업체들이 청소년들의 언어생활을 욕설의 오염으로부터 지켜내려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뭔가 자극이 주어져야 한다. (조선일보 2011.10.03.)

③ 빛나간 언어는 빛나간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빛나간 인생을 만들고 만다는 걸 가정과 학교가 함께 깨달아야 한다. (조선일보 2011.10.03.)

③ 교포들에게 한국어가 다른 언어들보다 우수한 언어이고 스스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어가 미국 정규학교 과목으로 가르쳐지기 위해서는 국어교수 방법론이 아니라 한국어 교수방법론이 체계화돼야 한다. (동아일보 2000.05.06.)

③ 우리가 모국어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말과 글을 가꾸어 학문어로서도 손색없는 언어 자산을 후손에게 물려 줄 의무가 있다. (동아일보 2000.09.05.)

③ 남북간 정보기술(IT)산업 교류를 위해서는 용어의 호환성내지 통일작업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동아일보 2001.02.19.)

③ 아이들 문자메시지를 보면 문법도 말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문자메시지의 특성상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과 글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담고 있는 것인데 깊이 없는, 생각 없는 아이들로 자라지 않도록 하려면 줄임말에 노출되기 전에 미리미리 국어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한겨레신문 2008.02.26.)

③ 한국 사회는 성공하려면 무조건 영어를 하라고 강요하지만, 영어의 문제는 계급과 정치의 문제가 된

지 오래고, 답도 그곳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한겨레신문 2011.03.26.)

③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본말이 전도된 영어강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영어강의의 무분별한 확대가 넓게는 한국 사회를 위해, 좁게는 학계의 학문 수준을 위해 바람직하지만 한지 되돌아봐야 한다. (한겨레신문 2007.09.03.)

③ 무조건 영어 조기교육, 조기유학만 고집하지 말자. (한겨레신문 2006.05.03.)

④ 실천 방안

대부분의 기사문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실천 방안이었다. 조선 1개, 동아 3개, 중앙 7개, 그리고 한겨레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제안된 기사가 없었다. 대다수가 ‘② 언어 사용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 ‘③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 제시’는 갖추고 있으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인지에 대한 방법은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무엇을’은 있으나 ‘어떻게’가 없는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주장에서 그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뒤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어쩌면 국어 운동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④에 해당하는 내용을 몇 가지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³¹⁾

④ 학교와 가정에서는 아이들과의 대화와 교육을 통해 욕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대화할 때 서로 높임말을 쓰도록 권장하고 규칙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조선일보 2011.01.11.)

④ 우리도 ‘우리말 받아쓰기’ 대회를 열어보는 것은 어떨까. (동아일보 2003.08.13.)

④ 국가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제대로 된 영한사전 편찬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동아일보 2005.01.06.)

④ 대한의사협회가 제정한 우리말 의학용어를 의과대학 교육 현장에 바로 적용해야 한다. 우리말 의학용어로 강의하고 의대 시험문제 및 의사국가시험문제도 우리말 의학 용어로 출제해야 한다. 의학교과서의 질병 이름이나 신체 부위도 모두 우리말 의학용어로 통일하고 괄호 속에 영어 원문을 넣어주면 될 일이다. 언론매체도 우리말 의학용어를 써야한다. (중앙일보 2001.05.04.)

④ ‘국어 발전 기본법’(가칭)을 만들고 국립국어연구원의 위상을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 격상해야 한다. 또한 문화관광부의 국어 발전 통합 계획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학계, 출판계, 언론계, 교육계와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중앙일보 2002.11.15.)

④ 또한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부가 인터넷 등에서 사용하는 일부 축약어를 사전에 포함시킨 것처럼 관련 학계가 적극적인 자세로 인터넷 은어의 옥석을 가리는 검토 작업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④ 홀대받고 파괴되는 국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한 방법으로 취업 시험에 국어능력인증시험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회에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중앙일보 2003.10.09.)

④ 학교 교육에서는 국어과 교육 과정의 보완이나 개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립국어원’과 같은 권위 있는 기관의 주관으로 ‘국어능력 인증시험’을 치르게 해 기업체뿐만 아니라 공무원 채용 시험, 특히 교사 임용의 전제 조건으로 그 결과를 반영할 것을 제의한다. (중앙일보 2005.07.27.)

31) ④로 분석된 내용 중 몇몇은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천 방안과 주장의 경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④ 미국의 ‘스펠링 비’와 같은 맞춤법 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중앙일보 2005.07.27.)

이상 신문에 드러난 국어 운동 관련 기사문의 분석을 통해 국어 운동의 의식에 대해 엿볼 수 있다. 국어 운동이 고정된, 상투적인 의식의 프레임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일정한 스키마로 형성되어 있다면 거기에서 새로운 실천 방법은 유도하기 어렵다. 또한 전형적인 글의 형식으로는 언중의 흥미를 끌 수 없다는 점, 언중의 관심과 호응을 얻지 못한다면 국어 운동은 소수에게만 관심 있는 구호로 끝나고 말 것이다.

국어 운동과 관련된 글은 이제는 글의 스키마를 깨야 된다. 이 말은 그간의 상투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달리 말하면 보다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어 운동은 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까지 이끌어 내져야 한다.

3. 국어 운동 관련 신문 기사의 내용 분석

조선일보 (2000년 ~ 2011년)

번호	출처	날짜	제목	전개 방식
1	조선	2000.11.01.	방송 언어, 저질 밑바닥까지 왔다	<p>㉓ 방송 언어의 오염도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p> <p>㉑ 언어가 사고와 의식을 지배한다고 볼 때 방송 언어 오염은 국민의 생각과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p> <p>㉒ 방송 언어는 골라써야 하고 정화시켜야 하는데 사석에서조차 낮뜨거울 만한 상소리와 경박스러운 대화가 여과되지 않은 채 쏟아지고 있다.</p> <p>㉓ 우리의 전통이나 미풍양속까지 해치는 방송 말을 추방하고 비속어, 은어, 반말을 여과시키는 운동은 물론, 교양 있고 고운 말을 골라 쓰도록 준엄하게 주문해야 할 때다.</p>
2	조선	2001.06.14.	FM진행자 언어오용 심각;“증말 갱장이 기여운 청치자...” 라디오 말 같지 않은 말 ‘홍수’;	<p>㉒ 방송위원회 방송 언어특별위원회가 지난달 방송 3사 라디오의 오후 8시~밤 12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한 결과, 방송 진행자들은 표준발음 규정에 어긋난 발음과 잘못된 어휘, 비속어·은어·유행어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p>
3	조선	2011.01.11.	무턱댄 첫 인사 “안녕 똥xx, x 나 병신 xx야”	<p>㉒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절반은 욕설을 습관적으로 하는데 실제 그 욕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경우는 27%에 불과하다고 한다. 뜻도 모른 채 상스러운 욕설을 일상화하고 있는 것이다.</p> <p>㉓ 정부에서는 유해 언어의 생산·유통을 차단한다고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부터 생각해 봤으면 한다. ‘언어는 사회의 거울’이라는 말처럼 청소년들의 욕설문화는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정의 문제, 학교의 문제, 사회의 문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 영화, TV 등 대중매체가 욕설을 배우는 교실이라는 점이다.</p> <p>㉔ 학교와 가정에서는 아이들과의 대화와 교육을 통해 욕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대화할 때 서로 높임말을 쓰도록 권장하고 규칙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p>

4	조선	2011.10.03.	75초에 한번씩 욕설 내뿜는 우리 아이들	<p>② 한국교총과 EBS가 중학생 2명과 고등학생 2명에게 소형 녹음기를 지참시켜 등교 이후 점심시간까지 4시간 동안 주고받은 대화를 녹음했더니 1명당 평균 75초에 한 번꼴, 1시간에 49회의 욕설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p> <p>③ 포털업체와 게임·영화제작업체들이 청소년들의 언어생활을 욕설의 오염으로부터 지켜내려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뭔가 자극이 주어져야 한다.</p> <p>① 가정과 학교는 언어를 담는 그릇이다.</p> <p>③ 빛나간 언어는 빛나간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빛나간 인생을 만들고 만다는 걸 가정과 학교가 함께 깨달아야 한다.</p>
---	----	-------------	------------------------	--

동아일보 (2000년 ~ 2011년)

번호	출처	날짜	제목	전개 방식
1	동아	2000.01.25.	[시론]김성곤/영어실력이 경쟁력이다	<p>② 최근 미국의 문화 제국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문화 국수주의와 외국 문화에 대한 극단적 배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영어의 공용어화에는 반대하면서도, 막상 자신들의 자녀만큼은 영어를 모국어처럼 잘 하기를 바라고 있다.</p> <p>③ 영어는 이제 지구촌에서 살아남고 교류하며 인정받고 경쟁하기 위한 필수 수단이 되었다. 우리말과 우리 문화를 지키면서 세계 문화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p>
2	동아	2000.03.02.	[횡설수설]김충식/영어를 공용어로?	<p>② 영어를 공용어로 삼자는 주장까지 나와 논박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남쪽의 영어남용 외래어남발이 '한심하다 못해 처참한 지경'이라고 자못 흥분한다.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 했다가 100년 뒤 제1외국어로 영어를 폐지해야한다고 한 일본의 경우도 있다. 영어나 외래어에 관한 인식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p> <p>③ 영어 실력을 키우는 것과 '영어공용'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영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방법을 개선하자는 뜻이 공용어화로 빛나가서는 안된다.</p>
3	동아	2000.05.06.	[기고]구은희/'우리말 세계화' 새 교수법 절실	<p>② 국제 특허를 신청하려면 국제법상 인정된 5개의 언어로 번역해야 했는데 작년부턴 한국어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 2000'부터는 영문소프트웨어에서도 한글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외국에서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p>

				<p>③ 교포들에게 한국어가 다른 언어들보다 우수한 언어이고 스스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어가 미국 정규학교 과목으로 가르쳐지기 위해서는 국어교수 방법론이 아니라 한국어 교수 방법론이 체계화되어야 한다.</p>
4	동아	2000.07.19.	우리나라 인터넷 "국어사용 엉망"	<p>② 우리나라의 27개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우리말이 표준어나 맞춤법 등에서 많은 오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띄어쓰기, 잘못된 외래어 사용,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 어긋나는 것 등 7600여건의 잘못된 사례를 찾아냈다.</p>
5	동아	2000.08.08.	IT 용어“도대체 무슨 뜻인지...”	<p>② 정보통신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들의 상당수가 사용하기에 부적절하거나 우리말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줌 인터넷 업체들이 많이 쓰고 있는 ‘전사적 자원관리’ ‘고객관계관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 ‘충성도’는 네티즌이 사이트에 오래 머물고 자주 찾아오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 이 말은 미국 인터넷 기업들 사이에서 쓰이는 로열티(Loyalty)를 직역해 쓰는 표현이다.</p> <p>③ 정보통신 전문가와 국어학자들이 모여 전문용어를 정리하거나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국립국어연구소는 외래어로 된 단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대안을 권장하고 있다.</p>
6	동아	2000.09.05.	[기고]정시호 /영어만으론 학문地平 못 넓힌다	<p>③ 우리가 모국어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말과 글을 가꿔 학문어로서도 손색없는 언어 자산을 후손에게 물려 줄 의무가 있다.</p> <p>① 괴테의 스승이기도 했으며 뛰어난 외국어 교사였던 열린 민족주의자 헤르더는 학문체계의 중심에는 모국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자성을 이룩할 수 있고 세계 보편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p> <p>③ 첫 번째, 한글과 영어를 반반씩 쓰자는 것이다. 두 번째, 영어 이외의 외국어도 이해해야 한다. 세 번째, 다언어 교육 또한 대세다. 그렇다고 한 개인이 두 외국어를 마스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다. 다언어주의에 의해서 비로소 우리는 모국어적 세계관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의 정신적 자유의 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p>
7	동아	2000.10.09.	[기고]이윤배/외국어 남용 너무하다	<p>② 한글이 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90년 한글날이 이런저런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한글날은 우리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창제 당시부터 한문은 ‘진서’라고 우대받은 반면 한글은 ‘언문’ ‘반절’ ‘언서’라고 멸시하고 천대해 왔다. 오늘날에도 외래어와 외국어의 홍수 속에 한글은 점점 그 설자리를 잃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p> <p>③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세계가 우수성을 인정한 우리말과 글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외래어를 수용할 때도 우리말과 글로 바꾸어 사용하려는 일차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p>

8	동아	2000.10.09.	[제554회 한글날]정부 홈페이지 한자 남발	② '누구나 방문해 정부 정책을 보고 평가해 달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정부 각 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권위적이고 생소한 한자가 너무 많이 사용돼 네티즌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이 가장 심한 곳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www. opm. go. kr). 첫 화면 게시물 안내부터 한자 투성이다.
9	동아	2000.10.20.	[국감 S&P]도마오른 '국방부 용어'	② 박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금도 여전히 '속옷'을 '런닝구' '운동화 ○컬레'를 '활동화 ○족' '세면가방'을 '세면주머니'로 표현하는 등 국적불명의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한글날에는 '우리말 살리는 겨레모임'이 '국방일보'를 한자 및 영어 사용이 많다는 이유로 '우리말 훼손꾼'으로 선정하기도 했다는 게 박의원의 설명이다.
10	동아	2000.12.21.	방송 언어 뒤죽박죽...국어연구원 "오용 심각" 지적	② 금방 뽀록날 거예요. '떨떨해 갖고, 정말 닭살 아니니. '왕 짜증 나. ' 일상생활에서도 쓰지 말아야 할 이 같은 저속한 말들이 방송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국립국어연구원이 8월부터 11월 사이 방영된 19개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어 사용 실태조사를 종합한 보고서를 20일 발표하면서 드러난 것이다.
11	동아	2001.02.19.	[정보통신]북한 IT통신 용어 어떻게...	②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비트컴퓨터 조현정 사장은 "리눅스(리눅스) 란(랜·LAN) 등 발음이 다른 경우는 물론 워낙 생소한 용어가 많아 처음엔 북측 관계자의 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정보통신 용어는 남한에 비해 우리말 표현이 많은 게 특징이다. ③ 남북간 정보기술(IT)산업 교류를 위해서는 용어의 호환성내지 통일작업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12	동아	2001.04.10.	[여론마당]조진수/'묻지마 영어투자' 나라 망친다	② 전국의 골목마다 영어학원 차량들이 학생들을 실어 나르고, 우리말도 제대로 못하는 유아를 위한 영어 놀이방까지 등장했다. 영어 조기교육 열풍은 사교육비 부담을 엄청나게 가중시키고 영어가 모국어인 수많은 외국인들이 자격검증도 받지 않고 돈벌이를 위해 한국에 몰려들고 있다. 대학에서는 우리말로 가르쳐도 이해하기 어려운 공학 과목을 영어로 강의하면 교수의 강의 점수를 더 쳐주는 진풍경까지 연출되고 있다. 머리가 회색회색한 중년의 직장인들이 진급을 위해 TOEIC이나 TOEFL을 공부하고 영어실력 부족으로 진급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애환은 차라리 비극이다. ③ 영어로 말할 일이 거의 없는 국민에게까지 영어에 대한 투자를 강요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비논리적이다. 이제는 정부가 대다수 국민에게 큰 정신적 압박을 주고 있는 맹목적 영어 열풍을 진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3	동아	2001.06.14.	라디오방송 진행자 언어 사용 엉망	<p>②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즐겨 듣는 라디오 음악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우리말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위원회가 5월 'FM 라디오 진행자의 언어규범 준수사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진행자가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지 못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p> <p>③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그들의 행동과 언어를 모방하는 경향이 강한 만큼 방송진행자의 올바른 방송 언어 사용이 절실하다.</p>
14	동아	2001.06.20.	[발언대]윤경로/한글날을 문화독립 국경일로	<p>③ 한글날을 국경일로 제정하자는 것은 단지 '노는 날'을 늘리자는 주장이 아니다. 국경일의 근본정신을 되살리자는 것이다.</p> <p>① 민족사학자 박은식 선생은 '민족이란 혼(魂)과 백(魄)으로 이루어졌으니 '백'(영토, 주권)은 잠시 없어도 '혼'이 살아있으면 민족은 되살아난다.'고 하였다. 우리 민족의 '혼'을 집약해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한글이다.</p> <p>③ 민족의 정체성을 담보하고 있는 한글을 더 이상 홀대해서는 안된다. 이렇듯 귀하고 보배로운 한글을 국가적 차원에서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에서도 한글 창제의 날을 국경일로 삼아야 한다.</p>
15	동아	2001.10.30.	'잘못된 인터넷 언어' 생활어 오염 심각	<p>② 사이버 상에서 유행하는 언어를 실제 생활에서 쓰는 어린이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언어 중에는 욕설의 의미를 지녔거나 또래만 아는 은어(隱語) 등이 많아 친구관계를 해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p> <p>③ 설혹 인터넷 언어를 쓰더라도 정확한 언어를 알고 쓰는 노력이 필요하며 맞춤법이 무시된 인터넷 언어의 유행은 아름다운 우리말과 글을 훼손하기 때문에 되도록 쓰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p>
16	동아	2002.02.14.	쿠키 제공...불끈증...쏟아지는 신조어 말 안되는 말 많다"	<p>②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동아일보 등 주요 일간지에 사용된 용어를 조사한 결과,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발간)에 실려 있지 않은 2884개의 신조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p> <p>③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신어가 특히 많이 생겨나는 추세여서 더욱 신중한 언어생활이 필요하게 됐다.</p>
17	동아	2002.03.01.	초등생 통신 언어 사용 보편화	<p>② 초등학생들이 인터넷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통신 언어를 즐겨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선생님이 지난해 6월 초등학교 4~6학년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5.8%의 어린이가 매일 인터넷을 이용했으며 이 중 48.5%의 어린이는 1시간 이상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p> <p>③ 우리말과 글을 배워나가는 초등학생들이 통신 언어를 생활 속에서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 올바른 국어 교육이 필요하다.</p>

18	동아	2002.09.16.	[사설]국어는 외롭다	<p>㉔ 중학교 1, 2학년 국어교과서의 맞춤법 및 띄어쓰기 오류가 1000건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는 교육당국부터 국어를 경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망스러운 사례다. 또한 세계화 추세에 따라 영어 구사 능력이 강조, TV의 우리 말 파괴,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어 훼손은 세대 간의 골 깊은 단절마저 야기하고 있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우리말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조차 힘들지만 앞으로 국어 파괴가 더욱 가속될 것이라는 점만은 확실하다.</p> <p>㉕ 국어를 살리려면 학교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어 교육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풀어야 한다.</p>
19	동아	2002.10.09.	[영어 조기교육 폐해 논란] ‘ABCD’ 뚫리면 ‘가나다라’ 막힌다?	<p>㉔ 영어 조기교육열이 확산되면서 취학 전후 어린이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영어를 배우게 할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갖가지 방식으로 영어를 배우고 있지만 국어실력을 쌓아가면서 영어를 우리말처럼 하기는 어렵다. 특히 ‘영어 배우려다 우리 말을 익힐 기회를 잃는 경우’는 우리말로 학습해야 하는 국내 환경에서 어린이에게 학습 의욕을 빼앗거나 창의성 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p> <p>㉕ MIT대학 언어심리학자 스티븐 핀커는 아기들의 언어습득과정을 연구한 뒤 “인간의 뇌에는 언어를 익히는 프로그램이 입력돼 있다”고 주장해 유명해진 인물. 그는 94년 출간한 ‘언어본능’(The Language Instinct)이란 책에서 “아이들은 이 같은 문법유전자 존재하는 12살 이전에는 체계적 교육이나 훈련 없이도 어떤 언어건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언어학과 이호영 교수도 “인간은 선천적으로 아무런 고통 없이 언어를 배우게 돼 있다”며 “가정에서 자연스레 영어가 오가거나, 영어권 국가에서 생활하는 등 환경만 주어진다면 어린이들은 우리말과 영어 모두 모국어처럼 익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㉖ 조기 영어 교육 자체에 대해 찬반의 이분법적 시각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영어에 대한 어린이 개인의 재능과 흥미에 따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p>
20	동아	2002.10.21.	초등교과서에 한자말-잘못된 표현 넘친다	<p>㉔ 교과서에 한자말이나 비표준어, 속어(俗語) 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자말을 많이 사용하고, 일본어 표현도 있으며, 속어·비표준어·사투리, 그리고 잘못된 표현과 삽화도 있다.</p>
21	동아	2003.06.18.	[방송]오락프로 한글오용 조사KBS2 전체지적의 42%	<p>㉔ 국어문화운동본부(회장 남영진)가 5월~6월 방송된 KBS2 ‘자유선언 토요일대작전’ ‘슈퍼 TV 일요일은 즐거워’, MBC ‘느낌표’ ‘일요일 일요일 밤에’ ‘전과건문록’, SBS ‘청춘 버라이어티 가슴을 열어라’ ‘뷰티풀 선데이’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연예오락 프로그램 7개를 대상으로 우리말 오용 사례를 조사한 결과, KBS2가 전체 지적 건수의 42.3%(121건)로 가장 많았다. MBC는 전체 지적 건수의 38.1%인 109건을, SBS는 56건(19.6%)이 지적됐다.</p>

22	동아	2003.08.13.	[수요프리즘]장소원/‘우리말 받아쓰기 대회’ 열자	<p>② 지역에 따라, 또 연령에 따라 음의 장단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들의 잘못이라기보다 어디에서도 그 차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요즈음 방송은 잘못된 국어사용을 묵인해주다 못해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 정치인들 역시 표준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거의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p> <p>③ 이제는 제대로 국어를 배우지 못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말 재교육을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p> <p>④ 우리도 ‘우리말 받아쓰기’ 대회를 열어보는 것은 어떨까.</p>
23	동아	2003.09.03.	[방송]방송위,TV뉴스 우리말 오용 분석	<p>② 지상파 3사와 케이블 뉴스채널 YTN의 메인 뉴스에 나타난 앵커와 기자의 우리말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TV 메인 뉴스의 우리말 오용이 심각하다.</p> <p>③ 방송사 메인 뉴스에서 사투리 발음과 억양을 쓰는 기자가 많으며 표준발음을 사용하도록 현장교육이나 재교육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p>
24	동아	2003.09.17.	[교육]남북한 언어차이 심각 통일 언어교육 필요	<p>② 남북한 교과서 언어가 맞춤법과 띄어쓰기, 표준어, 외래어 등에서 번역이 필요할 만큼 큰 차이가 나타났다. ‘간지계’는 ‘빈틈없고 야무지게’, ‘일없어’는 ‘괜찮아’, ‘짱포쟁이’는 ‘허풍쟁이’라는 뜻이다. 또 주무랑마봉(에베레스트산), 깔리만탄섬(보르네오섬) 등 외래어도 그 나라 발음 그대로 사용해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p> <p>③ 언어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 공동대책이 필요하다.</p>
25	동아	2003.10.14.	[자동차 이야기]류청희/국적불명 車 용어 제대로 쓰자	<p>② 비슷한 기능을 하는 장치라도 회사별로 독자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이름을 짓는 것도 혼란의 원인 중 하나다. 그러나 이 같은 혼란이 생기는 원인의 상당수는 번역상의 실수나 사려 깊지 못한 번역에 있다. 직역을 하는 경우, 일본식 한자어들,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국적불명의 조어가 쓰인다.</p> <p>③ 어차피 받아들여야 하는 외국어라면 제대로 우리 것으로 소화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문제를 자동차 회사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한글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p>
26	동아	2004.06.16.	[발언대]유병환/영어 많이 쓴다고 일류도시 되나	<p>② 최근 서울시는 세계 일류도시를 지향한다며 ‘시내버스 색깔 체계와 영문 표기’, ‘하이 서울(Hi Seoul) 구호’, ‘영어마을 조성’, ‘영어공문서 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p> <p>③ 영어를 중시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다. 우리도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외국어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말을 소중히 하는 바탕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p>
27	동아	2004.08.23.	[발언대]이재식/언어의 룰을 지키자	<p>② 인터넷에서도 우리말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구어체 비문(非文)은 말할 것도 없고 앞 음절의 중성을 다음 글자의 초성으로 이어 쓰는 연철식 표기와 품사 생략 등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다.</p> <p>③ 말은 신중히 해야 하고, 글을 쓰는 것도 남에게 보이기 전에 고치고 또 고치는 정성이 필요하다. 한글을 맞춤법대로 말하고 쓰는 것은 사회적 약속이다.</p>

28	동아	2004.10.08.	[여론마당]구법회/한글사랑, 평소의 말과 글부터...	<p>② 언론사들이 평소 우리말과 글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편 청소년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자기 들끼리만 통하는 통신 언어를 만들어 씀으로 해서 한글 파괴 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기회에 영어 공용을 주장하거나 우리 말글에 한자를 섞어 쓰자는 한자 사대주의자들도 우리 말글의 장래를 위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p> <p>③ 우리는 세종대왕의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도 해묵은 한자 교육 논쟁을 거두고 오염돼 가는 우리 말글을 곱고 바르게 가꾸어 가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하나 더 보태어 할 일이 있다면 국경일에서 기념일로 격하된 ‘한글날’을 다시 국경일로 격상시켜야 할 일이다.</p>
29	동아	2004.10.11.	[말언대]최정기/국어순화 국민운동 펼치자	<p>③ 자기 나라 말을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어는 민족 정체성과 나라사랑의 근본이기 때문이다.</p> <p>② 국어 홀대의 ‘증거’는 곳곳에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초등학교 국어 시간이 적고, 대학 강의를 외국어로 하는 경우가 전체의 7%에 달하며, 상품이나 브랜드 이름에 국적 불명의 외국어 남발되고 있다.</p> <p>③ 지금부터라도 대대적인 국어 순화 국민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또한 내년에는 전 국민으로 한국어능력 시험을 확대하겠다는 소식도 있어 이를 계기로 국어사랑 운동이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p>
30	동아	2005.01.06.	[사설]순수 우리말 홀대하는 英韓辭典	<p>② 국내의 영한사전(英韓辭典)들이 순수한 우리말을 홀대하고 있다. king을 찾으면 ‘왕’과 ‘군주’는 있어도 ‘임금’이 없고, temple은 ‘사원(寺院)’은 있어도 ‘절’이 없으며, mountain도 ‘산’만 있을 뿐 ‘피’나 ‘메’는 없다.</p> <p>③ 영한사전에 순우리말을 찾아 수록하는 일은 우리말을 지키고, 그 표현 능력과 영역을 확장하는 길이 된다.</p> <p>④ 국가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제대로 된 영한사전 편찬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p>
31	동아	2005.01.11.	[인터넷]인터넷서 ‘외계어’ 판쳐... 한글파괴 심각	<p>② 인터넷에서 쓰이는 언어의 한글 파괴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특수문자와 일본어, 한자, 한글 등을 뒤섞어 의사를 표현하는 일부 누리꾼의 언어를 ‘외계어’라고 부른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일상생활까지 이어져 우리말 파괴 현상이 심각해진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인터넷 언어를 순화하고 일상생활의 언어 예절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용 지도 자료집을 발간해 10일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p>

32	동아	2005.01.18.	[여론마당]최진규/우리말 다듬기 운동 언론이 앞장서야	<p>② 신문을 읽다보면 정확한 뜻을 알 수 없는 어휘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런 어휘는 대부분 외부에서 유입된 말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뜻을 알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노력하고 국민이 호응하면 우리말 살려 쓰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례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p> <p>① 주시경 선생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나라의 근본을 세워야 하고 나라의 근본을 세우는 일은 자기의 말과 글을 소중히 여겨 쓰에 있다”고 했다.</p> <p>③ 소중한 우리말을 살려 쓰는 것은 무엇보다도 언론이 사명의식을 갖고 앞장설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p>
33	동아	2005.07.06.	[횡설수설]홍찬식/위기의 국어	<p>② 언어파괴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인터넷에서는 우리말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들이 범람하고 있다. 대통령부터 ‘못해먹겠다’ ‘깡판’ 등 막말을 쏟아 내니 젊은이들만 나무랄 일도 아니다.</p> <p>③ 쓰기와 말하기는 이른바 자기표현 능력이다. ‘말을 잘해야 성공한다’는 얘기가 있듯이 경쟁시대에는 자기 견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힘이 ‘생존의 무기’가 된다.</p>
34	동아	2005.08.16.	[문화칼럼]고정일/광복 60년, 홀대받는 우리말	<p>② 국어 글쓰기와 말하기 등의 표현 능력이 부실해 보고서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사회인들, 자기 나라 말보다 남의 나라 말을 더 잘하려고 애쓰는 대학생들, 방학철만 되면 줄줄이 해외로 떠나는 영어 연수생들,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마치 영어 강박증에 걸린 것처럼 시달리는 학생들이 많다. 먼저 우리말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자유이고, 사상이며, 정신임을 망각하고 있다.</p> <p>① ‘말과 글을 잃으면 민족도 멸망한다’고 주시경은 말했다.</p> <p>③ 학교에서의 국어 교육 강화가 중요하다.</p> <p>④ 그에 따른 풍부한 독서와 생각하는 훈련이 절실하다.</p>
35	동아	2005.08.26.	[광화문에서]김차수/힘없는 국어기본법	<p>② 정부는 언어 파괴와 오염을 막고 국어를 보전 발전시키기 위해 국어기본법을 제정했다. 지난달 28일 발효된 국어기본법은 ‘공문서의 한글 전용’ 규정뿐 아니라 우리말을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분명히 규정했다. 하지만 국어기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데도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p> <p>③ 정부는 국어기본법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p>
36	동아	2005.10.06.	[여론마당]구법회/교육청 공문에 영어 써야하나	<p>② 최근 공문서들을 보면 내용뿐 아니라 공문 제목에도 영문자(로마자)를 노출시켜 쓴 것이 자주 발견된다. 우리는 언제부터가 세계화를 앞세운 영어에 홀려 우리말과 한글을 홀대하기 시작했다.</p>

37	동아	2005.11.28.	[여론마당]김창진/修能듣기평가 ‘우리말 발음’ 제대로	<p>② 교육인적자원부는 철자법의 규범으로서 ‘한글맞춤법’을, 발음의 규범으로서 ‘표준발음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교육부가 주관해 시행한 수능시험 듣기평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틀린 발음이 많아 큰 문제가 되고 있다.</p> <p>③ 만약에 발음의 장단 구분이 현실적으로 무너져버려 표준발음법의 관련 규정이 더는 필요 없다고 판단한다면 교육부는 그 규정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면 그 규정을 만든 교육부부터 마땅히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한다.</p>
38	동아	2006.10.09.	‘한글 연구가’ 최성철씨 “이젠 한글 표기법 독립운동할 때”	<p>③ 한글의 잠재력을 가로막는 현행 외래어표기법을 바꿔야 한다.</p> <p>②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골격은 일제강점기였던 1941년 만들어졌는데 당시 일본 유학생들이 주축이 됐고, 그들의 외국어 발음도 일본식이었다는 점을 직시할 때이다. 현행 우리말 표기법이 기본 자모 24자에 쌍자음 등을 포함해 40개 자모로 제한한 것은 한글의 세계화에 역행한다.</p>
39	동아	2007.03.12.	[사설]사법부 판결문부터 쉽게 써야	<p>② 어려운 한자나 일본어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바꾼 38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p> <p>③ 법제처의 ‘쉬운 법령 만들기’는 사법부의 대대적인 ‘판결문 쉽게 쓰기’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p>
40	동아	2007.05.31.	[기고/김중섭]세계 9위 한국어, 내실은 몇 위일까	<p>② 한국어와 한국어 교육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어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우리말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볼 때 중요도 및 언어 경쟁력 면에서 스페인어 일본어 아랍어 등에 이어 9위를 차지할 정도다. 그러나 외형적인 성장에 치중해 내실이 다져지지 않은 것이 문제다.</p> <p>③ 한국어 교육 연구 사업이 한국어 교육의 내적 발전과 성숙을 위한 방향으로 특성화 및 전문화가 돼야 한다.</p> <p>④ 학습자의 성향에 따라 특성화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이끌어갈 주체를 제대로 세워 정책적 지원 방향을 도출시켜 한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p>
41	동아	2008.12.24.	[사설]文解率 98.3%보다 말과 글 바르게 쓰기가 중요하다	<p>② 38년 만에 실시된 정부의 성인 기초 문해력(文解力) 조사에서 국민의 비(非)문해율(문맹률)이 1970년 7%에서 2008년 1.7%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어를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풍요롭고 아름다워져야 할 말과 글이 조약항과 비속함, 그리고 천박함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p> <p>③ 우리 사회가 높아진 문해율 통계에 뿌듯해하기보다는 국어의 근본을 바로잡는 일에 지금부터라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p>

42	동아	2009.03.09.	[기자의 눈/이원주]“전단지에 바른 우리말” 백화점의 한글 운동	<p>② 전단지에 굳이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외래어를 있는 대로 끌어다 쓴 것은 물론이고 어법에 맞지 않는 국적 불명의 외래어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현대백화점이 8일 이런 관행을 깨겠다고 선언했다. 직원들에게 우리 말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잘못 쓰고 있는 전단 문구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단을 만들 때 외래어, 외국어 사용 빈도를 대폭 줄일 예정이다. 다만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외래어는 철저히 표기법에 따르기로 했다.</p> <p>③ 기업 차원에서 시작된 우리말 바로 쓰기가 ‘운동’이 아닌 ‘일상’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 본다.</p>
43	동아	2009.04.14.	권재일 국립국어원장 “다문화가정 주부 의사소통 쉽게 우리말 연구”	<p>② 국어 정책의 핵심은 다문화 가족을 포함해 전 국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언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p> <p>③ 표준어 규정은 앞으로 없어질지 모르지만 아직은 필요한 최소한의 ‘언어 약속’이라며 “표준어를 위해 방언이 죽어서는 안되고, 방언은 방언대로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문 규정은 (복수 표준어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곳이 있다. 또한 한자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 간에 언어 소통의 단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자도 알아보기 쉬운 한글로 쓰는 게 낫다는 것이다</p>
44	동아	2009.08.07.	[사설]수출하는 한글, 나라 안에선 오염이 심해지니	<p>② 한글이 인도네시아 소수민족의 공식문자로 처음 수출됐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주(州) 부통 섬 바우바우 시(市)는 문자가 없어 사라질 위기에 놓인 짜아짜아어(語)를 표기하기 위해 한글을 도입했다.</p> <p>③ 한반도 밖에 ‘한글 쓰는 섬’이 생기는 것을 계기로 한글의 수출이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정부가 앞서 한글의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글 보급에 힘써온 한글 학계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p> <p>② 한글은 정작 국내에선 함부로 취급받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외계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엉터리 표기가 난무한다. 맞춤법이나 표기법을 무시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몰라서 한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성인도 적지 않다.</p> <p>③ 우리 스스로 소중하고 아름답게 갖고 다듬어야 해외에도 당당하게 전파할 수 있다.</p>
45	동아	2009.10.08.	[과학세상/김재완]외국인도 10분 배우면 읽는 한글	<p>② 우리말을 모르지만 단 10~20분이라도 배워서 한글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는 데에 그들도 놀라지만, 자료를 만든 나 자신도 외국인이 한글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데에 새삼 감탄을 금할 수 없다.</p> <p>③ 한글이 과학적으로 뛰어나다고 자만하지 말고 우리말과 글을 제대로 발전시킬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p>

46	동아	2009.10.21.	“어린이 프로, 폭력적 언어 사용 문제”	<p>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이나 비속어 사용을 줄이기 위한 ‘올바른 방송 언어 개선방안’을 20일 제시했다. 어린이 프로에서는 어린이 정서에 맞지 않거나 폭력적인 언어 사용을 지적했다.</p> <p>③ 방송 언어 개선방안을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며, 향후 부적절한 방송 언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심의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침이다.</p>
47	동아	2010.10.07.	“방송 언어, 재미보다 정확한 메시지가 핵심”	<p>② 모든 방송 직군은 품위와 품격을 유지하면서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표준발음법보다 더 중요한 건 시청자들이 쉽게 알아듣도록 전달하는 것이다.</p> <p>③ 문자언어와 방송 언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하고, 짧은 문장을 사용해야 하며, 속도, 강약, 고저, 음세, 억양, 띄어 말하기에 신경을 써야 한다.</p>
48	동아	2011.10.08.	[문화 칼럼/권재일]우리말과 우리글의 위상	<p>② 5월 문화체육관광부 의뢰로 실시한 어느 조사에 따르면 한글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우리나라 사람이 37%나 된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대중문화 보급이 확산되면서 한국에 관심을 갖고 우리말을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외국인 수가 처음 실시한 1997년 2000여 명이던 것이 2010년에는 11만여 명으로 늘어났으며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는 무려 17만여 명인 것을 보면 외국에서 우리말을 배우려는 열기가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나라 밖에서는 우리말과 우리글이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데, 나라 안에서는 어떠한가. 행정기관에서 쓰는 용어가 어렵기도 하고 더 나아가 우리말을 파괴하고 있다.</p> <p>③ 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언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훨씬 더 쉽고 정확해야 한다.</p> <p>② 초중고 학생들의 언어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대화 자료를 살펴다 보면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만큼 일상 대화 속에 욕설과 비속어, 그리고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이 가득하다.</p> <p>③ 초중고 학생들의 욕설과 비속어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가정에서 부모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의 언어 순화를 위해 방송의 노력도 중요하다.</p>

중앙일보 (2000년 ~ 2011년)

번호	출처	날짜	제목	전개 방식
1	중앙	2000.02.10.	[열린마당] TV오락물 비속어 남발	<p>② 상당수의 드라마나 쇼프로그램에 듣기 거북한 비속어나 욕설들이 공공연히 남발되고 있다. ‘쪽팔려, 죽이는데, 기분이 뽕가, 갈구지마, 쌍판, 꼭지 돌아’ TV 쇼프로그램의 자막처리가 맞춤법에 맞지 않는 말이 많다. 방송은 남녀노소 어느 계층에나 무한정, 무차별적으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엄청난 위력을 지니고 있으며 많은 TV 프로그램들이 시청률만을 의식, 비속어나 욕설을 여과 없이 사용하여 언어폭력과 언어 오용에 앞장서고 있다.</p> <p>③ 각 방송사들은 올바른 우리말 가꾸기에 힘쓰고 출연자들 또한 공인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언행에 좀 더 신경 써야 한다.</p>
2	중앙	2000.02.29.	[시론] 영어 공용어화 문제있다	<p>② 모든 분야에서 영어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영어를 제2 공용어로 채택하자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다.</p> <p>③ 영어교육과 영어 공용어화는 다른 이야기이다.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려면 한국어와 영어 둘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국민생활을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복수의 언어가 공존할 때 두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는 인도, 필리핀, 나이지리아 등 제 3세계에서 중상류의 기득권층은 영어를 그 이하의 계층은 자기 언어를 사용하는 일이 있다.</p> <p>③ 나라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선 안 될 일이 있음. 외국어의 공용어화는 결코 계획해서는 안된다.</p>
3	중앙	2000.05.22.	[열린마당] 방송사 국어순화 뒷걸음	<p>② 방송사의 봄철 개편으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선보이고 있다. ‘피자의 아침’이라는 제목을 보며 요리 프로그램을 상상했지만 ‘피자’는 ‘PD와 기자’를 가리켜 말하는 방송인들의 은어이다.</p> <p>③ 이와 같은 행태는 시청자나 일반인을 무시하는 행태이며 공명성을 표방해야 할 방송사가 이와 같은 신조어를 사용하고 유포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다. 방송사 스스로가 우리말의 순화를 위해 세밀한 부분까지도 더욱 신경 써야 한다.</p>
4	중앙	2000.07.05.	[사설] 로마자 표기법 고쳤다지만	<p>② 문화관광부가 국어의 새 로마자 표기법을 확정해 발표하였다. 반달표와 어긋점 등의 특수 부호를 없애고 발음 위주의 표기 원칙을 유지했다.</p> <p>③ 로마자 표기가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인명이나 지명, 고유명사 등을 보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쓸 수 있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때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또한 새 표기법대로 유, 무성음의 구별을 없애면 외국인이 이 원칙을 따를지도 의문이며 우리마저 무슨 지명인지 모르는 혼란을 겪을 것이다. 표기법은 자주 바꾸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어느 하나의 방식을 언중들이 보편적으로 익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불변의 원칙으로 지켜야 한다.</p>

5	중앙	2000.08.28.	[열린마당] 일상어 두어 문어체 남발	<p>㉔ 많은 방송뉴스에서 적절치 않은 단어와 문장이 반복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은 일상적으로 쓰이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쉬운 우리말로도 충분히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p> <p>㉕ 어려운 한자어를 동원한 이중부정은 듣는 사람들을 혼돈스럽게 할 뿐이다. 언론은 문어체 표현은 지양하고 곱고 예쁜 우리말, 우리글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릴 의무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뒤야 한다.</p>
6	중앙	2000.10.09.	[열린마당] 사이버 공간서 우리말 제대로 사용하길	<p>㉔ 사이버공간에 비속어와 은어, 국적불명의 외래어, 생소한 약어 등이 난무한다. 예를 들어 가튼데(같은데), 조아(좋아), 추카추카(축하 축하), 암거나(아무거나) 등이다.</p> <p>㉕ 맞춤법이나 문법을 완전히 무시한 언어 사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향후 심각한 언어생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올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국가적 차원에서 시급하다.</p>
7	중앙	2000.12.25.	[열린 마당] 잠실 농구장 안내방송 영어 남발	<p>㉔ 잠실체육관 농구 경기의 안내방송이 영어 일색이다. 예를 들어 2점 득점은 '투포인트', 자유투 두 개는 '프리드로 투샷', 공격자 반칙은 '오피스 파울' 등이다.</p> <p>㉕ 이런 영어를 이해하는 관중이 상당수고 일종의 '관행'으로 여길 수 있지만 우리말로 된 용어를 사용해도 의미 전달이 어렵지 않다. 장내 방송을 할 때 우리말 용어를 사용했으면 한다.</p>
8	중앙	2001.05.04.	[기초를 다지자] 의료계가 앞장서 우리말용어 쓰야	<p>㉔ 견갑골 대신 어깨뼈, 대퇴골 대신 넓적다리뼈, 슬개골 대신 무릎뼈를 사용하면 어색하고 점잖지 못한 것으로 여기는 일부 의료계의 잘못된 인식이다.</p> <p>㉕ 이러한 인식부터 고쳐야 한다. 의료계가 술선수범해야 우리말 의학용어가 순조롭게 보급될 수 있다.</p> <p>㉖ 대한의사협회가 제정한 우리말 의학용어를 의과대학 교육 현장에 바로 적용해야 한다. 우리말 의학용어로 강의하고 의대 시험문제 및 의사국가시험문제도 우리말 의학 용어로 출제해야 한다. 의학교과서의 질병 이름이나 신체 부위도 모두 우리말 의학용어로 통일하고 괄호 속에 영어 원문을 넣어주면 될 일이다. 언론 매체도 우리말 의학용어를 쓰야한다.</p>
9	중앙	2001.08.23.	EBS 성인·아동 대상 국어 교육 프로그램 신설	<p>㉔ 인터넷상의 국어 변용은 문법 파괴, 단어 축약, 마구잡이식 외국어 혼용 등 이미 심각한 수준이며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언어가 일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p> <p>㉕ EBS가 '우리말 우리글', '바나나를 탄 끼끼' 등 각각 성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인다.</p>
10	중앙	2001.08.31.	철도용어 순 한글식으로 바뀐다	<p>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철도청의 각종 외국어투 용어가 순 한글식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대합실이 맞이방으로 행선지가 길머리로 개표가 표 확인으로 보선이 시설관리로 바뀌는 식이다.</p>

11	중앙	2001.10.08.	[열린마당] 부적절한 방송 언어 사용 때 유의	<p>② 청소년들은 물론 사회지도층까지도 우리말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방송매체도 그릇된 표현을 자주 쓰고 있다. 예를 들어 일기예보 진행자가 “내일은 더위가 누그러지겠다.”고 하는데 ‘누그러지다’는 추위의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다.</p> <p>③ 영국에서는 공영방송인 BBC가 전 국민의 언어 교사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방송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말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문화유산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며 국어의 황폐화 현상은 국토의 황폐화 현상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다.</p>
12	중앙	2002.01.28.	[열린마당] PC통신 등 언어파괴 심각	<p>② 통신 언어에 의한 우리말 파괴가 심각하다.</p> <p>③ 이전에는 전화비를 아끼기 위해 말을 줄여 썼지만 지금은 굳이 말을 줄여 쓸 필요가 없다. 10대만의 문화를 살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기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말을 파괴하고 청소년과 기성세대를 갈라놓을 수 있다.</p>
13	중앙	2002.08.17.	국어가 죽어가고 있는데	<p>② 새로 만들어지는 어휘들 대부분이 부정적인 말이거나 마구잡이로 끌어다 쓰는 영어들이며 말의 어순과 발음도 영어식으로 바뀌고 있다. 옛날 지식인들이 한자를 독점했던 것처럼 오늘날 지식인들은 영어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p> <p>③ 서로 다른 언어, 다양한 문화적 차이, 사유방식과 관습의 불일치 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언어는 늘 역동적으로 변화해야 하며 그것은 살아 있는 언어 주체의 몫이어야 한다. 세계를 제대로 인식해야 제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것은 말과 글을 통해 이뤄지고 우리의 경우에는 국어이다.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 우리의 언어생활을 바로 해야 한다.</p>
14	중앙	2002.10.14.	한글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p>② 당초 국경일이었던 한글날을 일 년에 세배를 두 번 하게 만든 구정 연휴 등 공휴일을 늘린 정부가 1991년에 ‘노는 날’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국경일에서 제외시켰고 그 이후 한글날은 국민의 무관심 속에서 지나쳐 버리게 되었다.</p> <p>③ 다른 노는 날을 줄여서라도 한글날만은 한글에 관한 각종 행사와 함께 온 국민이 뜻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15	중앙	2002.11.15.	국민들 언어능력 향상 위해 국어 발전 기본법 제정해야	<p>㉒ 우리말을 사용하는 국내외적인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비해 국어 발전에 관한 것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교육 기관은 순수 학문만을 내세우고 있다. 공공기관의 공문서나 법률 용어는 국어 오용이 많고, 언론 기관은 외국어와 외래어로 매일 지면을 도배한다.</p> <p>㉓ 국어학자들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우리말을 쓰지 못하게 하던 상황과 도금도 다르지 않다고 하면서 지금을 ‘위기의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를 잘 극복하여 전환의 계기로 삼아 우리말을 발전시키는 ‘기회의 시대’로 만들어야 한다.</p> <p>㉔ ‘국어 발전 기본법’(가칭)을 만들고 국립국어연구원의 위상을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 격상해야 한다. 또한 문화관광부의 국어 발전 통합 계획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학계, 출판계, 언론계, 교육계와 함께해야 할 것이다.</p>
16	중앙	202.12.13.	TV광고 우리말 왜곡 심해	<p>㉒ 요즘 청소년들은 인터넷 채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확한 맞춤법을 모르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 이와 비슷하게 홈쇼핑 광고에서도 우리말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156개’를 ‘백오십여섯개’라고 했다.</p> <p>㉓ 어린이들도 많이 시청하는 만큼 TV광고에서는 올바른 발음을 사용해야 한다.</p>
17	중앙	2003.10.09.	한글의 아름다움 지켜나가려면	<p>㉒ 유네스코가 훈민정음을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세종대왕 탄일을 세계문명 퇴치의 날로 정하는 등 세계가 한글의 우수성을 칭송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이를 온전히 지켜나갈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 증거로 한국인의 국어 능력은 백점 만점에 평균 58.26점에 불과하다. 또한 무분별한 외래어 남용은 지적하기가 민망할 지경이다. 통신 언어와 방송 언어 또한 언어파괴현상이 심각하다.</p> <p>㉓ 가정과 학교는 청소년들 사이에 채팅언어가 일상어로 자리 잡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p> <p>㉔ 또한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부가 인터넷 등에서 사용하는 일부 축약어를 사전에 포함시킨 것처럼 관련학계가 적극적인 자세로 인터넷 은어의 옥석을 가리는 검토 작업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p>
18	중앙	2003.10.16.	한글 오염 닦할 게 아니라 새 낱말 만들어 공급했으면.	<p>㉒ 요즘의 한글 오염은 위험 수준을 넘었다.</p> <p>㉓ 시대의 변화에 맞게 새로운 낱말들을 제때 ‘만들어’ 쓰도록 해주지 못한 책임도 크다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모두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북한이 오랫동안 우리말을 새로 만들어 써오고 있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p>

19	중앙	2004.07.21.	방송 우리말 사용 부정확	<p>②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우리말 사용을 잘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예를 들어 모 노래경연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으로 나온 인기가수가 심사평을 하면서 “노래 부르는 요령을 아르게 드리겠다.”는 표현을 썼다.</p> <p>③ 방송은 전국으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아이들의 교육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p>
20	중앙	2004.10.19.	세계화 추세로 밀려나는 우리말 취업시험 반영 등 관심 되살려야	<p>② 국어능력인증시험에 대해 아는 사람이 드문데 비해 한자나 영어 관련 시험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국어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이 큰 원인이며 영어 중시 풍조로 국어가 점점 홀대받고 있다.</p> <p>③ 외국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어를 바로 아는 바탕 위에서 외국어를 잘 구사해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p> <p>④ 홀대받고 파괴되는 국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한 방법으로 취업 시험에 국어능력인증시험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회에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p>
21	중앙	2004.10.18.	방송뉴스, 장·단음 발음 엉망	<p>② 방송뉴스에서 우리말의 장/단음을 틀리게 발음하는 현상이 심각하다. 김창진 교수는 KBS-TV 밤 9시 뉴스(10월 4일치)에 나온 앵커/기자 36명의 장/단음 발음을 조사했다. 그 결과 발음을 정확도에 따라 A~E급의 5단계로 나누었는데 표준발음에 가까운 A, B급은 한 명도 없었고, C급이 두 명, D급이 11명, E급이 23명으로 가장 많았다.</p> <p>③ 발음이 길고 짧은 것과 상관없이 문맥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교수는 “외국어는 악센트까지 철저히 배우면서 정작 우리말의 장단음을 틀리게 발음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p>
22	중앙	2004.03.19.	인터넷 막글을 탄핵한다	<p>② 초기 통신 언어는 재치와 함께 언어경제학적인 측면이 엿보였으나 월드컵을 이후 10대를 중심으로 한 일부 네티즌에 의해 기존의 문법이나 표기법은 그 근간을 위협받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소위 ‘외계어’의 출현에 이르면 그야말로 막간 느낌마저 들게 한다.</p> <p>③ 이를 두고 어떤 이는 원리소의 회귀라 말하기도 하고, 혹자는 새로운 문화의 탄생이라 반기기도 한다. 어떤 시각에서 보든 최근의 통신 언어는 과거 수천 년에 걸쳐 인류가 발전시켜 온 말과 글의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든 것만은 분명하다. 이러한 현상은 순화되지 못한 일부 막글의 난무로 이어지는데 사회 정화내지 국어 순화의 차원에서 이런 막글은 자제돼야 한다.</p>

23	중앙	2005.04.01.	일제 잔재 청산하려면 생활 속 일본어부터 없애야	<p>㉓ 우리 주변에서 일제 강점기의 잔재를 청산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러기 위해 우선 출판/인쇄업계에서 쓰이는 일본식 용어를 바꿔야 한다. 예를 들면 가가리 사철, 가쿠 양장, 가다메, 계시타 등이다. 일부 현장 사람은 남이 못 알아듣는 일본식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대단한 지식이나 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p> <p>㉔ 이와 같은 일본식 용어의 남발은 비단 출판/인쇄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 각자가 일본식 용어를 쓰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것이다.</p>
24	중앙	2005.07.14.	우리말·글 실력 향상 위해 맞춤법 경연대회 열었으면	<p>㉒ 기업체 사원들의 국어능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영어능력보다도 부족하며, 특히 말하기와 글쓰기 등 표현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p> <p>㉓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한글과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p> <p>㉔ 미국의 '스펠링 비'와 같은 맞춤법 대회를 개최해야 한다.</p>
25	중앙	2005.07.27.	국어능력 시험 확대해야	<p>㉒ 기업인들이 신입사원의 국어 능력에 적잖은 불만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즉 영어보다 국어 성적이 더 나쁘다는 것이다. '국어 능력'은 '업무 전문성', '대인관계 능력'에 이어 신입사원에게 셋째로 부족한 분야로 꼽혔다. 국어 실력 중에서는 쓰기/말하기 등 표현 능력이 가장 부족했고, 국어와 관련된 업무 중 가장 부족한 부분은 계획안/보고서 작성 능력, 그 밖에 대화 능력, 표현 능력, 전자우편 작성 능력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p> <p>㉓ 국어는 사실상 세계화에 따른 영어 중시 풍조로 점점 홀대받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 통신이 확산되면서 국어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훼손되고 있다.</p> <p>㉔ 현행 교육 과정에서 국어과의 내용은 듣기/말하기/읽기/쓰기/국어 지식/문학 등 6개 영역이며 이 중 말하기/쓰기 등 표현 능력에 대한 지도가 부족하다.</p> <p>㉕ 학교 교육에서는 국어과 교육 과정의 보완이나 개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립국어원'과 같은 권위 있는 기관의 주관으로 '국어능력 인증시험'을 치르게 해 기업체뿐만 아니라 공무원 채용 시험, 특히 교사 임용의 전제 조건으로 그 결과를 반영할 것을 제의한다.</p>
26	중앙	2006.10.09.	한글날이 부끄러운 우리의 언어문화	<p>㉑ 한글의 우수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언어학자들이 가장 빼어난 문자로 한글을 꼽는다. 휴대전화 문자만 봐도 한글의 과학성과 첨단성은 바로 증명된다.</p> <p>㉒ 우리는 우리말과 글을 홀대하고 있다. 인터넷이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 방송도 마찬가지이며 정치인들의 말도 저주와 증오로 가득 차 있다.</p> <p>㉓ 우리말을 지키고 다듬는데 모두가 나서야 한다.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서 한 마디씩이라도 아름다운 우리말을 써 보도록 하자.</p>

27	중앙	2006.12.13.	인터넷 외계어 범람 ... '잼있따'가 맞는 줄 알았어요	<p>② 인터넷으로 의사소통을 할 때 우리말이긴 한데 쉽게 이해하기 힘든 말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를 이른바 '외계어'라고 한다.</p> <p>③ 이것 또한 하나의 문화라고 해서 새로운 창조물로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이를 긍정적 현상으로 보지 않는다. 한글을 통해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③ 인터넷을 통해 나도 모르게 외계어를 배우고 실생활에서 이를 쓴 적이 있다. 문제는 외계어가 부지불식간에 한글을 변질시킨다는 점이다. 한글을 올바르게 체득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외계어는 정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p> <p>④ 우리말 살리기와 외계어 사용 금지 운동을 실천해야 한다.</p>
28	중앙	2007.05.22.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한자어 한 국인끼리 말할 때도 써야 하나	<p>②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수많은 유행어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있다. 방송은 이미 사람의 언어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방송은 종종 언어 파괴의 주범으로 꼽히기도 한다.</p> <p>③ 그러나 법조문, 의학용어 등 학계에서도 국어 파괴 현상 심각한 상황이다. 방송의 비속어 사용만큼이나 학자나 전문가들의 외국어, 한자 남용도 자제되어야 한다.</p>

한겨레신문 (2000년 ~ 2011년)

번호	출처	날짜	제목	전개 방식
1	한겨레	2001.10.18.	되돌아본 우리말글 정책	<p>② 초등학교의 한자. 영어 교육, 도로 표지판의 한자 병기,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시험에서 국어 과목 폐지 방침, 제주도의 영어 공용어권 정책 추진 등 한결같이 우리 말글의 순수성을 지키는 데 거스르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p> <p>③ 정부 차원에서 말글 정책을 주도하는 데서 적어도 우리 말글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큰 원칙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p>
2	한겨레	2001.10.18.	'토박이말 쓰임사전' 낸 최기호 교수 / 현재 국어사전은 국어사전 아냐	<p>② 토박이말 쓰임사전을 낸 최기호 상명여대 교수는 외래어나 한자어는 고급스럽고 우리말은 변변치 않은 것을 뜻할 때나 쓰이고 있다고 개탄한다. '옷집'보다 의상실이나 드레스 살롱이, '밥집'보다 식당이나 레스토랑이 더 고급스럽게 쓰이는 게 우리말의 현실이다.</p> <p>③ 셰익스피어가 순수한 토박이 영어를 이용해 작품을 쓰면서 달라지기 시작한 것처럼 무조건 외래어를 배격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체성을 가진 뒤에 외국의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p>

3	한겨레	2001.04.19.	재미로 하는 우리말 죽이기	<p>② 아이들은 재미로 열씨미(열심히), 마니(많이), 안뇽(안녕), 쌤(선생님) 등의 말을 사용한다. 대중매체인 텔레비전 광고에도 '추카추카'라는 말이 사용되고, 학교에서는 논술문 등에 그런 말을 쓰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또한 외래어 남용도 마찬가지다. 미용실, 옷가게, 음식점, 빵집 등 외래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마치 장사가 망하거나 하는 것처럼 하나같이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중국어 투성이다.</p> <p>③ 파괴되는 인터넷상의 언어,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에 대해 모두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누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바른 언어생활을 꼭 지켜야 할 기초질서로 생각해야 한다.</p>
4	한겨레	2001.05.31.	탐라 언어식민 그림자	<p>② 최근 불거진 제주도 영어 공용화 운운 역시 미국 용역회사의 발상을 빌린 치졸하고 허황되며 반민족적인 공염불이 아닐 수 없다. 제주도를 국제 자유도시로 하여 외국인자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아울러 영어를 공용어로 삼겠다는 것이다.</p> <p>③ 영어 공용화는 불가하며, 영어 교육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업무상, 직업상 영어가 꼭 필요한 이들에게 영어 구사 능력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하고, 정부와 당국은 이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p>
5	한겨레	2001.09.10.	평소 쓰는 거친 말로 교실서 역할극.글쓰기 . 언어습관 반성 계기로	<p>② 전남 영암의 신북중학교는 지난 2년 동안 1.2학년울 대상으로 '욕설 역할극'을 했다. 아이들이 평소에 쓰는 거친 말을 직접 대본으로 쓰게 하고 연극을 통해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언어습관을 들여다보고 반성하게 한 것이다.</p> <p>① 아이들의 올바른 언어습관을 위해 (우리말 우리글)이란 책을 펴낸 전국 국어 교과 모임은 "아이들의 언어 사용 실태를 알아보고 바람직한 언어생활을 이끌어내는 수업을 생각중"이라고 말했다.</p> <p>③ 가정,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대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이들을 지도하는 게 파급효과가 크다. 사회가 아이들의 언어생활에 대해 관심을 보여야 한다.</p>
6	한겨레	2001.10.09.	한글은 고급 수출상품	<p>② 모든 정신문화의 뿌리인 언어를 접하게 되면 절로 두 나라 간의 문화가 이해된다. 똑같은 한족 중국인들인데도 한국어과 학생들은 대체로 예의가 바르다는 소리를 듣는다. 중국어에는 거의 없는 한국어의 독특한 존칭어미 때문에 절로 친절한 태도를 갖추게 된다.</p> <p>③ 독특한 우리말을 이제는 국제무대에서 가장 개성 있는 문화상품으로 어떤 수출품보다도 화려하게 홍보해 보급하자. 이제 일방적으로 배우려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르치자.</p>

7	한겨레	2002.01.28.	어른들이 가르치는 '나쁜 언어'	<p>② 한국인의 국어점수가 낮은 것은 청소년의 문제만이 아니다. 언어파괴 현상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언론이다. 특히 방송이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데, 공영방송은 7시 뉴스의 이름을 '뉴스 세븐'이라고 지어버린다. 신문은 한자 대신 영어를 섞어 쓴다. 우리말의 주인이 한자에서 영어로 바뀐 형국이다. '기간산업'이 '인프라'로 바뀌고, '정보기술'은 'IT'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KBS, MBC 등을 섞어 쓰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운다.</p> <p>③ 바른 우리말글을 위해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도 올바른 언어생활을 해야 한다.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며, 특히 방송과 신문의 구실이 중요하다.</p>
8	한겨레	2002.05.15.	지도층 출신수범을	<p>② 국민에게 국어 사랑을 외치면서도 위정자나 지도층은 비속어, 사투리, 잘못된 말들을 예사로 쓰고, 외국어를 남용함으로써 국어를 훼손하여 왔다. 각 부문에서 진행된 지도층의 국어 파괴와 훼손 관행이 이제는 인터넷이나 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퍼짐으로써 청소년들을 포함한 상당수 국민들이 국어 파괴에서 쾌감과 신선감을 느끼는 지경에 이르렀다.</p> <p>③ 지도층 인사들이 이제까지의 잘못된 언어생활을 되돌아보고, 바르고 품위 있는 말글을 쓰는 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 지도층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법제화한 '한국어 진흥법' 같은 것을 만들어 우리말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p>
9	한겨레	2002.05.15.	잡탕말 '대홍수' 물먹은 한글	<p>③ 우리말글 쓰기 10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말글의 질을 높이고 세계화하는 데 힘을 쏟을 때이다.</p> <p>② 통신 언어를 보면, '안녕하세요'는 '안나때요, 안나쌌'처럼 멋대로 쓰고 있다. 아직도 상당수 정부 보고서 등에서는 한자, 영어를 뒤섞어 쓰고 있다. 가수 이름, 노래 제목,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도 비속어, 신조어, 외국어 등이 많이 쓰이고 있다.</p> <p>① 건국대 조오현 교수(국어학)는 통신 언어의 실태를 분석하면서 "새말 생성, 의미 확장이다 화자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의사 불통에다 왜곡된 통신 언어를 분별없이 쓰다 보면 가뜩이나 부족한 맞춤법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식을 더욱 떨어뜨린다"는 점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꼽았다.</p>
10	한겨레	2002.05.21.	외래어와 외국어	<p>② "야구팬 여러분.", "팩스를 보내 주십시오"와 같은 말에서 '팬', '팩스'의 'P'을 [f]로 내는 때가 있다. 'P'은 두 입술을 붙였다가 떼면서 내는 소리고, [f]는 아랫니를 윗입술에 마찰시키며 내는 소리다. 영어에는 [f] 발음이 있지만 우리말에는 없다. 따라서 '팬'의 'P'을 [f]로 발음해야 할 이유가 없다.</p> <p>③ 외국어인 '영어'와 '영어에서 온 외래어'는 구별해야 한다. 외래어를 쓰는 데도 일정한 규칙과 관행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p>

11	한겨레	2002.07.02.	우리말 회사이름 ‘영문 창씨개명’ 말라	<p>② 한국통신은 ‘KT’, 포항제철도 ‘POSCO’란 이름으로 바꿨다. 서울은행은 ‘서울은행’이란 한글 글씨는 조그맣게 쓰고 ‘SEOUL BANK’란 글자를 크게 쓴 간판으로 바뀌 달았다. 현대전자도 이름을 ‘하이닉스’로 바꿨다. 두 회사는 이름난 세계기업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울었다.</p> <p>③ 본래 이름을 되찾고 고객과 직원들을 더 위하라. 그리고 제품과 경영 개선으로 회사를 튼튼히 하고 신용을 얻어라.</p>
12	한겨레	2002.07.25.	영어 때문에 허둥대는 정부 한심하다	<p>② 지난 16일 대통령이 주재한 민·관 합동 ‘포스트 월드컵 종합대책’ 보고회에서 “올 하반기에 경제특구로 지정될 제주도, 김포, 영종·무의·용유도, 송도, 부산 광양만 배후 등 지역에서 한국어와 함께 영어를 공용어로 인정해 상용화하기로 했다”고 여러 신문이 크게 보도했다. 문화관광부만 빼고 다른 부처와 관계자들은 영어 공용에 찬성하는 듯하다.</p> <p>③ 영어 공용화나 상용화를 반대한다.</p>
13	한겨레	2002.07.27.	경제특구 영어 상용화의 위험 /모든 공문서는 한국어와 한글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p>②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과 시행령’에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그대로 공문서로 정부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는 듯한 표현이 보이는 점, 법률에는 대충 규정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에 포괄 위임하고 있는 점 등 문제가 적지 않다. 모호한 법은 악용되게 마련이다. 무엇보다 특별법 제19조에 “...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문제다.</p> <p>③ 모든 공문서는 한글과 한국어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지금처럼 공문서 제출 단계에서 한국어로 번역해 제출하게 하고, 정부는 번역과정을 지원해주는 데 그쳐야 한다.</p>
14	한겨레	2002.09.17.	우리말의 중요성 깨달아야 한다	<p>② 요즘엔 ‘영어만 잘하면 성공한다’고 믿어선지 국외 어학연수자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초등학생이 되기도 전에 영어를 배우러 조기 국외연수를 떠난다. 반면 제7차 교육 과정 중학교 1·2학년 국어 교과서에 맞춤법 잘못과 오타자, 표현 잘못 등이 무려 1000여개나 있다.</p> <p>③ 국어 교육을 더욱 철저하고 정확히 해야 한다. 우리말 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올바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p>
15	한겨레	2002.10.10.	‘한글사랑’ 말이 아닌 실천을	<p>② 신문과 방송에서는 외래어와 은어, 비어, 속어 등을 사용하고 있다. 정치인은 앞장서 언어폭력을 해대고, 인터넷 이용자의 사이버 언어폭력으로 국적 불명의 글들이 판을 치고 있다.</p> <p>③ 언어폭력을 자제하고 한글 사랑하기와 바른 말 고운 말 지키기 등 언어 정화 캠페인을 펼쳐나가야 하겠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주축이 되어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말 정확히 쓰기 운동을 펼치고, 당국 역시 아름다운 우리말을 보호하고 가꾸어 나가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p>

16	한겨레	2002.10.22.	‘한글’은 글자다	<p>② ‘한글’이란 말을 너무 폭넓게 쓰는 사례가 많았다. 한글 이름, ‘한글학교’, ‘한글 파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p> <p>③ 글자와 말은 구별해야한다. 한글이름은 고유어이름, 한글학교는 한국어학교, 한글파괴는 우리말파괴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말이다.</p>
17	한겨레	2002.12.03.	세계화와 기업이름	<p>② 지난 몇 해 동안 여러 기업이 우리말 이름을 아예 버리고 로마자·영어 이름만 쓰는 조치를 감행했다.</p> <p>③ 우리는 세계화 구호에 떠밀려 우리말, 우리글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성급함과 어리석음을 이제 그만 범해야 하리라고 본다.</p>
18	한겨레	2002.12.16.	한글 기계화	<p>② 공병우 같은 분이 한글 자판과 타자기를 개발·보급하면서 이를 현실로 앞당겼고, 뒤이어 컴퓨터 문서 작성기가 나오고 조합형 코드까지 채택하게 하는 바탕을 만들었다. 이제 초중학생들도 글틀로 공부하니, ‘글씨 쓰는 법’을 잊어버릴까 걱정스럽고, 그런 점에서 글쓰기의 기계화는 100%에 가깝다.</p> <p>③ 우리말글로 된 쓸모 있는 자료를 모조리 전산화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나 재단, 기업에서도 당장의 돈벌이가 아닌, 나라 힘을 기른다는 굳센 생각으로 소리 없이 지원하고 챙겨야 한다.</p>
19	한겨레	2003.01.06.	영어열풍에 밀리는 우리말	<p>② 지금 우리나라의 영어열풍은 참 대단하다. 국어는 못해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영어를 못하면 웬만한 직장에도 취직할 수 없다. 이처럼 영어 열풍이 강하니 미국에서는 거지로 살던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선생님 소리를 듣고 있다. 모국어밖에 할 줄 모른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현실에 기가 막힐 뿐이다.</p> <p>③ 우리말은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지켜야 하는 것이다.</p>
20	한겨레	2003.01.10.	풀어쓰기	<p>① 언어학자들은 풀어쓰기의 장점을 ‘소리나는 이치와 일치하고, 쓰기와 박기(인쇄)와 읽기가 쉽고, 맞춤법을 매우 간편하게 줄이며, 온 세계 수백종 글자가 풀어쓰기로 된 점’을 든다.</p> <p>② 지금의 ‘모아쓰기’는 자모를 네모 안에 모아써서 사용자들이 눈에 익어 있고, 음절 단위로 구별이 돼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꼭 풀어쓰기를 못할 만큼 굳어진 것은 아니다.</p> <p>③ 한국어의 자율적 발달, 효과적 전산기 활용, 우리말의 정밀한 연구·분석, 다양한 글씨체 개발 등을 위해 풀어쓰기를 해야 한다</p>
21	한겨레	2003.04.17.	국어기본법안의 세가지 문제점	<p>② ‘국어기본법’ 제7장 부칙에서 두드러지는 조항은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에서는 공문서의 한자병용을 허용하고, 외국기업은 외국어로의 작성을 허용한다.</p> <p>③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폐지하려 하는 법안은 먼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p>

22	한겨레	2003.07.22.	역양 중심 표준어로	<p>② 표준어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서울말'이다. 그런데 행정수도 이전이 완료되었을 때 여전히 서울말이 표준어나 하는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아예 표준어 존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p> <p>③ 표준어는 반드시 필요하고 행정수도가 건설되더라도 변함없이 서울말이 표준어라야 한다. 널리 쓰이는 말이라면 대폭 표준어로 인정해 줄 일이며, 표준어나 아니냐의 구별은 오히려 역양에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다.</p>
23	한겨레	2003.09.03.	국어와 한국어	<p>② '국어'를 버리고 '한국어'를 쓰자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p> <p>③ '국어'를 언제 어떤 경우에는 '한국어'로 바꾸어 써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치다. 다른 언어를 의식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한국어'라고 쓰고 그럴 필요가 없을 때는 '국어'라고 쓸 일이다.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쓸 일이지 어느 하나만을 고집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p>
24	한겨레	2003.10.09.	우울한 한글날	<p>② 언론에서의 영어 남용, 영어를 공용어로 만들자는 움직임, 어린아이들의 영어교육열 등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다.</p> <p>① 19세기 영국의 시인 존 클레어는 '글을 쓰는 잉크 속에 영혼이 숨어 있다'고 했고, 오스트레일리아의 풍유 작가인 칼 크라우스는 '언어는 사교의 어머니'라고 불렀다.</p> <p>③ 무분별한 외국어의 남용은 천박한 과시욕 또는 속물근성의 발로로 이제는 버려야 할 유산이다.</p>
25	한겨레	2003.10.14.	한자가 죽어야 한글이 사는가?	<p>② 지금 학교에서는 교육용 한자 1800자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이 짜여 있지 않다. 중학교에서는 선택과목으로 밀려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고교 이과에서는 한자를 배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p> <p>③ 한글전용의 전제로 한자 교육 또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글과 한자가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하고 영어와 라틴어의 관계처럼 국어와 우리 문화를 살찌우는 동반자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p>
26	한겨레	2003.11.04.	방송 '외국어'	<p>② 방송 제목에 '외국어'가 침투해 우리말 프로그램 제목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p> <p>③ 방송 프로그램 이름은 신중하게 지어야 할 것이다.</p>
27	한겨레	2003.11.11.	새 한자말	<p>② '반성기', '실거래가(값), 비거주자' 등 실제 언어생활에는 널리 쓰이지만 아직 사전에 오르지 않은 말이 술하게 많다.</p> <p>③ 새로 생겨나고 있는 한자말들은 우리말 자산의 일부이므로 국어사전에도 빠짐없이 수록해야 함은 물론이다.</p>

28	한겨레	2004.02.23.	찾아써야 할 말들	<p>② 우리말 ‘어긋하다’가 한자말 ‘억울’에 눌러 어긋하게 없어졌다. ‘똥’을 없애, ‘주기’만 쓰도록 해 놓았다. ‘두째 세째 네째’도 없애려 한다. 우리말 ‘망녕’을 허깨비 ‘망령(妄靈)으로, ‘할일’이란 뜻의 ‘역할’이 끊임없이 퍼져나간다. ‘구실’이란 우리말이 사라져 가는데도 바라만 본다.</p> <p>③ 우리말로 도로 찾고, 없어진 우리말들도 찾아내 쓰자.</p>
29	한겨레	2004.03.08.	‘영어병’ 이대로 좋은가	<p>② 우리글도 제대로 깨치지 못한 어린아이들을 무작정 외국으로 보낸다. 심지어 더 좋은 영어발음을 위해 혀의 일부를 절단시키고 구강구조를 바꾸는 성형수술까지 한다.</p> <p>③ 영어열풍은 유행성이라 해도 문제이고 유행성이 아니라 해도 문제이다</p>
30	한겨레	2004.03.22.	우리말 바로쓰기 /맞춤법·표준어 공부와 글쓰기 연습을 함께	<p>② 요즘 아이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다. 또 높임말이나 문장 부호를 바르게 사용하는 데에도 서툰 편이다.</p> <p>③ 어려서부터 한글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일기나 독서 감상문, 편지글 등을 통해 평소의 글 쓰기 습관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한다.</p>
31	한겨레	2004.07.13.	광고 말	<p>② 한 텔레비전 광고를 봤더니, 큼지막한 자동차를 타고 오는 신사에게 ‘당신을 감탄합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다.</p> <p>③ 광고문이라 하더라도 우리말을 그르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p>
32	한겨레	2004.08.19.	법과 한글 지키기	<p>② 버거킹은 영문과 한글을 함께 쓰고, 맥도날드는 한글로만 쓴 간판을 달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은 “간판에 ‘KT, KB’라고 영어만 적고 한글을 병기하지 않은 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p> <p>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13조는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p> <p>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법을 지키고 우리말글을 살리는 일해야 한다.</p>
33	한겨레	2005.02.18.	발음전문 성우도 못 지키면 /장단 음 규정 그자체가 문제	<p>② 한자의 영향을 받은 우리말의 장단고저가 실생활에서 거의 지켜지지 못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발음을 모두 영터리로 몰아가는 규정이 있다면 규정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런 규정에 대해 일부 국어학자 중에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p> <p>① 김 교수도 이전에 우리말의 표준발음법 제3장 ‘음의 길이’는 전 국민 대다수가 지키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p> <p>③ 장단음 구분 발음법을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p>

34	한겨레	2005.05.23.	아이들이 찾은 우리말 이름	<p>②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최근 관용색 이름 42개를 포함해 색 이름 133개를 표준화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인종차별 논란을 빚었던 ‘살색’은 ‘살구색’으로 부르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명칭 변경 권고를 받아들인 결과다. 병아리색(노랑), 수박색(초록), 자두색(진한 빨강)처럼 우리가 흔히 쓰는 색 이름도 공식 사용이 가능해졌다.</p> <p>③ 의미가 퇴색한 구시대적인 용어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더 없는지 점검하여 바로잡아야 한다.</p>
35	한겨레	2005.08.17.	일본말 찌꺼기 바로잡아야	<p>② 날마다 쓰고 있는 말 가운데 일본어가 많다. 광복 이후 교과서 등 온갖 출판물이 일본어로 교육받은 이들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p> <p>③ 더 늦어지기 전에 이런 일본어 찌꺼기들을 바로잡아야 한다.</p>
36	한겨레	2005.08.29.	성기표현, 한자는 근엄하고 우리말은 음란하다고요?	<p>① 어린이 성교육을 연구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생식기 관련 용어를 순수한 우리말로 써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한자로 되어 있는 음경(陰莖), 음순(陰脣)이라는 용어는 그늘진 것, 감추어야 할 것이라는 금기의 뉘앙스를 담고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였다.</p> <p>② 한자 표현은 근엄하고 진지하게, 한글 표현은 저질스럽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분위기에서 성기를 일컫는 말을 순수 우리말로 고집하기엔 성교육의 본질이 왜곡될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에서 성교육 현장에서는 이를 피하고 있다.</p> <p>③ 생식기의 기능을 익혀야 할 때 부분의 명칭을 정확히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우리말로 표현할 때 생기는 사회적 인식의 왜곡 현상을 설명해 준다.</p>
37	한겨레	2005.10.07.	관등성명...촉수엄금...기도비닉... / 군대용어는 여전히 ‘일제시대’	<p>② 도수체조(맨손체조), 지대(의무실), 집총각개, 관등성명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용어들이 공식·비공식으로 사용되고 있다.</p> <p>③ 올바른 우리말 용어 사용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p>
38	한겨레	2005.10.08.	국어기본법 시행 식달 정부서도 ‘왕따’ /공공기관 행사·이름 영어 만발	<p>② 국어기본법은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비롯해 홈페이지 이름, 기관 이름 등을 우리말로 하도록 권하고 있지만 정부 부처 산하기관의 이름, 공공기관에서 펼치는 행사 이름에는 우리말을 쓰지 않는 사례들이 많다.</p> <p>③ 민간단체와 기업에서도 국어기본법을 지키도록 하려면 정부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p>
39	한겨레	2005.10.08.	한글 살리기, 정부부터 나서라	<p>② 국어기본법은 우리 말글 살리기 운동의 알찬 열매이지만, 정부 기관에서는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는 국어기본법 규정을 무시하는 등 횡방꾼 노릇을 하고 있다.</p> <p>③ 정부가 한글을 발전시키고 가다듬을 의식이 있다면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되, 휴일로는 하지 않아도 좋다는 속 깊은 여론에 귀를 열어야 한다.</p>

40	한겨레	2005.12.20.	‘한류우드’는 짝퉁 이름	<p>② 경기도는 며칠 전 ‘한류우드’ 착공식을 하였는데, 한류라는 말 자체도 중국에서 온 말이고, 거기에 뜻도 맞지 않는 영어 접미사 우드를 붙이는 것은 조어법에도 맞지 않으며 스스로 가짜임을 드러내고 있다.</p> <p>③ 관계자들은 품위 있고, 무엇보다 한국임을 나타낼 수 있는 올바른 이름을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의 대중문화에 부여해야 한다.</p>
41	한겨레	2006.01.16.	영어 조기교육	<p>② 어린 학생들이 줄줄이 해외 영어연수나 조기유학을 떠나고, 교육부는 국내 영어 조기교육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를 통해본 바 발음도 완벽하기 힘들고, 학문을 익힐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되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잘하기도 매우 힘들다. 나이가 어리다고 더 잘 배우는 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p> <p>③ 무조건 영어 조기교육, 조기유학만 고집하지 말자.</p>
42	한겨레	2006.05.03.	“5만명 코시안 아이들 / 우리말이라도 가르쳐야”	<p>② 5만~8만 명으로 추정되는 코시안은 국적이 한국이지만 낙오자로 처지고 있다. 어머니와 주로 생활하면서 언어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때인 1~3살에 우리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말이 서툰 아이들은 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범죄자나 조직폭력배 등으로 었나갈 가능성이 높다.</p> <p>③ 나중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수도 있으므로 우리말이라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절실하다</p>
43	한겨레	2006.05.11.	“인터넷 댓글 통한 / 세대소통 노력요”	<p>② 웹 사이트에서 검색할 때 세대별로 찾는 검색어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검색어로 세대 차이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프로그램 제작할 것이다.</p> <p>③ 방송이 국수주의를 자극하거나 올바른 언어를 강요하는 것은 봉건적인 공익주의라고 생각한다. 순우리말을 알자는 것보다는 언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말을 다듬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p>
44	한겨레	2006.05.17.	‘우리말 지킴이’ 나선 항공승무원·라디오DJ	<p>② 승무원들이 기내에서 올바른 언어 예절과 ‘연착’ ‘행선지’ ‘수하물’ 등 방송 오용사례를 직접 소개. 라디오 DJ체이들도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우리말의 잘못된 표현을 예로 들어가며 바른 사용을 권한다.</p> <p>③ 각 분야의 사람들이 직접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더욱더 친근하게 우리말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p>
45	한겨레	2006.10.09.	대한민국 국경일 ‘560돌 한글날’	<p>①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창제할 때, 자주독립을 지키려는 겨레정신과 만백성이 글자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민본정신을 밑바닥에 둔 까닭으로 그 뜻이 아름답고 떳떳하였다.</p> <p>② 지도층 인사들 중 몇몇은 한글만 쓰기를 주저하거나 반대하는가 하면, 영어 공용어를 해야 한다느니, 초등학교에서 로마자와 영어를 가르쳐야 한다느니 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p> <p>③ 우리가 우리말글을 사랑하고 한글만 쓰기로써 정보기기에 한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일은 과학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배달겨레로서의 국민적 의무이다.</p>

46	한겨레	2006.10.09.	정보화 시대에 더욱 빛나는 한글	<p>② 우리 국민은 한글을 삼등 언어로 여긴다. 코스닥 상장사 네 곳 가운데 세 곳은 영어 이름이다. 공중과 방송은 프로그램 제목에 ‘개그夜’ ‘클릭, 세상사’ 따위의 이름을 붙인다. 경기도만 해도 영어마을 두 곳 운영 비로 매년 300억원 가까이 쓴다지만, 국립국어원의 연간 예산은 80억원이다.</p> <p>③ 한글의 잠재력을 실생활 속에 구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글 글꼴을 다양화하고, 미적으로 우수한 한글 디자인을 개발해 각종 상품과 제품 디자인에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법규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공공기관부터 우리 이름을 갖도록 해야 한다. 방송·신문은 우리 말글살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p>
47	한겨레	2006.11.21.	방송의 잘못된 높임말 사용 고쳐야	<p>② 텔레비전은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회의 공기(公器)다. 그러나 각 방송사 프로그램들의 사회자들은 마치 서로 약속이나 한 듯 높임법상의 오류를 범한다. 예컨대 “대형 가수들이 많이 돌아오신다면요” “○○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등이 그것이다. 가수들을 극존칭으로 존대해 수많은 방청객 또는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p> <p>③ 방송사는 인기에 영합하는 사회자 선정을 자제하고, 오락프로그램 진행자들의 소양교육에도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p>
48	한겨레	2007.03.09.	‘매체 언어’ 교육 시기 앞당겨야	<p>① 2012년부터 고등학교 2·3학년 국어 과정에 ‘매체 언어’ 과목이 신설된다.</p> <p>② 고등학교 2·3학년은 18~19살로 대부분 언어 습관이 형성되어 있어, 어렸을 때 언어 습관이 잘못됐을 경우 고치기 쉽지 않다.</p> <p>③ 바른 언어 교육은 상대적으로 대학 입시로부터 자유롭고 아직 언어 습관이 덜 형성된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대상으로 고려하자. 인터넷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미디어에 가장 빠르게 적응할 이들 학생들의 교육을 통해 우리말의 바른 사용과 깨끗한 미디어 환경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p>
49	한겨레	2007.05.28.	국어능력이 경쟁력이다	<p>② 한국교육 과정평가원의 2004년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를 보면,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교과별 우수학력 비율이 국어가 19.6%인 데 반해, 영어는 46.6%나 된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도 국어는 4.1%로 영어 2.3%의 갑절에 가깝다. 아이들이 국어보다 영어를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잘한다는 뜻이다.</p> <p>③ 영어의 기초를 조기에 잡아주는 것도 좋지만 고교 학습까지 고려한다면 초등학교 시절에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부모의 지도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독서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독서모듬을 짜주는 것도 부모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자조합어가 많은 우리말 특성 때문에 한자학습도 적절한 수준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p>

50	한겨레	2007.09.03.	몸통을 흔드는 꼬리, 대학 영어강의	<p>② 글로벌 인재를 키운다며 영어로만 수업하는 국제학부나 국제대학원을 다투어 만든 대학들이 이제는 일반 학부에서까지 영어강의 개설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영어교육을 위한 대학의 노력이 학생들의 전공 실력은 물론 영어 실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p> <p>③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본말이 전도된 영어강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영어강의의 무분별한 확대가 넓게는 한국 사회를 위해, 좁게는 학계의 학문 수준을 위해 바람직하기만 한지 되돌아봐야 한다.</p>
51	한겨레	2007.10.09.	예능프로 ‘자막’ 속 우리말은 상처투성이	<p>② 지나치게 재미를 쫓다 보면 틀린 맞춤법이 그대로 전파를 타는 등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지피지기> ‘바라보려구요’(바라보려고요), ‘없더라구요’(없더라고요) 등 출연자의 음성을 단순 전달하는 잘못이 많았다. <야심만만> <놀러와> 는 모두 ‘딴죽 걸다’를 ‘딴지 걸다’로 내보내 언어 사용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무한도전> ‘크 크 크’, ‘청순 미소녀’처럼 인터넷상의 언어를 그대로 내보내는 경우도 도드라진다.</p> <p>③ 올바른 우리말로 자막을 만들려는 제작진의 노력이 필요하다.</p>
52	한겨레	2007.10.25.	한국어가 문제다	<p>② 학교 방침으로 한국 학생들에게 영어로 강의를 진행하는 수업이 늘고 있다. 내국인을 위한 외국어 강의라는, 주객이 전도된 방식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은 우스꽝스럽다. 외국인 처지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문어’와 ‘구어’의 불일치, 언어의 맥락과 뉘앙스에 대한 인식의 어려움,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의 부재에서 오는 이해의 한계일 것이다. 한국 학생들이 영어로 강의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다.</p> <p>③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외국어를 학습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먼저 한국어 활용 능력에 대한 교육과 검증이 필요하다.</p>
53	한겨레	2007.12.26.	한국어 교육, 전문성 됐다 뭐하나	<p>② 법무부가 2008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사회통합 교육은 ‘재한외국인 치우기본법’에 따라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와 문화 교육을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외국인 한국어 교육이 제자리를 잡으려면 교재개발, 교수기법, 능력 있는 강사 양성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은데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p> <p>③ 국어 교육의 목표는 수요자, 곧 한국인이 되려 하거나 한국에 오래 거주하려는 외국인에게 맞춰야지 공급자의 시각과 이해관계에 맞춰서는 안된다. 사회통합 교육에는 수요자 편의를 고려한 이주민 가정 방문교육 방식이 도입돼야 하며 수강자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도 개발해야 한다.</p>

54	한겨레	2008.01.26.	'몰입교육' 영어가 공용어인 나라에서 시행	<p>① 영어 몰입교육=일반 정규 과목의 수업을 영어로 진행해 학습자가 과목 내용과 영어를 동시에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다.</p> <p>② 현재 우리나라 일부 사립초등학교와 특수목적고 등이 일부 과목의 영어 몰입 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가 적고 원어민 교사가 함께 수업을 보조하는 등 여건이 여느 학교와는 다르다. 학부모들은 물론 비싼 학비를 감당해야 한다. 한국어가 확고한 공용어로 쓰이고 영어는 외국어로 활용되는 우리 사회에서, 영어 몰입 교육 방식 자체가 적절하나 하는 점에서 회의적이다.</p>
55	한겨레	2008.02.06.	'오렌지'면 영어발음 문제 해결되 나?	<p>② '패션'을 '훼션'으로, '티쳐'를 '티취'로, '뽕큐'를 '생큐'로 우리말 표기법을 바꾸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영어 발음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런 한글 표기법과 영어 발음과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알파벳으로 구성된 영어에서 발음 원천은 다름 아닌 '영어 발음기호'다. 미국인이 발화하는 각각의 영어 발음기호를 얼마나 유사하게 익혔느냐에 따라 영어 발음의 좋고 나쁨이 판가름 나는 것이다.</p> <p>③ 대한민국의 영어 발음 교육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p>
56	한겨레	2008.02.26.	'단친'·'생과' 무슨 뜻인지 아셈?	<p>② 이동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보면 줄임말을 꼭 써야 될 때가 많다. 즉시 대답을 보내야 할 때, 다 쓰면 느리다. 그리고 할 말이 많을 때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없으니까 말을 줄일 수밖에 없다</p> <p>③ 아이들 문자메시지를 보면 문법도 말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문자메시지의 특성상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과 글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담고 있는 것인데 깊이 없는, 생각 없는 아이들로 자라지 않도록 하려면 줄임말에 노출되기 전에 미리미리 국어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p>
57	한겨레	2009.12.21.	통역과 우리말	<p>② 대학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모국어 수준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음. '조기유학'으로 대변되는 영어 중시 풍조가 우리 자식들의 말과 사고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p> <p>③ 한국어를 유엔 공용어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선 우리가 우리말을 더 사랑하고 우리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p>
58	한겨레	2010.01.09.	영어강의도 사회문제다	<p>② 몇 년 전부터, 이름 있는 대학들이 앞 다투어 영어강의의 비율을 높이고 있고, 학교 밖에서도 그 비율로 대학을 평가하려는 풍조가 나타났다. 염려해야 할 것은 학문 활동과 우리말의 관계이다. 말은 정리와 전달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생각과 지식을 발견하고 만들어낸다. 생각이 발전하고 지식이 쌓이면 말도 발전한다. 하지만 강의와 논문을 외국어에 의지하게 되면 이러한 발전은 중단될 것이다.</p> <p>③ 모국어적 직관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영어 강의 비율을 높이는 것을 재고하자.</p>

59	한겨레	2010.10.07.	“남의 말 아닌 우리말로 학문합시다”	<p>㉔ 남의 말로 할 때에는 흐릿하던 생각이, 우리말로 할 때에는 뚜렷해지기 마련이며 ‘배울 학’(學)을 사례로 든다. ‘배우다’라는 말이 ‘배다’(스며들다, 버릇이 되어 익숙해지다)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따진 뒤에야, 학문·학습 등 추상적이기만 한 한자어의 뜻을 제대로 새길 수 있다. 또 우리말은 독창적인 생각을 다듬게 한다.</p> <p>㉕ 독창적인 우리말인 ‘화병’이 서양 의학계의 관심을 모았던 것처럼, 우리말에 바탕을 둔 생각들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말 강조를 국수주의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말을 통해 누군 위해 어떤 학문을 할지 돌아보자는 얘기다.</p>
60	한겨레	2011.03.26.	영어 망국병은 병이 아니라 사기다	<p>㉔ 지난 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0년에 영어 사교육비로 7조원이 쓰였다. 이는 전체 사교육비(21조원)의 3분의 1이다. 학원이다, 국제중이다, 연수다 해서 어린 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직장인까지 영어에 광기 어린 투자를 하고 있다.</p> <p>㉕ 한국 사회는 성공하려면 무조건 영어를 하라고 강요하지만, 영어의 문제는 계급과 정치의 문제가 된 지 오래고, 답도 그곳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p>

참고 문헌

- 단행본과 논문

- 강기수 외(2011). 육의 교육인간학적 기능. <석당논총>.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537-579쪽.
- 강연임(2011). 대중가요의 외래어 사용양상과 국어 교육적 개선방안. <인문학연구> 85. 충남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5-31쪽.
- 강호정(2008). 해방기 시에 나타난 외래어와 방언/토속어의 의미 연구 -국어순화 운동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5권.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113-142쪽.
- 김갑년(1999). 독일어에 나타난 육설의 화행론적 고찰. <텍스트언어학> 제7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447-465쪽.
- 김대행(2002). 방송 언어문화의 현황과 대안. <방송 언어 사용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방송위원회.
- 김문오 외(2013). '11년~'12년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김민수(1978). 주시경 저 유인 「소리갈」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3.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79-91쪽.
- 김성배(1977). 우리말의 바른표기와 국어 순화. <정훈> 38. 국방부.
- 김성배(1978). 한글의 우수성과 국어 순화. <정훈> 58. 국방부.
- 김성배(1980). 국어 순화교육의당면과제. <교육문제연구> 1. 동국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 11-35쪽.
- 김세중(2012). 한국의 언어 보존 정책 -역사와 과제-. 세계화 시대의 자국어 진흥 정책. 국립국어원 2012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196-206쪽.
- 김열규(2003). <육>. 사계절.
- 김정수(2009). 공공언어,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공언어 어떻게 할 것인가 학술 자료집>. 국립국어원.
- 김진수(2008). 프랑스의 자국어 수호협회의 역형과 성격: ALF를 중심으로. <프랑스어문교육> 28.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41-260쪽.
- 김태성(2010). 독일의 언어순화운동의 양상. <코기토> 67.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21-254쪽.
- 김형길(2005). 한국인의 관점에서 본 프랑스의 국어 운동. <국어 교육> 117. 한국어 교육학회. 69-92쪽.
- 남기탁 외(1998). <국어와 민족문화>. 청문각.
- 노대규(1996). <한국어의 입말과 글말>. 국학자료원.
- 류성진(2012). 미국의 Plain Writing Act of 2010과 Federal Plain Language Guidelines of 2011에 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제23권 제3호. 사단법인 미국헌법학회. 67-99쪽.

- 민병곤(2013). 고도 전문화 시대의 언어인식과 교육적 대응. <국어 교육학연구> 제46집. 국어 교육학회. 77-110쪽.
- 박건식(2013). 방송 언어의 심의 양상과 인식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인기(2012). '욕설언어현상'에 대한 교육적 문화적 진단과 대안 모색. <화법연구> 20권. 한국화법학회. 101-140쪽.
- 박인환(1994). 보도 용어 순화(신문편). <말과글> 58. 한국교열기자회.
- 박재승(2003). 국어과 교과서의 국어 순화 내용에 대한 연구. <교육연구논총>24권 1호. 충북대학교교육개발연구소 111-127.
- 법제처(2009).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법제처.
- 베네딕트 마디니에(2013). 언어 정책과 프랑스어의 풍부화. <쉬운 언어 정책과 자국어 보호 정책의 만남>(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기념 언어정책 국제회의 자료집). 한글문화연대.
- 서광덕(2006). 욕에 얽힌 중국문화 심리구조에 대한 일고찰 -루쉰의 “타마더”를 논함 細讀. <중국어문학지> 제20집. 중국어문학회. 79-93쪽.
- 송철의(2001). 한국 근대 초기의 어문 운동과 어문 정책. <한국문화> 33.
- 신상일(2002). 방송 언어문화 관련 의식 조사 - 방송관계자와 시청취자를 대상으로. 방송위원회.
- 심영택(2013). 비판적 언어인식 교육 방법 연구. <국어 교육학연구> 제46집. 국어 교육학회. 45-76쪽.
- 에바 올롭손(2013). 쉬운 언어와 스웨덴의 언어정책. <쉬운 언어 정책과 자국어 보호 정책의 만남>(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기념 언어정책 국제회의 자료집). 한글문화연대.
- 옥에티(1979). 국어 운동(불꽃2호). 국어 운동대학생연합회 자료1집.
- 유재원(2010). 한국어 논문이 0점을 받는 시대. <한겨레신문> 2010.7.10. 27쪽.
- 이길록(1977). 국어학 연구와 국어 운동의 관계. <나라사랑> 26. 외솔회. 16-25쪽.
- 이동민(2012). 청소년 욕설 사용 실태와 개선 방안. <화법연구> 20. 한국화법학회. 171-204쪽.
- 이석주(1998). 현대 국어 표현 양상: 오용 표현의 일반화 현상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학회지>. 한국어 교육학회. 151-177쪽.
- 이석주·이주행(2007). <한국어학 개론>. 보고서.
- 이시훈(2004). 인터넷 통신언어의 사용 현황과 인식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4-1. 한국지역언론학회. 177-211쪽.
- 이연숙(1996). <국어라는 사상>. 소영출판.
- 이용욱(1976). 언어순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어 순화교육 방안. <교육평론> 212. 교육평론사.
- 이용호(1974). <미군정기의 한글 운동사>. 성청사.
- 이용호(1977). 광복이후의 한글 운동. <나라사랑> 26. 외솔회. 44-52쪽.
- 이익섭(2000). 국어학 개설. 학연사.
- 이인제 외(2009). <공공언어 어떻게 할 것인가 학술 자료집>. 국립국어원.
- 이희승(1947). <조선어학논고>. 을유문화사. 104-105쪽.

- 장경희(2010). 국어 욕설의 본질과 유형. <텍스트언어학> 제29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401-427쪽.
- 장소원 외(2009). <공공언어 어떻게 할 것인가 학술 자료집>. 국립국어원.
- 장후석 외(2010). <공공언어 개선의 정책 효과 분석>. 국립국어원.
- 정재환(2013). 한글의 시대를 열다-해방 후 한글학회 활동 연구-. 경인문화사.
- 조태린(1998). 일제시대 언어 정책과 언어 운동에 관한 연구: 언어관 및 이데올로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태린(2010). 공공언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 방식. <한말연구> 27호. 한말연구학회. 379-405쪽.
- 최현배(1953/1976/1984). <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 정음사.
- 피터 로드니(2013). 쉬운 영어 캠페인의 경험. <쉬운 언어 정책과 자국어 보호 정책의 만남>(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기념 언어정책 국제회의 자료집). 한글문화연대.
- 한길(1991). 국어 순화의 이유와 방법. <강원교육> 135. 강원도교육청.
- 허재영(2002). 어문 정책과 어문 운동의 개념과 대상. <겨레어문학> 29집. 겨레어문학회. 201-223쪽.

-사전과 자료

- 국립국어원(2010). 알기 쉬운 신문 언어 환경 조성.
- 국립국어원(2010). 예문으로 알아보는 보도 자료 바로 쓰기.
- 국립국어원(2010). 공공언어 개선의 정책 효과 분석 1.
- 국립국어원(2010). 공공언어 개선의 정책 효과 분석 2.
- 국립국어원(2010). 한눈에 알아보는 신문 언어 바로 쓰기.
- 국립국어원(2010). 계약서, 약관 등의 국어사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국립국어원(2011). 한눈에 알아보는 신문언어 바로 쓰기.
- 국립국어원(2011). 한눈에 알아보는 오락프로그램 언어 바로 쓰기.
- 국립국어원(2011). 바르고 쉬운 공공언어: 공공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과정 교재.
- 국립국어원(2011). 보도 자료 쓰기 길잡이.
- 국립국어원(2011). 신문과 방송의 언어 사용 실태조사.
- 국립국어원(2011). 청소년을 위한 바른 언어생활 교재 개발.
- 국립국어원(2011). 한눈에 알아보는 보도 자료 바로 쓰기.
- 국립국어원(2011). 한눈에 알아보는 오락 프로그램 언어 바로 쓰기.
- 국립국어원(2012).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
- 국립국어원(2012). 방송의 저품격 언어 사용 실태 조사.
- 국립국어원(2012).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1.
- 국립국어원(2012).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2.
- 교육과학기술부(2010). 국어과 교육 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41호.
- 남영신(2006). <한+국어사전>. 성안당.
- 문교부(1948). <우리말 도로 찾기>. 조선교육도서.

문교부(1977). <국어 순화자료>제1집. 문교부.
문화체육관광부(2010).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위원회(2001ㄱ). <방송심의관련규정>. 방송위원회.
방송위원회(2001ㄴ). <방송프로그램 언어분석 연구>. 방송위원회.
서울대국어 교육연구소(1999). <국어 교육학사전>. (주)대교출판.
연세대언어정보개발연구원편(2005).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참고 자료

- 단행본과 논문

- 강길운(1981). 국어 순화 운동의 방향. 국어 순화 운동의 허와 실. <어문연구> 29호 일조각
- 강길호(2001).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언어 사용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방송 프로그램 언어 분석 연구>. 방송위원회 언어조사부.
- 강대천(1992). 남북 언어 통일·순화 등 어문 정책 기반 마련: 국어연구원 개원 1주년 성과와 전망. 제일경제 0124:12.
- 강동욱(1976). 지속적 언어 정책으로 국어 순화: 국어 순화 교육방안. <교육평론> 212. 교육평론사
- 강동희(2002). '우리말다듬기'와 '국어 순화'를 통한 남북언어 동질성 회복에 대해. <말과 글> 93호 (겨울)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62-65쪽.
- 강신항(1976). 국어 순화의 길:일본어의 잔재와 새로운 일본한자어의 유입. <어문연구> 12호. 일조각
- 강신항(1987.수정증보).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강현숙(2004). TV교양프로그램 진행자의 방송 언어 오용사례 연구: 발음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현철(2011). 법률용어 순화의 실태와 문제점. <새국어생활> 21권 2호(여름). 국립국어원. 99-103쪽.
- 강현화(2011). 전문용어의 국어화. <새국어생활> 21권 2호(여름). 국립국어원.
- 강희숙·양명희(2011). 청소년의 욕설사용의 심리적기제 및 순화방안. <한국언어문학> 79집. 한국언어문학회
- 고길섭(1998). 채팅. 자유의 새로운 영토?. <문화과학> 10호. 문화과학사.
- 고성환(2011). 국어 순화의 역사와 전망. <새국어생활> 21권 2호(여름). 국립국어원. 5-18쪽.
- 고영근(1983/1994). <통일시대의 어문문제>. 길벗.
- 고영근(1990). 한반도 공통어의 성립과 분화. <이중 언어학회지>. 6. 이중 언어학회.
- 고영근(1998). <한국어문 운동과 근대화>. 탑출판사.
- 고영근(2008). 민족어의 수호와 발전. 제이앤씨.
- 고영근(2010). 민족어학의 건설과 발전. 제이앤씨.
- 고영근(2012). 조선어학회 수난과 민족어 수호 운동: 일제강점기의 한글 운동은 국권회복 운동이었다. <새국어생활> 22권 3호. 국립국어원.
- 고창식(1966). 국어 교육과 주체성문제. <교육평론> 92. 교육평론사.
- 고형일(1996). <근대화 정보화 그리고 한국교육>. 교육과학사.
- 고황경(1973). 민족주체성과 국어 순화 운동. <문교월보> 49. 문교부 중앙교육행정연수원.
- 교열기자회 편(1999). 보도 용어 순화 자료집 7 (1999 신문·방송). 한국교열기자회.
- 교육부(2001). 정보 통신 언어의 순화 및 정보 윤리 교육의 학교 교육 활용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교육부.

- 국어 순화추진회(1985). 나라글 사랑과 이해: 국어 순화의 길. 종로서적
- 국어 순화추진회(1989). 우리말순화의 어제와 오늘. 미래문화사
- 국어 순화추진회(1996). 한글과 겨레문화. 과학사.
- 국어연구소(1988). 국어 순화자료집. 국어연구소
- 권상오(1995). 국민학교 저학년의 언어 순화를 위한 지도 방안 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
- 권재선(1994). <바로잡은 한글-국문자론->. 우골탑.
- 권재선(2000). 유희의 <언문지> 고찰. <한헌샘 주시경연구> 13. 37-68쪽.
- 권재일(2003). 국어기본법과 국어생활향상을 위한 제도. <새국어생활> 13권 2호. 국립국어연구원.
- 권혁채(1995). 국어 산책-국어 순화-. <새국어생활> 5-4. 국립국어연구원.
- 권혁채(1995). 국어 순화. <새국어생활> 5권 4호. 국립국어연구원. 183-189쪽.
- 김갑수(2003). 국어 정책과 국어기본법의 방향: 국어기본법 제지와 시안의 열개. <새국어생활> 13권 제2호. 국립국어연구원.
- 김경석(1995). <컴퓨터 속의 한글이야기>. 영진출판사.
- 김경한(1977). 국어 순화 630단어에 대한 검토. <어문연구> 15·16호 일조각 125-139쪽.
- 김경한(1981). 국어 순화에 대한 관견. <어문연구> 29호. 일조각
- 김계곤(1994). 우리말·글은 우리얼을 담는 그릇이니. 어문각
- 김광해(1991). 훈민정음과 불교. <인문학보> 12. 강릉대 인문과학연구소.
- 김광해외(1999). <국어지식탐구-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학개론>. 박이정.
- 김기택(2000). 방송 언어의 오용 실태와 언어교육: 음운과 어휘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언외(1988). 국어 순화의바른길<좌담>. <국어생활> 14. 국어연구소.
- 김동진(2010). <파란눈의 한국혼 헬버트>. 참좋은친구.
- 김문오(2001). 국어 순화: 법령문의 순화(1). <새국어소식> 37. 한국어세계화재단·국립국어연구원.
- 김문오(2001). 국어 순화: 법령문의 순화(2). <새국어소식> 38. 한국어세계화재단·국립국어연구원.
- 김문오(2001). 국어 순화: 법령문의 순화(3). <새국어소식> 39. 한국어세계화재단·국립국어연구원.
- 김문오(2001). 국어 순화: 법령문의 순화(4). <새국어소식> 40. 한국어세계화재단·국립국어연구원.
- 김문오(2001). 국어 순화: 법령문의 순화(5). <새국어소식> 41. 한국어세계화재단·국립국어연구원.
- 김문창(1998). 외래어 표기와 언어 순화. 어문회보 26. 한국어문회.
- 김민수(1973/1984). <국어 정책론>. 탑출판사.
- 김민수(1988). 국어 순화의 현실과 전망. <국어생활> 14. 국어연구소
- 김민수(1988). 국어 순화의현실과전망. 국어생활. 14('88.9) 국어연구소
- 김병국(2001). <서포 김만중의 생애와 문학>.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병만(1976). 국어 순화 운동의필요성. 전남교육. 74('76.8) 전남교육사

- 김병제(1946). 한글 운동의 새과제. <한글> 11권 2호. 한글학회.
- 김상규 외(2010). 방송 언어 오남용 실태개선을 위한 모범적 방송사례발굴과 제안. 방송문화진흥회.
- 김상준(2002). 방송 언어 연구: 해방 이후의 보도언어 변천 과정. <방송 21>. 방송위원회.
- 김상현(1996). 인터넷 영어 독점을 깨라. <NEWS+>. 7.18. 동아일보사.
- 김석득(1983). <우리말 연구사>. 정음문화사.
- 김석득(2009). <(개정판) 우리말 연구사>. 태학사.
- 김석향(2005). 북한의 우리말 다듬기 어떻게 보아야하는가?. <새국어생활>. 제15권 제1호 (2005. 봄) 국립국어원 59-74쪽.
- 김선기(1977). 국어 운동 한글학회의 발자취. <나라사랑> 26. 외솔회.
- 김선철(2009). 국어 순화의 개념과 방향 설정에 대하여. <사회언어학> 17권 2호. 한국사회언어학회. 1-23쪽.
- 김성대(1977). 국어 운동과 사전의 문제. <나라사랑> 26. 외솔회.
- 김성배(1976). 국어 교육과 주체성교육: 국어의 현실과 순화방안. <교육평론> 211. 교육평론사.
- 김성배(1977). 우리말의바른표기와국어 순화. 정훈 38('77.2) 국방부정훈국
- 김성배(1978). 한글의우수성과국어 순화. 정훈 58('78.10) 국방부
- 김성배(1980). 국어 순화교육의당면과제. 교육문제연구. 1('80.12) 동국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 11-35쪽.
- 김성배(1981). 국어 순화교육의 현황과 진단. <수도교육> 66.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 김성배(1981). 어문 정책과 국어 순화 운동. <나라사랑> 38. 외솔회. 14-36쪽.
- 김세중(2012). 공공언어의 현실과 과제. <법제시론>. 법제처 누리집.
- 김세한(1974). <주시경전>. 정음사.
- 김수엽(2000). <국어 교육의 길>. 나라말.
- 김수열(2005). '국어'의 뜻넓이와 유래. <자하어문논집> 19집. 상명어문학회.
- 김슬옹(1992). 정보화 시대에서의 한글 운동의 방향. <한글새소식> 236호(4월호). 한글학회.
- 김슬옹(1996ㄱ). 한국인의 훈민정음과 삼성전자의 훈민정음. <함께여는 국어 교육> 29호 (여름호). 전국국어교사모임.
- 김슬옹(1996ㄴ). 우리말 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 3년 결산. <등불> 10호. 국어정보학회.
- 김슬옹(2005). <조선시대 언문의 제도적 사용 연구>. 한국문화사.
- 김슬옹(2006). 고종의 국문에 관한 공문식 칙령 반포의 국어사적 의미. 우리글에 스민 외래. 번역 말투(한겨레말글연구소 2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한겨레말글연구소 (www.hanmalgal.org). 33-54.
- 김슬옹(2008). 외래어표기법의 된소리 표기 허용에 대한 맥락 잡기. <새국어생활> 18권 4호(겨울호). 국립국어원.
- 김슬옹(2009). <답론학과 언어분석-맥락·답론·의미->. 한국학술정보(주).
- 김슬옹(2010). 세종의 '훈민정음' 관점으로 본 외솔의 한글 운동론- 외솔의 한글 운동은 정음운동이다. -. <나라사랑> 118집. 외솔회. 152-172쪽.
- 김슬옹(2010가). <세종대왕과 훈민정음학>. 지식산업사.

- 김슬옹(2010나). 국어 교육 내용으로서의 ‘맥락’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슬옹(2012). <조선시대의 훈민정음 발달사>. 역락.
- 김슬옹(2012). 조선시대의 훈민정음 공식문자론. <한글> 297. 한글학회. 205-234쪽.
- 김승호(1993). 국어 순화의 새 모습과 생각할 점. <말과글> 54. 한국교열기자회.
- 김시정(2011). 국어 의식의 향상을 위한 국어 교육의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진(1999). 일제하 한글 보급운동의 전개 양상. <순국> 101. 순국선열유족회.
- 김연주(2009). 방송 언어의 오용 사례 개선 방안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열규(2003). 욕. 사계절.
- 김영환(1995). 말다듬기. 무엇이 문제인가. <말과글> 63. 한국교열기자회.
- 김영환(2000). 한글만 쓰기 운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말과 글> 84. 한국교열기자협회.
- 김영환(2007). 한글 사랑 운동의 역사적 성격과 그 앞날. <한글> 276호. 한글학회.
- 김영환(2008). 한글 사랑운동과 한자 교육은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민현식님의 ‘교과서 개발자들에게 드리는 긴급제언’에 대한 반론. <말과 글> 117호. 한국 어문교열기자협회.
- 김영환(1978). <조선민족어발전력사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영희(1976). 중학교 국어 순화 운동의 실제. <어문연구> 12호. 일조각
- 김완진(1972). 세종대의 어문 정책에 대한 연구. <성곡논총> 3. 성곡학술재단. 185-215쪽..
- 김완진(1983). 한국어 문체의 발달. <한국어문의 제문제(이기문 외 공저)>. 일지사. 229-254쪽.
- 김우석(1991). 일본어투 행정 용어 고친다 / 문화부 ‘행정 용어 순화위’ 설치 운영. 중앙 0805:157.
- 김우창(1976). 말의 깊이와 넓이: 국어 순화 운동에 대한 몇 가지 생각: 국어 문제를 생각한 다<특집> <신동아> 145. 동아일보사.
- 김유나(1999). 재한일본인의 언어생활: 한국어의 의식과 습득을 중심으로. <일본학보:한국> 43. 한국일본학회.
- 김윤경(1938). <조선문자급어학사>. 경성: 조선기념도서출판관.
- 김윤경(1985). <한결 김윤경전집 5: 한글 운동 그 밖>. 연세대학교 출판부
- 김윤현(2006). 우리시대 한글 지킴이: 한글학회 선도...90년대후 시민이 주도:국어 순화연구소 이수열 소장·작고한 이오덕 헌신.으뜸 지킴이는 ‘백성’. <주간한국> 2143호. 한국일보사.
- 김인선(1991). 갑오경장 전후 개화파의 한글 사용: 독립신문에서의 한글 전용 배경. <주시경학보> 8. 주시경연구소.
- 김인선(1994). 갑오경장 전후의 국문 사용 논쟁: 그 논의를 시작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새국어생활> 4-4. 국립국어연구원.
- 김인선(1999). 개화기 이승만의 한글 운동 연구. 연세대 대학원 국학협동과정 박사학위 논문.
- 김인호(2005). 조선인민의 글자생활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인화(1992). 정서 순화와 발표력 신장을 위한 독서 지도 방안. <봉죽헌박봉배선생정년기념논문집>. 교학사.

- 김일근(1986). 政法文書の 한글 實用攷-한글 古文書學 序說. <諺簡의 研究: 한글書簡의 研究와 資料集成>. 건국대학교 출판부. 306-332쪽.
- 김일환(1976). 국교생의 국어 순화 방안: 학교에서의 국어 순화교육. <교육평론> 213. 교육평론사.
- 김재순(1995). 일제의 공문서 제도 장악과 운용의 실제. <한국문화> 16.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원.
- 김정수(1990). <한글의 역사와 미래>. 열화당.
- 김종균(1984). 국어 순화와 외래문화의 수용. 국회보. 216('84.10) 국회사무처
- 김종택(1976). 현대 국어의 제반 병리와 그 치유: 국어 순화와 언어교육. <교대춘추> 10. 대구교육대학.
- 김종택(1976). 현대 국어의 제반병리와 그 치유: 국어 순화와 언어 교육 <특집>. 교대춘추. 10('76.12) 대구교육대학.
- 김종택(1985). 한글은 문자 구실을 어떻게 해왔다. <건국어문학> 9·10합집(覓南 金一根 博士 華甲紀念 語文學論叢)>. 형설출판사. 859-868쪽.
- 김주필(2007). 19世紀末 國漢文의 性格과 意味. <震檀學報> 103호. 震檀學會. 193-218쪽.
- 김지우(2004). 방송 언어에 나타난 오용 사례와 개선 방안.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김진호(1982). 국어 순화의 필요성과 그 방법. 부산교육. 219('82.3)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
- 김창근(1980). 특활 국어 순화반 지도의 실제 .특별 활동과 여가 선용<특집>. 부산교육. 210('80.7) 부산시 교육위원회.
- 김창근(1982). 국어 순화는 애국운동의 지름길. <부산교육> 219.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
- 김창섭(1991). 북한의 '말다듬기' 이론과 '다듬은 말'. <주시경학보> 7. 주시경연구소.
- 김춘희(2002). 국어 순화를 위한 통신 언어연구. 순천향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경. 장경희. 김정선. 이삼형. 이필영. 전은진(2012). 청소년의 비속어·욕설·은어·유행어 사용 실태와 언어의식 연구. <국제어문> 54집. 국제어문학회.
- 김하수(2005). 국어 순화의 문제점과 극복의 길. <새국어생활> 15권 1호. 국립국어원. 19-35쪽.
- 김하수(2011). 국어 순화의 비판적 대안. <새국어생활> 21권 2호. 국립국어원 123-136쪽.
- 김한용(1992). 국어 순화를 통한 국민성활성화방안.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해성(1973). 한국어 순화 운동의 한 고찰: 서울시 외래어 간판조사를 중심으로. <새교육>. 25.7('73.7) 대한교육연합회
- 김현(1977). 한글 운동의 문학적 의미. <나라사랑> 26. 외솔회.
- 김혜숙(1995). 성봉 김성배 박사의 '국어 교육'-한글 전용과 국어 순화에 대하여-. <동국어문학> 7. 동국대. 1-14쪽.
- 김효경(2010). 국어 순화 방안 연구: 고등학교 국어과 교과서 속 일본어투 문장표현을 중심으로. 충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미수 외(2011). 방송프로그램 언어 건전성 평가지수 개발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남광우(1976). 국어 순화 운동의 실천 방안. <어문연구> 13호 일조각
- 남광우(1977). 국어 순화 운동의 실천 방안. <민족문화연구> 11.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 남광우외(1977). 국어 순화의 구체적 실천 방안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소논문집> 3. 인하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 남궁세만(1992). 외래어 남용의 실태와 국어 순화지도 방안. <연구월보> 235. 전라북도교육연구원
- 남영신(2000). 국어 순화 정책 방향 모색. <21세기의 국어 정책>. 국립국어연구원 · 한국어문진흥회.
- 남영신(2011). 국어에 ‘통 큰’ 투자를!. <한겨레신문> 2011.6.18. 25쪽.
- 남택승(2011). 국어 의식 향상 방안 연구: 외래어·외국어 사용문제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풍현(1996). 언어와 문자. <조선시대 생활사>(한국고문서학회 엮음). 역사비평사.
- 노대규(1990). 국어 순화에 대한 연구. <매지론총> 7-인문사회과학편 연세대학교 매지학술연구소. 1-59쪽.
- 논산문화원(1995). 일본어투 생활 용어 순화집. 논산문화원.
- 니콜라스 네그로폰테/백옥인(1995). <디지털이다>. 박영출판사.
- 대법원(1997). 민사소송법의 순화 연구. 연구 보고서.
- 동아일보(1925). 한글 운동의 의의와 사명(사설). <동아일보> 1925.10.27.-28.
- 류렬(1992). <조선말력사 1·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류정렬·배운덕(1976). 국어 순화 운동에 관한 소고. 실천 방안의 제시. <연구논문집> 9. 성신인문과학연구소.
- 리의도(2007). 무돌 김선기선생의 한글 운동과 말글정책론연구. <한국학논집> 42집. 한양대학교출판부.
- 리하준(1992). 항일기 야학운동과 국어 교육에 관한연구. <세명논총> 1. 세명대학교.
- 마크 포스터/김성기 옮김(1994). <뉴미디어의 철학>. 민음사.
- 민기(1976). 언어와 언론: 매스컴이 오락을 좌우한다. 국어 순화와 언론계<특집>. <신문과 방송> 72호. 한국신문연구소.
- 민병곤(2013). 고도 전문화 시대의 언어인식과 교육적 대응. <국어 교육학연구> 제46집. 국어 교육학회. 77-110쪽.
- 민현식(1996). 불링 경기 용어 순화 연구. 운동 경기 용어 순화 연구(보고서). 문화체육부.
- 민현식(1999). 사할린 동포의 한국어 의식조사 연구: 98'사할린한국어교원연수보고서2. <한국어 교육> 10권 1호.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 민현식(2001). 국어 순화의 회고와 전망. 남북 언어학자 학술회의 논문집. 국립국어연구원.
- 민현식(2002). 국어 의식 조사 연구: 모어 및 외국어 의식과 외국인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호감도 조사. <한국어 교육> 13권 1호.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 민현식(2004). 국어문화에 나타난 종교문화의 요소. <한국언어문화학> 1권 2호. 국제한국어언어문화학회. 89-118쪽.
- 민현식(2005). 매체 변화 시대의 국어 정책 및 교육의 방향. <새국어생활> 15권 제2호. 국립국어원.
- 박갑수(1977). 국어 순화 운동의 현황과 전망. <어문연구> 15·16호. 일조각.
- 박갑수(1981). 언어 정책과 국어 순화. <어문연구> 29호 일조각
- 박갑수(1984). 국어의표현과 순화론.<국어와 국어 교육의 제문제>. 지학사

- 박갑수(1994). 신어의 실상과 그 순화 방안. 한국어 연구 논문 40. KBS 한국어연구회.
- 박갑수(1997). 법률 문장 순화돼야 한다. <새국어생활> 7-4. 국립국어연구원.
- 박갑수(1997). 법률 용어와 문장의 순화. <한글사랑> 5. 한글사랑사.
- 박갑수(1997). 현대 문학과 국어 순화. <한글사랑> 6. 한글사랑사.
- 박갑천(1976). 오염된국어: 그 순화를 위한 길: 국민정신의 형성을 위한 국어 순화의 중요성. <세대> 155호. 세대사
- 박갑천 외(1976). 용어통일과 그 실천 방안: 국어 순화와언 론계<좌담>. <신문과 방송> 72호(11월). 한국신문연구소
- 박경현(1983). 국어 사용의식의 진단과 대책: 새마을운동의 정신 계발적 측면을 중심으로. <논문집> 2. 경찰대학.
- 박경현(1984). 국민정신 계발과 국어 순화. <논문집.> 3. 한국방송통신대학
- 박대중(2009). 용비어천가의 국어. <한글+한자 문화> 123권(10월호). 88-90쪽.
- 박동근(2013). 매체 변화에 따른 언어 사용 방식의 변화. <새국어생활> 23권 1호. 국립국어원.
- 박병채(1977). 국어 순화 운동의 실천 방안에 대한 고찰. <민족문화연구> 11.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 박병채(1988). 국어 운동의대상과 방향. <나라사랑> 66. 외솔회.
- 박봉재(1990). 우리말글 펴기의 일반과 실제: 국어 순화를 중심으로. 국어 교육논지. 16('90.2) 대구교육대학국어 교육과
- 박서형(2011). 텔레비전 방송 언어의 오용 사례 연구: 1박2일과 드림하이를 대상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의(1970). <일제하의 언어 문자 정책>. 민중서관.
- 박성의(1977). 국어 순화 운동의 리념. <민족문화연구> 11.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 박순운(1990). 알고 써야 바른글 고운말; 국어 순화 운동. <말과글> 45. 한국 교열기자회
- 박영자(2003). 언어 사용 실태분석을 통한 국어 순화방안: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충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환(1997). 농업 과학 용어의 국어 표현 및 순화를 위한 기초 연구. 농업과학논문집 39. 농촌진흥청.
- 박영환(2001). 국어 문법의 단순화 현상. <한남어문학> 25. 한남대 국어국문학회.
- 박용규(1976). 국어 순화와 외래어 표기 통일 방안. <저널리즘> 10. 한국기자협회
- 박용규(2008). 1930년대 한글 운동에서의 이극로의 역할. <사학연구> 92호. 한국사학회.
- 박용규(2008). 일제강점기 한글 운동에서의 신명균의 위상. <민족문화사연구> 38호. 민족문화사학회 민족문화사연구소.
- 박용규(2009). 일제강점기 이극로의 민족운동 연구: 한글 운동을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규(2009). 해방 후 한글 운동에서의 이극로의 위상. <동양학> 45집. 동양학연구소.
- 박용찬(2005). '우리말다듬기'사이트의 운영 내용 및 성과. <새국어생활> 15권 1호. 국립국어원. 37-57쪽.
- 박용찬(2011). 누리꾼 참여형 국어 순화방식의 성과와 개선 방향. <새국어생활> 21권 2호. 국립국어원. 19-59쪽.

- 박우야전(1988). 초등학교에서의 국어 순화 운동의 방안. <부산교육> 246. 부산직할시 교육연구원. 75-82쪽.
- 박은주(2006). 방송 언어의 높임법 오용 실태에 대한 연구.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인환(1994). 보도 용어 순화(신문편). <말과글> 58. 한국교열기자회.
- 박재승(2003). 국어과 교과서의 국어 순화 내용에 대한 연구. <교육연구논총> 24권 1호. 충북대학교교육개발연구소
- 박재승(2003). 국어과 교과서의 국어 순화 내용에 대한 연구. <교육연구논총> 24권 1호. 충북대학교교육개발연구소 111-127
- 박재승(2009). 시민의식의 발전과 국어 교육의 방향에 대한 연구. <새국어 교육> 81호. 한국국어 교육학회.
- 박정우(2001). 일제 하 언어 민족주의: 식민지시기 문맹퇴치 한글 보급운동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종국(1996/2009: 증보판). 한국어발달사. 세종학연구원. 624-653쪽.
- 박지홍(1983). 국어 운동의 새방향 모색; 일선대학생들을 위해. <한글새소식> 128. 한글학회.
- 박지홍(1993). 우리는 왜 국어 순화를 해야 하나?. <말과 글과 더불어 50년>. 과학사.
- 박태권(1970). 이조 실학과 학자들의 학설이 국어학에 미친 영향: 신경준의 어학설을 중심으로. <논문집> 11. 부산대학교. 1-23쪽.
- 방중현(1948). <훈민정음통사>. 일성당서점.
- 백두현(2001). 조선 시대의 한글 보급과 실용에 관한 연구. <진단학보> 92. 진단학회. 193-219쪽.
- 백두현(2004).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생활 연구-한글 편지와 한글 고문서를 중심으로. <어문논총> 42. 한국문학언어학회. 39-85쪽.
- 백두현(2011). 한글 편지로 본 조선 시대 선비의 삶. 역락.
- 백락준(1953). 한글 운동의 방향; 한글날을 맞이하여. <사상계> 1권 7호. 사상계사.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1988). <조선문화사>.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미래사 영인:1988).
- 사회문화연구소 편(1993). 사회 운동론. 사회문화연구소.
- 서정범(1976). 잘못 알고 잘못 쓰고 있는 말들: 학교에서의 국어 순화교육. <교육평론> 213. 교육평론사.
- 서정수(1994). 남북 전산 용어 순화 현황 및 통일 방안에 관하여. <Korean 컴퓨터 처리 국제 학술대회 자료집>. 중국 연길.
- 성순모(1975). 한글문화운동을 통해 본 한글학회. 성신여자사범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혜련(2010). 방송 언어 위반 실태 분석과 대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세희(2001). 방송 프로그램 제목에 나타난 국어. 외래어 사용 실태와 그에 대한 방송현업인의 태도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지영(2003). 국어 순화교육에 관한 연구: 그 현황과 대안을 중심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희하(1995). 전산기 문서 작성과 한글 맞춤법. <국어와 국어 교육>. 박이정
- 송기중(1999). 언어 정책. <세계의 언어 정책>(국어학회 편). 태학사.

- 송철의(1998). 외래어의 순화 방안과 수용 대책. <새국어생활> 8-2. 국립국어연구원.
- 송현(1982). <한글기계화운동>. 인물연구소.
- 수도여자사범대학출판부(19uu). 국어 순화총서. 수도여자사범대학출판부
- 신계식(1976). 국어 순화의 길: '딕수상고' '우리말 지켜쓰기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수도교육> 22호(12월).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 신영철(1988). 국어 순화교육방안. <국어 교육> 63·64합집. 한국국어 교육연구회. 453-464쪽.
- 신지영·정희창(2012). 방송 언어의 품격 논란과 그 지향점. <방송 언어의 품격. 어떻게 해야 하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SBS.
- 심재기(2001). 서재필과 한글발전운동. <관악어문연구> 26집. 서울대학교국어국문학과.
- 심지연(2006). 국어 순화어의 생성과 정착에 대하여. <한국어학> 30호. 한국어학회. 159-180쪽.
- 안대회(2004). 조선후기 이중 언어텍스트와 그에 관한 논의들. <대동한문학회 2004 하계 발표대회 자료집>. 대동한문학회.
- 안대회(2010). 조선을 사로잡은 끈들. 한겨레출판사.
- 안병희(1983). 한자 교육과 한자정책. <한국어문의 제문제>. 일지사.
- 안병희(1985). 훈민정음 사용에 관한 역사적 연구-창제로부터 19세기까지. <동방학지> 46·47·48 합집. 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 793-821쪽.
- 안병희(1992). <국어사 연구>. 문학과 지성사.
- 안병희(2009). <국어사 문헌 연구>. 신구문화사.
- 안승덕(1981). 국어 순화와 한자 교육. <어문연구> 29호. 일조각
- 어문교육연구회(1976). 국어 순화의 기본 방안: 국어 순화 교육 방안. <교육평론> 212. 교육평론사
- 엘빈 토플러/이규행 역(1995). <제3물결의 정치>. 한국경제신문사.
- 여찬영(2001). 운동 경기 용어의 순화 연구. <한국말글학> 18. 한국말글학회.
- 오길록 외(1994). <한글공학>. 대영사.
- 오남렬(1993). 방송 보도 용어 순화 방안. <말과글> 57. 한국교열기자회.
- 오동춘(1980). 국어 순화에 대하여. <신문과 방송> 120호. 한국신문연구소
- 오미영(2003). 방송 진행언어 모델 확립방안 연구. <방송·통신 언어 개선 방안>. KBS.
- 오은진(2012). 국어 순화를 위한 교수·학습방법연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지호(1976). 국어 순화. 어떻게 할 것인가: 국어 순화 운동은 원인치료부터 해야 한다. <세대> 156호. 세대사 230-243쪽.
- 오현아(2004). 국어 순화 태도형성을 위한 교육내용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구상(1976). 대중전달에서의 외래어: 국어의 현실과 순화 방안<특집>. <교육평론> 211. 교육평론사.
- 유만근(1977). 국어 순화를 위한 국어발음의 중요 문제 연구. 장모음과 '사이된소리를 중심으로. <응용언어학> 9권 1호. 서울대학교어학연구소.
- 유목상(1973). 국어 순화의 길: 민족어의 보전을 위한 식자에의 제언. <문리대학보> 32. 중앙대학교문리과대학.

- 유목상(1976). 국어 순화의 방향과 전망. <어문연구> 12호 일조각
- 유원명(1976). 국어 순화를 위한 사투리 교정 방법. <문교경북> 54.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 유재원(2005). 국어 순화.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 <새국어생활> 15권1호(봄). 국립국어원 7-17쪽.
- 윤중호외(1988). 내가 생각하는 국어 순화. <국어생활> 14. 국어연구소.
- 윤기호(1997). 남북한의 국어 순화에 관한 비교연구. 중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영미(2000). 방송 언어 오용 사례의 장르, 채널, 직업별 분석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의순(1995). 일어의 잔재와 국어 순화; '우리말 도로 찾기'의 실상. <국어 교육연구> 7. 하대학교 사범대학 19-36
- 윤진혜(2005). 방송 언어의 오용 실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강노(1976). 국어 순화의 기본 이론. <광장> 38. 세계평화교수아카데미사무국. 28-31쪽.
- 이강로(1976). 국어 순화교육의 기본 방향. <교육경기> 262. 경기도교육위원회
- 이경복(1976). 외국어가관치는국어의현실:국어의현실과순화방안<특집>. <교육평론> 211. 교육평론사
- 이관규(2005). 한국의 국어 정책과 국어 교육. 그리고 국어 운동. <국어 교육> 117호. 한국어 교육학회.
- 이광석 편(2007). 국어책임관제도의 활성화 및 한국어 진흥재단 설립방안. 국립국어원.
- 이광제(2011). 한국における국어 순화 운동と일본어계차용어. <한림일본학> 19집. 한림대학교일본학연구소 187-214.
- 이극로(1932). 중국은 표의문자에서 표음문자로. <한글> 1권 3호. 한글학회.
- 이극로(1935). 한글 운동. <신동아> 5권 1호.
- 이근수(1979). 조선조의 국어 정책사. <논문집> 3호. 한성대학교.
- 이근수(1987). <조선조의 어문 정책 연구(개정판)>. 흥익대 출판부.
- 이근수(1988). 국어와 언어의식: 고대에서의 모태의식을 중심으로. <흥익어문> 7. 흥익대학교 사범대학 흥익어문연구회.
- 이기문(1963). 국어 운동의 반성: <국어백서>의 준비를 제의한다. <사상계> 11권 1호. 사상계사.
- 이기문(1970). <개화기의 국문 연구>. 일조각.
- 이기문(1976). 국어 순화와 외래어 문제. <어문연구> 12호. 일조각
- 이기문(1984). 개화기의 국문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 5.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65-84쪽.
- 이기백(1976). 국어개발과 언어순화. <문교경북> 54.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 이기백(1981). 국어 순화와 국어의 효용. <어문연구> 29호 일조각.
- 이길록(1988). 국어학연구와 국어 운동의 관계. <나라사랑> 66. 외솔회.
- 이길표·최배영(1996). 규합총서의 내용구성 분석. <생활문화연구> 10. 73-88쪽.
- 이남호(2005). 국어 순화는 국어풍요가 되어야 한다. <새국어생활> 15권 1호(봄). 국립국어원 89-101쪽.
- 이대로(2008). 우리말글 독립운동의 발자취. 지식산업사.
- 이대로(2010).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한글로만 쓴 교과서: 험버트가 쓴 '스민필지'의 의미와

- 가치. <한글 주간 2010 한글날 564돌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한국인보다 한글을 더 사랑한 미국인 헐버트). (사)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39-62쪽.
- 이동범·이상곤(2010). 국어 순화어 실태조사 기의 설계 및 구현. <학술발표논문집(C)> 37권 2호 (가을) 한국정보과학회.
- 이동석(2006). 신문 방송 언어의 실태와 언어 규범. <한국어학> 33집. 한국어학회.
- 이동석(2011). 국어 순화 결과 분석 및 방법론 제언. <새국어생활> 21권 2호. 국립국어원
- 이동철(1981). 꼬방동네 사람들. 서울미디어. 재수록: 이철용(1989). 이철용전집. 동광출판사.
- 이동환(1992).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의 한국어 경제론. <등불> 5호. 국어정보학회.
- 이명구(1976). 한국인의 언어실태와 국어 순화 운동. <국민회의보> 14. 통일주체국민회의 사무처.
- 이명구(2007). 이야기 한국고전문학사. 박이정.
- 이봉호(1977). 국어 순화는 어디까지 왔다. <교육춘추> 1-9. 한국능력개발연구원
- 이병찬(1988). 독일의 국어 순화 운동. <국어생활> 14. 국어연구소.
- 이삼규(1995). 미흡한 '일본어투 순화'. <말과글> 65. 한국교열기자회.
- 이상태(1978/1993). <국어 교육의 길잡이>. 한신문화사.
- 이상혁(2000). 애국 계몽기의 국어 의식 : 당대 연구자들의 국어관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41. 안암어문학회.
- 이상혁(2004가). <조선 후기 훈민정음 연구의 역사적 변천>. 역락.
- 이상혁(2004나). <훈민정음과 국어연구>. 역락.
- 이상현(1999).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역사학: 역사학의 실용성 문제.<역사교육> 70. 역사교육연구회.
- 이석주(1998). 현대 국어 표현 양상 -오용 표현의 일반화 현상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학회지>. 한국어 교육학회. 151-177쪽.
- 이석주·이주행(2007). 한국어학 개론. 보고서.
- 이선근(1969). 토이기의 문자개혁과 언어정화운동. <한글> 143. 한글학회.
- 이선영(1997). 상호·상표 분야의 외래어 사용 실태와 순화 방안. 외래어 사용 실태와 국민 언어 순화 방안. 국어학회.
- 이선영(2010). 중학생의 국어 순화를 위한 <생활국어> 교과서의내용구성연구. 서울시립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2003). 프로그램 유형별 방송 자막의 활용 현황과 그 문제점에 관한 연구 : 공중과 방송 3社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열(1995). 국어 산책-국어 사전과 국어 순화-. <새국어생활> 5-1. 국립국어연구원.
- 이수열(1995). 국어사전과 국어 순화. <말과글> 64. 한국 교열기자회. 64-70
- 이수정(2011). 상품이름 실태조사를 통한 국어 순화방안연구. 충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례(2007). 언어 사용 실태 분석을 통한 국어 순화 지도 방안: 초등학교1학년을 중심으로. 충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숙(1987). 근대일본의 '국어'개념의 성립. <일본학보> 19집.
- 이영은(2010). 방송 언어의 외래어 사용 실태 조사와 순화 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용욱(1976). 언어순화를어떻게할것인가:국어 순화교육방안. <교육평론> 212. 교육평론사
- 이운재(1932가). 한글 운동의 회고(1). 동아일보 1932.10.29. 5쪽. 동아일보사.
- 이운재(1932나). 한글 운동의 회고(2). 동아일보 1932.10.30. 5쪽. 동아일보사.
- 이운재(1932다). 한글 운동의 회고(3). 동아일보 1932.11.1. 5쪽. 동아일보사.
- 이운재(1932라). 한글 운동의 회고(4). 동아일보 1932.11.2. 5쪽. 동아일보사.
- 이윤표(1991). 북한의 국어 순화사.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 2. 녹진.
- 이은미(2003). 방송 언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텔레비전 연예·오락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정 편(1991). 국어 순화 자료집. 국어문화사.
- 이은정(1991). 국어 순화자료집. 국어문화사
- 이은정(1995). 남북한의 국어 순화 사업 고찰. <말과글> 62. 한국교열기자회.
- 이을환(1978).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국어 순화 방안 연구. <논문집> 18. 숙명여자대학교
- 이용백(1976). 국어 순화의 원리. <선청어문> 7. 서울대학교사범대학국어 교육과
- 이용백(1982). 국어 순화의 길; 방송에서 흘러나온 말들을 중심으로. <수도교육> 72.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 이용백(1997). 방송 언어와 국어생활. 국어와 민족문화. 청문각.
- 이용백(1976). 언어생활의 새로운 방향:국어 순화교육방안. <교육평론> 212. 교육평론사
- 이용호(1975가). 개화기 한글 운동사 연구: 민족적 자각과 그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명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용호(1975나). <개화기의 한글 운동사>. 성청사
- 이용호(1992). '한글 운동'분야에 대하여. <한글> 216. 한글학회.
- 이용호(1995). 한글 성경 번역사. <교화와 한국문제> 26호. 기독교한국문제연구회. 59-64쪽.
- 이용호(1995). '한글 운동'분야에 대하여. <한글> 230. 한글학회.
- 이의도(1991). 말다듬기의 가능성과 방법. <미원 우인섭 선생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
- 이재만(1984). 초등학교 교사의 국어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논문집> 25. 광주교육대학.
- 이재승(2007). 국어원은 양심의 자유를 상상할 수 있을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바뀌야 한다고 제안한 것은 심각한 문화지체: 양심이 양심인 까닭은 표준을 거부하기 때문. 국어 순화 운동대상이 아냐. <한겨레21> 651호. 한겨레신문사
- 이재원(1997). 국어 순화의 한 고찰-일본어 사용 억제를 중심으로-. <논문집> 2. 한국체육대 교양교육연구소.
- 이재원(1997). 국어 순화의 한 고찰: 일본어 사용 억제를 중심으로. <교양교육논문집> 2. 한국체육대학교교양교육연구소. 79-99쪽.
- 이재정(2008). <조선출판주식회사>. 안티쿠스.
- 이재형(2004).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와 신미의 역할. <불교문화연구> 4. 한국불교문화학회. 137-156쪽.
- 이전문(1993). 언론의 사회화 기능과 보도 용어 순화 방안. <말과글> 56. 한국교열기자회.
- 이정복 외(1997). 외래어 사용 실태와 국민 언어 순화 방안. 국어학회.

- 이정복(1997). 컴퓨터 통신 분야의 외래어 및 약어 사용 실태와 순화 방안. <외래어 사용 실태와 국민 언어 순화 방안>. 국어학회.
- 이정복(2003). 사회언어학에서 본 국어 순화의 문제점. <사회언어학> 11권 2호. 한국사회언어학회. 187-214쪽.
- 이주행(1995). 방송 출연자의 언어 사용 양상. 한국국어 교육연구회.
- 이주행(2003). 방송 언어의 문제와 개선 방안 연구. <방송·통신 언어 개선 방안>. KBS.
- 이주행(2004). 방송 언어문화에 대한 고찰. <언어과학연구> 31집. 언어과학회.
- 이주행(2005). 방송 언어의 평가지수에 관한 연구. <화법 연구> 8. 한국화법학회.
- 이준삼(2010). 방송기사 문장의 오남용 사례 분석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준식(1994). 외솔과 조선어학회의 한글 운동. <현상과 인식> 62. 한국인문사회과학원.
- 이준희(1994). 남북 전산 용어 순화 현황과 통일안에 관하여. 연변학술대회발표집. 국어정보학회.
- 이준희/정내권(1991). <컴퓨터 속의 한글>. 정보시대.
- 이충우(1994). 국어 순화 어휘의 양면성. <국어학연구>(남천 박갑수선생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이하준(1989). 항일기 민족운동으로서의 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 명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경(1992). 방송 언어와 국어 순화방안에 대한 연구: 방송극 '사랑이 뭐길래'의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복(1981). 외국의 국어 운동의 양상. <수도교육> 66.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 이현복(2010). 헬버트 박사의 조선 말글에 대한 선구적 소개와 소개 활동. <한글 주간 2010 한글날 564돌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한국인보다 한글을 더 사랑한 미국인 헬버트). (사)헬버트박사기념사업회. 63-75쪽.
- 이현희(1996). 중세 국어 자료(한글 문헌).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 1. 국립국어연구원. 210-524쪽.
- 이혜령(2004). 한글 운동과 근대미디어. <대동문화연구> 47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 이혜령(2005). 한글 운동과 근대어 이데올로기. <역사비평> 71호. 역사비평사.
- 이혜령(2009). 식민지조선의 한글 운동이 던지는 현재적 물음. <현대문학> 656호. 현대문학.
- 이호권(2008). 조선시대 한글 문헌 간행의 시기별 경향과 특징. <한국어학> 41. 한국어학회.
- 임규홍(2000). <우리말 올바르게 공부하기>. 한국문화사.
- 임두학(1994). 국어 순화와 관련된 일간 신문 기사 분석. <어문논집> 23. 중앙대 국어국문학과.
- 임태섭(2001). 방송 언어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 <방송 프로그램 언어 분석 연구>. 방송위원회 언어조사부.
- 장경희(1991). 신문. 잡지. 방송의 국어 오용 사례 조사 보고서. 국어 순화문화가족. 국립국어연구원.

- 장소원(2000). 방송인의 언어 사용 실태와 문제점 : 보도프로그램의 경우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51호. 255-283쪽.
- 장소원·남영신(2011). 방송 언어개선을 위한 방송글쓰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장하일(1976). 표준말 재사정에 대하여: 국어의 현실과 순화방안<특집>. <교육평론> 211. 교육평론사.
- 전규태(1981). 국어 순화 운동의 어제.오늘.내일. <나라사랑> 38. 외솔회 37-48쪽.
- 전문수(1976). 국어 순화교육계획수립의 바람직한 방향. <문교경북> 54.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 전수태(1992). 북한 말다듬기의 방침과 성과. <월간 통일> 12월호. 민족통일중앙협의회.
- 전택부(1954). 독립투쟁사상에서 본 한글 운동의 위치. <사상계> 2권 6호. 사상계사.
- 전택부(1977). 언론과 국어 순화. <나라사랑> 26. 외솔회
- 전택부(1980). 기독교와 한글. <나라사랑> 36집. 외솔회. 130-144쪽.
- 정경일(1997). 북한의 언어 현실 얼마나 달라졌나? -말다듬기 어떻게 했나?-. <월간동화> 10-12.
- 정경일(1998). 말다듬기로 달라진 말들 -북한의 언어 현실 얼마나 달라졌나?-. <월간동화> 11-1.
- 정경일(2010). 국어 의식과 외래학문의 영향. <어문논집> 61집. 민족어문학회.
- 정두희(2003). 정약종의 <주교요지>가 한국 사상사에 미친 영향. <교회사연구> 22집. 한국교회사연구소. 221-235쪽.
- 정명숙(1998). 국어 자음군 단순화 현상에 대한 상응 이론 설명. <한국어학> 7. 한국어학회.
- 정상호(2004). 대도시와 소도시의 간판어 실태분석을 통한 국어 순화방안연구.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수희(2007). 방송 언어의 규범과 언어 변화. <이화어문논집> 24·25집. 이화어문학회.
- 정우상(1999). 언어·사고와 국어 순화. <어문연구> 27-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정인섭(1976). 국어 순화의 바른 길:오지호씨의 국어 순화론을 반박한다. <세대> 157호. 세대사. 192-205쪽.
- 정인섭(1988). 국어 운동과 외솔의 위치. <나라사랑> 66. 외솔회.
- 정인승(1973). 한글 운동과 이운재선생: 교육·한글 운동을 통한 애국 활동. <나라사랑> 3.4. 외솔회.
- 정인승(1977). 국어 운동사에서 본 외솔. <나라사랑> 26. 외솔회.
- 정재도(1976). 아직도 남아 있는 왜식말: 국어의 현실과 순화방안<특집>. <교육평론> 211. 교육평론사.
- 정재영(2000). 정조대의 한글 문헌. 문헌과해석사.
- 정재훈(1976). 문교부 국어 순화 교육 지침: 국어의 현실과 순화방안<특집>. <교육평론> 211. 교육평론사
- 정진배(1995). 한·중 근대 언어 운동과 보편성 논리의 재고. <말> 20. 연세대학교 연세어학원 한국어학당.
- 정현선(2005). 디지털 매체 시대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 <새국어생활> 15권 2호. 국립국어

- 원.
- 정혜리(2011).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의 비표준어 방송자막에 대한 연구 : 제3자 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호성 (2000). <표준국어대사전> 수록 정보의 통계적 분석. <새국어생활> 10권 1호. 한국국어 교육학회.
- 정희원(2003). 공공부문언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새국어생활> 13권 2호. 국립국어연구원.
- 조병상(1983). 국어 순화와 그 실천지도의 방안. 조선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문(2000). 최적성 이론에 의한 자음군 단순화 현상의 방언 차이 분석. 사회 언어학 8-1. 한국사회 언어학회.
- 조태린(2006). '국어'라는 용어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학> 48집. 국어학회.
- 조태린(2009). 근대 국어 의식 형성의 보편성과 특수성 : 언어와 국민사이의 관계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39집. 한국언어문화학회.
- 조태린(2012). 인문학으로서의 국어 연구의 대중화·실용화 : 언어 정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어문학> 115호. 한국어문학회.
- 조혜정(1996). 인터넷 언어 한글은 왜 안되나. <NEWS+>. 3.14. 동아일보사.
- 주영하·옥영정·전경목·윤진영·이정원(2008). 조선시대 책의 문화사. 휴머니스트.
- 주종진(1999). 초등학교 교과서에 사용하는 용어 조사: 국어 순화 대상 용어를 중심으로. <청람어문학> 21. 청람어문학회
- 지영배(1976). 국어 순화와 언어정화. 문교경북 54('76.10)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 지제근(2011). 의학용어순화의 실태와 문제점. <새국어생활>. 21권 2호(여름) 국립국어원 105-121쪽.
- 진태하(1988). 국어 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제언. <새국어 교육> 43-44합집. 한국국어 교육학회.
- 차인태(2002). 방송 언어 관계자(제작자, 출연자, 작가 등)의 언어 자질 향상 방안 연구. <방송 언어 사용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방송위원회.
- 천기석(1987). 국어 운동동사의 통사 의미론적 분석. <어문론총> 21.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 천세욱(2003). 통신 언어 사용 실태분석을 통한 국어 순화방안: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충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봉(2007). 국어 순화의 이데올로기. <말과 글>. 112호(가을).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91-95쪽.
- 최경봉(2012). 조선어학회의 수난과 현대 한국어의 발전. 조선어학회 수난 70돌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121-137쪽.
- 최경봉(2012). <한글민주주의>. 책과함께.
- 최경봉·시정곤·박영준(2008). 한글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책과함께.
- 최규일(1995). 방송과 신문에 나타난 일본식 말 순화-일본식 용어 사용을 삼가자-. <새국어생활> 5-4. 국립국어연구원.
- 최기호(1965). 한글 운동의 사적 고찰: 한글 전용을 위한 투쟁을 중심으로. <연세어문학> 1집. 연세대학교국어국문학과.

- 최범훈(1990). <韓國語 發達史>. 경운출판사.
- 최세화(1980). 국어 순화 운동의 반성. <교육문제연구> 1. 동국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 37-42쪽.
- 최용기(2001). 광복 이후 외래어투 순화 실태와 문제점. <세계 속의 한국어 어휘 구성의 특징과 어휘 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 중국 중앙민족대학. 조선학연구소
- 최용기(2001). 문화재 용어 순화 : 고고학 분야. <새국어소식> 32. 한국어세계화재단 · 국립국어연구원.
- 최용기(2001). 문화재 용어 순화 : 민속학 용어. <새국어소식> 33. 한국어세계화재단 · 국립국어연구원.
- 최용기(2002). 통일시대의 국어 순화. <한말연구> 11호. 한말연구학회.
- 최용기(2003). 국어 순화 자료집 합본: 1991년부터 2002년까지. 국립국어연구원
- 최윤락(1997). 우리말과 방송-국어 순화와 세계화의 두 가지 과제-. <말과글> 71. 한국교열기자회.
- 최은주(2003). 방송 언어와 언어교육: 방송 언어의 오용 실태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인영(1982). 국어 순화에 대한 문제점. 외래어 및 외국어 표기의 혼란. <나라사랑> 43. 외솔회.
- 최정후·박재수(1999). <주체적 언어론 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박이정 영인본 2000년).
- 최태영(1993). 남북한 언어 순화 방안. 통일연구 1. 숭실대 통일문제연구소.
- 최태호(1976). 국어 순화와 교육유신:학교에서의 국어 순화 교육. <교육평론> 213. 교육평론사. 43-45쪽.
- 최현배(1937). <한글의 바른 길>. 조선어학회.
- 최현배(1942/1961).<고친 한글갈>. 정음문화사.
- 최현배(1954). <한글의 투쟁>. 정음사.
- 최현배(1976). 국어 운동의 기본목표: 국어 순화 교육 방안. <교육평론> 212 교육평론사
- 최현배(1976). 국어 운동의 기본목표: 학교에서의 국어 순화교육. <교육평론> 213. 교육평론사
- 최현배(1979). 한글 운동의 바른 길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나라사랑> 35. 외솔회.
- 최현정(1997). 미시사의 방법론과 그 가능성. 서강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파울루 프레이리/남경태 역(2002). <페다고지>. 그린비.
- 하영희(2008). 양반의 사생활. 푸른역사.
- 한갑수(1976). 국어 순화의길. <새농민> 17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2-24
- 한국교열기자회(1982). 국어 순화의 이론과 실제. 일지사
- 한국교열기자회(1998). 보도 용어 순화 자료집.
- 한국국어 교육학회(1987). 국어 순화와 그 방향; 문자·어휘사용의 일원화와 그 한계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1('87.6) 국어연구소 621-650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79). <국어의순화와 교육>.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4). <국어 순화교육>. 고려원
- 한글학회(1935). 한글통일운동에 대한 반대 음모공개장. <한글> 3권 3호. 한글학회.

- 한영목(1996). 우리 말과 글의 순화. 충대신문 773호. 충남대 신문사.
- 한재영(1991). 신문. 잡지. 방송의 국어 오용 사례 조사 보고서. 신문. 잡지. 방송의 국어 오용 사례 조사 보고서. 국어 순화문화가족.
- 한재영(2004). 한글 옛 文獻 情報 調査 研究-16世紀의 國語資料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2권 4호(겨울).
- 한정자(2001). 간판어 실태 분석을 통한 국어 순화 방안 연구. 충북대 교육대학원. 석사.
- 한태동(2003). <세종대의 음성학>. 연세대 출판부.
- 함진규(1993). 보도 용어 순화-신문과 방송인이 함께-. <말과글> 57. 한국교열기자회.
- 허경진(2003). <사대부 소대헌 호헌재 부부의 일대기>. 푸른역사.
- 허만길(1976). 중고등학생의 국어 순화 방안: 학교에서의 국어 순화교육. <교육평론> 213. 교육평론사.
- 허만길(1981). 이름말로 본 국어 순화 실태<특집>. <수도교육> 66.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 허웅(1974). <한글과 민족 문화>.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허웅(1976). 말의 잡초를 뽑아내자: 국어 순화교육 방안. <교육평론> 212. 교육평론사.
- 허웅(1977). 국어 순화는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나?. <민족문화연구> 1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허웅(1977). 국어 순화는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나?. <민족문화연구> 1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허웅(1980). 세종의 언어 정책과 국어 순화정신. <교육문제연구> 1. 동국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
- 허웅(1983). <국어학>. 샘문화사.
- 허재영(2002). 어문 정책과 어문 운동의 개념과 대상. <겨레어문학> 29집. 겨레어문학회. 201-223쪽.
- 허재영(2003). 근대 계몽기의 어문문제와 어문 운동의 흐름. <국어 교육연구> 11집. 서울대학교국어 교육연구소.
- 허재영(2004). 근대 계몽기 이후 문맹퇴치 및 계몽운동의 흐름. <국어 교육연구> 13집. 서울대학교국어 교육연구소.
- 허재영(2008). 어문생활사 연구 대상과 방법. <우리말글> 42. 우리말글학회. 135-153쪽.
- 허철구(1993). 남북한 국어 순화의 비교. <말과글> 54. 한국교열기자회.
- 홍경표(1982). 국어 순화 운동의 허실. <민족통일>. 민족통일촉진회 21-27
- 홍기원(2004). 인목대비의 서궁일기. 민속원.
- 홍순숙(1983). 국어 순화의 실태와 그 지도 대책: 중학교 2학년 표현력 지도를 중심으로. 교육연구논문집. 5.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 홍승오(1988). 불어의 순화 운동. <국어생활> 14. 국어연구소
- 홍윤기·서희정(2010). 한국어 교육에서 고유어의 위상과 등급화- 고유어 용언을 중심으로 -. <국어 교육> 132호. 국어 교육학회.
- 홍윤표(1993). <국어사 문헌자료 연구: 근대편 1>. 태학사.
- 홍윤표(2008). 한국 어문생활사. <제2회 한국어학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어학회. 336-359쪽.
- 홍윤표(2011). 종교와 관련된 한글 문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쉽표. 마침표> 64호.

- (국립국어원 소식지). 국립국어원.
- 홍재걸(1976). 국어 순화 운동의사적의의와전망:국어 순화와언어교육<특집>. 교대춘추. 10('76.12) 대구교육대학 82-94
- 황병순(1997). 국어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어 순화와 세계화의 두 가지 과제. <말과 글> 70. 한국 교열기자회. 85-103
- 황성규(2003). 언어생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장치의 필요성. <새국어생활> 13권 2호. 국립국어연구원.
- KBS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회 편(1998). <방송 언어 순화 자료집>. KBS.
- KBS한국어연구회(1987). <방송과 표준 한국어>. 한국방송공사
- 小倉進平(1920). 朝鮮語學史 경성: 大阪屋號書店.
- 小倉進平(1940). 增訂 朝鮮語學史. 동경: 刀江書院.

- 사전과 자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 편찬실(2009). <한국어대사전 1·2·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교육부(1997ㄱ). 국어과 교육 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 교육부(1997ㄴ). 7차 고등학교 국어과 해설.
- 교육인적자원부(2007). 고등학교 교육 과정 (I).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 교육과학기술부 (2008ㄱ). 중학교 교육 과정 해설(II).
- 교육과학기술부(2008ㄴ). 고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2 국어.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
- 교육과학기술부(2009). 고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 국어.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 교육과학기술부(2010). 국어과 교육 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41호.
- 교육과학기술부(2011). 국어과 교육 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 국립국어연구원(1991). 국어 순화자료집.1977-1991.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1991). 상호. 상품 이름. 아파트 이름 등의 광고에 나타난 국어 사용의 실태 조사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1991). 지하철 내 방송 순화. <새국어생활> 1-2.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1994). 국어 순화 자료집.
- 국립국어연구원(1994). 국어 순화자료집1993.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1994). 국어 순화자료집1994.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1995). 국어 순화 자료집.
- 국립국어연구원(1995). 국어 순화자료집1995.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1996-99).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 1-4.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1999). 국어 순화 자료집.
- 국립국어연구원(2000). 국어 순화 자료집.
- 국립국어연구원(2000). 언론 외래어 순화 자료집.
- 국립국어연구원(2001). 국어 순화 자료집 2001.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2001). 언론 외래어 순화 자료집.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연구원(2003). 국어 순화실천 방안마련을 위한 학술대회.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연구원(2003). 국어 순화정책연구보고서.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연구원(2003). 우리말글의 위기. 이대로 둘 것인가?: <국어 순화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대회>.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원(2009ㄱ). <바르고 쉬운 공공언어>.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2009ㄴ). <한눈에 알아보는 공문서 바로 쓰기>.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2012ㄱ).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2012ㄴ). 오염된 청소년 언어 이렇게 개선했어요 - 2012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수기 공모전 수상작 모음. 국립국어원.
 문교부(1948). <우리말 도로 찾기>. 조선교학도서.
 문교부(1977). <국어 순화자료>제1집. 문교부.
 문교부(1978). <국어 순화자료>제2집. 문교부.
 문화관광부(1995). <일본어 투 생활 용어 순화집>.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1988). <국어 어문 규정집>.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문화관광부·국립국어연구원(2001). 운동 경기 용어 순화집.
 문화체육관광부(2010). <한글. 아름다운 문장 100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부(1994). 생활 외래어 순화집.
 문화체육부(1995). 일본어투 생활 용어 순화집.
 문화체육부(1996). 국어 순화 용어 자료집.
 문화체육부(1996). 임업 용어 순화 자료집.
 문화체육부(1996). 국어 순화용어자료집. 문화체육부.
 문화체육부(1997). 국어 순화 용어 자료집.
 문화체육부(1997). 국어 순화용어자료집 1997. 문화체육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0). 방송 언어 이용환경 개선 방안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울대국어 교육연구소(1999). <국어 교육학사전>. (주)대교출판.
 연세대언어정보개발연구원편(2005).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한국사회언어학회(2012). <사회언어학 사전>. 소통.
 한글학회(1991).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한글학회(2012). <한글학회 100년사>. 한글학회.

■ 국어 순화 관련 신문·잡지 기사 목록

건설 전문 용어 쉽게 바꾼다 / 건설부. 550개 「순화 대상」 지정. 한국경제 0526:21(1992).
 건설 현장 392개 일본어투 용어 순화 / 문화부 1차 순화안 발표. 한국경제 0514:17(1992).
 경어법과 방송 언어. 방송 언어순화자료 35. KBS 한국어연구회(1991).
 공공 기관 게시판 방송 안내문 알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는다/ 문화부 국어 순화 운동. 동아
 0416. 동아일보사(1991).
 광고 방송 언어에 대한 일 고찰. 방송 언어순화자료 39. KBS 한국어연구회(1992).
 남북 언어 차이 알아보기 쉽게 정리 / ‘국어 순화 자료집’ 출간. 동아 0607. 동아일보사
 (1991).

드라마에 나타나는 호칭. 지칭과 경어법 사용에 관하여. 방송 언어순화자료 39. KBS 한국어연구회(1992).

문법. 의미와 관련한 방송 언어. 방송 언어순화자료 33. KBS 한국어연구회(1991).

문법과 관련한 방송 언어. 방송 언어순화자료 34. KBS 한국어연구회(1991).

문법과 관련한 방송 언어. 방송 언어순화자료 35. KBS 한국어연구회(1991).

문법과 관련한 방송 언어. 방송 언어순화자료 36. KBS 한국어연구회(1992).

문법과 관련한 방송 언어. 방송 언어순화자료 37. KBS 한국어연구회(1992).

문법과 관련한 방송 언어. 방송 언어순화자료 38. KBS 한국어연구회(1992).

문법과 관련한 방송 언어. 방송 언어순화자료 39. KBS 한국어연구회(1992).

미술·건축 외래 용어 우리말로 바꾼다 / 문화부 순화안 확정 발표. 한겨레 0528:10(1992).

미술 용어 쉽게 고친다 / 문화부. 7개 분야 7백 38개 순화안 마련. 중앙 0601:14(1992).

발음 관련 방송 언어. 방송 언어순화자료 33. KBS 한국어연구회(1991).

발음과 관련한 방송 언어. 방송 언어순화자료 34. KBS 한국어연구회(1991).

발음과 관련한 방송 언어. 방송 언어순화자료 35. KBS 한국어연구회(1991).

발음과 관련한 방송 언어. 방송 언어순화자료 36. KBS 한국어연구회(1992).

발음과 관련한 방송 언어. 방송 언어순화자료 37. KBS 한국어연구회(1992).

발음과 관련한 방송 언어. 방송 언어순화자료 38. KBS 한국어연구회(1992).

발음과 관련한 방송 언어. 방송 언어순화자료 39. KBS 한국어연구회(1992).

방송 언어 순화 시급하다 / 원로 연출가 이원경 씨 기고. 동아 0622:11. 동아일보사(1991).

‘방송 언어 순화 필요’ 지적 잇따라. 한겨레 1030:16(1991).

방송 언어와 외래어. 방송 언어순화자료 33. KBS 한국어연구회(1991).

새 한글 맞춤법 용례와 방송 언어. 방송 언어순화자료 33. KBS 한국어연구회(1991).

서울시. 조경 용어 순화키로 / 전문가 도움 받아 쉬운 우리말로 바꿔. 한겨레 1222:13(1992).

세종대왕 탄신 594돌 기념 국어 문제 대토론회 개최 / 5월16일. 국어 순화 국산품 애용 추진회 주최로. 국어 교육월보 1204:2(1991).

어려운 행정 용어 쉽게 풀어 쓴다 / 정부 순화안 구성 딱딱한 한자-외래어 등 없애. 한국 1127:2(1991).

오용 사례. 방송 언어순화자료 31. KBS 한국어연구회(1991).

오용 사례. 방송 언어순화자료 32. KBS 한국어연구회(1991).

외국어가 우리글에 끼친 영향①-영어 번역에 따른 표현 형태를 중심으로-. 방송 언어순화자료 37. KBS 한국어연구회(1992).

외래어 약어의 한국어 표기 및 발음. 방송 언어순화자료 36. KBS 한국어연구회(1992).

외래어 약어의 한국어 표기 및 발음. 방송 언어순화자료 38 별책부록. KBS 한국어연구회(1992).

일제 행정 용어 개선 / 정부. 국어 순화 운동 전개키로. 중앙 0726:2(1991).

잘못 쓰이고 있는 방송 언어. 방송 언어순화자료 31. KBS 한국어연구회(1991).

잘못 쓰이고 있는 방송 언어. 방송 언어순화자료 32. KBS 한국어연구회(1991).

한국어의 발성과 발음. 방송 언어순화자료 34. KBS 한국어연구회(1991).

행정 용어 9천여 개 순화 / 국립국어연(研) 검토 거쳐 11월 시행. 중앙 0606:2(1992).

행정 용어 쉬운 말 쓴다 / 총무처 9천여 개 학계에 순화 의뢰. 세계 0607:2(1992).

행정 용어 쉽게 고쳐 쓴다 / 내달부터 순화 작업 추진키로. 한겨레 1127:14(1991).

행정 용어 쉽게 고친다/정부 '순화위' 구성 한자-외래어 등 우리말로. 경향 1127:2. 경향신문사(1991).

KBS 한국어 연구회 '91년 사업 계획 발표 / 방송을 통한 한국어 순화에 앞장. 국어 교육월보 0501:1(1991).

연구 기관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주경희 (세종대학교)
공동 연구원	김슬옹 (한글학회) 이승연 (세종대학교) 김일환 (고려대학교)
보조 연구원	정운규 (세종대학교 박사과정) 윤성은 (세종대학교 석사과정)
담당 연구원	김형배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국어 진흥 운동의 이론적 기반 연구

발행인	민현식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27
인쇄일	2013년 9월 15일
발행일	2013년 9월 16일